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3

연구보고 07-R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 교수)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 교수)
배지혜(Keio University)
Bahira Sherif(델라웨어대학교 ·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델라웨어대학교)
Bethany Willis Hepp(델라웨어대학교)
Gudrun Quenzel(Institu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Duisburg-Essen · 교수)
Michaela Janotta(Institu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Duisburg-Essen · 교수)
Janina Herrmann(Institut für Soziologie
Universität Duisburg-Essen · 교수)
Hideki Watanabe(Keio University · 교수)
Shigeki Matsuda(Dai-ichi Life Research
Institute Inc.)
Yasuaki Aota(Keio University)
Masayuki Ozawa(Keio University)

연구보조원 : 신정민(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안혜원(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화(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여대, 이화여대,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슬로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전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일본)	Hideki Watanabe 교수	Shigeki Matsuda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배지혜 (게이오 대학) Yasuaki Aota(게이오 대학) Masayuki Ozawa(게이오대학)
	델라웨어 대학교(미국)	Bahira Sherif Trask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 (델라웨어대학) Bethany Willis Hepp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독일)	Gudrun Quenzel 박사	Michaela Janotta (뒤스브르크에센대학) Janina Herrmann (뒤스브르크에센대학)
	남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최연혁 교수	Peter Strandbrink (남스톡홀름 대학)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	박노자(Tikonov) 교수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권인숙(명지대학교)

목 차

I. 서 론

II. 한국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한국사례 #1	7
한국사례 #2	13
한국사례 #3	20
한국사례 #4	27
한국사례 #5	33
한국사례 #6	41
한국사례 #7	53
한국사례 #8	64
한국사례 #9	73
한국사례 #10	91

III. 일본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일본사례 #1	107
일본사례 #2	147
일본사례 #3	175
일본사례 #4	203
일본사례 #5	227

IV. 미국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미국사례 #1	259
미국사례 #2	268
미국사례 #3	284
미국사례 #4	296
미국사례 #5	308

V. 독일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독일사례 #1	323
독일사례 #2	330
독일사례 #3	339
독일사례 #4	346
독일사례 #5	354

VI. 스웨덴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스웨덴사례 #1	371
스웨덴사례 #2	377
스웨덴사례 #3	381
스웨덴사례 #4	386
스웨덴사례 #5	391

VII. 부 록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399
--------------------------	-----

표 목 차

<표 I-1>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4
---------------------------	---

I. 서론

I. 서론

이 자료집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중 2년차인 2007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에 대한 면접조사의 자료 중 일부를 수록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국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외국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사회화과정의 주요 기관(agents)인 부모, 교사, 친구 등 3자간의 관계성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밝혀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계성의 특징을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면접조사결과는 2007년도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의 총괄보고서에서 2007년도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제시되어 있으며, 각국 연구진의 분석논문은 세부과제보고서인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서울 지역거주 부모 36명, 교사 11명과 수도권(서울중심)거주 학생 56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 그리고 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국조사는 총 76명의 학생과 37명의 부모,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중고생과 5명의 부모,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조사는 텔라웨어 지역 26명의 중등학생, 독일조사는 전국 16명의 중등학생, 스웨덴조사는 수도인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총 19명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73명의 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구상

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한 내용들도 있다. 이는 2007년도 연구결과를 통해서 각국 연구로부터 나타나는 의미 있고 상이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2008년도 면접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항목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스웨덴 조사는 완전히 동일한 질문지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조사는 미디어 활용에 관한 내용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일본과 독일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사용한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I -1〉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국가명	표본수	표집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시기	
한국 (1차)	부모	36	서울중심	면접조사	초중고학부모	5월~8월
	교사	11(+학생 3)	서울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5월~8월
	학생	56	전국(서울중심)	면접조사	중고생	5월~8월
한국 (2차)	부모	1	전국	면접조사	중학생부모	9월~10월
	교사	4	전국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9월~10월
	학생	20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9월~10월
일본	부모	5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생부모	8~10월
	교사	3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8~10월
	학생	12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생	8~10월
미국(학생)	26	텔라웨어	면접조사	중고생	6월~8월	
스웨덴(학생)	19	스톡홀름	면접조사	중고생	9월~11월	
독일(학생)	16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8월~10월	

본 자료집에는 총 30개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한국사례 10개,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는 각각 5개를 수록하였다. 일본 사례 2개(부모면접사례)를 제외한 28개의 사례는 모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자료이다.

II. 한국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한국사례 #1

대상자 : 고1, 남, 성적(상), 거주지(목동), 모학력(대졸), 가구소득(중)

Q : 친구의 수? 친구의 요건은?

A : 열 몇 명 정도. 학교친구가 더 많죠. 지역사회에는 없고요. 학원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친구가 그래도 두 번째로 많아요. 교회에서 2명이 여자구요 나머지 다 남자예요... 우리 반 애들은 다 친구죠. 성격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야하고...싫어하는 것도 비슷해야하고, 뭐 꿈이 같다면가..

Q : 친한 친구들과의 유사점은?

A : 서로 대화하다보니까 말을 비슷하게 되고...

Q : 친구되기 전부터 비슷한 애들끼리 만난 걸까요, 아니면 친구 된 후에 서로 비슷해지는 걸까요?

A : 친구가 된 후에 비슷해진다고 봐야죠. 제 친구도 그렇게 됐고.

Q : 친구사이의 의견 수렴 방식은?

A : 다수결이요.

Q :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는?

A : 시험 끝나고 아니면 공휴일에 같이 만나고..PC방이나 노래방이나 운동장가서 놀거나 그래요. 친구들 중에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개네들 따라서 농구도 하면서 놀고...

Q :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게임에 관련된 거요. 아니면 성적에 관련된 거랑 고1이다보니까 애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얘길 하더라구요.

Q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핸드폰/인터넷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A : 주로 집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서로 연락하거나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하죠.

Q : 문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A : 통화료보다 문자가 더 싸서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문자를 더 많이 쓰잖

아요? 통화료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Q : 싸이월드 같은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나요?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 인터넷으로 게임하다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길드 같은 단체가 있는데요 서로 싸이주소 교환해서 서로 싸이 방문하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사귀는 것보다 더 많이 사귄 수가 있어요.

Q : 그럼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었나요?

A : 아니요. 제 친구들이 그렇더라구요. 저는 길드 같은 거 가입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하고 해도 아는 사람 끼리만 하니까...

Q : 방과후 및 휴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과 내용은 어떤가요?

A : 휴일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방과 후에 농구를 한다던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던가 그러구 놀아요

Q : 인기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A : 웃기는 애들, 코믹한 애들... 유쾌하잖아요.

Q : 별로 인기가 없는 친구들은?

A : 너무 나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개성적인 거...애들은 그런 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외향적인거 , 너무 소극적인거, 너무 소극적이면 애들이 신경을 안써요 사실은...너무 잘난 척하거나 그런 거.

Q : 친구와 싸운 적이 있나요? 그 이유?

A : 안 싸웠어요. 중학교때도..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너무 놀리길래.. 너무 말이 없다던가 이상하게 생겼다던가애들이 장난삼아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약해서 굽히기 싫어하니까 ..아이 제 이름이 김진웅이잖아요 그걸 바꾸면 웅진김이라 그러구 웅진썩크빅이라던가 웅진 코웨이 그런 걸로 놀려요...요즘엔 안 그래요

Q : 마음에 맞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A : 그건 말했듯이 성격이 맞는 그런거요. 성격이 맞고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런거요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A : 말씀썬...그러니까 너무 악한 말 았고 상대방을 너무 비방한다던가. 비방은 약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게 비방을 한다던가... 그러지 았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Q : 이성친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귀었는지, 부모님 등 주변의 반응,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성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있었으면 좋겠어요(없어요).
- Q : 그러면 앞으로 사귄 생각은 있나요? 그러지 았다면 왜?
- A :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건) 상대방의 마음이썬. 제가 좋아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귄 마음이 있으면 사귀썬 썬.
-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 A : 취미활동이 가장 중요하썬. 친구들이랑 장기를 둔다던 가 보드게임같은 거 운동같은 거는 베드민턴을 친다던가 공부에 스트레스 쌓이면 그게 필요하지 았아요?
-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는가/ 그 이유는?
- A : 고등학교 들어와서 재미있어요. 저희 반에 정말 유쾌한 애들이 많거든요. 코믹하게 말을 재밌게 한다던가 몸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는 애들 있어서... .
- Q : 진학(또는 공부)과 친구관계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 A : 친구관계에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할지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만약에 너무 노는 애라던가 공부를 포기한 애라던가 그러면 개가 끌어 들이잖아요. 만약에 서울대 갈 실력인데 지방대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은 아예 안사귀어요 가까이 하질 았아요.
- Q :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 A :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힘든데 처음이니 썬 더 힘들잖아요. 사귀기 시작하니까 서먹서먹하고.
- Q : 처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 A : 외모? 순하게 생겼다던가... ‘안녕’하면서 ‘너 학교 어디서 왔어’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요.)
- Q : 친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A : 시험 끝나고 나서 PC방을 간다던가, 학교 끝나고 농구를 한다던가.. 아
그러구요 PC방가서 게임하는 거죠. 남고(남자고등학교)라서 애들이 성
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Q : 어떤 얘기가 성적인 얘기일까요?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

A : 그런 것도 있구, 아 근데 여자친구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웃음]

Q : 뭘 어디서 봤다. 뭘 했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가요?

A : 네 그런 거죠.

Q : 야동 본 얘기 뭐 그런 건가요?

A : 가끔 그런 얘기도 하구요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하구요 어느 영
화에서 뭐가 나왔더라 이거 한번 보자..

Q : 친구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나요? (공부, 취미, 진로, 장래희망 등)

A : 취미요. 개가 좋아한다는 걸 따라하는 때가 있잖아요. 개가 권한다던가
아니면 재미있다고 말 한다던가 권하진 않았지만... 게임 같은 거는 종
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RPG게임도 있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구
어떤 친구가 만약에 RPG게임이 새로 나왔다면 인터넷에 가
입해서 해보구 그래요.

Q :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예: 리더 역/분위기 메이커 역/
추종자 역 등등)

A : 제가요? 이런 것도 아니구 저런 것도 아니 예요. 가끔은 리더도하고
가끔은 분위기 메이커도 하구 친구에 따라서 달라요.

Q : 그 역할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신의 생각은?

A : 진짜 하고 싶은 건 분위기 메이커가 하고 싶어요. 추종자일 때 불 만
족이에요. 애들이 친구들이 잘난척한다던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럴 때 가끔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상해요. 비위
를 안 맞춰주면 약간 멀어 지잖아요, 거리가.. 기껏 사귀었는데 멀어
지고 싶지도 않고.

Q :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은 어떤가요?

A : 마음에 걸리진 않는데.. 친구들의 학력이 저보다 더 높는데...

Q : 친구들이 모두 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나봐요?

A : 네.

- Q : 메일이나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친구 유형 및 내용에 대해서...(off line 친구와 on line 친구가 동일한지 등)
- A : 친구들하고는 다 해요 학교숙제나 아니면 시험범위 또는 오늘 몇 시에 만나자 그런 거.
-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에 대해서...
- A : 간섭받은 적이나 이런 친구 사귀어라 등.. 그런 적 없어요 개방적이어서..
- Q :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알고 계신가요?
- A : 네. 다 말하고 다니니까. 엄마가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디가면...
- Q :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간섭에 대해서는...
- A : 그런 거 없어요.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 A : 있어요. 담임선생님이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남자선생님이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 A : 있어요 금지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너무 성질을 내시구.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잖아요, 신발신고 온 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기껏 공부하러 왔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라 그러구...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생활이 하기 싫잖아요. 학교가기 싫고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선생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만약에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 선생님께서 충고도 하시고 다정하게 지내서 학교가기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면 힘들잖아요.
- Q : 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뭔가요?
- A : 저희 담임선생님처럼 카리스마가 넘친다던가 아니면 다정하게 충고도 많이 해 주신다던가...공부가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 코믹도 가끔 해 주신다던가 하는 선생님이요.
- Q : 담임선생님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A : 충고하시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제가 칭찬받을수록 열심히 하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할거다'라고 하시고..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요?

A : 학교다 보니까 성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우관계도 중요하고..

Q : 좀 전엔 학교 선생님이 친구보다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A : 아 선생님이요 까먹었다..

Q : 학교생활은 전반적으로 행복한가요?

A : 행복해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친구도 재밌고 잘 노는 애들이고 또 공부도 잘하면서 잘 노니까 선생님도 좋으시고.. 학교는 약간 후지긴 한데..

한국사례 #2

대상자 : 중2, 여, 성적(중), 거주지(압구정동), 모학력(대졸)

Q : 친구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친구가 되는 요건은?

A : 몇 십명이에요. 한 30명. 저는 학교친구가 많아요. 학교친구도 있고, 학원 친구도 있고...

Q : 학원 친구가 많아요?

A : 학원에 가서 옹기거든요 학원을, 여기서 친구 사귀고 요기서 친구 사귀고.. 여자친구가 더 많구요 남자들은 거의 원수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학교 남자애들은 괜찮다 치구, 학원남자애들은 거의 혐오스럽기 때문이에요.

Q : 혐오스러운 거라면 어떤 거예요?

A : 정말 이것들이 버릇이 없어요 이것들이... .(웃음) 친구사귈 때 그냥 성격이라든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은 다 좋은데 너무 혐오감 느낄 정도로 싫지만 않으면.. 딱 봤을 때 별 느낌 안 들면 그냥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거 같아요.

Q : 친한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A : 어떤 친구들은 유사점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유사점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걸, 같이 다닐수록 많이 맞게 되는 거 ... 옷 사는 거 좋아하는데 옷 사는데 보면 비슷한 걸 좋아하게 되고 먹는 것도 비슷하게 좋아해요.

Q : 비슷하게 좋아하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A : 아니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끼리 만나는 그런 게 아니구요 같이 다니다 보면은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Q : 친구들 사이의 의견수렴 방식은 어떤가요?

A : 다 의견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서두 가장 적당한 걸루..애들끼리요 다 타협을 해요. 이번 중간고사 말고 저번 중간고사 끝났는데 시험이 끝

나니까 어떤 애들은 옷을 사러가자고 하고 동대문가자고하고 이태원
가자고하고 어떤 애는 돈이 없다고 하고 영화를 보러가자는 애도 있
아요. 돈 없는 애를 빼놓고 옷사기는 그래서요 다 상의를 해서 또 돈
을 알맞게 배분을 해서 밥 먹고 영화보고 그러구 들어갔어요.

Q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은요?

A : 학교에서 많이 만나고 놀고 학원친구들은 학원에서 만나고 놀고요 학
원친구들은 학원 수업 때문에 제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으
로 연락을 해서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서 놀구 친구들이랑은 시간 끝
나고 놀거나 주말이나 방학 때 특별한 일찍 끝나는 날 이런 때나 많이
같이 놀아요.

Q : 학교에서는 만날 시간이 있나요?

A : 점심시간 쉬는 시간도 있구...그냥 얘기하면서 놀아요.

Q : 친구들과의 대화내용은요?

A : 그때그때 달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재밌는 거.

Q : 뭐가 재밌나요?

A : 모르겠어요.

Q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핸드폰/인터넷의 역할은 어때요?

A : 말은 많이 하면은 시간도 없고, 말 많이 하면 시간도 없고 문자로 하
면 좋잖아요. 할 말만..그러구 대답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문자로하면 편한 거 같아요. 싸이를 했는데 접었어
요 엄마가 못하게 해서... 컴퓨터 너무 많이 하면 공부 못한다고..

Q : 그때 사귀 친구들은 있었나요?

A : 네. 싸이에서 사귀 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 다
음에 싸이월드에 들어가지구 그렇게 ..원래 그런 아이들하고는 잘..

Q : 학생만 그렇나요?

A : 아니요 애들하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Q : 방과후 및 휴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

A : 휴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만나서 밥 먹구 막 영화 볼 때두 있
구요 근데 보니까 옷사러가는 애들도 있는 거 같아요.

Q : 학생은 안가요?

A : 저는 못가요

Q : 인기가 있는 친구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Q : 애들이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그냥 학교에서 끼리끼리 다 노니까 이런 건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Q : 특별히 인기 있는 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A : 네. 그런 거 같아요.

Q : 별로 인기가 없는 친구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한말을 재한테 말하고 재가 한말을 애한테 말하고 말 옮기는 애도 있고요. 좀 입이 가볍고 남의 얘기 뒷얘기를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는 애들 다 싫어하지 않아요, 솔직히.

Q : 친구와 싸운 경험과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사소한 것 갖구 되게 사소한 거 같구. 그냥 개랑 놀지 말라는데 저는 개가 되게 좋거든요 '그럼 너 재랑 놀아' 그러며 딱 가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다음에 쉽게 막 친한 척하구..(웃음), 두배로 화나 갖구... 막 싸워 갖구 개네들 싸우는데 애가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거 같기도 하구...

Q : 자기가 싸운 아이하고 놀지마라. 이 얘기인가요?

A : 네.

Q :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 대화가 잘 되가지구...그니까 서로 잘 이해를 해주는 그런 거죠, 뭐.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A : 첫 인상이요. 첫 인상이 좋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없어요.

Q : 그러면 앞으로 사귄 생각은?

A : 없어요. 정말 인생에 필요가 없어요.

- Q : 그렇게 얘기하니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A : 아니요. 그런 거 없구요. 아무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웃음)
- Q : 뭐 싸웠거나 이런 게 아니구요?
- A : 아 그런 거 없어요.
- Q : 이성친구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 A : 네. 많긴 많아요. 별로 전혀 부럽지 않아요.
-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 A : 친구관계요
-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나요?
- A : 재미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구..그냥 그러다보면 재미있는 거 같아요
- Q : 친구관계가 참 좋은가봐요, 친구도 30명까지 있는걸 보면.
- A : 아니요. 학원에서 만나는 애들이 열 몇 명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몇 명되고 그담에 또 학원친구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 Q : 진학(또는 공부)와 친구관계는 관련이 있나요?
- A : 공부 안 되는 거 같아요. 친구들보....좀 그렇죠.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 Q : 진로에 관한 얘기는 서로 안하나요?
- A : 어찌다 하는데요 그런 건 서로한테 부담이 되고 그런 거까진 잘 안하는데.. 근데 또 공부하는 애들이랑 만나면은 하루종일 얘기해요.
- Q : 그럼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는군요.
- A : 네 하는 애들 많아요. 전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주로 학원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데요, 영어를 같은 학원에서 시험봐도 개네들은 최고로 많이 나오고 나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 Q : 친구를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 A : 그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말하다가 , 친구들이 보통 소개를 해서 학교친구들은 잘 알게 되는 것 같구... 학원 친구들은요 그냥 같이 있으

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학원친구들을 사귀기가 더 쉬워요 인터넷으로 아는 언니들은 서로 소개해줘요.

Q :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요 ?

A : 그때그때 달라요 다.. 원하는 대로 극장도 가구요

Q : 친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나요 ?

A : 없어요.

Q :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역할 뭐 이런 건 없어요.

Q :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은요 ?

A : 그런 거 없어요.

Q : 메일이나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은 어떤 친구인가요?

A : 오프라인 친구..아 아니다. 온라인에서 사귀 사람들이랑 더 많이 문자를 주고받아요. 온라인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다 만나기가 힘들어요.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어때요?

A : 엄청 간섭 하시는데요..엄마는 공부하는 이런 쪽, 얼마 전에 안 좋은 애들이랑 사귀었다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개네들한테 뭐라뭐라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 그런 거 때문에 따 시켰어요. 너무 곤란 했어요 선생님까지 막 나서갖고 없는, 하지도 않은 얘길 지어내갖고 제가 했다고 한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아직도 화해 못 했어요 그것 때문에..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 막 선생님들두 이게 한번 전달되면 막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애가 학교 안 나오고, 술 마셨데, 담배도 피웠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다 안 좋게 얘기하는 애니까 선생님이 영향이 있는 걸 저의 엄마한테 얘길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갖구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Q : 개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A : 저한테 굉장히 잘 해주구 알고보고 착한아이들인데 남들이 보는 입장에선 막...학교는 잘 안 빠져요 어찌다 한번 빠졌는데 그런 것 같구 엄청 많이 빠진다구.

- Q : 부모님이 친구들 관계는 잘 알고 계시나요?
- A :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제 친구나 친구 엄마한테.. 개네들 엄마와 저희 엄마가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랑은 별로 안 친한 앤데 정작 저랑은.. 내가 누구랑 놀구, 다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엄마가 우리엄마한테 말해서 우리엄마는 잘 알고 있어요.
- Q :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간섭은 어떤가요?
- A : 엄청 많이 간섭해요. 그니까 안 좋은 애들끼리 노는 거는 아무 말도 안하는데 좋은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랑 노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싫어해요.
- Q : 좋은 애와 안 좋은 애의 구분이 뭐예요?
- A : 아 공부는.. 막 성적인거 같아요.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은 있나요?
- A :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
- A : 예 그거요, 말 만들어내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일 싫어요.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미치나요?
- A : 선생님하고 친하면은요, 수위조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사이 안 좋고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 그런 것들 안 깎아도 될 걸 꼭 깎더라고요. 점수 이런 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쁨 받는 게 중요하데요 엄마가...
- Q : '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 그냥,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는 분. 학업면에서도 그렇구 , 수업, 수업.
- Q : 담임선생님은 당신을 얼마나 이해해 주시나요?
- A : 아 없어요 잘 이해못하는 거 같아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구 막 뭐 조금만 잘못해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번에 계속 3일 연속 지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집에 막 전화해갖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막 그러신 거예요. 아 어이없어갖고...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A : 학교생활에서는 친구관계 같아요.
-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요?

A :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엄마 때문에 친구들이랑 싸워서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냥 개네들 말고도 친구들 많으니까 그냥 놀면서..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사례 #3

대상자 : 중2, 여, 거주지(아현동), 성적(하), 모학력(고졸)

Q : 친구는 많은가요?

A : 90여명 정도.

Q : 친구는 주로 어디서 사귀 친구들인가요?

A : 학교요. 학원 친구도 많고.. 대부분 여자죠. 친구 친구니까 성격 뭐 네 성격이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만 알고 남은 모르고 음 그 정도 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중에서 친한 친구는 한 20여명.

Q : 친한 친구들끼리 공통점은?

A : 그것도 성격..

Q : 본인의 성격은 어떤데요?

A : 나름대로 화도 잘 안내고 뭐 남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구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Q : 친구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방식 같은 게 있나요?

A : 일단 친구들이 다 얘기해가지구... 어디 갈꺼냐구 얘기해가지구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저거하구 해가지구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Q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요?

A : 대부분 평일에 학교 앞에서 만나 가지구 놀러가죠. 놀고 싶은 데로. 대부분이 동대문 그런데..

Q : 옷 사러가나요?

A : 아니요. 아이쇼핑, 돈을 아껴야 되가지구...

Q : 친구들과의 대화내용은요?

A :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좀 안 좋다고 뒤로 욕하는 편이 많아요.

Q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핸드폰/인터넷의 역할은요?

A : 약속정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정하는데 학원 같은데요. 시간 언제냐고

하는 거.

Q : 말 대신에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A :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화비가 많이 나와서 좀, 딱히는 없어요.

Q : 미니홈페이지(싸이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이는 학교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나요?

A : 안해요.

Q : 방과후 및 휴일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A : 한명 친구 집에 가서 서루 컴퓨터하구 미니홈피 같은 거 가가주고 뭐 사진같은 것도 보구 특히 TV도 서로 막 보구 네 그 정도예요.

Q : 근데 미니홈피 안한다면서요?

A : 네. 전 안하고 다른 애들 꺼...

Q :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A : 그냥 안 만들어요. 어차피 뭐 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나중에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안 만들어요.

Q : 인기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잘 노는 애들 있잖아요. 웃도 되게 이상하게 입구. 잘 노는 애가 인기가 많죠.

Q : 야하게 웃 입어도 인기가 있나요?

A : 나시티에 핫팬츠 막 그런 거 입는 애들이 인기가 많아요. 잘 놀아요.

Q : 인기 없는 친구는요?

A : 성격이 이기적인 애들 있잖아요. 딱 봐도 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애들...

Q :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나요?

A : 몇 번 같이 다니다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재는 어떻게 하는거를요.

Q : 친구들과 싸운 경험은 있나요? 왜 싸우죠?

A : 많아요. 좀 자기밖에 모를 때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데로 만 하니까 좀 나를 생각해주시잖아 가지구. 그런 면에서 화가 좀 나가주구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Q :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A : 그 친구가요 저랑 친한 친구를 안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를 욕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문자로 해가지구 '나는 개 싫으니까 너두 그런 애랑 놀지 말라'구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나서 계속 연락도 안하고 말도 안하고 해가지고 싸운 경험이 있어요.

Q : 연락도 안하고 말도 안하는 게 싸우는 건가요? 말로 싸웠나요?

A :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Q : 그저 문자 씹는 게 싸운 거예요

A : 네.

Q :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저를 좀 이해 잘해주는 친구요. 착했으면 좋구.....여럿 있을 때 혼자하지 말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Q :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건가요?

A : 그렇죠.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A : 또 성격..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없어요. 사귀 적도 없어요.

Q : 사귀 생각은?

A : 아니요 대학교 때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공부할 나이 구 대학교가면은 놀 때가 더 많으니까 그때 사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A : 가족관계.

Q : 가족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나요?

A : 노력은 한다고 마음은 먹는데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잘 안되죠. 마음으로는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으로는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막 화내고...나는 TV 드라

마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아빠는 스포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Q : 학교생활은 재미있나요?

A : 재미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 폭이 넓으니까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해서 재미있어요. 며칠 전에 시험 전에 친구가 어떤 남자애를 만났는데요 학교 가다가 친구들이서 가는데 다른 친구가요 뒤를 돌아보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남방을 입었는데 거의 벗은 채로 막 자기들 쪽으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막 소리치면서 가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그랬대요.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그냥 ..그때 학교도 늦었거든요 한 3분 4분정도 남았는데 빨리 뛰어가지고 1분 안에 교문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각도 안하고 그래서 감사하대요.

Q : 진학(또는 공부)과 친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 어떤 친구랑은 가고 싶은 데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랑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구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구 하면은 둘이 사이가 더 좋아지면서 잘 될 것 같아요. 더 공부도 잘되고 친구관계도 잘되고..

Q : 혹시 대학가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에 관해서 염려되는 건 없나요?

A : 없는데...

Q : 시험보거나 그럴 때 애들이 놀자 그러거나 그래서 공부 못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A : 네.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요.

Q : 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는요?

A : 학교, 학원에서 알게 되는데 다른 반일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서먹서먹하다가 또 같은 반 되면은 막 좋아라하고 그런 거...

Q : 친구들 많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다 어떻게 유지하나요?

A : 계속 따른 반 놀러가면서 얘기도 계속하고 준비물도 빌리고...

Q : 친구가 90명이나 되는데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하나요?

A : 기억 못하는 애들도 있겠죠.

Q : 친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A : 원래는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 가지구 친구들 놀러가자구해서 자주 놀러가는 편인데 놀러 가면 이대나 동대문, 남대문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물건사는 것도 한두번이지 대부분 아이쇼핑하구 그러면서 친구 뒷담도 한번 해주구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요.

Q :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은요? (공부, 취미, 진로, 장래희망 등)

A : 장래희망, 친구생일이었는데요 딱히 해줄 것도 없고 해서 쿠키 같은 거 만들어 줬는데요,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금서 나중에 다른 친구들 생일 때 쿠키 만들어주고 하는데 좋아하구 저두 만들수록 더 재미있고 해가지구 장래희망을 이쪽으로 하구 지금도 만들구 있구... .

Q : 친구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은?(예: 리더, 분위기 메이커, 추종자 등)

A : 분위기 메이커 정도... 친구들 있을 때는 막 좀 얘기하다보면요 의견 충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쌓일 것 같으면 얘기해가지고 풀고 그러면 괜찮아지고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을 걸 넘어지고 혼자 원맨쇼를 해가지고 친구들 웃겨주고 몸 원맨쇼, 혼자서 막..

Q :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경위는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옛날부터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하니까 지금도 그렇구 제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구.

Q :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은 어떤가요?

A : 마음에 걸리죠, 저는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저는 성적이 정말 많이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대학도 가기 힘들 것 같구, 그래가지구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떨어지면 마음에 걸리죠.

Q : 메일이나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는 것은 어떤 친구인가?

A : 그냥 무조건 다하는데. 가리는거 없어요.

Q : 얼굴안보고 인터넷에서만 만나는 친구는 없나요?

A : 네.

- Q : 메일이나 문자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A : 오늘 있었던 일 같은 거 뭐 학교 숙제나 그런 거.
-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어때요?
- A : 대부분은 안해요. 잘 노는 애들은 좋은데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아니면.. 아 예절 예의가 없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웃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인사를 안하고 고개를 획돌리거나 하는 애들 안 좋아하세요.
- Q : 친구관계를 잘 알고 계시나요?
- A : 네. 친구들도 잘 집에 데리고 오구 해가지고...(제가) 말도 해요
- Q :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간섭?
- A : 안하는데... .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 A : 없어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 A : 없어요.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선생님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구 장래 희망 같은 경우 말씀도 많이 해주시구 해가지구...
- Q : '훌륭한 교사' 조건은 뭔가요?
- A : 학생들을 잘 리드해 주시면, 가르칠 때도 학생들 눈 똑바로 보구서 깊숙이 잘 들어가서 해주시는 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좀 먼 얘기하는 분도 계시구 근데 제가 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수업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 Q : 담임선생님의 나에 대한 이해도는요?
- A :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안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길 안했으니깐 다른 거는 그래두...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2년전에 모친사망하심]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뭔가요?
- A : 아무래도 친구 들.
-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요?

A : 전반적으로 행복해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서투 얘기하구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약간 장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구 웃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좋아요.

한국사례 #4

대상자 : 고2, 여, 거주지(아현동), 성적(상), 모학력(고졸)

Q : 친구는 얼마나 있나요?

A : 친한 친구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도 있고 또 학교 친구도 있고 학원 친구도 있는데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는요 한 세 네명 정도? 그냥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게 많은데 한 20명 정도.

Q : 20명 중에는 어떤 친구가 포함된 건가요?

A : 학교친구랑 학원친구요. 동네 친구 가요, 학교친구예요. 교회는 안다녀요.

Q : 성별은 어떻게 돼요?

A : 한 10명으로 치면요, 7명은 여자 3명은 남자요.

Q : 친구가 되는 데 중요한 요건은?

A : 성격 이런 거요. 그니까 뭐 같이 놀면은 소심하거나 자기주장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하고 놀다보면 아무래도 자주 싸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주는 아이..

Q : 친한 친구의 공통점은?

A : 막 긍정적인 이런 거? 그냥 뭐해도 재미없는 거해도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재미있게 놀고 그런 거.

Q : 친구들 사이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나요?

A : 친구들 중에도 말이 많은 애 있잖아요. 막 활발한 애, 어디갈까? 그러면 애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Q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요?

A : 저희 집이 이대라서 신촌 이런데, 이대에서 쇼핑할 때도 있고 노래방도 가고. 못 가게 하는데 간다기보다 요새는, 그런데 많이 가잖아요. 카페 같은데... 호프 술집 이런데 말구.

Q : 친구들과는 무슨 얘길 하나요?

A : 성적이랑 같은 학교 친구들 얘기. 대학이 뭐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Q :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핸드폰/인터넷의 역할은요?

A : 없으면 안 될걸요. 저는 인터넷은 잘 안해요. 컴퓨터는 안하고 핸드폰으로 일단 연락을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말은 만나면 하겠는데 문자는 안 만나도 보낼 수 있고 간편하니까.

Q : 미니홈페이지(싸이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이는 학교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나요?

A : 저는 안 해요.

Q : 방과후, 휴일에 친구들과 어떻게 보내나요?

A : 평일에는요. 끝나구 학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 놀구. (주말에는) 오후 2, 3시? 그 정도에 만나서요, 밥 먹고 뭐 빙수 먹으러 카페 이런데 가구.

Q : 인기가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죠?

A : 아무래도 막 재밌고 개성 있고 이런..무슨 얘기가 나와도요 재치 있게 막 말 받아치고 이런 애들...

Q : 인기가 없는 친구는요?

A : 지 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애.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Q : 친구와 싸운 경험과 이유에 대해서...

A : 뭐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애들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그냥 되도록 안 싸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았는데요, 제가 여중 여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자애들끼리만 있으니까요 애 네하고 놀다가 뒤에 가서 욕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솔직히 퍼지잖아요, 소문이. 알게 되면 싸우는 거죠 둘이, 일이 커지고... .

Q :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꼭 무슨 얘길 해야만 편한 게 아니구.. 가만있어도 편한 그런 말 안 해도 편한 친구 같이 다니면 막 즐거운 친구 말하면 저랑 성격도 맞고 그런... .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성격, 말솜씨. 성격은 제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말두 좀 많구 그래서요 조용하고 그런 아이들보다 적극적인 아이가 좋아요. 아무래도 말 많고

수다스럽고 재미있는 애들.

Q : 이성친구는 있나요?

A : 없어요. 사귄 적은 있어요. 오래사귀었던 친구가요 한 1년 정도. 개 사귀면서 좋았던게요, 개는 고등학교였어요 개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개 여자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거예요. 다 아는 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 게 하는 거 없구요. 아무래도 오래가니까 개네 부모님도 다 알구 우리 부모님도 다 아셔 가지구 한번 개 보자구.

Q : 주로 함께 있을 때 뭘 했나요?

A : 그냥요 영화보거나 카페 같은데 가구. 근데요 남자친구 사귀면 성적 안 오른다는 말 있는데요,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험기간에는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Q : 앞으로 사귄 생각은 있나요?

A : 사귄 생각 있어요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요?

A : 공부랑 친구관계.

Q :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A : 공부.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나요?

A : 재미있어요. 친구들과하고 이제 친해졌으니까 반 학기 지났으니까 얘기하고 시험도 끝났으니까 막 드라마(쩨의 전쟁) 얘기하고... 맨날 사랑해 이런 것 만 하다가 처음으로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재밌다 그러구 박신양 멋있다 그러구...

Q : 진학(또는 공부)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A : 친구랑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가 공부 안하고 그런 애들이면 어울리게 되면 시간도 없어지고 좀 넘어갈거 같아요 그런 유혹에... 친구두 공부 잘하는 친구랑 놀면 좋을 것 같아요

Q : 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A : 초등학교 때 동창있구요. 학교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같이 다니니까 친구고 학원에서는 범위가 잡히면은요,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런 때

그냥 알게 되고 그래요.

Q :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랑요. 그리고 학원이 서대문이거든요 아무래도 학원가는 쪽에서 놀게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카페, 노래방... 요새는 시험 끝났으니깐요 독립문 공원 가서 자전거타고 운동하고 재밌어요. 선생님 얘기도 하고 가끔 남자들 얘기도하고 막 이래요.

Q :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공부, 취미, 진로, 장래희망 등)

A : 취미 같은 거? 원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딱 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친구들이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영화관으로 영화 많이 보러가고 그래요.

Q : 친구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은?(예: 리더, 분위기 메이커, 추종자 등)

A : 분위기 메이커 같은 거. 개그 프로 같은 거 따라하고 이러면요.. 저두 좋아해요 친구랑 장난으로 개그맨이 되자구 막 이러구...

Q :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중학교 때 두요 애들이 다 즐거운 애들이었어요. 재밌는 애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중학교 때는 TV애기도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 근데 거기 오락프로 이런 게 많으니깐 저도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보니까 웃기는 거 많이 알고 이러니까... 애들이 즐거우면 저도 좋아요.

Q :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은 어떤가요?

A : 걸리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공부 너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럴텐데,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애랑 비슷해요, 정말.

Q : 메일이나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A : 같아요. 내용은 딱히 없어요. 오늘 뭐했냐? 뭐 이런 거?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어떤가요?

A : 저희 엄마아빠께서는 개방적이세요. 막 간섭 같은 거 많이 안하세요.

- Q : 혹시 부모님이 어떤 친구관계를 원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 A : 아무래도 놀 때 놀더라도 공부할 때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너 친구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잘 노는 그런애들...
- Q : 부모님이 친구관계를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 A : 저도 얘기하구요 데려 가구 그래서. 저랑 친한 아까 3명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 엄마가 다 알아요.
- Q :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간섭은요?
- A : 그렇게 간섭하는 거 같진 않아요. 선생님은 저희 반만 보는 거 같아요. 저희 친한 애들이 같은 반이 아니면 다른 반에 누가 친하다 이런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은 있나요?
- A : (있음). 그니까 정말 애들을 사랑하시구요 정말 막 차별 같은 것도 전혀 안하시구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든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막 저희들에게 보여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 A : 제가요, 싫어하는 선생님하고 지내면 과목이 싫어지잖아요. 되도록이면 싫어하는 선생님은 안계세요. 제가 보면.
- Q : 선생님을 안 싫어하려고 노력한다는 건가요?
- A : 네.
- Q : 그러면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한다는 건가요?
- A : 네. 좀 차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아무래도 교사니까 한 시간 수업하고 나가시면 되니까 저희가 이해 못해도 선생님은 진도 막 나가시는 선생님.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 A : 선생님이랑 안 좋은 일 있으면 풀면 되는데 여자애들이 꿈해 있잖아요. 못 풀거나 그러믄요, 그 수업을 안 듣게 되요
- Q : '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뭔가요?
- A :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야 되구, 차별 같은 것도 안하시구... 중략...정말 꼭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사 하고

싶었던 선생님들도 있고 근데 막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Q : 교사가 된 어떤 선생님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나요?

A :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Q : 담임선생님의 나에 대한 이해도는요?

A : 근데 선생님이랑 면담을 아직 못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건 모르겠구요. 그냥 잘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여름방학에 하는데 제가 안하거든요 선생님 말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학원을 다녀두 그렇게 큰 도움이 없으면은 그냥 선생님이 보충수업하라 하셨어요. 아 제가 그냥 안 한다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 니가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면서 격려해주셨어요.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가요?

A : 아무래도 성적이 오르는 것.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요?

A : 행복해요. 친구들과하고 잘 지내고 담임선생님도 1학년 때 2학년 때 다 잘 만나 갖구요 그냥 재미있어요.

한국사례 #5

대상자 : 중1, 남, 거주지(개포동), 성적(상), 모학력(대졸), 가구소득(중)

Q : 친구는 몇 명인가?

A : 약 7명 정도 되요.

Q : 친구의 종류는?

A : 거의 대부분 학교 친구이고요, 나머진(1~2명) 학원 친구요.

Q : 그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A : 모두 남학생 이예요.

Q : 여학생은 없고?

A : 네.

Q : 친구를 사귄 때,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추어 사귀지?

A : 그 친구의 인성과 취미요. 그래야 뜻이 맞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Q : 친한 친구들과의 유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A :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거의 같더라고요. 그 예로 제가 추리 (소설)이나 게임 등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도 거의 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같은 걸 좋아하니까 이야기가 서로 통하고 즐거워요.

Q : 친구들과 무엇을 하자고 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하거나 등등의 의견을 나눌 때 본인이 속한 친구들 사이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A : 예를 들어서요, 친구가 약 다섯 명 정도 모였는데 어딜 가자고 하면요,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요. 소수의 친구들은 좀 불만 이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도 갈 수 있으니까 불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가요.

Q : 어디서/언제 주로 만나고 노나요?

A : 주로 시험 끝나고 시간이 좀 널널할 때 PC방이나 놀이터에서요 축구나 게임하면서 놀아요.

Q : 친구들과의 대화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무엇인가?

A : 거의 대부분 다 게임이죠.

Q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핸드폰/인터넷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A : 친구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서로 만나면 대화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통신 수단인 것 같아요.

Q : 말 대신에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A : 즉석에서 말을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떨려서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를 사용하면, 글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더 논리적이고 자기가 할 말을 더 자세히 쓸 수 있어서요.

Q : 미니홈페이지(싸이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이는 학교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는가?

A : 네. 예를 들어 제목을요, '교육학습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우리 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오니까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Q : 방과 후 및 휴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및 내용(주로 무엇을 하는가?)

A : 방과 후에는 애들이 거의 다 학원에 가니까 잘 놀지를 못하고, 휴일이거나 공휴일에 좀 시간이 나므로 그 때 다 같이 어울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던가 해요.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A : 우선 가장 인기 있는 친구는요 잘생긴 친구이고요, 두 번째는 유머가 있는 친구이고요, 또 유행을 잘 따라가는 친구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인가?

A : 말이 별로 없는 친구들과 잘난 척하고 이기적인 친구,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만 잘 하는 척 하는 그런 친구들요.. 그런 친구들을 켈 싫어해요.

Q : 실제로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친구들도 있어?

A : 네.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나는가?

A :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장난삼아 시비를 걸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모욕으로 오해 하여 서로 욕하다가 치고받고 하면서 큰 싸움으로 될 수 있어요.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A : 제가 슬프고 힘들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줄 게 아니라 충고도 해주는 그런 친구가 가장 맘에 맞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맞아야 서로 뜻도 맞고 아무리 성적이 좋고 말솜씨가 좋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Q : 이성친구 있나?

A : 없어요.

Q : 앞으로 사귄 생각은?

A :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요.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A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서로 혈연관계인데요,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끼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더구나 자기 안에서 화목을 지켜야 다른 곳에서도 화목을 지킬 수 있잖아요.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는지,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는지?

A : 재미있어요.

Q : 무엇 때문에 재미있는지?

A : 교우 관계 때문에 켈 재미있어요. 우선 친구들이 웃기는 말 많이 해주고 (힘들 땀)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니까 (즐거워요). 수업이 힘들긴 해도 친구들 덕분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Q : 상급학교 진학(또는 공부)와 친구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공부/진학 의욕, 친구의 공부/진학 의욕) :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A : 관련성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한 친구가 자기는 특목고 가고 싶다고 하면 서로 친구와 경쟁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공부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같이 공부 하게 되고 그 친구의 생각도 알 수 있게 되면서 또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걸 알려주니까, 같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Q : 친구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A : 처음에는 서로 다 모르니까 우물쭈물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먼저 다가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저절로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Q :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자주 놀러가는 장소, 자주 하는 일, 모여서 이야기하는 화제·activity)

A : 요즘은 PC방에서 게임도 많이 하지만 또한 축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어떤 선수가 이적했는지, 어떤 구단이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들 얘기해요.

Q :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하여 (공부, 취미, 진로, 장래희망 등) 어떤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A : 취미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Q : 왜?

A : 전에는 게임도 한 가지만 하고 책도 한 가지만 읽고 그랬는데 여러 애들을 사귀다 보니까 게임도 다양하게 하게 되고 책도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읽다보면 그것도 재미있어져서 취미도 많이 달라졌어요.

Q : 친구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예: 리더 역/분위기 메이커 역/추종자 역 등등)

A : 주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Q : 분위기메이커?

A : 네

Q : 왜?

A : 리더가 되기에는 리더쉽이 부족하고, 추종자 역할을 하기에는 남의 말

을 들어주는 게 힘들 때도 있으니까요. 애들이 싸우거나 말다툼 했을 때 거기서 중립을 지키면서 화해를 시키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Q :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역할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하여(만족, 불만족, 진짜로 하고 싶은 역할 등)

A : 처음엔 추종자 역할이었는데요, 계속 추종자만 하다보니까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해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리더가 되기엔 리더쉽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안 따라 주잖아요. 그래서 조정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매우 만족해요.

Q :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에 대하여(마음에 걸리는지, 아닌지, 어떤 친구, 친한 벗의 학력이 마음에 걸리는지) 등.

A : 매우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뜻이 맞더라도 성적 차이가 나면 부모님과 선생님 눈으로 봐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서먹해져서 헤어지게 되고 , 당연히 성적이 비슷해야 되고 (성적이 비슷해야) 성격도 맞고 그런 것 같아요.

Q : 메일이나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은 어떤 친구지?(off line 친구와 on line 친구가 동일한가?) :

A : (컴퓨터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요.

Q : 어떤 내용을 주로 주고받는가?

A : 스포츠와 책에 관한 것을 (주로) 주고받아요.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 제 친구도 추리 소설을 좋아해요. 그래서 홈즈나 뫼비우스 같은 것에 대해 논하기도 해요.

Q : 부모에 의한 친구관계에의 간섭에 대하여 (부모에 의한 간섭의 유무. 부모는 어떤 경우에 간섭 하는가/부모는 어떤 친구를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 하는가 등등)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A : 네. 잘 알고 계세요.

Q : 그럼 간섭을 하시는지?

A : 간섭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Q : 어떤 친구를 갖길 원하시는지?

A : 부모님께서서는 성적(좋은 친구)에 대해선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친구들의 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은 좋아하시나)이나 집단 패거리 같은 곳에 끼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좀 간섭을 하세요.

Q : 부모님들은 친구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A : 잘 알고 계세요. 친한 친구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친구들의 어머니님과 자주 전화로 대화를 하시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Q : 교사에 의한 친구관계에의 간섭에 대하여(교사에 의한 간섭의 유무/교사는 어떤 친구를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 하는가 등등) 선생님은 어떤 친구를 갖길 원하시나요?

A : 그렇게 (드러내놓고)눈에 띄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눈치로 보자면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가 사귀면 눈치를 쥐갖고 다른 애와 사귀라는 무언의 압박을 줍하세요.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가?)

A : 네

Q : 어떤 점이 존경스러운지?

A : 유머가 있으셔서 수업 시간마다 재밌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확실히 충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또한 좌우명 같은 것도 잘 정해 주세요.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A : 네.

Q : 어떤 점이 싫은가?

A : 학생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해 주는 게 교사의 본분인데, 질문을 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충 넘어가고 그리고 칠판에 글씨를 쓸 때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써서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 수업시간에도 선생님이 연구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EBS(교육방송)로 진행하고 특히 아이들이 교육방송의 화면을 보고 노트 필기를 미처

다 하지 못했는데도 화면을 돌려버려요.

Q : 그런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불만 얘기를 안하는지?

A : 다들 불만은 갖고 있지만 표출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수행평가의)성적을 깎고 부모님께 전화하는 등 문제아로 찍힐까봐서(못하는 거 예)요.

Q : 그럼 다들 그냥 참고 넘어 가나 보지?

A : 네.

Q : 선생님과 관계에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 보통 정도로 미치는 것 같아요.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되는가?(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A : 일단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가끔씩 유머도 섞어가면서 (수업했으면 좋겠고), 배경 지식이 풍부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Q : 담임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Q :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A : 우리 반 선생님은 다른 반 선생님들과 달리 상담을 하세요. 한명씩 불러가지고.

Q : 한 달에 한번씩? 아니면 며칠에 한번씩?

A : 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충고를 해 주세요.

Q : 그런 선생님이 존경스럽겠네?

A : 네.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 및 성적, 친구, 교사와의 관계 및 역할모델 등)

A : 친구관계도 잘 굳혀야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겠지만 역시 공부나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Q : 역시 상위권이라 공부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네?

A : (쑥스러운 웃음) 아네요.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물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무작정 친구만 사귄 수 없잖아요.

Q : 그렇지, 공부는 중요하지?

A : 네.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진술요)

A :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어도 친구들이 유머를 써가며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서 힘든 걸 잊게 해 줘서요.

Q : 학업은 힘들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A : 네.

한국사례 #6

대상자 : 중1, 여, 거주지(평촌), 성적(중), 모학력(대졸), 가구소득(하)

Q : 친구관계에 대해 질문할게요. 친구 많아요?

A : 보통이에요.

Q :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친구의 종류를 이야기해 봐요. 학교친구 학원 친구 기타 등

A : 거의 다 학교 친구예요.

Q : 학원 안 다녀요?

A : 네.

Q : 같은 반의 친구를 다 학교친구라고 해요?

A : 아니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요.

Q : 몇 명이나 되어요?

A : 친하게 같이 자주 노는 친구는 많이 잡으면 15명 정도?

Q : 친구의 성별은?

A : 남자도 있지만 거의 여자(동성)이에요. 남자는 2,3명 정도?

Q : 친구가 될 때 어떤 점이 끌려서 친구가 되나요? 성격이 유사하다거나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등등...

A : 거의 성격이 활발하고 그러면....

Q : 성격이 활발하고 노는데 일치하는 경우 친구가 되어요?

A : 예.

Q : 그럼 조용한 아이랑은 친구가 안 되겠네요?

A : 조용해도 마음이 맞으면 돼요.

Q : 어떤 마음?

A :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좋거나 그러면 돼요.

Q : 첫인상... 그러면 말을 먼저 걸어요?

A : 아니요. 거의 다 그쪽에서 먼저 걸어요.

Q :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을 먼저 걸어서 친구 된 경우는 없어요?

- A : 별로 그런 경우 없어요.
- Q :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친구가 없겠네요?
- A :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 Q : 그럼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따라 와요?
- A : 네
- Q : 좋겠네요. 친구와 나의 비슷한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는 어떤 친구들인가요?"
- A : 성격이 다 비슷해요.
- Q : 성격이 다 활달한 거?
- A : 네.
- Q :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댄스 등 강습을 받거나, 혹은 숙제를 위해 자료 조사 등을 할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친구들에게 의견을 내는 편인가요?
- A : 주도적이에요. 제가 먼저 의견을 내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면 억지로 가져오는 안 해요.
- Q : 친구들이랑 언제 놀아요?
- A : 주말이나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놀아요. 학교 끝나거나 시험 끝나면 놀아요.
- Q : 어디서 놀아요?
- A : 시내에서 놀아요. 범계역이나 안양 1번가요.
- Q : 거기서 뭐하고 놀아요?
- A :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 Q : 맛있는 거 뭐 먹어요?
- A : 피자나 빙수 먹어요.
- Q :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 A :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 한 시간 정도 걸려요.
- Q : 그러고 나서?
- A : 그냥 돌아다녀요. 머 살 것 없나 하고. 옷이나 악세서리나 화장품을 사기도 해요.
- Q : 학생이 가면 안 되는 곳도 가요?

- A : 그런 곳은 안 가요.
- Q : 시험이 끝나면 시내에 가지만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안 가나요?
- A : 많이 가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 집에 가요. 그곳에서 라면 끓여먹고 TV 보고 컴퓨터해요.
- Q : 컴퓨터 할 때 같이 해요? 혼자 해요?
- A : 같이 해요.
- Q : 같이 한다면 보는 사이트가 같겠네요. 주로 어떤 사이트를 보나요?
- A : 다른 친구 사이에 들어가서 사진 구경하고 버디버디에서 통해 쪽지를 주고 받아요.
- Q : 그러다 보면 한 두 시간 훌쩍 가겠네요.
- A : 네.
- Q : 그러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나요?
- A : 내일 뭐할까 그런 얘기도 하고 누구는 이렇다 등 얘기해요.
- Q : 일상과 친구들에 대한 비방 및 비판?
- A : 비판도 하지만 좋은 점도 얘기 해요.
- Q : 남녀 이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 A : 가끔. 초등학교 시절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남자애들이랑 안 놀아서 별로 안 해요.
- Q : 드라마나 공부, 연예인 얘기를 안해요?
- A : 연예인 얘기는 요즘 별로 안 해요.
- Q : 왜 안해요?
- A :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친구들도 다 연예인을 심하게 좋아하는 애 없어요. 매일 공개방송 쫓아 다니고 그런 애는 없고요 그냥 애 괜찮다, 잘 생겼다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 Q : 선생님 얘기는 안해요?
- A : 하죠.
- Q : 어떤 얘기해요?
- A : 그 선생님은 왜 이러나 등의 불만을 말해요.
- Q : 친구랑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 A : 친구 얘기. 친구의 일상 등이요.
- Q : 핸드폰 있어요?
- A : 없어요.
- Q :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는데...
- A : 정말 그래요. 그래서 슬퍼요. 연락이 안돼요. 연락이.
- Q : 집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 A : 엄마가 지켜보는 게 싫어서 집전화를 싫어요. 말로 하면 다 들리니까요.
- Q : 비밀 이야기가 많나봐요. 다른 친구들도 그럴까요?
- A : 네. 친구들끼리 아예 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친구 중에서 저 혼자만 휴대폰이 없어요.
- Q : 문자도 많이 하잖아요. 말보다 문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 A : 비밀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친한 친구끼리도 말로 하기 좀 곤란한 내용은 문자로 해요.
- Q : 얼굴 맞대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 A : 그런 의미로 있고 얼굴 맞대고 말하기 곤란한 말도 있고 그래요.
- Q : 문자는 이야기와 달리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서로 화가 나도 이모티콘 하나 띄어 보내고 그쪽에서는 ‘헉’ 정도의 답장을 보내고...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되나요?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나요?
- A : 다시 이야기해요.
- Q : 공부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문자를 보내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나요? 아니면 친구랑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요?
- A : 전 문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몰라요.
- Q : 버디나 미니홈피 싸이, 핸드폰 등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 A : 네. 핸드폰이 없어서 저는 싸이나 버디로 많은 얘기를 해요.
- Q : 미니 홈피에 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 A : 저는 주로 사진을 올려요. 글은 잘 안 써요.
- Q : 미니 홈피나 버디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친구 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나요?
- A : 네. 전학을 가서 자주 못 만나는 친구나 친척 등과 연락도 하고 다른

지역의 친구도 사귀어요.

Q : 동호회 모임도 하나요?

A : 네, 인터넷에서 다이어리 꾸미는 모임에 참가해서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대화를 했어요.

Q : 카페 친구들과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오프 모임도 하나요?

A : 카페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서로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요, 버디에서 만난 친구 소개로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애들끼리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후속 모임을 없었고 그냥 대화하고 먹고 헤어졌어요.

Q : 영화는 안 봐요?

A : 새 영화나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서 비디오로 보곤 해요.

Q : 휴일에 친구 집에 가서 비디오 봐도 그 집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세요?

A : 네, 오히려 더 반가와 하세요.

Q : 시험 끝나면 노래방에 가고?

A : 꼭 가요. 행사예요.

Q :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인기가 있나요?

A : 성격이 활발한 애요. 애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고. 밝고 친절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잘해 주는 친구가 인기 있어요.

Q :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A : 공부 잘하면 인기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이상하면 인기 없어요. 공부는 잘하면 더 좋은 것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인기 있는 것은 아니예요.

Q : 얼굴도 예뻐야 되는 거 인기 있지 않나요?

A : 예쁘면 더 좋겠지만 못 생겨도 성격 좋으면 인기 있어요.

Q : 이성친구도 성격만 좋으면 될까요?

A : 남자친구는 잘 생겨야 돼요. (웃음)

Q : 같이 다녀도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A : 저는 별로 싫어하지 않던 친구도 다른 친구들이 싫다고 자꾸 말하면 저도 싫어하게 돼요.

- Q : 좀 짓대가 없고 친구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별로 호감이 없던 애도 다른 친구들이 자꾸 좋다고 하면 바뀌나요?
- A : 그건 아니죠. 전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어요.
- Q : 뭣 땀에 그렇게 싫어지나요?
- A : 뒤에서 지나 다른 사람을 욕을 하는 친구가 싫어요. 그런데 저도 다른 친구들이 욕을 하면 같이 하게 돼요.
- Q : 그러면 소빈이도 다른 사람이 매우 싫어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네요.
- A : (웃음) 그래도 전 그렇게 주도적으로 남의 흥을 보진 않아요.
-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나요?
- A : 네, 많아요.
- Q : 어떤 경우에 싸우나요? 사례별로 얘기해 주실래요?
- A : 기분이 나쁠 때면 싸워요. 사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 받아줄 수 있는 말도 제가 기분이 나쁠 때면 확 받아쳐서 말싸움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워요.
- Q : 감정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네요.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 봐요.
- A :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문자 한 번 보내고 금방 화해해요.
- Q : 싸우고 금방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A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나치게 뒷담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빼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면 오래 가요.
- Q : 내가 딱 마음에 맞는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 A :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내 마음에 들면 친구 해요.
- Q : 내 마음에 든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 A : 옛날에는 똑똑한 친구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고 내게 잘 대해 주면 좋아요.
- Q : 남자(이성)친구 있어요?
- A :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는 있었어요.
- Q : 남자친구랑 뭐해요? 얼마나 사귀나요?
- A : 오래 사귀면 1년이고 짧게 사귀는 경우는 1주일 정도... 남자친구도 다른 친구랑 다 같이 놀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해요. 단 둘이서 데이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남자친구가 인형을 선물해 주었어요.

Q : 특별히 둘이 하는 건 없어요?

A : 그 친구가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좀 무서워서 못 했어요.

Q :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나요?

A : 몰라요.

Q : 아신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나요?

A : 글썄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 같고요, 좀 재미있어 하실 거 같아요.

Q : 그러면 남자 친구가 나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 네. 그 친구가 공부를 잘 하는 애면 나도 열심히 하게 돼요. 남자친구의 성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저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Q : 앞으로 남자친구 사귄 생각이 있나요?

A : 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Q : 이성친구와 동성친구가 차이가 있나요?

A :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가가... 그냥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Q : 그런데 그 친구가 따로 데이트를 청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 계속 시간을 끌 것 같아요.

Q :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나요?

A : 직접 말하기 곤란해서 인터넷에서 쪽지로 말해요.

Q : 자신의 생활을 공부,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A : 전 친구관계요. 전 재밌는 것이 좋아요.

Q : 학교 생활이 재미있나요?

A : 네.

Q :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A :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Q : 학급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친해지죠? 모듬 활동을 같이 하나요?

A : 모듬 활동을 많이 해요. 가까이 앉은 애들끼리 친해져요. 가까이 있어도 지나치게 말이 없거나 다른 반이나 다른 분단 아이들과 유난히 친한 애들은 말할 기회가 없으니 안 친해져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 행사도 같이 하고 하니 학교친구가 친해요.

Q : 그렇군요.

Q : 진로와 관련하여 친구관계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봐요.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A : 별로 생각 안했어요.

Q : 친구와 공부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나요?

A : 공부 잘 하는 애들과는 공부 얘기 많이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Q : 본인은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인가요?

A : 저는 중간이에요.

Q : 성적 걱정이나 자신이 부족한 공부나 공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하나요?

A : 친구랑 얘기해요. 좋은 문제집 추천도 받고요, 모르는 숙제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해요.

Q :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나요?

A :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과 놀면 자연스럽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Q : 장래 희망이 뭐가요?

A : 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Q : 친구랑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한다든지 또는 친구의 장래 계획을 들으면서 고무 받았던 적이 있나요?

A : 초등학교 시절에는 서로 이야기 하고 했는데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은 거의 현모양처가 꿈이라서...(웃음)..... 엄마가 꿈이래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전 장래 손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 소빈이가 친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A :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Q : 아까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뭔가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노는 것만 해당되나 봐요.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살자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도하지 않나 봐요.

A : (웃음) 해 본 적도 있는데.....

- Q : 친구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나요?
A : 네, 만족해요.
- Q : 친구의 성적 때문에 신경을 쓴 적 있나요?
A : 네, 전에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 하면 속상하고 했는데 요새는 공부 자체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 자신이 별로 공부를 안 하니... 친한 아이 중에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랑 많이 제일 친한 친구는 저보다 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신경을 안써요.
- Q : 그렇게 공부 못한 친구에 대해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A : 들어요.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는 말 못했지만 장난처럼 공부 좀 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 요즘 공부해요.
- Q : 본인도 하셔야 되겠네요.
Q : 메일이나 인터넷 버디와 문자 메시지 주로 나누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 인가요?
A :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자금 같은 반에서 친한 친구 두서너 명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서로서로 다 알아요. 서로 소개해주고 그래서 다 알아요.
- Q : 주거지가 비슷한가요?
A : 네, 거의 서로 이웃에 살아요.
- Q : 오프라인 친구와 온라인 친구가 일치되는 거네요.
A : 네, 거의 일치돼요.
- Q : 뭘, 전화, 메시지의 내용은 뭐가요?
A : 만남 시간과 장소 등등.
- Q : 부모님은 친구관계를 잘 알고 있나요?
A : 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 Q : 부모님이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하나요?
A :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데 너무 공부 안하면 정신 차리고 같이 공부하라고 하시고요. 맨날 놀지만 말고 뭔가를 좀 하라고 하셔요.
- Q : 그런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저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실천을 못해요. 아이들에게 제안하기도 어렵고...

- Q : 학교 선생님도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나요?
- A : 초등 6학년 때에는 학급 분위기 망치지 말라, 몰려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해요.
- Q : 현재 선생님께서는 학급 아이들의 친구관계를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기라고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나요?
- A : 아니요. 선생님께서 젊으셔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은 옷이나 외모 등에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요. 성형수술은 어디를 하면 좋다는 등 그런 말씀도 해 주셔요.
- Q : 선생님이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선생님께서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이나 말씀이 없으신가요?
- A :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 Q : 선생님에 대해 물어 볼게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 A : 네 있어요.
- Q : 어떤 점을 존경하나요?
- A :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요.
- Q :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시나요?
- A : 네, 다른 선생님은 자기 기본대로 하는데 도덕 선생님은 안 그래요.
- Q : 특별히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는데...
- A : 네, 지겹지 않게 가르쳐 주세요.
- Q : 그 선생님은 정소빈을 아나요?
- A : 네, 알고 있어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싫어하나요?
- A :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간섭,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분이 싫어요. 옷차림이나 두발 등 사사건건 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 Q : 좀 과도하게 두발이나 옷차림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 싫군요.
- A : 네.
- Q :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요?

A : 다른 학생에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유독 저한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Q : 왜 소빈이한테 그럴까요?

A : 그건 모르죠.

Q : 그럼 선생님이 차별하는 게 싫은가요? 태클 거는 게 자체가 싫은가요?

A : 태클 자체가 싫어요.

Q : 그 선생님이 학교 규율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지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나요?

A : 별로 없어요.

Q : 그러면 이런 싫고 좋은 선생님의 존재가 본인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A : 네, 좋아하는 선생님 시간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싫어하는 선생님 시간은 잘 듣지도 않는데 그 과목 성적은 좋아요.

Q : 그건 시험공부를 얼마나 했는가와 관련이 있겠죠?

A : 그런 가 봐요.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이해해 주는 것이요.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애들을 이해해 주고 재밌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요.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실력의 하나 아닌가요?

Q : 따분한 선생님은 싫어하겠네요?

A : 네. 막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것도 재미도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루하게 자꾸 하는 선생님은 싫어요.

Q : 안 통하는 선생님이 싫다는 얘기군요. (학생들과) 통하는 게 나이와 상관 있나요?

A : 관계가 있어요. 젊은 선생님이 훨씬 재미있어요.

Q : 본인의 관심사인 옷 이야기 등을 해주시는 선생님은 좋아하나요?

A : 네.

Q : (앞에서 말한)도덕 선생님도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나요?

A : 아니요, 그런 얘기 안하지만 뭔가 재미있어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

면서도 핵심을 잘 말씀해 주세요.

Q : 담임선생님은 소빈이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A : 잘은 모르지만 관심을 있어도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Q : 담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A : 잘 모르겠어요.

Q :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A : 없어요.

Q :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과 개인 면담 등을 한 적이 있나요?

A : 없어요.

Q : 선생님께서 반 전체에 대해 훈화 말씀 등을 하시지만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지는 않는군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개인적 관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A : 개개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Q : 그러면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네, 그런 것 같아요.

Q :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의 성적이나 학습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A : 이야기하지 않아요.

Q : 그러면 학교생활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친구.

Q : 학교생활이 행복한가요?

A : 행복해요.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Q : 친구관계가 좋은가 봐요?

A : 선생님께 혼나도 집에 올 때 친구들과하고 하하 웃고 나면 즐거워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Q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A : 네.

한국사례 #7

대상자 : 중1, 여, 거주지(사당동), 성적(중), 모학력(대졸), 가구소득(중)

Q : 친구 관계에 대해 물어볼게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친구들은 모두 몇 명쯤이라고 생각해요?

A : 열 명쯤요.

Q : 친구들을 나눈다면?

A : 학교 친구가 여덟 명쯤 되고 학원 친구가 두 명쯤 되고.. 교회 친구는 없고... 동네 친구는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어 없지만.. 지금 연락이 잘 안되긴 한데 전에 있던 동네 친구들을 생각하면 학교 친구 여덟 명, 학원 친구 두 명, 동네친구 다섯 명.

Q : 그럼 열다섯명쯤 되겠네요?

A : 네.

Q : 그럼 친구들중에 남자친구도 있어요?

A : 아니요. 모두 여자친구들이예요.

Q : 친구가 될 때 어디를 중요하게 봐요?

A : 성격요.

Q : 성격이 어떤 친구가 좋아요?

A : 성격이 좋고 이타적인 친구..

Q : 친구들중에서도 나영이랑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나영이하고 친한 친구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비슷한 거 같아요?

A : 처음에는요. 비슷한 걸 잘 몰랐는데 지내다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성적 같은 거요.

Q : 성적이 비슷해요?

A : 네.

Q : 쌍둥이라고 한다면 외모가 비슷한가요?

A : 네.

Q : 외모나 태도 같은 것이 비슷한가 봐요?

A : 네.

Q : 친구들과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가 할 때 나영이하고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결정해요? 누가 주로 의견을 내면 따라준대거나 각자 의견을 내놓고 결정한다든가?

A : 음, 다수결.

Q : 각자 자기 의견 내고 친구들끼리 다수결로?

A : 네.

Q : 친구들끼리 어디서 만나고 보통 언제 만나요?

A : 잘 못 나가서요. 집에 가면 공부하라고 해서 잘 못 나가구요. 그냥 인터넷이나 채팅상으로.

Q : 밖으로 잘 못 나가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친구가 집에 오거나 나영이가 친구 집에 가는 거도 없구요?

A : 네. 학교 끝나고 몰래 노는 거. 웃음.

Q : 몰래 살짝? 웃음. 그럼 그때는 어디서 노는데요?

A : 정해진 건 없고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놀아요.

Q : 그럼 엄마 몰래 노래방이나 조금 이상한 데도 가고 그래요?

A : 그런 데 안 가요.

Q : 친구들과하고 놀고 그럴 때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떤 내용?

A : 다른 친구들 얘기하고 성적.

Q : 공부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 얘기?

A : 네.

Q : 아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연락 많이 하고 그런다고 했지요?

A : 네.

Q :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나영이는 미니클럽이나 사이월드 해요?

A : 네. 사이월드 해요.

Q : 그럼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용하는 게 친구들 관계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A : 미안한 거 같은 거는 직접 보고 말하면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로 하든지..

Q : 미안한 일 있을 때?

A : 네. 어쩔 때.. 싸울 때나 직접 보고 말하면 그래서 문자 같은 거로..

Q : 싸운 내용이라든지 사과한다든지 할 때..?

A : 네.

Q : 인터넷으로 메일이나 쪽지로 그런 내용을 보내기도 해요?

A : 음.. 쪽지로.. 네.

Q : 그럼 그런 걸 보내고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어떤 거 같아요?

A : 어쩔 때는 좀..성격을 말하면..태도를 모르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Q :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전달을 하면서 살짝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A : 네.

Q : 핸드폰 할 때 통화를 많이 해요, 문자를 많이 해요?

A : 문자요.

Q : 왜?

A : 통화 요금 때문에.

Q : 그러면 사이월드에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학교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사귀다든지 하는 교우관계가 넓어지는 거 같아요?

A : 아니요. 아는 친구들하구만 해요.. 그래서..

Q : 사이월드 하면서 모르는 친구가 들어오거나 하는 건 없어요?

A : 파도타기하면서 방명록에 들어오고 글 같은 거 남기기도 하지만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Q : 친구들하고 잠깐씩 놀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방과후나 휴일에 논 적은 없어요?

A : 없어요.

Q : 친구가 집에 온 적도 없어요?

A : 네.

Q : 그럼 잠깐씩 놀 때 얼마나 놀아요?

A : 많으면 30분.

Q : 30분 동안 뭐해요?

A : 그냥 얘기해요.

Q : 친구 얘기?

A : 네.

Q : 놀러도 못 가겠네요?

A : 네.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 거 같아요?

A : 좀 노는 애들이오.

Q : 노는 애들이 인기 있는 거 같아요?

A : 그렇게 보여요.

Q : 그럼 친구들이 싫어하는 친구는 어떤 성격인 거 같아요?

A : 이기적이구요. 잘난 척을 많이 해요.

Q : 나영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 있었어요?

A : 네.

Q : 어떨 때 싸워요?

A : 마음이 안 맞을 때.

Q : 구체적으로 어떨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싸워요?

A : 만약에 내가 어딜 가고 싶은데 친구는 다른 데를 가고 싶다고 할 때.

Q : 아, 그런 일이 있을 때 싸우는 일이 많이 있구나. 나영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해요? 재는 나랑 참 마음에 맞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는?

A : 이타적인 아이.

Q : 나영이를 먼저 생각해 주는 친구?

A : 네.

Q :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모 말썸씨 등등..

A : 성격.

Q : 나영이 남자친구 있어요?

A : 없어요.

Q : 앞으로 사귄 생각은 있어요?

- A : 네. 사귄 거 같아요.
- Q : 나영이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 이렇게 나누어봤을 때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 A : 가족관계요.
- Q : 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 A : 네.
- Q : 왜요?
- A :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 있으면 지루해요.
- Q : 진로와 관련된 친구 관계를 물어볼게요. 상급 학교 진학 등과 관련해서 친구 관계가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요?
- A : 네.
- Q : 공부 의욕이나 진학 진로 등이 친구 때문에 연관성이나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 A : 네.
- Q : 진로에 관련된 친구를 알게 된 경위 좀 알려주세요.
- A : 초등학교 입학 때 엄마랑 같이... 제가 모르는 애였는데 엄마가 친구하라고 해서 지금도 친구고 같이 놀곤 해요.
- Q : 그 친구를 진로랑 관련된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 A : 장래 희망이 같아요.
- Q : 장래 희망이 뭐예요?
- A : 디자이너요.
- Q : 그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같이 공부하거나 하는 게 있나요?
- A : 그런 건 없는데 고등학교를 갈 때 같이 가려는 생각은 있어요.
- Q :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 A : 이화외고요.
- Q : 디자이너가 꿈인데 외고를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A : 그럴 거 같아요. 엄마가 영어 먼저 하라고..
- Q : 디자인 고등학교도 있나요?
- A : 그건 잘 모르겠어요.
- Q : 지금도 그 친구랑 같은 학교 다니나요?

- A : 지금은 이사 와서 다른 학교예요.
- Q : 그럼 놀러와서 자고 가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 A : 자주 그러지는 않고 일년에 두 번 정도.
- Q : 그 친구랑 어딜 가거나 그런 거는 못하나요?
- A : 네.
- Q : 집에서 그 친구랑 뭐 하고 노나요?
- A : 그냥 놀아요. 컴퓨터 게임하거나 말로 얘기하거나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
- Q : 그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장래 희망이 그 친구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 A : 아니요. 우연히..
- Q :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디자이너가 꿈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 A : 네.
- Q : 지금도 그 친구 때문에 디자이너의 꿈이 계속 유지되는 거 같아요?
- A : 네.
- Q :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외고를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외고가 가고 싶어진 건가요?
- A : 아니요. 엄마가 처음에 가라고 해서 그런건데 개도 가고 싶다고 해서요.
- Q : 그 친구가 나영이한테 영향을 받아서 외고를 가고 싶어진 거네요?
- A : 그런 거 같아요.
- Q : 친구들 사이에서 나영이의 역할은?
- A : 따라가 줘요.
- Q : 나영이도 성격이 밝고 씩씩한데 따라주는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 A : 나설.. 그계.. 줌..
- Q : 나서는 게 싫어요?
- A : 네.
- Q :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편한가요?
- A : 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 Q : 나영이가 이끌어가고 싶고 그러지는 않은가요?

A : 네.

Q : 계속 따라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A : 어떨 때는 내 주장대로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게 편해요.

Q : 그 친구는 공부 수준이 어때요?

A : 잘해요.

Q : 그럼 그런 게 마음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A : 괜찮아요.

Q : 전혀 상관없어요?

A : 네. 오히려 제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Q : 친구는 잘하는데 난 그 친구보다 못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A : 없어요.

Q : 그 친구 때문에 공부 의욕이 더 강해졌나요?

A : 네. 경쟁성으로..

Q : 아까 싸이하고 자주 문자 보내고 하는 친구가 컴퓨터 친구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그냥 오프라인 친구겠네요?

A : 네.

Q : 그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아요?

A : 그냥 안부 전하구요. 뭐하냐고 하고. 꿈에 관련해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고 문자상으로는 잘 안 해요.

Q : 문자 주고 받거나 할 때 어떤 내용인지?

A : 맨날 다른데요. 성적.

Q : 그 친구 한 명만 말하는 게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자 보내고 메일이나 쪽지 보낼 때 내용은 똑같아요?

A : 어떨 때는 친구가 인터넷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숙제나 성적 같은 거 얘기하고 자주 들어가지는 않아요.

Q : 부모님이 나영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세요?

A : 아니요. 별로.. 그렇게 별로 하지는 않으시는데 물어보기는 하세요.

Q : 살짝 간섭하시긴 하네요. 어쩔 때 물어보세요?

- A : 밥 먹을 때.
- Q : 친구에 대해 어떤 거 물어보세요?
- A : 공부.
- Q : 그 친구 공부 잘하는지 하는 거?
- A : 네.
- Q : 또 어떤 거 물어보세요?
- A : 잘 모르겠어요.
- Q : 그 친구가 공부 못한다고 하면 뭐라 그러세요?
- A : 친구하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 Q :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시는 거 같아요?
- A : 공부 잘하고 적극적인 아이.
- Q : 부모님이 나영이 친구들 다 잘 알고 계세요?
- A : 그냥. 대충이요.
- Q : 잘 말씀 안 드리나봐요?
- A : 네.
- Q : 그럼 선생님이 나영이 친구 관계에 간섭하시는 거 같아요?
- A : 네. 조금.
- Q : 선생님은 나영이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 같아요?
- A : 모든 애들하고 조금씩 두루두루 사귀는 거.
- Q : 담임선생님 말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 A : 차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지내고 왕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 Q : 왕따가 안 생기게.
- A : 네.
- Q : 선생님들이 은근히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귀어라 하고 그런 건 없어요?
- A : 네.
- Q : 음. 두루두루 어울려 친구들 사귀는 걸 원하시는구나.
- A : 네.
- Q : 나영이네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 계시나요?
- A : 아니오.
- Q : 싫어하는 선생님은 있나요?

A : 음...

Q : 솔직하게 말해도 되요.

A : 그냥... 담임선생님이요.

Q :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A : 편애를 하세요.

Q : 선생님은 두루두루 사귀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편애를 하신단 말이에요?

A : 그니까 선생님은 두루두루 지내는 걸 좋아하시지만 왕따 같은 애들은 잘 지내지 못하니까 그런 애들을 편애하세요.

Q : 그건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 아닐까?

A : 근데 너무 그래요.. 요즘 그 애들도 다른 애들이랑 잘 지내는데도 그러니까...

Q : 그럼 그 애가 왕따가 된 이유가 선생님이 편애해서 그런 거예요?

A : 그건 아니고요.

Q : 그럼 선생님이 편애해서 왕따가 된 건 아니고 왕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편애하시는 거구나?

A : 네.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요? 학교 생활이 싫다든지 좋다든지...

A : 상관 없어요.

Q : 전혀 상관 없어요?

A : 네.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A : 유머 감각이 있구요. 잘 가르쳐주시고 저희들 수준에 맞게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Q :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 잘 가르쳐야 되고 유머 감각이 있고 해야하는군요?

A : 네.

Q : 담임선생님이 나영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해해주시는 거 같아요?

A : 아니요.

Q : 나영이를 이해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A : 그냥 다른 친구들 대해주는 거랑 같아요.

Q : 왕따인 편애하는 그 애랑 같은 정도로?

A : 그애 빼구요.

Q : 나영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 없어요. 성적
이나 성격이나 꿈이나 등등..

A : 성적.

Q : 성적만?

A : 네.

Q : 나영이의 꿈이나 성격이나 다른 건?

A : 성격은 다른 친구도 알고 있지만 다른 건...

Q : 대략적인 건 아시는 거 같지만 나영이의 대해 이해나 관심은 없는 거
같아요?

A : 네.

Q : 어떨 때 선생님이 나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A : 부족한 건 아니구요.

Q : 그럼?

A : 그냥... 관심이 없고 늘 바쁘세요.

Q : 나영이에 대해 알려고 노력을 안하시는 거 같아요?

A : 잘 모르겠어요.

Q : 나영이와 따로 얘기할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물어보
면?

A : 그럼 얘기해주시기도 하고... 괜찮으시긴 괜찮으세요.

Q :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까요? 성적, 역할모델 등등

A : 친구.

Q : 성적보다 친구예요?

A : 네.

Q : 학교 생활이 대체로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A : 행복해요.

Q : 어떨 때요?

A : 그냥.

Q : 아까 친구가 가장 의미있다고 했는데 친구랑 관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A : 네, 그냥.. 친한 친구들도 많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Q : 학교 가면 재밌고 즐겁고 그래요. 친구 때문에?

A : 네.

한국사례 #8

대상자 : 중3, 여, 거주지(서울 강동지역), 성적(상)

Q : 학교, 친구, 동네친구중에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아?

A : 학교요.

Q : 어느정도?

A : 거의 반 친구들 하고 다른 반 애들 몇 명

Q : 그럼 남녀공학이지, 비율은?

A : 남자가 더 많아요. 친구는 여자가 더 많아요.

Q : 그래도 남자애들도 많이 사귀는 편이지

A : 네

Q : 친구들 사귄때 많이 따지는 편이야?

A : 아니요. 그냥 친하면 친하게 놀수 있으면 사귀는 건데.

Q : 비슷하게 있어야 돼?

A : 아니요. 비슷한 건 없어요. 그냥 친하게 놀 수 있으면 마음만 통하면 상관없어요.

Q :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A : 외모는 상관있는데.. 너무 못생기면 좀 그렇던데

Q : 왜?

A : 모르겠어요. 저는 못생기면은 좀 그렇던데..

Q : 못생기면 좀 창피할 것 같애?

애들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

A : 아니요.. 애들도 그렇던데..

Q : 성격도 중요하고 외모도 어느정도.

A : 네.

Q : 성적은 상관없구?

A : 네. 저는 성적 뒤에서 노는 애들이랑 노는데. 저는 성적이랑 상관없이

Q : 그럼 현재 친구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거 같애?

A : 그냥 비슷한 점은 없는데, 그냥 같이 놀구 하니까 놀때는 놀구요 공부 할 때는 공부하고... 그게 비슷하다는 건데.. 아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다.

Q : 그럼 친구들이랑 어디 가자고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

A : 친구나 내가 먹고 싶은거 통합해서 먹구요, 놀러가는 건 놀러가자고 하면 놀러가는데

Q : 놀러가자고 한 적은 없어?

A : 네 전 놀러가는거 싫어하는데.. 그냥 돌아다니는거 싫어해요. 덩고

Q : 그럼 친구가 해 달라는거 해주는 편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 별로 불만은 없어?

A : 네. 제가 별로 원하지를 았으니깐 그냥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해주고, 제가 원래 놀자고 해야 하는데 말을 안하니깐

Q : 그렇다고 너가 활발하지 았은게 아니잖아.

A : 네.

Q : 귀찮은 거야?

A : 네. 노는게 귀찮아요

Q : 그럼 귀찮치 았은게 뭐야?

A : 았는데.

Q : 그럼 보통 어디서 놀아? 시험끝나면

A : 먹는곳 노래방. 돌아다니다 집에 가는데..

Q : 얼마나 걸려? 시간이

A : 한 세네시간 정도?

Q : 보통 주말에만 놀 수 있겠네.

A : 네.

Q : 평일에는 뭐해? 학원?

A : 네. 그냥 집에 들어가는데..

Q : 별로 놀 시간이 았는거야?

A : 네. 노는 것도 귀찮구.. 웃음

Q : 그럼 보통 어떤얘기해?

A : 그냥 드라마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 생각나는 대로. 학교얘기도 많

이 하고

Q : 친구들얘기는?

A : 어떤 친구들이요? 네 뭐 학교 친구들 얘기도 하고 저한테 있었던 재미 있었던 얘기도 하구요. 제 친구들이 모르는 제 친구들 얘기도 하구요

Q : 핸드폰이 없었잖아. 생기고 나서 차이점은?

A : 원래 연락을 잘 안했었잖아요. 문자하고 하니깐. 더 놀게 되는거 같아요

Q : 더 좋다? 나쁘다?

A :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싸이도 안하거든요 재미없어서. 핸드폰 있는게 좋은거 같아요

Q : 그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있어? 핸드폰을 이용해서 내 친구관계를 넓히는데 이용을 하고 싶었던지..

A : 그런 건 아닌데.

Q : 문자가 편해? 전화가 편해?

A : 문자요. 모르겠어요. 전화는 좀..전 제 목소리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문자는 좀 편한데, 전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Q : 문자로 네 맘을 표현하는게 더 편해?

A : 네.. 이모티콘도 있고.

Q : 그럼 평일에는 안 보고?

A : 네 학교에서 많이 노니까.

Q : 주로 주말에 보고? 그렇다고 매 주 보는 것도 아니지.

A : 네 또 방학 숙제하면서 놀고.. 그렇게. 방학중에는 좀 많이 놀아요. 6시 간정도. 멀리 나가서 놀고..

Q : 만나는 목적은 먹고, 놀고?

A : 숙제도 하고 박물관, 음악회...

Q : 네가 봤을 때 반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은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거 같애?

A : 잘 웃고, 잘 말하고 재밌게 하고 자신감 있고 잘 이끌줄 알고, 잘 생각하고 이쁘고

Q : 외모가 빠지지 않는구나. (웃음) 부러운 때가 있어?

A : 네.

Q : 어떤 면에서?

A : 모든 애들이랑 어울리니까. 선생님들이랑도 친하고

Q : 너도 친한 편 아니야?

A : 예. 저는 공부 쪽 에서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빠해 주니까.. 웃음

Q : 느껴져?

A : 네. 국어 수업시간에 잘 들으니까. 눈을 잘 맞춰준다고 그게 참 좋대
요. 자신의 얘기 들어준다고. 안 자고

Q : 그럼 반대로 인기없는 애들?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애들은?

A : 소극적인 애들. 외모도 좀 딸리고 애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짜증잘 내
고 뭐 하기 싫어하는 애들..

Q : 성적은 좀 어때?

A : 성적은 중간? 아주 못하거나.

Q : 너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여?

A : 딱 봤을 때는 외모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딱 건 그런대로 괜찮은
데..

Q : 너도 멀리하는 편이야?

A : 저는 별로 안친한데.. 심하게 놀리거나 하지는 않고 하지 말라고는 해
요..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Q : 그럼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 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A : 그냥 뭐 아무 반응 없는데. 뭐 왜그러니 하면서 더 놀리기도 하고.

Q : 놀림 받는 애들은?

A : 자신이 관심받는 걸 좋아하던데.

Q : 그런식으로 라도?

Q : 슬프다. 항상 혼자다녀? 친구도 없고? 같이 다닌 친구 있던데.

Q : 근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A : 네. 전학도 가고.. 도둑질도 해가지고.

Q : 친구랑은 싸워?

A : 네.. 제가 싸우자고 한게 아니라, 따져요. 한명이랑 싸웠는데, 안놀아준
다고

- Q : 사실이냐?
- A : 예.. 너무 잘 빠져서 그리고 친구문제로 싸운적도 있어요. 어느편을 들
꺼냐 그래서 무슨 편을 드냐 그러면서 싸웠어요.
- Q : 지금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있어?
- A : 네.
- Q : 그 친구랑은 왜 친한거 같애. 왜 마음이 맞는거 같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 같애?
- A : 마음이 맞는 친구요? 저랑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구요. 적극적이고 저
랑 거의 비슷한 성격?
너무 귀찮아 하는 것도 싫구요. 너무 놀러 다니는 것도 싫구요. 저랑
비슷한게..
- Q : 생각도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이 비슷한게 좋은게.. 친구들 사이에서
오는 트러블을 막을려고 하는거야? 싸우는게 귀찮아서?
- A : 모르겠어요. 전 그게 좋던데.. 저랑 마음이 안 맞는 애들은.. 별로
- Q : 그럼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같애?
- A : 성적은 아예 안따지고.. 그냥 친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성격? 외모도
따지고..(웃음). 외모는 왕따 안당할 정도.
- Q :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한단 말이야?
- A : 네. 요즘은 좀 그러던데.. 엄청 못생겨가지고
- Q : 그럼 반대로 외모가 아주 뛰어난 애들은 애들이 따르겠네?
- A : 근데, 외모가 뛰어나도 성격이 이상하면 애들이 따돌리죠.
- Q : 힘들다. 웃음
- Q : 너는 남자 친구 있었지?
- A : 네. 근데 서울 와서는 안사졌어요.
- Q : 그 전에는?
- A : 6학년때랑 중1때랑.
- Q : 오래?
- A : 아니요. 다 빨리 깨졌어요.
- Q : 너네한테 빨리라는게 어느정도야?
- A : 일주일도 안되서 깨진적도 있구요. 오래간게 오십몇일..

Q : 그 때 사졌을 때 엄마아빠 아셨어?

A : 아니요. 알면 죽어요. 한 번 알아서 맞아서 죽을 뻔 했어요.

Q : 둘이 있으면 보통 뭐해?

A : 저는 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들이랑.. 둘둘이서. 많이 안 만났어요.

Q : 그럼 왜 사겨?

A : 몰라요. 그냥 사귀자고 해서. 별로 제가 좋아서 사귄 적은 없어요. 애들이 사귀라고 해서..

Q : 뭐 헤어졌어도 별로.. 그럼 누구랑 사귄다고 해서 성적에 영향을 준 적은 별로 없었겠다.

A : 아니요. 성적 영향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켜서.. 평균이 10점은 내려갔어요.

A : 별로 안좋아해도 신경이 쓰이긴 쓰이잖아요.

Q :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테고..

A : 메신저는 했어요.

Q : 앞으로는?

A : 사귄 생각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면..

Q : 성적 또 떨어지면 어떻게?

A : 그게 좀 문제인데요.. 사귀고 싶긴 한데.. 그걸 조정할 자신은 없어요.

Q : 그럼 엄마는 싫어하시겠네.

A : 당연하죠..

Q : 그럼 공부, 취미, 가족, 친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A :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공부. 취미는 별로 신경 안쓰는데 ..

Q : 가족이 젤 소중한 이유는?

A : 늘 같이 있으니까 ..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웃음). 친구도 학교가면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고..

Q : 학교는 재밌어? 뭐 때문에 재밌는거 같애?

A :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게..

Q : 그냥 그거 자체가?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게 재밌는건데..

Q : 친구들이랑 학교생활하는게 재밌는거지?

A : 네.

Q : 그럼 외고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선생님이 말씀 안하셔?

A :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셨는데, 안한다고 했어요.

Q : 아니 왜 시험도 안보구..

A : 준비가 안되었어요.. 웃음

Q : 그럼 친구가 옆에서 가자가자 해도.. 또 가는 친구들을 보면 자극을 받거나 하는 건 없고?

A : 네.

Q : 만족하는거야?

A : 아니요. 만족하는건 아닌데 그다지 연연해 하지는 않아요..

Q : 대학도?

A :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Q : 그러면.. 문자를 특별히 자주 주고 받는 친구는?

A : 남자애들. 여자애들과는 별로 문자 안하는데

Q : 핸드폰은 남자애들과..

A : 제가 문자하는 걸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맨날 뭐하냐고 보내고, 하루는 뭐라고 했어요. 왜 맨날 그거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다르게 보냈더니구요. 짜증나요..

Q : 그럼 부모님이 친한앤데 사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

A : 그런적 있는데..그래도 사졌는데.

Q : 남자친구면 어때?

A : 남자친구도 상관없이 사졌는데. 공부 아예 못하는 애들..

Q : 엄마아빠가 싫어하는 애들은? 어떤애들 이었어?

A : 놀기 좋아하는 애들.. 외모적으로도 날티나는 애들.

Q : 이해가 안돼?

A : 이해되죠..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엄마가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해도 친해지던데..

Q :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경우는?

A : 있었어요. 전학온데서.

Q : 직접 불러서?

A : 전화도 했어요. 엄마한테. 저한테도

Q : 어떻게 했어?

A : 학교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안사귀진 않죠. 계속 놓고..

Q : 전혀 꺼리키는 기분도 없이?

A : 네..

Q : 전혀 상관없구나? 어른들이 생각하는게..

A : 네.. 웃음

Q : 그래도 좋은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존경스런 선생님이나 좋은 선생님은?

A : 재밌고, 수업잘하시고 그런 선생님

Q : 폭력쓰는 선생님은?

A : 별로 안 좋던데..

Q :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A : 너무 간섭하는 선생님들.. 아무 잘 못도 안했는데 때리고 그러는 선생님들

Q : 지금 담임선생님이 이빠해 주시는데 어때?

A : 좋은데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는건데, 성적 떨어지면 부담스럽죠..

Q : 그럼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 생활에 좀 연관이 있어?

A : 상관없어요.

Q : 혹시 좀 싫어한다고 해도?

A : 싫어하는 건 상관이 있죠. 그 수업이 듣기가 아예 싫을 것 같은데..

Q :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훌륭해 보이는 선생님은?

A :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

Q : 그게 1번?

A :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선생님. 행동, 말..

Q : 선생님과 친하니까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A : 조금은.. 이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Q : 얘기는 많이 하는 편이야?

A : 아니요.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Q : 언제 예뻐하고 계시다는 걸 느껴?

A : 청소할 때.. 늦어서 오리걸음 걸고 나서 얘기할 때.. 웃음

Q : 그럼 학교 다니면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공부 , 친구 등등.. 이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거 같다 하는거..

A : 친구!

Q : 귀찮으면서 친구가 좋긴 좋은가 보다 웃음

A : 집에 가면 공부안하거든요. 근데 놀때 보면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쫓리구.. 불편하고

Q : 지금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A : 행복하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Q : 불만은 없는거야?

A : 그래도 있죠. 친구들 사이에. 트러블. 마음이 잘 안 맞을 때

Q : 잦아?

A : 사소한 일에..

Q : 금방 푸는 편이야?

A : 한 시간도 안되서 푸는데..

Q : 그럼 괜찮네.

한국사례 #9

대상자 : 중2, 여, 거주지(서울 강동지역), 성적(상)

Q : 친구들 좋아해?

A : 친구들 매우 좋아해요,

Q : 어떤 친구들을 좋아해?

A : 음... 저랑 마음 잘 맞고, 잘 놀 수 있는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말고

Q : 마음이 잘 맞는 다는 게 어떤 거야?

A : 음.. 저랑 생각이 비슷하고 이것저것 노는 게 비슷하고 다..

Q : 너는 보통 뭐하고 놀아? 너는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A : 많이 좋아해요, 아노. 애 만화책 짱 많이 봐요.

Q : 어떤 거 좋아해?

A : 저요? 다 싫어하는 건 없어요,

Q : 싫어하는 건 없다고?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A : 네..애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다 좋아해요.

Q :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A : 노래방 가는 건 좋아하는데..노래는 안 해요.

Q : 그냥 즐기는 거야? 친구들 하는 거?

A : 노래는 못해서, 부르진 않아요.

Q : 부르지 않고?

A : 네..

Q : 넌 연예인도 안 좋아하잖아.

A : 아..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그냥 보니까..

Q : 그냥 보는 거?

A : 보니까 애들도 연예인 얘기는 그다지 안 해요.

Q : 안 해 별로?

A :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 Q : 너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가 보다.
- A :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변 애들이 학교 얘기하고 , 친구얘기..연예인 좋아하는 애들..
- Q : 또 그렇게 그런 애들은 그렇게 놀지?
- A : 약간 그런 거 같아요.
- Q : 그럼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 네
- A : 웃음
- Q : 그럼 너 주변의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거네?
- A : 아니요.
- Q : 그건 아닌 거야?
- A : 네..
- Q : 비율이 어느 정도 돼?
- A :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한데, 공부 못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 Q : 그럼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여?
- A : 네.. 별로
- Q : 솔직히!! 내 친구가 반에서 꼴찌야. 근데 너는 상위권이잖아 어때?
- A :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 데, 얘기하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약간 깔보는 게 나와요. 저도
- Q : 어.. 그럼 그 친구가 알까? 알겠지?
- A : 알겠죠.
- Q :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
- A : 근데..제가 예전에 뭐낙 착한 이미지를 깔아놔서... (웃음)
- Q : 만만치 않구나.
- A : 아니.. 하도 애들이 반에서 지금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착 하다고 착 하다고 계속 그래서.
- Q : 넌 그럼 착하다는 말이 좋지만은 않지 않아? 좋은 거?
- A : 그런데요, 애들이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쓰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그래요.
- Q : 너의 이미지는 다 그런 거야? 공부 잘하고 착하고..

A : 딱 두 가지 밖에 안 써요. 애들이 다..

Q : 나는 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 같은데 착하다는 말이..

A : 저는 안 그래요.

Q : 너의 이미지가 그거였구나.

그러면 너가 회장이니까 친구들한테 리더십을 가지고 어디 가자고 해?

A : 제가 주도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따라 다녀요. 의견을 가끔 내긴 하는데..

Q : 의견을 가끔 낸다. 가끔 내는데 가자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고?

A : 네. 애들 노는 게 다 좋아하는 거니까

Q : 음.. 비슷한 애들끼리 노는 거 같아. 그지?

A : 네.

Q : 그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A : 제일 많아요?

Q : 응!

A : 먹으러 제일 많이 가요.

Q : 역시 여자 애들은 먹는 걸 제일 좋아해. 그리고?

A :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데가 노래방 제일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영화나 놀러가는 것도 하고.. 노래방을 제일 많이 가는 거 같아요.

Q : 그럼 너희 남자 친구들이랑은?

A : 저는 원래 남자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별로 안 놀았는데, 여중 오니까...

Q : 그럼 지금부터 라도.. 학원 친구들도 있잖아?

A : 몇 명 없잖아요.

Q : 그래도 친구잖아.

A : 근데 멀리 살잖아요.

Q : 그래? 그럼 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은 거네?

A : 네.. 학원도 조금 하니까.

Q : 그럼 너는 보통 언제 놀아? 주말에?

A : 주말에는 보통 놀긴 하는데..평일이나 휴일..

Q : 평일에도 놀 수 있어? 학원 오기 전에 학교 끝나고?

A : 1시간? 2시간 정도?

Q : 2시간 안에 뭐 할 수 있나?

A : 막.. 먹고

Q : 아.. 먹는 건 할 수 있겠구나.

A : 저기가면 막 수다 떨고..

Q : 아~ 그래?! 수다 떨기, 먹기.. 여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음.. 그렇구나. 그럼 수다 떨 때 주제는 뭐야? 가장 많은 주제!

A : 남자얘기는 있을 때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학교 친구 얘기 많이 하고 학교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애들 얘기 막 하고, 여행 얘기 좀 하고

Q : 그래? 남자 애들은 관심 없어?

A : 애들이요?

Q : 응!

A : 애들은 많아요.

Q : 그지 많지?

A : 네.

Q : 좋아하는 티를 낼 텐데..

A : 막 책꽂이에 꽂아 놓고

Q : 그럼..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A : 그냥 친구로 서요?

Q : 응! 편하게..

A : 네.. 그건 좋아요. 근데 정작 만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

Q : 그래? 그럼 기회가 있으면 편하게 지내고 싶어?

A : 그거야 괜찮죠.

Q : 공부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A : ㅎㅎ.. 원래 공부 잘 안하는 데..

Q : 공부 안한다고? 아니지..

A : 근데 원래 집에서 혼자 공부 별로 안 해요.

Q : 그럼 집에서 뭐해?

A : 컴퓨터랑 티비 보고..

Q : 컴퓨터는 많이 해?

A : 저보다 윤지가 훨씬 많이 해서 저는 컴퓨터보다 티비를 더 많이 봐요.

Q : 아 그래?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 거야?

A : 네 진짜! 한 10분

Q : 아~ 진짜 그 성적을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 받지?

A : 웃음

Q : 핸드폰 갖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안 부러워?

A : 아니.. 가끔 부럽긴 한데요, 그다.. 애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맨 날 학교에서 놀 때는 다들 안 쓰고 있고 학원에서도 다 뺏잖아요.

Q : 그렇지

A : 이제 맨 날 안보니까 무덤덤해요.

Q : 아~ 그래! 그럼 만약 너가 핸드폰 가지게 되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처럼 쓸 꺼 같아? 문자를 단체문자 이렇게 보내고.. 상겅이처럼 그럴 것 같아?

A : 저는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애들이 진짜 많아요.

Q : 똑같구나.

A : 웃음

Q : 그럼 너도 핸드폰으로 친구를 관리 하겠네? 핸드폰이 만약에 생기면...

A : 네. 아무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Q :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안 사 주시는 거야?

A : 아니요.

Q : 너가 강력하게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A :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Q : 우와... 한 번도 안 해봤어?

A : 근데 윤지는 말 하는 데, 제가 안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Q :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싸이로 연락을 한다거나

A : 싸이는 애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안해요.

Q : 그럼 친구들이랑 어떻게 연락을 하나?

A : 그냥 학교에서 만나니까.

Q : 아~ 학교 친구들이 많으니까?

A :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은 아는 애들은 거의 다 학교 애들이니까

Q : 학교에서 얼굴보고 학교에서 약속하고 그러겠네? 그럼 주말이나 그럴 때도 따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그 횟수가 잦아?

A : 주말에요?

Q : 응

A : 가끔 무슨 행사 있을 때.

Q : 가끔?

A : 네. 시험기간이나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못 만나는 데요.

Q : 그럼 그 친구들 만나면 어느 정도 어울려?

A : 어느 정도요?

Q : 휴일에 토요일쯤에..

A : 토요일 날 만나면 빨리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늦게는 아니고요. 해지기 전..

Q : 4시간 5시간?

A : 아니, 애들이랑 만나면요, 주말에는 보통 모여서 잘 안 놀구 코믹월드 같은데 그런데 가니까

Q : 코믹월드?

A : 1학년 때 애들이 유독 다른 반에 비해서 유독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서요 유독

Q : 아~ 만화 보러 많이 가는 거야?

A : 폐인이었어요.

Q : 그럼 잘 통하겠네.. 그 친구들이랑?

A : 근데 요즘은 뭐..층이 다르니까 별로..

Q : 그럼 1학년 때 친구들, 2학년 때 친구들.. 학년이 올라가면 단절되는 거지? 그 전에 친구들이랑은..

A : 아니.. 친한 애들이랑은 아직도 친한데, 안 친한 애들은 거의..

Q : 근데 그 수가 적지? 적어지지? 그렇게 친했던 만큼 올라오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게 핸드폰이랑 좀 관계가 있는 거 같지 않아? 아닌가?

A : 핸드폰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연락하고.. 핸드폰 있으면..

Q : 역시 핸드폰이 중요하구나. 너희 나이에는..

A2 : 그래도 끊겨요. 올라가면... 죽마고우 같은 거 아니면 다 끊겨요.

Q : 아~ 그러면 너한테 너가 봤을 때 멋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

A : 애들이 보통은 따르는 애들은 공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 같고..

Q : 척하는 거 아니야?

A : 아니..딱 저희 반에서 인기 있는 애 가요, 약간...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약간 노는 쪽.

Q : 그래? 나도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왜 있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때 뭔가 반항의 한 마디,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 이런 애가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면 진짜 단순히 외모만.. 그 친구는 두루두루 갖춘 애야?

A : 그다지 반항은 안하는 데..

Q : 그래?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인기가 많은 까?

A : 그냥 애들이랑 성격 좋게 잘 놀고 여러 가지.. 애들이 다 좋아하던데

Q : 그 이유는 모르겠어? 왜 좋아하는 지?

A : 저도 좋아하긴 하는 데..

Q : 그냥 인간 적으로 끌리나?

A : 네, 저도 끌리는 데..

Q : 중성적이야?

A : 아니에요.

Q : 여중이니까...

A : 아니에요.

Q : 그건 아니고?

A : 네. 약간 노는 애 인데, 착하고

Q : 아~ 약간 노는 애야?

A : 네 약간.. 저번에도 싸우다가 몇 주 안 나오고

Q : 근신?

A : 아니 코빼가 부러져서
A2 : 여자 애들 진짜 세계 싸운다.
Q : 그래? 그게 인기가 많아? 성격이 엄청 좋은 가 보다?
A : 학교 반에서는 잘 어울려요. 나가면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잘 놀고..
Q : 좀 교우 관계가 좋고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 가 보다.
A2 : 인기가 많으니까 교우 관계가 좋은 거죠.
Q : 그런 건가. 그럼 반대는? 인기가 없는 애들은 인간 관계관리 잘 못하
고.. 너 네 반에서 제일 인기 없는 친구를 떠올려봐 어때?
A : 제일 인기 없는 친구요?
Q : 응! 개 성격이 어떤 거 같아?
A : 다 잘 어울리는데.. 저희 반은 어울리기는 잘 어울리는 데, 작년에는
안 어울리는 애가 있었는데..
Q : 어땠어?
A : 애들이 개 성격 맘에 안 들어 했어요.
Q : 어떤 면이 맘에 안 들었어?
A : 얘기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고..
Q : 끼어든다고? 아~
A : 자기 얘기만 하고..
Q : 아~ 내 얘기만 하고 끼어들고 눈치 없고? 그래?
A : 네.
Q : 너는 안 싸우지? 애들이랑은..
A : 네, 제가 계속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Q :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착한 이미지가 부각이 돼서..
A : 그런데, 애들한테 저도 이상한 반응 보이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도 그런 반응 보이니? 하고 계속 좋은 쪽으로 받아 들여요. 이
상한 말.. 약간 욕 같은 말 던져도..
Q : 너가?
A : 아니.. 약간 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말을 던지면 너가 그런 말은 해?
그러고..
Q : 어때?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때? 역시... 역시 나.. 칠져해! 그리고..

A : 근데 집에서 쓰는 데..

Q : 집에서 쓰고 학교에는 안 하고 이중생활을 한다 이거야?

A : 그런 말 들으면 막 낫설어요.

Q : 너 자신이 너를 생각할 때 착하지 않아? 착한 것도 있겠지? 아니야?
화내도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너는 싸운 적이 없어?
아예?

A : 애들이랑요?

Q : 응!

A : 네.. 애들이랑은..

Q : 한번도?

A : 네. 제가 자제 하니까 별로..

Q : 애들이 아예 너랑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야?

A : 어울려 잘 놀긴 하는 데, 싸울 만한 일을 잘 안 만드니까..

Q : 싸울 만한 일을 안 만든다.

A : 근데 아무래도 중간 입장에 있으니까. 애들 끼리 보면 막 싸워요. 이
애 맘에 안 든다고 하면서.. 수련회 가서 더 심해졌어요. 친해도요..

Q : 아~ 편 갈라서 싸우는 거? 근데 너는 그 어디에도 안 속하는 거지?

A : 약간 세 부류로 나뉘는 데 두부류가 심하게 싸우고, 저는 그 나머지
그룹

Q : 아, 그렇구나.

A : 근데 요즘은 괜찮아 졌어요.

Q : 넌 그게 편한 거지? 안 싸우고 어느 편에 끼지 않고

A : 그게 편한 거 같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Q : 너는 특별히 애는 내 맘에 맞다. 나의 베스트다 하는 친구가 있어?

A : 근데 저랑 친한 친구랑 제가 생각하는 친구랑은 다르던데..

Q : 어? 그게 무슨 말이야?

A :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요, 재 좋다 하는 애들이랑은 요, 별로 안 친해
져요. 자주 보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친해질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Q : 아~ 그러니까 너는 애가 괜찮다 하는 데

A : 별로 가깝지는 않아요.

Q : 그럼 너가 친해지려고 하면 되잖아?
A : 친하긴 해도 그래도 그렇게 막 만나서 놀고 그렇진 않아요.
Q : 아~ 학교에서만 얘기 한다고?
A :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요.
Q : 그럼 넌 친구 어떻게 사귀어?
A : 저요?
Q : 응!
A : 저는 제가 다가갈 수 있는데, 보통 자기네들이 와요.
Q : 올 때까지 기다려?
A :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와요.
Q : 아~ 그래? 인기가 많은 거네? 친구랑 친해질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외모?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A : 외모보다 성격. 저랑 잘 맞는 거 같아요.
Q : 뭐.. 유머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웃긴 애
A : 그런 애들이 좋아요. 재미없는 애들 보다는..
Q : 인기 많지?
A : 네 그런 애들이 인기 많아요.
Q : 좀 말 잘하고.. 말 많은 애들은 어때?
A : 쓸데없이 말 많은 애들은 인기 없어요.
Q : 아~ 그래?! 여자 애들도 그런가?
A : 여자 애 들요? 음.. 자기네들 끼리 친하면 계속 말해요. 계속...끊임없이..
Q : 아니면 공부 잘 하는 애?
A : 공부 잘 하는 애는 공부 잘한다고 인기는..
Q : 공부와는 비례하진 않는 다?
A : 네.
Q : 외모랑은 비례하고?
A : 웃음
Q : 그것도 아니야?
A : 웃음

Q : 성격이 좋아야 한다 이거지? 아 그렇지? 너는 초등학교 때 지금은 남녀 공학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

A : 없어요 없어요.

Q : 그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건 아닐 꺼 같은데.. 기회가 있다면..

A :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Q :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어떤 거 같아?

A : 친구들이요?

Q : 응! 주변이 꼭 있을 꺼 같은데...

A : 아~ 있긴 있어요.

Q : 그럼 그런 애들이 좋아 보인다? 아니다?

A : 근데 학교에서 워낙 티를 안내서..

Q : 있는데?

A : 아니..있어요. 있는 데요, 남자친구들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 하고 그러니까 별로 있는 줄 모르겠고, 무의식중에 얘기 하고..

Q : 그건 부럽지는 않아?

A : 아니요.

Q : 이게 진심일까? 그럼 사귀 면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꺼 같아?

A : 안 좋아 하실 꺼 같아요.

Q : 보수적이셔?

A : 약간! 나가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도 예전에는 밖에 안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Q : 그럼 눈치 보이겠다? 그건 일이 있으면...그러면 앞으로 아예 사귄 생 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

A : 글썄요.

Q : 아 그래?

Q : 설마 없지는 않겠지? 내가 너무 유도하는 건가?

A : 언젠가 사귄 일은 있겠죠!

Q : 그렇지!! 있겠지.

A : 나이가 들면.. 웃음

Q : 나이가 들면 있겠지 있으면 그 남자친구랑 뭐하고 싶어? 같이 영화 보기? 여자 애들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책.. 그런 걸보면 환상을 많이 가지잖아. 남자 애들에 대해서..

A2 : 난 일기 써서 주는 데..

Q :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중에 일기를 써주지 않을 까? 이런 게..

A2 :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그런 건 흔치 않아!

Q : 환상 가진단 말야~ 그런 거 없어?

A : 볼 때는 환상을 가지는 데.. 현실에서는..

Q : 아~ 너무 어른스러워~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 미리 깨달은 거야? 미리 포기한 건가? 대단하다! 그래?! 그럼 너도 친구가 제일 중요한 거지? 공부나 가족이나 취미나? 친구가 가장 중요하고?

A : 네.

Q : 성적은? 그래도 시험 기간 때는 성적이 먼저잖아?

A : 근데 시험 기간 때도 친구?! 근데 시험 기간 때도 원래 공부를 안 해서..

Q : 너가 공부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화내

A : 근데.. 애들이 시험 기간 때 진짜 밤을 새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새봤는데..

Q : 그럼 그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야?
그럼 너는 수업 시간 때는 안 좋아?

A : 졸지는 않고..

Q : 머리가 좋은 걸로 판명이 됐네.

A : 그럼 학교생활은 재밌어? 선생님들이랑은 트러블은 없고?
아니,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는 데..

Q : 어머니~ 선생님이 다 잘 해주시는 구나.
넌 공부를 잘해서 그래!

그럼 재밌겠다?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친구들이랑도 잘 있고 학교가 천국이네.

A : 네.

Q : 그럼 너는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특별히 옆에 공부를 잘하는

- 애들 옆에 둔다던지 정보를 얻고 싶다 던지 이런데 욕심은 없어?
- A : 정보요? 아무래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안 그래도 계속..저희 반 1등이 자기는 외고 가려고 하는 데 외고가면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니까. 계속 저를 꼬시고 있어요.
- Q : 그럼 너는 실력이 된다는 거네?
- A : 영어는 잘 못하는 데, 가끔 같이 집에 갈 때 얘기했는데 영어 경시대회 봤을 때, 개가 제 성적을 보더니,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야 너 영어 공부 좀 해야 돼 막 그래요.
- Q : 그럼 자극이 받아? 친구가 그런 얘기 해주면?
- A : 개가 워낙 잘하는 게 인식이 돼서.. 1학년 때부터 전교 2등해서..
- Q : 아~ 그럼 그냥 받아들여?
- A : 아! 그런가 보다. 워낙 1학년 때부터 잘해서..
- Q : 성적에 대한 욕심은 없어?
- A :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 Q : 그럼 너는 욕심이 있으면 일등 하겠다.
- A : 그럼 너는 그런 친구를 알게 되는 건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알게 되는 거네?
- 아니~ 꼭 그건 아닌데..
- Q : 너도 노력은 해? 다가가려고?
- A : 네! 제 친구의 친구가 괜찮은데 다가가려고 해요. 계속 인사도 자주 하고...
- Q : 인사?
- A : 아니 근데 애들이요, 지나가는 데요, 인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 Q : 너가 불러서? 아~ 노력은 하는구나. 그렇구나.
- A : 근데 너는 지금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만나면 만화방 가서.. 저 만화방 잘 안가요!
- Q : 그럼 노래방? 아~ 먹으러 간다고 했지? (웃음)
- A : 보통 먹으러 많이 가고..
- 보통 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 Q : 그럼 너는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야?
- A : 아무래도 많이 지내니까 공부도 애들이 학교에서 옆에서 하니까 같이 확 하게 되고.. 학교에서 도서부 애가 있는 데요, 책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다가 개가 도서부니까 보게 되고..
- Q : 아~ 그래? 영향 많이 받네. 그러면 너는 친구가 보통 주도하는 편이잖아? 근데 가끔 너가 주도하고 싶은 생각일 들 때도 있어? 하고 싶은 것?
- A : 아니. 별로
- Q : 학교에서.. 이미지?
- A : 아니, 학교에서 회장하는 데 너무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너무 안 좋아서요. 지겹다.
- Q : 지금 계속 해야되는 거 아니야?
- A : 계속 해야되요.
- Q : 하기 싫어? 회장?
- A : 아니~ 하면 좋긴 한데.. 별로.. 그닥..
- Q : 그럼 3학년 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
- A : 네!
- Q : 그래?
- A : 진짜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 Q : 안 좋다고?
- A : 경험 상 좋은 데, 저한테 별로..
- Q : 근데 리더십을 키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
- A : 네.. 근데.. 애들이..
- Q : 부딪치면서 느끼는 거 아니야?
- A :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요 마지막 시간에 전달 사항이 있는 데, 이렇게 제 목소리가 별로 안 크니까 세 분단이 있는데, 제가 한 분단 씩 가서 말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제가 평소에 조용하고 그런 성격을 아니까 너 왜 거기서 하냐고..앞에 나와서 한 번 만 말하라고.. 얘기 순간 조용하고..
- Q :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안 해 보는 것 보다는 나은 거 같은데..

A : 저희 반에 워낙 주도하는 애들이 몇몇 있어서.. 제가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 보다는 개네들이 한 번 딱 하는 게 효과가..

Q : 아~ 그렇구나.

Q : 너는 그걸 바꿔 볼 생각이 없어? 아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A : 바꾸고 싶은 데요, 고쳐지지는 않아요. 노력에 의해 바뀌지지 않을까? 안되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Q : 아! 그렇구나.

A : 그러면은 아까 부모님이 엄하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부모님 때문에 못 만난 친구나.. 근데 아빠는 별로 안 그러는 데, 할머니가요 예전에 윤지가 싸돌아다닐 때 어디 돌아다니냐고, 일찍 만나면 일찍 결혼한다고 그러시면서..

Q : 좀 경계하시지?

A : 네 그런 편이죠! 근데 친구 만나는 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워낙 친구를 안 만나서 친구를 만나는 건 좋아하시죠.

Q : 아 그래? 그럼 지금은 친구 많이 만나는 거야?

A : 예전에 비해..

Q : 예전에 비해서? 그게 더 좋지?

A : 네

Q :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선생님이랑은 너랑 사이가 좋으니까

A : 네

Q :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 애랑은 좀 피해서 지내라!

A : 그런 적은 없어요!

Q : 그런 것을 본 적은 없고?

A : 네.. 그런 건 몇 번 보기는 했는데

Q : 몇 번 봤다고? 그런 일이 있긴 있어?

A : 너무 수업 시간에 붙어 앉아서 떠들고 그러면 다음에 짝 바꿀 때는 막 같이 못 앉게..

Q : 떼어 놓는구나.

A : 막.. 지적하시고..

- Q : 너는 선생님이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아닌가?
- A : 글썄요, 선생님이 계속 잘 해주시니까 이미지가..
- Q : 그러면 특히 좋았던 선생님은?
- A : 특히요? 옛날 꺼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데, 지금 중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의 방식은 좋은 거 같아요.
- Q : 방식? 어떻게?
- A : 애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애들이 이것저것 막 하라고 챙겨는 주시는 데 애들은 뭐 그다지 그닥
- Q : 상냥한 선생님 좋아하는 거야?
- A : 애들은 상냥한 선생님 좋아해요.
- Q : 안 때리고? 너네 여학교는 안 때리는 선생님이 많나?
- A : 때리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잘 안 때려요.
- Q : 그래? 그럼 애들이 특히 싫어하는 선생님은?
- A : 아~ 저희는 특히 수업 시간을 늦게 끝내는 선생님
- Q : 아~ 나도 그러는 데..
- A : 다 때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맨날 늦게 들어와 놓고선 늦게 끝내니까.. 애들이 다 싫어해요.
- Q : 그래? 수업 내용은?
- A : 그 선생님 수업 내용도 안 좋아요. 계속 뭘 쓰라고만 하고..
- Q : 근데 애들은 잘 알아? 이 선생님은 뭔가 잘 가르쳐주신다.
- A : 네~아는 거 같은 데.. 작년에 사회 선생님이 너무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애들이 다 좋아해요.
- Q : 애들이 그런 걸 따지긴 하는구나.
- A : 네~ 잘 따져요.
- Q : 그렇구나.
- A : 그러면 만약에 너가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 어떨꺼 같아?
- A : 사이가요?
- Q : 너는 지금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고 있으니까..
- A : 사이가 안 좋아도 몇 번 만나지도 않고..
- Q : 그렇게 없어?

A : 설마 수업 시간에 대 놓고 그러시겠어요?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해 보여? 교사로써..

A : 애들이 잘 따르고 그러는..

Q : 그렇게 평가를 받는 선생님?

A : 네

Q : 너는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A : 얘기를 많이 하나? 회장이라서..
아니요. 오히려 제가 회장이니까 선생님이 말을 잘 안하세요.

Q : 그래?

A : 그럼 선생님이 너의 개인 적인 신상명세나~그런 건 예전에 학기 초에 다 써서 내서...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음... 모르면 다시 찾아 보시고

Q : 만약 선생님이 너에 대해 잘 모르는 거 같다. 이러면 그걸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

A : 예를 들면 그냥 놔두고 싶은 데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요.

Q : 그럼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 올라가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잖아? 이제 3학년도 다 되어 가는 데..

A : 성적이 나와 주길 바라죠.(웃음)

Q : 유도하는 건 아니고... 친구?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A : 네! 원만한..

Q : 역시 친구랑 잘 지내는 데 학교생활에 좋구나.

A :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성적보다는..

Q : 성적 안 좋아도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잘 노니까 그렇지. 그럼 너도 학교생활이 즐거운 거지?

A : 네~ 아직

Q : 그 이유는...친구들이랑 문제없고 공부는 공부 안 해도 잘 나오고 선생님이랑도 좋고.. 너는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네. 그러면.. 애들이 다 걱정하는 거잖아. 이 세 가지가...너는 그럼 고민되는 건 없어? 학교생활에서?

A : 학교생활에서는 없는데..

Q : 그러면은?

A : 너무 집에서 게으르고..

한국사례 #10

대상자 : 고3, 여, 거주지(서울 강북지역), 성적(중), 모학력(중졸)

Q : 먼저 인적사항에 대해가지구, 지난번에도 적었지만 간단하게 먼저 물어게요. 성별이?

A : 여자요.

Q : 출생년도가 어떻게 돼요?

A : 90년생 9월 27일

Q : 학교랑 학년은?

A : J미용고등학교 3학년이요.

Q :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하셨고... 다음에는 친구관계에 대해가지고 물어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친구가 몇 명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A : 글썄 너무 많은데?

Q :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하고 이렇게, 그냥 왜 반에 그냥 아는 애들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만나고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은 몇 명 쯤?

A : 다섯 명? 열 명?

Q : 그 정도? 그럼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예요 아니면 다른데서 만난 친구예요?

A : 학교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들 통해서 만난 친구도 있고...

Q : 다른 데를 통해서 만난 친구들은? 학원이나 이런 복지관이나 여러 다른 기관들?

A :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사이에서는 별로 없어요.

Q : 주로 학교친구들이고...친구들 성별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A : 다 여자죠.

Q : 다 여자? 아 그렇구나. 그럼 지연양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 같아요?

- A : 친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 Q :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친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비슷한 취미를 가졌거나 비슷한 성격이거나...
- A : 취미나 성격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구요, 그냥 나랑 맞는, 성격?
- Q :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 그러면 지금 지연양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한 열 명쯤 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비슷해요 그 친구들이랑? 공통점이 뭐 거 같아요?
- A :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대화가 잘 된다고 해야 하나? 마음이 잘 맞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그런 점...
- Q : 그럼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주로 뭐 하고 놀아요?
- A :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아니면 그냥 어디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수다 떨고 그런 거...
- Q : 그러면 만나서 놀 때, 오늘은 뭐하고 놀자 이런 의견 같은 거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 A : 그냥 처음 만나면 친구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나 그런 게 맞는 상황이 되면 바로 놓고,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
- Q : 그러면 그 집단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결정 같은 걸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 A : 예. 그런 친구도 있죠.
- Q : 그럼 그런 친구들 특징은 뭐예요?
- A : 리더십이 강하다 해야 되나? 그런 거...
- Q : 그러면 주로 몇 번이나 만나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 A : 거의 매일 만나요. 예. 항상. 학교 끝나고 만나고 놀 때도 있고요 쉬는 날에는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날 때도 있고...
- Q : 그러면 주로 아까 가는 데가 영화관이나 노래방이나 카페 이런 데...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다 그랬잖아요. 수다 떨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 A : 어... 뭐, 자기가 있었던 일이나 뭐 기분 나빴던 일 기분 좋았던 일 그런 얘기도 하고...

Q : 일상적인 얘기?

A : 네.

Q : 그럼 친구들과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 많이 쓰죠? 핸드폰 주로 전화를 많이 해요 아니면 문자로 연락해요?

A : 별 내용 없을 때는 문자로 얘기하고, 심각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고

Q : 전화나 문자 얼마나 자주 하는 거 같아요?

A : 지금 핸드폰이 끊겨서요. 근데요, 연락 되면은,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Q : 지금 정액제라서 월말이라 끊겼구나. 그럼 문자 같은 거 하루에 몇 번 정도?

A : 저 정말 많이 보낼 때는 이백개나 삼백개 보낼 때도 있고요,

Q : 하루에?

A : 네.

Q : 다 친구들한테?

A : 네.

Q : 어떤 얘길 문자로 그렇게 해요?

A : 그냥 별 볼일 없는... 조잡한?

Q :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럼 문자 같은 걸로 사소한 얘기하는 게 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A :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는요, 말실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쓰다가도 생각하면서 다시 지워서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편하죠.

Q :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쪽으로 넘어가서. 싸이 해요?

A : 네.

Q : 싸이 좋아해요?

A : 네.

Q : 그럼 같이 노는 친구들도 다 싸이해요? 다 일촌?

A : 네.

Q : 싸이월드 통해가지고 연락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왔다갔다 방문하면서?

A :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거의 매일 만나니까.

Q : 그러면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일촌인 사람들 있잖아요.

A : 네.

Q : 그런 사람들 하고 연락할 때는 싸이월드가 유용해요? 어떤 면에서?

A : 어... 군대에 간 오빠 한 명 있는데요, 핸드폰 안되는 오빠데요, 싸이월드 같은 거 하면 방명록에 언제 휴가 나오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락하기도 쉽고 또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생활하나 볼 수 있고...

Q : 일촌이 몇 명 쯤 되는 거 같아요?

A : 백, 이백?

Q : 진짜 많다. 난 한 스무명 되려나? 역시 세대차이...일촌이 관리가 돼요?

A : 네.

Q : 다 방문해요? 모든 사람들?

A : 일일이 방문하진 않구요. 좀 연락하는 사람은 연락하고. 연락이 끊기면 잘 연락 안 하다가 파도타기 같은 거 하면...

Q : 그런데 일촌 보편은 쓸데없는 일촌들도 있잖아요. 연락 거의 안 되는 데 옛날에 일촌 맺어놓고, 그런 거 정리 같은 거 안 해요?

A : 귀찮아서 안 해요.

Q : 그러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까 리더 역할 하게 되는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비슷하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 있죠?

A : 어떤 면에서요?

Q : 친구들 되게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그런 친구들 있죠?

A : 네.

Q : 자기가 그런 친구예요?

A : 저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아니고....

Q : 그럼 그런 인기 많은 친구들은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A : 되게 활발한 성격? 솔직하고, 그런 점...

Q : 뭐, 공부를 잘 한다거나, 특별히 기술이 좋다거나 이런 거량은 크게 상

관없고?

A : 네. 그런 건 크게 상관 없어요.

Q :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별로 사람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성격 때문에?

A : 좀 이기적인 거? 소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Q : 그런 친구들이 약간 왕따?

A : 연락하기가 싫죠.

Q : 그렇구나...친구들 하고 싸워요?

A : 네. 싸울 때도 있어요.

Q : 얼마나 자주?

A : 자주는... 저는 막 자주 싸우는 편은...저는 막 기분 나빠도 바로바로 톡 톡 거리면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전 일단 쌓아두는데 친구가 한번 화나게 하면은 막 몰아부쳐요, 성격이....

Q : 그러면은 싸우게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A :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저는 저한테 뭐 어떻게 해서 제가 화나는 것 보다 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싫어요.

Q : 자기 일이 아니라도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당했다거나, 그런 거?

A : 네.

Q : 그러면, 마음에 맞는 친구, 있는 거 같아요? 자기랑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베스트프렌드?

A : 있어요.

Q : 몇 명 정도?

A : 두 세 명?

Q : 정말 극친한 친구들...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뭐가 달라서?

A :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더 오래 같이 있는 시간?

Q : 더 오래 자주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지연양이 봤을 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외모? 말솜씨?

- A : 성격. 전 거짓말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서요, 그냥 되게 솔직하고, 남 차별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재가 더 낫다 해서 재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애들은 싫어하구요, 똑같이 대해주는 애들이 좋아요.
- Q : 그러면은 우리 동성친구 얘기 했으니까 이제 이성친구에 대해서 물어 볼 건데 이성친구 있어요?
- A : 아니요, 없어요.
- Q : 한 번도 없었어요?
- A : 아니요.
- Q : 있었으면 언제쯤 있었어요?
- A : 어... 작년 겨울?
- Q : 그런데 헤어졌구나. 그러면은 그 때 사귄 때 어떤 계기로 사귀게 된 거예요?
- A : 친구의 주변사람...
- Q : 그 (남자)친구는 나이가 비슷했어요?
- A : 비슷한 친구도 있었구요, 오빠들도... 오빠들이 되게 많았어요.
- Q : 오빠라면 몇 살 정도가?
- A : 저요? 다섯 살?
- Q : 한... 다섯 살 많은 오빠?
- A : 스물 넷?
- Q : 그러면 이성친구 사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 A : 제일 중요한 거요?
- Q : 제일 많이 보는 거?
- A : 성격?
- Q : 아까 친구같은 경우는 솔직하고 그런 활달하고 거짓말 안하고 차별안 하는 친구가 좋했는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 A : 남자도 그런 성격이 좋아요.
- Q : 차이점은?
- A : 나한테만 좀 더 잘해주면....(웃음)
- Q : 그러면은 약간 다른 거네? 동성친구는 차별 없이 다 잘해줘야 되고, 남자친구는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고? (웃음)

A : 네.

Q : 그럼 지금은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 사귀고 싶은 마음 있어요?

A : 네.

Q : 사귀게 된다면 언제쯤 사귀게 될 거 같아요? 대학? 내년?

A :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

Q : 부모님은 이성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편은 아니구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 친구 많이 몇 번 만나보셔서....

Q : 부모님이 좀 개방적이신가보다.

A : 엄마만. 아빠는 좀.... 그래서 엄마는 많이 보시면요, 엄마가 보기에 안 좋으면 만나지 말라 그러구요, 보기에 좋으면 만나라 그러시고...

Q :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기 생활을 공부하는 거, 자기 취미하는 거, 아, 취미가 뭐예요?

A : 취미요? 컴퓨터게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Q : 그런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자기 혼자 취미활동 하는 거,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렇게 있으면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A : 전 친구요.

Q : 왜? 이유는?

A : 그냥 가족끼리 있다 보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좀 불편해서 그렇구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제가 편하니까...

Q : 혼자서 컴퓨터게임을 한다거나 혼자서 놀러를 간다거나 이런거 보다 여럿이 어울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노는 게 더 즐거워요?

A : 네.

Q : 학교생활은 별로 재미없어요?

A : 그냥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없고 그런 거 보다 그냥 일상생활?

Q : 그럼 학교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A :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Q : 그러면 학교 생활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미인 거 같아요?

A : 그냥 미래를 위한 준비?

Q : 지금 미용고등학교 다니니까 앞으로 헤어디자이너 되는 게 꿈이겠네?

A : 네. 피부관리사...

Q : 그러면은 진로랑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미용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 거기서 원하면 대학도 갈 수 있구요, 취업도 바로 갈 수도 있고...그 정도?

Q : 그럼 앞으로 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A : 저는 대학 가려구요.

Q : 그러면은 대학 가려고 마음먹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A :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 강요한다기보다는 권유하는 걸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용고등학교 가서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 가서 좀 더 경험을 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학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Q : 그렇게 대학 친구들의 의견이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A : 아니요. 그런 건 아니예요.

Q : 그러면 자기랑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는 어떤 거 같아요? 리더일 수도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A : 저는... 그 중간?

Q : 분위기메이커라던가, 그런.... 이 모임 재미가 없어, 이런 식의 존재는 아니고?

A : 예, 그런 건 아니구요, 그냥 애들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웃기는? 좀 엉뚱한?

Q : 그럼 자기의 그런 역할, 만족해요?

A : 네, 나름...

Q : 리더가 되고 싶더라던가...?

A :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구요, 제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편한

대로...

Q : 친구들 있을 때 편하게 있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은 친구들 공부 하는 성적 수준 있잖아요, 학교친구들... 그런 수준은 다 비슷해요? 아님 차이가 있어요?

A : 비슷한 친구도 있구요, 좀 차이 나는 친구도 있고...

Q :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A : 저는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요.

Q : 그럼 성적 상관없이 마음 맞고 성격 좋으면 친구 하고?

A : 네.

Q : 그러면은 인터넷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메신저 해요?

A : 네.

Q : 무슨 메신저?

A : 버디랑 네이트온.

Q : 그러면은 한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A : 그냥 컴퓨터 할 때마다 항상 켜놔요. 시작하자마자 켜놓고 끝 때 끄고.

Q :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 귀찮지 않아요? 계속 대화창 뜨고?

A : 뭐 쇼핑 아이쇼핑할 때는 켜놓는데요, 게임할 때는 답을 하기 힘들니까 수신거부 같은 거 해 놓고....

Q : 어쨌든 계속 켜 놓는 거네? 왜 켜놔요, 그거?

A : 이제 수신 거부를 해 놓으면요, 대화명 같은데 번호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친구들한테 급한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은 좀 더 연락하기 빠르게...

Q : 그러면 메신저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친구, 문자메시지로 얘기하는 친구, 오프라인에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친구, 다 같은 친구들이예요 아님 좀 달라요?

A : 다 같은 친구들이예요.

Q : 싸이 일촌도 그 친구들?

A : 네.

Q : 그럼 친구들 만나고 노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간섭을 좀 하세요?

A : 네.

Q : 어떤 면에서?

A : 그냥 좀 너무 자주 만나다보니까 늦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Q : 늦으면 몇 시 쯤?

A : 저는 늦게 들어갈 때는 열두시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고...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고 할 때 걱정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셔서 심할 때는 막 만나지 말라고....

Q : 그럼 부모님들은 지연양이 어떤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A : 네.

Q : 대부분의 경우는 좀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싫어하시는?

A : 네.

Q : 그럼 선생님은 친구관계에 간섭하시는 편이세요?

A : 아니요.

Q : 전혀?

A : 전혀 간섭 안 한다기 보다는요, 누가 가끔 학교 안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 되냐고 물어보시고...

Q : 지금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있어요?

A : 아니요.

Q : 한 명도?

A : 네.

Q :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생님보다 좋아하는 선생님?

A : 어떻게 좋아하는 선생님? 음... 재미있는 선생님도 계시구요, 일단 정말 편한 선생님....

Q :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A : 저한테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Q : 아... 기분 상하지 않게, 차분하게? 그러면 싫어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A : 네.

- Q : 그런 선생님들은 왜 싫어요?
- A : 너무 막 대하세요.
- Q : 어떻게?
- A : 그러니까 심할 때는 선생님 기분 안 좋다고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자존심이 상하게 말하고...
- Q : 막말 같은 거?
- A : 네.
- Q : 혹시 선생님들이 차별 하세요?
- A : 아니요. 차별은...
- Q : 아니, 체벌은?
- A : 체벌도...심하게 때리고 그런 건 아니구요, 손바닥, 발바닥?
- Q : 그러면 때리는 선생님들 싫죠?
- A : 아니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 Q : 당연히 맞는 거고?
- A : 네.
- Q : 그럼 체벌하더라도 평소에 얘기같은 거 편하게 대해주시고 인격체로 자기를 존중해 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 A : 네.
- Q : 그럼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편이예요?
- A : 네. 나쁜 편은 아니예요.
- Q : 그럼 그게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거 같아요?
- A : 아니요, 그건 별로. 학교에선 선생님 관계보다 친구관계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 Q : 그러면 선생님들하고는 사이 안 좋고 그래도 애들 사이에서는 인기 많은 친구들 있을 거 같은데?
- A :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 Q :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애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그런 거 같아요?
- A : 네.
- Q : 그럼 그 친구들은 성격이 왜 그래서 그럴까?

A : 그러니까 활달하고...선생님들이 학생 좋아하는 건 거의 사고 안 치고
말썹 안 부리는 애들 좋아하잖아요.

Q : 얌전한 애들?

A : 네.

Q : 그럼 그런 애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거 같아요?

A : 인기 많다고 보단 애들이 싫어하지는 않죠.

Q : 그럼 애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은, 약간 말썹 같은 거 피우고, 학교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은 인기 없어요?

A : 네. 그냥 막 왜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대들고 그런 애들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애들 막
그러면요, 개 욕하고 그래요. 개념이 없다...

Q :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A : 아니요.... 그냥 잘 아신다고 보다는 잘 알려고 하시죠.

Q : 잘 알려고 노력은 하세요? 담임선생님이랑 별로 안 친해요?

A : 네. 친한 건 아니구요.

Q : 벌써 한 학기 지났잖아. 그런데 별로 안 친해요?

A : 잘 모르겠어요.

Q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A : 40명?

Q : 그러면 선생님이 좀 편애를 하세요?

A : 아니요. 편애 안 하세요.

Q : 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A : 네.

Q : 학교생활에서 공부랑 성적 같은 거,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관계 이렇게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A : 친구...

Q : 그러면은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행복해요? 만족해요?

A : 학교생활이요? 그냥 그래요. 만족하다기에는 좀 그렇고 불만족하다기
에도 좀 그렇고... 그냥 그런...

Q : 그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는 거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있는 거 맞죠?

A :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구요,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없고.

Q : 그럼 지금 이 나이에 인생을 살면서 학교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A : 아니요. 중요하죠...

Q : 그런데 근데 그냥 그렇다? 어떤 의미일까?

A : 그러니까 학교생활보다 학교가 좀, 제가 미용고등학교다 보니까 재료가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부모님께 부담드리는게 좀...

Q : 그럼 미용고등학교 가게 된 계기 물어봐도 돼요?

A : 그냥... 중학교 때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네일아트 같은 거 많이 보고,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거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중3때 고등학교 진학 준비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미용고등학교라는 게 있는 걸 그 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때 원서 넣고...

Q : 그럼 중 3때 저런 걸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A : 네.

Q : 그럼 앞으로 피부관리사? 그거는 헤어디자이너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독립적인 직업이에요?

A : 독립적인 직업이긴 한데요,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고...

Q : 전공이 다 따로 하나씩 있어요?

A : 아니요. 저희학교는 과가 없구요, 토탈로 다 배워요.

Q : 그럼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전부 다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죠?

A :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안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복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Q : 그러면은 이걸 마지막 문젠데,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세요?

A : 아니요 안 계세요.

Q : 그럼 엄마랑 아빠랑?

A : 남동생.

Q : 아, 남동생까지 네 명 사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떨어져 사시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만나요?

A : 아니요. 자주, 명절 때나 가족들 사이에 뭔가 기념일이나 누가 아프거나 그럴 때...

Q :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사세요?

A : 안동에 사세요.

Q : 아, 좀 멀죠? 서울에서...

A : 네.

Q : 그럼 지연양의 인생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예요?

A : 음... 잘 모르겠어요.

Q : 별로 큰 중요한 인물은 아닌 거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A : 네.

Q : 그러면 가족들, 학교선생님들,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같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A : 친구들....

Q : 그렇구나. 친구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러면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거 같고 얘기 너무 잘 해 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끝낼게요.

Ⅲ. 일본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일본사례 #1

대상자 : 고1, 남, 거주지(도쿄 기타구)

Q : A군의 이름은요?

A : “다이쥬”daijyu입니다.

Q :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A : 닉네임은 박사라든지.

Q : 왜요?

A : 모르겠어요.

Q : 누가 불러요?

A : 고등학교 친구들이 박사라고 해요.

Q : A군한테 있어서는 어때요?

A : 그냥 그래요.

Q : A 군이라고 하면 되나요?

A : 네, 군이면 돼요.

Q : 가족구성은요?

A : 어머니랑 아버지. 외아들이예요.

Q : 아버지 직업은요?

A : 음... 뭐라고 할까, 요리사 같은거. 가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종업원처럼 일하고 있어요.

Q : 매일인가요?

A : 매일 일하고 있어요.

Q : 휴일은요?

A : 매주 월요일만요.

Q : 바쁘시군요.

A : 네.

Q : 어머니는요?

A :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Q : 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A : 음, 매주요. 토요일만 빼고 월화수목금 다 가요.

Q :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세요?

A : 9시부터 음... 빠를때는 12시, 늦을 때는 1시 정도 까지. 낮에요.

Q : 긴 시간은 아니군요.

A : 길지 않아요.

Q : 어디서 일하고 계시죠?

A : 음...어머니는 이웃 "구"[행정구역,작은 시 정도]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Q : 거기서 일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A : 아마도 그럴거예요.

Q : 꽤 예전부터 A군이 어릴때 부터 어머니는 일 하시러 가셨나요?

A : 아뇨,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서 거기로 일하러 가시고, 그 전에는 책갈피 같은 걸 위한 끈 매는 일을 하청 받아서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Q : 그렇군요, A군이 다 컸으니까 일하러 나가시는군요.

A : 아마도 그렇겠죠.

Q : A군은 원래부터 지금 사는데 살고 있는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A : 네.

Q : 아마 단지 였지요?

A : 네, 단지예요.

Q : 그럼 주위 친구들도 옛날부터 친구예요?

A : 네, 많아요.

Q : 씨클에는 들어있어요?

A : 네, 씨클은 고등학교 때는 하이킹부 라고 해서 등산도 가고, 중학교 때는 야구부였어요.

Q : 중학교는 동네 학교인가요?

A : 네.동네예요.

Q : 하이킹부의 연습일은요?

A : 아~ 그런건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달리기 같은 거해서 체력단련하고 있어요.

Q : 어떤데로 가요? 하이킹은?
A : 음... 8월 6. 7일로 갔다왔는데요.
Q : 차고 왔어요?
A : 네, 텐트에서.
Q : 어디로요?
A : 음...“아카다케”akadake라고 아세요?
Q : 모르겠어요.
A : “야마나시”yamanashi현하고 “나카노”nakano현 사이에 있는 산에서.
Q : 합숙이요?
A : 네, 합숙 비슷한거예요.
Q : 하이킹이라고 해도 꽤 힘들어요?
A : 네, 힘들어요. 의외로 힘들었어요.
Q : 그건 스포츠인거예요?
A : 아마 스포츠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Q : 왜 하이킹부에 들어갔어요?
A : 자연이 좋아서요.
Q : 그렇군요, 그 외에는 학원같은데 다니고 있어요?
A : 학원은 중학교때 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Q : 하기 보충수업 같은건요?
A : 안 가요.
Q : 가라고 안그래요?
A : 네, 가라고 안해요.
Q :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A : 네.
Q : 그 외에 배우고 있는거 있어요?
A : 음, 영어회화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Q : 어떤 식으로요?
A : 음. 진짜 외국사람이 옆에 있고, 그룹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한 명이 ‘How are you?’라고 하면서 대화 주고 받는데.
Q : 영어회화 학원이요?

A : 네, 맞아요.

Q : “노바”nova[대형 영어학원]같이 큰 데서요?

A : 노바는 아니고 근처 JR[전철]역에 있는 영어회화S라고 하는 곳이에요.

Q : 아, 그럼 다니고 있는 거군요?

A : 네, 다니고 있어요.

Q : 학교가 아마...

A : A고등학교요.

Q : 학교 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A :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어요.

Q : 보통은 어떻게 다녀요?

A : 자전거요.

Q : 영어는 주에 몇 번이요?

A : 주에 한 번이요. 토요일만요.

Q : 쪽 계속하고 있는거예요?

A : 네.

Q : 같이 수업받는 사람은 같은 고등학생인가요?

A : 같은 고등학생도 있고, 중3짜리도 있어요.

Q : 영어 좋아해요?

A : 머, 그냥 그래요.

Q : 그리고, 알바 같은건요?

A : 알바는 안해요.

Q : 하고 싶어요?

A : 진짜로는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요. 해볼까 해요.

Q : 부모님이 왜 하라세요?

A : 음,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대 같은데 가고 싶은데 돈 모아서 가볼까 해서요.

Q : A군의 친구관계를 표로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예 거든요, 별표가 자기 자신. 여러 친구들이 있고, 친한 정도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름같은 걸 실제로 카타카나로 누구누구 라는 식으로 쓰고, 또 이건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라든지 알바 라든지 써 있는데 여기는 마음대

로. 써 줬으면 하는데요. 여기 지우개도 있으니, 좀 써주세요. 아까 말한 것 처럼 여기 있는 이름은 그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본명으로 써도 돼요.

A : 네, 알았어요.

Q : 요즘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게 순수한 연구목적이에요.

A : 알겠습니다. 이름만 써도 되는 거죠?

Q : 네, 천천히 생각하고 써주세요. 생각 안나면 닉네임이나 성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일단 A씨 라고 해도 되니까, 나중에 생각나면요. 썼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수정하면 되니까, 아무튼 고마워요. 초등학교 때랑 학원이랑 학교군요. 중복된 사람은 없어요?

A : 음...

Q : 여기랑 여기

A : 초등학교 때는, 애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려서.

Q : 여기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친구요?

A : 네, 고등학교.

Q : 학원은 어디 였지요?

A : 학원 다녔던 게 "기타쿠" kita ku O번지 였지? 거기, A 학원이라고 하는데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Q : 근처가 아니었나 봐요?

A : O번지니까 가깝다고 하면 가까워요.

Q : 자전거로 갈 수 있을 정도요?

A : 네,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면 가요.

Q : 근데, 같은 중학교 학생 아니었나요?

A : 같은 중학교 애예요. 그리고 이 "학원B(학원친구의 한명)"는 지금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이 "마리" mari라고 하는 여자애는 "오우지" Ouji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다무라" tamura라고 하는 애는 "이타바시쿠" itabashi ku에 있는 학교예요.

Q : 다들 떨어져 있네요?

A : 네, 다들 떨어져 있어요.

Q : 이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죠?

A : 음, “가즈키”kazuki”지?

Q : 가즈키군은 친우[親友: 마음을 모두 털어 놓을 수 있는 벗. 베스트 프렌드]?

A : 머, 친우라고 할까, 아, 맞다. 생각났다. “사토시”satoshi군이 친우예요. 지금은 어디로 이사해버려서 없지만.

Q : 사토시군은 언제 이사를 했어요?

A : 언제였더라? 초등학교 4학년때가 3학년때가?

Q : 친우였던 거예요? 사토시군이?

A : 친우였어요.

Q : 지금은 연락같은 거 해요?

A : 그냥, 메일 정도..

Q : 메일정도군요, 근데 어디로 이사했어요? 먼 곳인가요? 만나기 힘든 정도?

A : 네.

Q : 그리고 또 한명 가즈키군도?

A : 가즈키.

Q : 가즈키군이랑은 어때요?

A : 그냥 가볍게 얘기 하거나 게임 소프트 빌리거나 하는.

Q : 그렇구나, 학교는 달라요?

A : 아, 학교는 달라요. 가즈키는 이웃 “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녀요.

Q : 집은 근처예요?

A : 네, 같은 동네에 제가 13층에 살고 있고, 개가 5층예요.

Q : 아, 그럼, 지금도 자주 서로의 집에 가고 그래요?

A : 네, 가끔 가요.

Q : 응, 지금 친우에 대해 물었는데 A군한테 있어서 친우하고 그냥 친구라는데 어떻게 달라요?

A : 어떻게 다르지? 응, 경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진짜 친우는 힘든일 같은거 상담 들어주거나 아님 제가 고민 들어주거나. 머 그런 식으로

자주 노는거?

Q : 예를 들어 힘든 일이라는건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즈키군하고?

A : 응, 머 요즘 어때? 라고 묻거나 해서 힘든 일 있으면 뭐데, 뭐데 그러면서 관심 가져주거나 하고 있는데요.

Q : 힘든 일이란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따돌림 받고 있었던 거 그걸 가즈키군한테 상담하거나 그런거.

Q : 아, 가즈키군한테는 말할 수 있었군요.

A : 네,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긴 했는데 역시 맘 편하게 얘기 했던건 가즈키군예요.

Q : 아, 또 한명 사토시군은 이사가 버렸는데, 왜 친우라고 생각했어요?

A : 어릴 때 부터 친구라서 같이 잘 놀았었고, 초등학생 때 부터 그냥 잘 놀았으니까요.

Q :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요?

A : 가즈키군인가...

Q : 가즈키군이예요?

A : 네.

Q : 가즈키군은 어떤 친구죠?

A : 어떤 애지? 솔직히 말하면 즐겁기도 하고 귀찮은 건 귀찮다고 말하는 솔직한 아이.

Q : 아, 가즈키군은 A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A :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녀석.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머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려나?

Q : 정말요? A군은 꽤 재미있는 타입인 거예요?

A : 머, 중학교 때는 꽤 인기가 있었지만.

Q : 정말로?

A : 눈에 띄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자꾸 부추겨서 눈에 띄는 식.

Q : 아, 본인은 그렇게 눈에 띄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요?

A :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Q : 그런데도 눈에 띄는 식인가요?

A : 응, 뭔가 부추겨서 나만 눈에 띄는... 지금 학교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좀 자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 아, 그래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A : 둘다, 좋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Q : 뭔가 재밌는 것 좀 해봐, 라고들 하나요?

A : 응. 뭔가 흉내내거나.

Q : 꽤 반응이 있는 모양이죠?

A : 응, 어찌다 좀 심하게 해서 다들 썰렁해지면 기분 상해요. 안 웃어주면.

Q : 무슨 흉내를요?

A : 팻손야라[남성 개그맨의 이름] 같은거요 . 알고 있어요? 팻손야라라는 사람? 요새 코미디에 별로 안 나오긴 하는데, 가슴을 이렇게 막 두드려요.

Q : 모르겠는데요. 좀 알아두면 좋았을 걸.

A : 그걸 하면 가슴 있는 데가 아파서.

Q : 흉내내는 걸로 눈길을 끌고 있는 거군요.

A :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들 하니까.

Q :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각각의 친구들과 어떤 데서 알게 됐는지, 요즘은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아무나 괜찮아요.

A : 이 “유타카”yutaka군이라는 애는 어릴 때 부터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도 야구 같은거 하고 있을거예요.

Q : 야구라고 하면 “코시엔”koushien[전국고교야구가 행해지는 야구장 이름]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A : 아뇨, 코시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회전에서 저 버리고 지금은 허리 다쳐서 정형외과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Q : 아, 그런 애긴 학교가 다르니까 별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얘기 하나봐요?

A : 네, 8월 4, 5일에 우리 단지에서 축제가 있어서 거기서 마칩 마주쳐서 얘기 좀 했어요.

- Q : 아~ 그렇군요. 놀 때는 뭐하면서 놀아요?
- A : 음... 야구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놀거나. 핸드폰이라고 해도 게임 하는 거지만.
- Q :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요?
- A : 네, 가끔 “유타카”군 집에 놀러가기도 해요.
- Q :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옛날에 다녔던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 A : 그건 그다지 학교랑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Q : 옛날하고는 학교도 다르니까 어느정도는...
- A : 네, 옛날하고는 학교가 다르니까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해요.
- Q : 방과 후에는 어디서 지내요?
- A : 방과후 씨클활동 없으니까 바로 집에 돌아가서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게임하거나 해요.
- Q : 아, 의외로 동네 애들하고 노는 친구가 많은가 봐요? 아니면 지금 학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 A : 응, 역시 동네 애들이요. 고등학교 애들은 다른 “구”나 좀 더 먼데라, 지금 살고 있는데서 다른 “구” 까지 좀 멀어서 동네에서 놀아요.
- Q : 아, 그냥 동네에서 놀 때가 많은 거군요.
- A : 네.
- Q : 초등학교 때 친구도 학원도 역시 동네인 거군요?
- A : 네, 여기 유타카군, 가즈키군, “신”shin군, “유”yu군, “야스타카”yasutaka군, “유키코”yukiko상, “유스케”yusuke군, “도모히데”tomohide군은 다 동네친구예요.
- Q : 다 함께 만나요? 요즘도요?
- A : 응, 그냥 가끔 마주쳤을 때 얘기하고, 친구가 고등학교 갈 때 만나거나 해요.
- Q : 다들 같은 반이 된 거예요?
- A : 네, 초등학교 때는 유스케나 유타카, 가즈키, 신, 유랑 같은 반 된 적 있어요.
- Q : 그럼, 지금 헤어져 있어도 만나면요?

- A :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 Q : 그럼 약속해서 어디로 놀러가요?
- A : 그럴 때도 있어요. 야구 관전으로 가거나.
- Q : 야구 관전?
- A : 네, 도쿄 돔으로 가거나.
- Q : 그럼 좋아하는 팀이 뭐예요?
- A : “쿄진”kyojin[일본 프로야구 팀의 하나] 팬이에요. 다른 애들이 “뽀, 쿄진 팬? 예~” 라고 비웃어요.
- Q :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다들 쿄진 팬 아니예요?
- A : 네, 아니예요. 유타카군은 “요코하마”yokohama 팬이고, 가즈키군은 이미 야구랑은 떨어져서 탁구 하고 있어요. 신군은 오로지 야구구요.
- Q : 신군은 오로지 야구인 거예요?
- A : 네, 유군도 야구 스킬이 꽤 오르고 있어요.
- Q : 다들 야구 잘해요?
- A : 네, 야구를 하면서 친구가 됐으니까요.
- Q : 중학교 때 야구부였죠?
- A : 네, 했었어요.
- Q : 다들 야구부 친구예요?
- A : 아뇨,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애들이 섞여 있어요.
- Q : 그렇죠, 동네에서는 다들 그런 식이지요.
- A : 안 되나요?
- Q : 아뇨, 좋아요. 그럼 다들 알고 지낸지는 오래됐겠네요?
- A : 네, 길어요.
- Q : 이 중에서 야구부 친구는요?
- A : 음~ 유타카군,가즈키군, 신군, 유군, 도모히데군 정도 인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근데 야스타카는 축구 했었어요.
- Q : 다들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유타카라고했나요?
- A : 유타카란 이름이니까 “웃군”이라던지.
- Q :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건가요?
- A : 네, 그런 식이에요.

Q : 근데 여학생이 한명, 유키코상이 있는데 여자친구예요?

A : 아뇨,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아직 없어요.

Q : 아, 그래요? 어떤 친구예요?

A : 어떤 애냐면, 밝고 명랑해요. 초등학생 때 부터 툭툭 치고 받기도 했어요.

Q : 중학생 정도 되면 남녀를 의식해서 서로 떨어져 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건 없었어요?

A : 그런건 없었어요. 야스타카군이나 유키코상, 유스케군, 도모히데군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여기 4명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어요, 3년간.

Q : 다함께 모여서 지금 뭘가를 하거나 해요? 아까 말했던 야구관전 같은 거요?

A : 그건 가끔이요. 가끔 같이 가자고 해서.

Q : 그럼, 노는 건 기본적으로 2명이나 3명 정도예요?

A : 네, 많을 때는 8명정도.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야구하자고 하거나.

Q : 야구 하는구나?

A : 네, 역시 야구예요.

Q : 야구는 어디서 해요?

A : 근처에 있는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어요.

Q : 그렇게 넓은 그라운드가요?

A : 넓다기 보다는 그냥 보통이에요.

Q : 공터 같은 거예요?

A : 공터 인가, 거기. 울타리 같은 게 있고 옆에는 공원 있고.

Q : 사람들이 야구하는 그런 장소요?

A : 머 그런 느낌이죠, 축구나 야구 같은.

Q : A군은 타순은 몇 번째고 어딜 수비하는 거예요?

A : 음, 9번 치고 라이트 수비요. 등번호 9번이었어요. 머, 별로 잘 못 쳤어요.

Q : 저는 야구를 못하니까 야구 잘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프죠?

A : 아뇨, 난식이어서 별로. 명치에 들어가거나 하면 아프지만, 단련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Q : 이번에는 학교 친구들인데요.

A : 여기쯤이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서 알게 된 친구들.

Q : 그러네요, 지금 여름이니까 아직 4개월 정도네요?

A : 네.

Q : 그래도 꽤 이름이 많아요.

A : 아뇨.

Q : 어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A : 그냥 꽤 재밌어요. 얘기가 꽤 많아져요. 역시 텔레비 얘기나 코미디 얘기 같은 거. 그런걸로 흥내를 내봐라, 머 그럴 때는 딱 잘라 싫다고 했어요.

Q :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A : 네.

Q : 쉬는 시간에 다같이 얘기하는 분위기요?

A : 네,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방과후에 다들 씨클 활동 같은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Q : 역시 쉬는 시간이군요.

A : 쉬는 시간이나 점심 먹을 때.

Q : 도시락은 언제나 누구랑 먹어요?

A : 음~ 1,2,3,4,5 ... 여기 애들이랑 몽쳐서.

Q : “슌”shun군, “료”ryo군, “다케히로”takehiro군, “가토리”katori군, “다카EC”taka EC군, “마사키”masaki군

A : 네.

Q : 다들 같은 반요?

A : 네, 같은 반예요. 애들은 같은 반, 애들은 다른 반.

Q : 다른반이면서 왜죠?

A : 글썄요? 개가 우리 교실에 와서 얘기해요.

Q : 하이킹 부 애가 아니에요?

A : 아니예요.

Q : 다른 반이요?

A : 네.

Q : 반이 몇 개 있죠?

A : 7개 있는데, 저는 6반, “오오시마”oshima군이 7반, “마치다”machida군도 7반, “마사야”masaya군이 5반, “류노스케”ryunosuke군도 5반이고 마사키군이라는 애는 그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뛰고 있는 2반 애요.

Q : 알고 있었어요?

A : 네, 야구, T클럽이라고 하는 지역 야구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마사키군이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Q : 그 야구 팀에 A군도 있었군요.

A : 네, 여기 중학교의 멤버하고 그 애예요.

Q : 유타카군, 가즈키군, 신군, 유우군, 마사키군. 여기는 야구부군요.

A : 네.

Q : 동네 리틀 리그 같은 건가요?

A : 그런거예요.

Q : 그럼 여러 학교들 친구가 같이 하는 건가요?

A : 네 그래요.

Q : 리틀 리그로 괜찮은거예요?

A : T클럽이에요.

Q : 누가 지도해주고 있는거예요?

A : 음, “사이타마”saitama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Q : 제대로 된 코치가 있는거예요?

A : 네, 그 감독님 잘해줬어요.

Q : A군은 몇학년 때 부터 몇학년 때 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A :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부터 중3때 까지 했어요.

Q : 활동은요?

A : 휴일하고 가끔 토요일에 하거나. 일요일은 항상 했어요.

Q : 제대로 된 유니폼 입고서요?

A : 네, 재밌었어요.

Q : 그럼 학교 씨클에서 하고 T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A : 네.

Q : 대단하네요, 둘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A : 그런가? 아마도요. 그 때는 야구가 좋았으니까요.

Q : 지금 야구하는 친구들이랑 모이거나 해요?

A : 별로 없네요.

Q : 야구 친구들이라면 선배나 후배도요? 그 쪽 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요?

A : 그 쪽은 별로 없었어요. 상하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Q : 하이킹부에는 친구가 안들어갔네요?

A : 없어요. 저 뿐이에요.

Q : 1명뿐이에요?

A : 네. 1학년이 혼자고 2학년이 5명이에요.

Q : 혼자?

A : 네.

Q : 2학년하고 친해져서?

A : 그냥 얘기해요.

Q : 친구랑은 다른가요?

A : 달라요, 역시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말투에도 신경쓰고 있어요.

Q : 하이킹부라고 해도 엄격하구나.

A : 음, 엄격하죠? 그 분위기는.

Q : 인사가 잘 안되고 있다거나?

A : 그런건 없어요. 재미있어요, 학교는 공부는 좀 어렵지만.

Q : 학원친구랑은 학교가 다르네?

A : 그냥 친구예요. 학원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 “미츠히로”mitsuhiro 군이랑 “마리”mari상은 중학교 때 있었어요.

Q : 반은 달랐어? 학교는 같았지만?

A : 중학교는 같았지만 고등학교는 달라요.

Q : 얘기하는 내용은 달라요?

A : 역시 다르네요. 미츠히로군이랑은 야구 얘기 같은 게 많아요. 여기도 야구지만. 또 고등학교 얘기를 하거나, 요즘에 어때? 공부는 잘 돼?

- 며 이런 식... 반대로 친구가 물어볼 때도 있지만요.
- Q : 학원 친구요?
- A : 네, 학원 친구들이나. 가끔 학원에 가서 모르는거 배우기도 하고.
- Q : 지금도요?
- A : 응, 가끔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는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 Q : 졸업생이 가도 되는군요.
- A : 머 그냥.
- Q : 공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건 학원이에요?
- A : 그런 건 별로 없어요.
- Q : 아까는 유키코상 얘기 했는데, 마리상은 어떤 친구예요?
- A : 역시 밝고 좀 시끄러운, 시끄럽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명랑해요.
- Q : 별로 이성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 A : 별로 의식 안해요.
- Q : 동성친구들하고 같은 느낌인가요?
- A : 같은 느낌예요.
- Q : 학교친구중에 여학생도 있어요?
- A : 음~ 없어요.
- Q : 다들 남자 뿐예요?
- A : 네.
- Q : 여학생하고는 그렇게 맘 편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
- A : 아뇨, 반이 달라서 얘기 할 수가 없어요.
- Q : 반이 다르다니 남자반이에요?
- A : 아뇨, 공학이에요.
- Q : 그래도 반이 다른 친구하고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 A : 얘기하기 어렵다기 보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반에는. 그래서 좀 얘기하기 힘들어요.
- Q : 지금 학교에서 가장 사이 좋은 건 누구예요?
- A : 사이 좋은 건 여기 6명이에요.
- Q : 언제나 같이 점심을 먹어요?

- A : 언제나 뭉쳐 지내요.
- Q : 왜 A군까지 해서 7명이?
- A : 글썬요? 잘 모르겠어요. 왜 뭉쳐지내는지. 역시 친구라서 그런가?
- Q : 학교친구랑 제일 많이 얘기 하는건요?
- A : 고등학교 친구하고는 텔레비 얘기나 코미디 얘기 같은거 해요. 야구얘기는 별로 안해요. 순군하고 료군, 다케히로군은 테니스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테니스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 Q : 공통의 화제는 역시 텔레비전전이에요?
- A : 네, 텔레비 얘기로.
- Q : 게임 얘기 같은 건요?
- A : 아~ 가끔 하긴 해요. 그 RPG 드래곤 퀘스트 얘기 같은건 해요.
- Q : 공부나 진학에 관한 얘기도 해요?
- A : 그런 건 별로 안해요, 아마. 그렇지만 가끔 어디 전문대 가는지 어디 대학 가는지 물어봐요.
- Q : 누가요?
- A : 여기 순하고 료가.
- Q :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뭐라고 대답해요?
- A : 그냥 전문대는 가고 싶다고 해요.
- Q : 그런식으로는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 얘기는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도 해요?
- A : 별로 안해요.
- Q : 좀 다르군요.
- A : 좀 달라요.
- Q : 친구한테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 A : 뭐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향 받고 있는 건 역시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일인것 같아요.
- Q : 특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 A : 신군이냐 유군예요. 그 애들, 저 보다 머리가 좋아서. 숙제 같은거 모르는거 있을 때 신군하고 유군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 Q : 가르쳐 주나요?

A : 네. 입시 때도 의지했어요.

Q : 그래. 어떤 식으로요?

A : 모르는 문제를 보여주고 푸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공부했어요.

Q : 신군이나 유군은 학원은 달랐죠?

A : 네, 달랐어요. 중학교는 같지만.

Q :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A : 음, 가까운 도서관 같은데서. 도서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원하니까.

Q : 다른 친구들도 신군이나 유군한테 물어보거나 해요?

A :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Q : 그럼 A군만 그런 거였군요, 왜 일까요?

A : 왜 일까요? 역시 머리가 좋은 거랑 모르니까 배워보려고 생각해서.

Q :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거나 해요?

A : 네.

Q :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거나 해요?

A : 네,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거나 하는데 잘 모른다고 해요.

Q : 자주 물어봤어요?

A : 초등학교 때는 자주 물어봤는데 중학생이 되고서는 잘 안 물어봐요.

Q : 지금 다니는 학교 들어갈 때, 누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영향같은게 있었던 것 같아요?

A : 중3되고 나서 다들 고등학교 얘기하기 시작하고, 저는 A고등학교가 제 1지망이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공부했어요.

Q : 특별히 친구가 가니까, 개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라는 식은 아니었어요?

A : 그런 건 없었어요.

Q : 야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A : 야구는 가즈키군이랑 유타카군 정도예요. 그리고 신군.

Q : 어떤 점에서요?

A : 어떤 점에서였더라?

Q : 예를 들면 투구하는 폼이 멋졌다거나, 잘 모르겠지만요.

A : 왜였더라? 맞다, 그거다. 정신단련하려고 들어갔어요, 클럽 파이브에. 정신적으로 좀... 금방 물어버린다거나, 작은 일에도 금방 물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구팀에 들어가서 단련해보려고 생각했어요. 머 야구팀에 들어간 덕분에 조금은 강해진것 같아요.

Q : 그래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요?

A : 친구의 영향이네요, 역시. 친구가 하고 있으니깐 나도 해야지 라는.

Q : 특히 지금의 유타카군, 가즈키군

A : 음, 신군의 영향이 컸어요.

Q : 그 3명을 보면서 야구하면 정신적으로도 강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A : 네, 생각했어요, 그 때는.

Q : 다들 꽤 힘센 애들이예요? 건장한 스타일?

A : 아뇨, 가즈키군은 별로 건장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유타카군이랑 신군은 좀 우락부락해요, 몸이.

Q : 정신적으로도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A : 네, 그런 느낌이에요.

Q : 3명 다요?

A : 스포츠를 하는 건 역시 그래요.

Q :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A : 싸움을 잘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 괴롭힘 받았던 거 다 떨쳐 버리거나 신경 안 쓰거나 하는 거요.

Q : 정의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거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같은

A : 응, 그런 느낌이에요.

Q : 유타카 군은 어떤 사람이예요?

A : 어떤 애냐면 밝고 명랑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애요.

Q : 신군은요?

A : 신군은 고민거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Q : A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예요?

A : 역시 분위기 띄우는 역할 같은거, 머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들떠서 해
라 해라 하는 식이에요. 거기서 저도 업되서 해보면 다들 조용해지고.

Q : 정해진 거군요?

A : 네,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Q : 전부터 그런 식이에요?

A : 그런 셈이죠.

Q : 초등학교 때 부터요?

A :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다른 초등학교 애들하
고 섞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Q : 장기 보여주는데 레파토리 같은 건 몇 개나 있어요?

A : 음~

Q : 해달라고는 안 할테니까요

A : 역시 이거요.

Q : 중학교 때 잘 나갈 때는 뭘 했었어요?

A : 역시 이거요. 지금은 안하지만.

Q : 그렇게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A : 싫었어요. 분위기 띄우는 것보다 뭐라고 할까 조용히 듣고만 있고, 자
신은 아무것도 안하고 다른 사람이 분위기 띄우려고 할때 와! 하는.

Q : 그런 쪽이 더 나아요?

A : 네, 그편이 더 나아요.

Q : 근데 왜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A : 왜일까요, 다들 들떠서 막 하라고 하니까? 아마.

Q : 사람들이 A군 어찌구 저찌구라고 하면?

A : 아, 진짜? 라고 하면서 영향 받아서 해버려요.

Q : 자신이 분위기 띄우기 담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건
요?

A : 중학교 3학년때.

Q :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A : 역시 반에서 눈에 띄고 있다는 사실로 눈치 챌거 같아요.

Q : 그 때 까지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 A : 어떤 역할이었더라? 별로 생각 안하는데.
- Q : 조용한 타입이었어요?
- A : 네, 언제부턴가 분위기 담당이.
- Q : 다들 A군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A : 네.
- Q : 진짜로는 분위기 메이커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분위기 메이커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 A : 그거예요, 분위기 띄우면 되잖아라고.
- Q :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A : 응, 잘 모르겠어요.
- Q :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 A : 좋아하는 애는 있는데 아직 좀 빠르잖아요.
- Q : 이 안에 있어요?
- A : 이 중에는 없어요.
- Q : 친구 아니에요?
- A : 네.
- Q : 같은 고등학교요?
- A : 같은 학교예요.
- Q : 반도 같아요?
- A : 네, 반도 같아요.
- Q : 어떤 친구예요?
- A : 역시 밝은 아이예요.
- Q : 스포츠맨?
- A :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스포츠 하고 있을 걸요.
- Q : 성격면에서 밝은 친구예요?
- A : 네, 그런 느낌예요.
- Q : 그 애랑은 별로 얘기 안해요?
- A : 아뇨, 바로 옆자리예요.
- Q : 그럼 자주 얘기 하겠네요?

- A : 네, 얘기해요.
- Q : 친구는 아닌 거예요?
- A : 음, 그럴 걸요.
- Q :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어요?
- A : 그것도 일리 있네요.
- Q : 옆자리니까 그냥 매일?
- A :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가끔씩 얘기하고.
- Q : 여자애라면 좀 특별한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창피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도 썼을까요?
- A : 아직 친구라는 느낌은 별로...
- Q : 클래스 메이트의 한 사람이라는 느낌인가요?
- A : 네, 그런 느낌요.
- Q : 친우나 친구랑 닮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 싫다고 생각하는 점은 있어요?
- A : 그런건 없네요. 다들 다른 개성이 있으니까.
- Q : 야구를 좋아한다거나?
- A : 야구를 좋아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아마.
- Q : 닮아서 좋다거나?
- A : 그런건 별로 없어요.
- Q : 싫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 A : 그것도 없어요.
- Q : 자신의 장래를 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은 친구 있어요?
- A :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Q :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한다거나
- A : 그건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그것도 없는것 같아요.
- Q : 나중에 전문대 가려고 하는 건 언제 정했어요?
- A : 음, A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복지관계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 Q : 중학교 때 생각한 거예요?
- A : A고교 입시시험 볼 때. 시험 준비 하고 있을 때 그냥 머리에 떠올랐어요.
- Q :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생각해요?

A : 역시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의 영향이겠죠.

Q :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A : 부모님도 점점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발이라도 들 수 있게.

Q : 주위에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A : 고등학교에는 1명 있었어요.

Q : 이 중에 있어요?

A : 타케히로군.

Q : 타케히로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 : 네, 아마 그럴거예요.

Q : 그런 애긴 안해요?

A : 그런건 별로 안해요.

Q :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타케히로군한테 말했어요?

A : 아뇨, 애기 안 했어요.

Q : 중학교 때 그런 복지관계의?

A : 그런 이야긴 없었어요.

Q : 전혀 친구아니더라도 주위에 누군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A : 그런게 아니고, 역시...

Q : 테레비나 뉴스같은?

A : 응, 그런가?

Q : 부모님도 그런 걸 얘기 하셨어요?

A : 부모님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한거 같고... 왜 복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

Q : 선생님이 말씀 하신 거예요?

A : 역시 그 때의 제 기분인 것 같아요.복지 관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Q : 친구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A : 있긴 했는데. 뭐였더라? 역시 야구에서 우승했을 때 다들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했구나 머 그런. 그런 유대감이 있었어요.

Q : 대회에서요?

A : 네, 도쿄도 대회 나가서.

Q : 꽤 잘하는 팀이었군요?

A : 네, 지금도 쟁요.

Q : 여기요? T클럽 쪽이요?

A : 네.

Q : 강한 유대감을 느낀 모양이죠?

A : 네, 그랬어요. 느꼈어요.

Q : 그건 부원들 모두한테 느끼는 거예요?

A : 네, 전원한테 느껴요.

Q : 개인적으로 가즈키군하고 작은 일에도 역시 이 녀석은 친구다라고 느끼거나요?

A : 어땠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역시 야구에서 연습시합 같은데서 교대로 나갔을 때 힘내라고 얘기해주시니까 힘내야지라고 승리의 포즈 취하면서 교대하고 뛰어요. 그럴 때 느끼게 돼요. 유타카군이나 가즈키군요.

Q : 교대라는 건 선수 교대를 말하는 건가요?

A : 네. 잘 뛰고 올게라고.

Q : 다른 선수하고 교대 할 때 보다 유타카군이나 가즈키군 때가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A : 네, 역시 그래요. 그 때가 좀 더 그런 느낌이에요.

Q : 왜 일까요?

A : 동네 친구라는 점도 있고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Q : 힘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A : 전해져요. 역시 그래요.

Q : 사토시군하고는 느낀 적이 있어요?

A : 사토시군 때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이사한다고 들었을 때는 역시 좀 슬펐어요. 진짜. 뭐가 슬펐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Q : 먼 곳으로 이사를 갔나요?

A : 꽤 멀리 이사 가버려서.

Q : 그 후로 1번도 만나지 못했군요.

A : 안 만났어요.

Q : 만나고 싶어요?

A : 만나고 싶어요.

Q :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A : 역시 고등학교 얘기로, 어디 학교 다니는지, 그 학교에서 친구는 생겼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고 싶어요.

Q : A군도 여러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A : 하고 싶네요.

Q : 어떤 얘기가 하고 싶어요?

A : 역시 사토시가 이사가고 나서 친구 많이 생겼어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Q : 사토시군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주고 받는다고 했는데, 문자로는 역시 말 못할 사항도 있어요?

A : 그런건 별로 없어요.

Q : 평소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핸드폰으로?

A : 학교 얘기나 친구 얘기같은게 중심이고 써클 활동은 뭐하는지. 아! 써클활동 안 물어봤다. 물어봐야지.

Q : 문자 메시지는 자주 보내요?

A : 음~ 별로 안해요.

Q : 1주일에 어느 정도 해요?

A : 몇 번 정도지? 많을 때는 1주일에 20번 정도.

Q : 상대는 누가 많아요?

A : 누구지? 신군이나 동네 친구정도예요, 많은 건.

Q : 신군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요?

A : 역시 야구 얘기로. 야구가 중심이에요.

Q : 문자 길게 보내는 편이에요?

A : 얼굴문자 같은 거 써서 보내요.

Q : 학교 친구랑은 안 하나요?

A : 가끔요.

Q : 이 멤버들 하고인가요?

A : 네.

- Q :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하는 편인가요?
- A : 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애인데
요, 우리 반 여자애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200통 정도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면 응? 이라고 하더라구요.
- Q : A군은 보통 이야기 하는 내용하고 문자 내용이 다른가요?
- A : 어쨌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반반이에요.
- Q : 다르다고 하면 어떤거요?
- A : 음~ 역시 그 애가 들어있는 씨클 활동 같은 거 물어봐요.
- Q : 말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문자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요?
- A : 그건 별로 없어요.
- Q : 문자 친구랑만의 관계 같은 것 있어요?
- A : 그런 건 없네요.
- Q : 컴퓨터로 그 외에
- A : 컴퓨터 없어서요.
- Q : 학교에서는 할 수 있어요?
- A : 학교에서는 정보라는 수업이 있어서 거기서 컴퓨터 하고 있어요. 특별
히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 Q : 인터넷 게시판은 안 하고 있군요.
- A : 안 해요.
- Q : 핸드폰으로 믹시[미니홈피, 커뮤니티 서비스]는 하나요?
- A : 안해요.
- Q : 그냥 메일만 하는 거예요?
- A : 네, 그냥 메일만요.
- Q : 야구정보를 핸드폰에서 얻기도 해요?
- A : 그런 건 별로 없어요.
- Q : 친구한테 화가 날 때 있어요?
- A :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는. 그래도 역시 일부러 했을 때는 화
내기도 해요. 실수로 했을 때는 화 안내요. 예를 들어서 야구할 때 볼
을 던져서 일부러 맞혔을 때 화가 난 적이 있지만요.
- Q : 누구지요?

A : 그 안에는 없어요.

Q : 사이 좋은 친구지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A : 있었나?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요.

Q : 싸움 하기도 해요?

A : 싫어하는 녀석하고는 싸움도 했지만, 싸움이라고 해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Q : 이 안의 사람들하고는요?

A : 별로 안했어요. 싸움하는 거 싫어해서요. 싸움해도 바로 저버리곤 했어요.

Q : 따돌림 받았던 건 몇학년 때죠?

A : 초등학교 5, 6학년 때요. 2년간.

Q : 꽤 길었네요?

A : 2년이었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어땠더라? 별로 기억이 없는데. 따돌림 받았던 것 잊어버렸어요. 5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Q : 학교는 갈 수 있었나요?

A : 그냥 갔었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 지...따돌림 받고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 등교 거부 비슷하게 됐었지만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상담해서 해결됐어요.

Q : 그 뒤에는요?

A : 그 뒤로는 따돌림 같은 거 없어졌어요.

Q : 그 때 뿐인가요?

A : 그때만이에요.

Q : 어떤 식으로 따돌림 받았어요?

A : 어땠더라?

Q : 모두한테 무시당했거나 맞거나 했나요?

A : 무시당하기도 했는데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죄송해요.

Q : 이 중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괴롭혔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했어요?

A : 여기에 그 5명은 없었어요. 다들 착했어요.

Q : 상담같은 것도 해봤어요?

A : 했어요. 어떡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상담해보라고 했어요. 신군하고 유군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한테 말하라고, 좀

멋졌어요.

Q : 그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A : 아~ 우린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Q : 친구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거 신경써요?

A :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건 상관없어요. 역시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Q :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A : 네.

Q : 그렇게 생각하게된 계기 있어요?

A : 없어요.

Q : 부모님의 교육 때문인가요?

A : 아마도요.

Q : 공부가 다가 아니란다 라는 식인가요?

A : 네. 그런 식이에요. 역시 아버지랑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Q :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A : 뭐라고 하실까?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라고. 확실히 구분을 지으라고 하세요.

Q :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A :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셨어요.

Q : 지금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관계가 변해왔다고 생각해요?

A : 별로 안 변했다고 생각해요.

Q : 듣고 있으니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 : 변하지 않았어요.

Q : 초등학생때도 왠지 지냈어요?

A : 네, 왠지 지냈어요. 여기 5명에서 놀았어요. 귀신놀이나 달리기 같은걸 했어요.

Q : 놀이가 변했어요?

A : 네.

Q : 중학생 되고서는 뭐했어요?

A : 야구했어요, 그냥 캐치볼이나 노크같은거요.

Q : 지금 친구들은 스포츠 안해요?

A : 그런건 별로 안해요.

Q : 수다떨기 같은걸 해요?

A : 역시 그게 메인이에요. 놀고 싶어도 집이 멀기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Q : 학교 끝나고 다같이 맥도날드같은데 가요?

A : 아~ 그런건 없네요. 언제나 돈 갖고 다니는게 아니라서.

Q : 학교에는 돈 갖고 가지 않나요?

A : 저는 안 갖고 오지만 다른 애들은 갖고 와요. 언제나 물통 가지고 가니까 돈은 필요없어요.

Q : 정기권은 있어요?

A : 자전거라서요.

Q : 필요없군요.

A : 네.

Q : 자전거로 몇 분 정도예요?

A : 10분 정도면 도착해요. 걸어서는 15분요.

Q : 제일 가까운 학교예요?

A : 그래요.

Q : 다른 친구들은 더 멀리 다녀요?

A : 네, 멀리요. N(지명)쪽이나 K(지명)쪽으로요. 그쪽에 살고 있어서요.

Q : 통학은 언제나 혼자서 해요?

A : 네. 중학교 때는 유타카군하고 가즈키군하고 만나서 가거나 도중에 신군이랑 유우군하고 만나서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Q : 제일 가까운 것은 누구예요?

A : 제일 가까운 건 이 중의 누구일까? 역시 마사키군하고 유스케군인것 같아요.

Q : 어느 쪽이요?

A : K단지 라고 했는데요, K단지 어디쯤에 있었더라?

Q : 아마A군 집에서라면 버스일거예요.

A : 버스로 단번에 갈 수 있다고.

Q : 그래도 버스 타고 있는 시간만도 10분 정도고 “카가”Kaga의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가 본 적은 없어요?

A : 간적 없어요. 아뇨, 간 적 있었나? 유치원 때 친구 만나러 가 본 적이 있기는 한테 기억이...

Q : 유치원때 친구는 누구예요?

A : 유우군하고 가즈키군 그리고 유타카군요.

Q : 이 4명은 유치원때 부터의 친구예요?

A : 유치원은 달랐지만 친구였어요.

Q : 4.5살때 부터 친했군요?

A : 네.

Q : 초.중.고는 어떤 느낌이에요?

A : 초등학교 때는 시끌벅적하고 밝아서 좋았어요. 중학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조용해지면서 요란하게 떠드는 일이 적어지고 침착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Q : 시끄럽지 않군요?

A : 별로 시끄럽지 않아요.

Q : 꽤 점잖은 분위기의 학교인가 봐요?

A : 음~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Q : 분위기 험악해 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A : 옛날 A고등학교는 꽤 그랬었는데 학교 개혁이 성공해서 지금은 별로...

Q : 학교 개혁이라는게 언제 였어요?

A : 언제 였더라? 꽤 옛날이었던것 같아요.

Q : 그럼 지금은 전혀 그런 일 없이 안정돼 있는 거네요?

A : 네, 그래요.

Q : 좀 엄격한 학교예요?

A : 엄격하다고 하면 좀 엄격한 면이 있어요. 교칙 같은 게. 머리 염색하면 안된다는가. 그거야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귀걸이 하면 안된다는거나, 그것도 뭐 당연한 거네요. 엄격한 건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엄격한것 같지도 않지만요.

Q : 학교 분위기는 좋아해요?

A : 네, 좋아해요.

Q : 안정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A : 네.

Q : 담임선생님은 엄해요?

A : 아뇨, 자상하세요.

Q : 여러가지 상담도 들어주세요?

A : 네.

Q : 어떤 이세요?

A : 남자분이신데 자상한 분위기예요. 담임 선생님은 영어담당이신데 영어 같은 거 물어봐요.

Q : 선생님이 교우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물어보나요?

A : 그렇지는 않아요.

Q : 전혀요?

A : 네.

Q : 친구는 이런식으로 사귀는 거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A : 안 그러세요.

Q : 친구랑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거나 하지 않아요?

A : 그런건 전혀 없어요.

Q : 전혀요?

A : 전혀 없어요.

Q : 중학교 때도 그래요?

A : 그러네요, 중학교 때도 그런건 없었어요.

Q : 누구랑 누가 친한지 선생님은 신경쓰고 있나요?

A : 고등학교 선생님은 조금은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애요, 아마도요.

Q : 저런 친구랑은 사귀지 말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재는 좋은 친구라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A : 그렇지는 않네요. 별로 그런 간섭은 없어요.

Q : 초등학교 때는?

A : 초등학교 때는 어땠더라?

Q :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30명 정도 보고 계시니까 좀더 여러 가지로
A : 뭐가 있었나? 역시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Q : 친우를 만들라고 하시거나 했어요?
A : 그렇지는 않았어요.
Q : A군이 선생님한테 여러가지상담을 하거나 하는 일은요?
A : 역시 공부같은 거요.
Q :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편이에요?
A : 할 때는 하는데요, 안 할 때는 안해요.
Q : 선생님이 따라서 그렇다는 말인가요?
A : 선생님이 따라서 달라요.
Q : 선생님한테는 상담 안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한테 바
로 상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A군은 어때요?
A : 그 중간인것 같아요.
Q : 공부에 관련한 건 어떤 거예요?
A : 영어나 영어단어 스펠링 같은거요.
Q : 꽤 친하게 얘기하나요?
A : 네.
Q : 친구 같은 느낌인가요?
A : 네. 그래도 친구처럼은 얘기 안해요. 역시 선생님이니까 그런건 잘 구
분하고 있어요.
Q : 선생님하고 얘기하는건 즐거워요?
A :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Q : 잘 가르쳐 주시나요?
A : 네. 그래요.
Q : 아버지 어머니가 친구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묻거나 하세요?
A : 요즘 누구랑 친한지 묻거나 공부에 대해서 물어요.
Q : 어머니가요?
A : 네. 어머니가요.
Q : 아버지는요?
A : 아버지진 별로 안 그러세요.

Q : 뭐라고 대답해요?

A : 어머니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라고 하시면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해요.

Q : 뭐든지 부모님께 말하는 편인가요?

A : 네, 말하는 편이요.

Q : 반항하느라고 말안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것도 있어요?

A : 있어요.

Q :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A : 시험 성적 나쁠 때는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말 안하면 어머니가 화내시니까 말해요.

Q : 화내세요?

A : 네, 화내요.

Q : 친구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잔소리 하시나요?

A : 그렇진 않아요.

Q : 누구랑 많이 놀라고 하시거나 해요?

A : 그런건 있네요, 아마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Q : 어떤 식으로요?

A : 음~ 가끔 애네들 하고 좀 놀고 와라라고.

Q : 유타카군과 가즈키군, 신군하고 말예요?

A : 네, 유군이랑 같이 좀 놀라고 하세요.

Q : 최근인가요?

A : 요즘에 그러세요.

Q : 그걸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A : 좀 놀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Q :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A : 역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Q : 같은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예요?

A : 네, 서로 알아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요.

Q : 가족 전체로 다 같이 어울리거나 해요?

A : 같이 놀러가거나 해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 Q : 어머니끼리도 사이가 좋아요? 아버지끼리도?
- A : 아뇨, 아버지는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그냥 사이 좋으세요. 친구 어머니랑 같이 차 마시러 가거나 가볍게 얘기하거나 해요.
- Q : 아버지랑 어머니가 단지 여름 축제에서 뭔가 하시거나 했어요?
- A : 그건 별로... 아버지는 그렇지도 않지만.
- Q : A군의 친구관계를 어머니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 A :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방과후에 집에서 얘기하거든요.
- Q : 지금 학교에 신, 료, 다케히로, 가토리, 유스케, 마사키라는 애들이 있다는 건 얘기를 했군요.
- A : 네, 얘기했어요. 부모님도 친한 애들이 누군지 물어 보세요.
- Q : 아버지는요?
- A : 아버지는 별로 안 물어보시는데 학교 재밌냐고 하실 때는 있어요.
- Q : 아버지는 친구들에 대해 아세요?
- A :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 Q : 몇 명정도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 A : 아버진 모르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Q :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께 의논하는 편이에요?
- A : 네, 역시 따돌림 받았을 때나 그런건 의논했어요.
- Q : 지금은요?
- A : 지금은 안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 Q : 공부 얘기라든지 서클활동 같은건요?
- A : 서클활동 얘기는 안하지만 가끔 공부얘기는 해요.
- Q : 친구한테 의논하는 거랑 부모님한테 의논하는 거, 친구쪽이 많아요?
- A : 친구 쪽이 많네요. 어머니한테도 가끔은 하고요.
- Q : 어떤 때 어머니한테 말해요?
- A :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거.
- Q : 그런 문제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군요?
- A : 네, 물어봐도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Q : 어머니는 A군한테 친구를 소중히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친구도 그렇고 옛날 친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A : 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Q :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A : 아마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역시 친구는 소중히 하라고 생각해요.

Q : 아버지하고는 사이 좋아요?

A : 네, 좋아요. 집에서 같이 역사드라마 보거나 비디오 녹화해 둔 드라마 보거나, 어릴 때는 캐치볼도 하고 전차박물관 같은데도 같이 갔어요. 좋은 아버지세요.

Q : 지금 아버지랑 자주 얘기하는 건 뭐예요?

A : 뭐지? 역시 역사드라마 같은 거요.

Q : 유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A : “풍림화산”[16세기 장군“신젠”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드라마]예요. 아! 안 봤다. 다음주 월요일 날 아버지랑 봐야지.

Q : 아버지가 드라마 좋아하세요?

A : 네.

Q : A군도 좋아해요?

A : 네.

Q : 아버지 영향인가요?

A : 아마도요.

Q : 어떤 얘기를 해요? 역사드라마를 보면서.

A : 음, 이 장군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죽는거 아냐라고 하거나 “신젠”이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이기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얘 기요.

Q :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군요.

A : 네,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알고 있어요.

Q : 어머니하고도 사이 좋아요?

A : 사이 좋아요.

Q : 어머니하고는 어떤 식으로 사이가 좋아요? 같이 쇼핑하러 가거나 해요?

A : 네, 쇼핑에 따라가거나 무료로 물 받는데 가거나 해요.

Q :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A : 네, 병이 있고 그걸 사면 물을 받는데 공짜라서 그럴 때 따라가요.

Q : 사이가 좋군요.

A : 네.

Q : 고등학생 되면 주위 친구들은 부모님을 별로...

A : 견제하거나 하기도 해요.

Q : 친구들은 어때요? 다들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요?

A : 그런 애긴 없네요.

Q : 친구들 보고 사이 나빠 보이는 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A : 네.

Q : 학교 성적은 어느정도 예요?

A : 어느 정도냐면...

Q :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아주 좋았다거나

A : 초등학교 때는 좋기는 한데, 중간정도였어요, 좋고 나쁜것의 중간정도
요. 중학교는 나쁘게 여기 정도면 아슬아슬한 정도. 고등학교 1학기 때
는 좋았어요. 평점이 5단계였는데 5가 3개 있고 3이 적었으니까 좋은
편이죠.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열심히 했구나라고 칭찬해 주
셨고요.

Q : 중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고 고등학교 2학기 때는요?

A : 중학교 땐 뭘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 왜요?

A : 역시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각이 변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요.

Q : 친구의 영향인가요?

A : 별로 그렇진 않고요. 아마도 고등학생이 됐다는 걸 의식하고서부터 좀
변한것 같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좋았어요.

Q : A고등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왜예요?

A : 복지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Q : A 고교는 복지로 유명한가요?

A : 스포츠도 유명한데 3개 계열이 있어서 스포츠건강계나 복지교양계, 정보비지니스계가 있는데 그게 아마 유명해요.

Q : 그 복지계열에?

A : 들어가려고 했어요. 고2부터 시작되는데. 복지계열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Q : 같은 중학교에서 같이A고교 복지계열에 간 친구도 있어요?

A : 없어요. 같은 중학교에서 온 애가 있는데 스포츠 건강계열이나 정보비지니스계열에 간 애가 있어요.

Q : 친구나 선생님보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A : 네 .

Q :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A : 음~좋다고 하시면서 허락해주셨어요.

Q : 주위 친구들은요?

A : 친구들은 이런 얘기 별로 안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냥 어디 갈건데? 라고 물어보기는 해요

Q : 다들 복지교양계열이에요?

A : 아뇨, 잘 모르겠는데 여기 2명은 아마도 스포츠건강계에 갈 거 같아요.

Q : 수준하고 료균은요?

A : 네, 아마도 타케히로군도 저랑 복지교양계열에.

Q : 2학년이 되서 선택하도록 되어있군요?

A : 네.

Q : 앞으로 복지관련 전문대에 갈 거예요?

A : 가려고 생각중이에요.

Q : 개호복지사라고 하나요? 그런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A : 네, 일단 목표로 하고 있어요.

Q : 어떤 데서 일해요?

A : 역시 개호 센터같은데요, 아직 별로 정하진 못했지만.

Q : 구체적으로 개호 센터예요? 노인분들의?

A : 역시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Q : 2학년이 되면 현장에 가거나 해요?

A : 네.

Q : 올해는 아직 그런건 없나요?

A : 네.

Q : 도중에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A : 바뀔까? 아마 바뀔거라고는 생각해요.

Q : 바뀔것 같아요?

A : 바뀔지도 몰라요.

Q : 왜 그렇게 생각해요?

A : 별로 자신이 없어서요.

Q : 그래요? 왜요?

A :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라서요.

Q : 어려운가요?

A : 네, 어려울 것 같아요.

Q : 시험에 합격하는게요?

A : 네, 아마도.

Q :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A : 그건 아직 생각 안하고 있어요.

Q : 2학년이 되면 복지계열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 전문대에 가나요?

A : 전문대 가려고 생각중인데 대학 갈지도 몰라요.

Q :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A : 역시 전문대 가서 제대로 배우고 일하는 편이 좋을거라고 생각했어요.

Q : 선택사항으로는 전문대에 가거나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바로 취직하는 것도 생각중인가요?

A : 그것도 선택사항에 있기는해요.

Q : 그런 의논은 누구한테해요?

A : 어머니요.

Q : 어머니랑 또 누구요?

A : 아버지.

Q : 알아봐주거나 하시나요?

A : 아직 별로 알아본 게 없어서.

Q : 친구들은 그런거 잘 몰라요?

A : 네.

Q : 타케히로군도 모르나요?

A : 네.

Q : 빈 깡통 슬쩍 버리거나 한 적 있어요?

A : 빈 깡통 그냥 버린 적 있어요.

Q :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니면 별로 생각없어요?

A :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버렸어요. 좀 나쁜 짓 했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Q : 그런 것에는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A : 네, 아~버려버렸다고 생각해요.

Q : 별로 안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의외로 별 생각없이 자주 하는 편인가요?

A : 별로 안하는 편이에요. 역시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려요.

Q : 만약 친구가 그러면 주의를 주나요?

A : 아뇨,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어렵네요. 친한친구라면 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Q : 빈 깡통 그냥 버리면 유타카군이나 가즈키군, 신군은 하지 말라고 할 거 같아요?

A :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Q : 그거랑 비슷한 일이 있어요? 하면 안되는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자전거에 2명이서 탄다거나.

A : 아~둘이서 타는 거요? 한 번 둘이서 탄적이 있는데 경찰한테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Q : 친구가 아닌 사람이라면 말 안해요?

A :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Q : 후리타[정직원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파트타임], 니트[취업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가지려하지 않는 사람]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A : 그런건 별로 생각 안하는데요

- Q : 고등학생인A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A : 역시 니토 같이 일 안하는 사람은, 일본은 좋은 나라니까 쉽게 일자리가 구해질 테니까 제대로 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 Q : 일 할수 있으면서 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A : 그런 느낌이네요.
- Q :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 A : 그런 생각이 들어요.
- Q :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 A : 없어요.
- Q : 그럼 텔레비 같은 데서 보는 거예요?
- A : 네, 텔레비전에서요.
- Q : 후리타는 있어요?
- A : 후리타가 어떤 거예요?
- Q : 졸업하고서 편의점 같은 데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한다거나 하는 거요.
- A : 그런건 별로 없어요, 아마도.
- Q : A군으로써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건가요?
- A : 그래요.
- Q : 만약 친구가 장래에 후리타라든지 니토가 될 것 같거나 되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 A : 어떡할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 Q : 자신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별로 좋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자신은 후리타로 만족한다고 하거나 의욕상실이라고 하면서 후리타가 된다면요?
- A : 그건 어쩔수 없네요.
- Q : 상담을 해준다거나 할 거예요?
- A : 아마 할 거예요.
- Q : 안된다고 충고를 해주거나 할 거예요?
- A : 안해요. 그게 친구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 Q : 야구가 역시 중요하군요.
- A : 네, 역시 야구 예요.

Q : A군에게 있어서 야구가 없으면 지금 생활도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A : 별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Q : 별로 야구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씨클 활동이라든지.

A : 그런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Q : 취미로 하는 정도인가요?

A : 취미로 하는 거예요.

Q : 계속 할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A : 어른이 되면 어떠려나? 시간이 나면 아마 할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를 떠올리면서. 어린이는 캐치볼 같은 거 하잖아요.

Q : 아버지는 야구 하세요?

A : 아버지는 어릴 적에 야구 하셨는데, 캐처나 피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Q : 나중에 같이 할 것 같아요?

A : 같이 하게 될까요?

Q : 용돈은 얼마예요?

A : 3,000엔이요.

Q : 보통 용돈은 어디에 써요?

A : 역시 소설 같은데요. 해리 포터 같은거요.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별로 돈 없어서 모을 거예요, 이 돈.

Q : 나중에 어디에 쓸 거예요?

A : 어디에 쓸지 아직은 결정 안했어요.

Q : 소설 이외에는 어디에 돈을 써요?

A : 게임같은데요.

Q : DS[휴대형 게임기]같은거요?

A : PSP소프트 라던지.

Q : 먹고 마시는 데는 별로 안써요?

A :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가 더 많아요.

일본사례 #2

대상자 : (중3, 여)의 모친, 거주지(도쿄 메구로구)

Q : 인적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따님이 중학교3학년 조금 전 인터뷰한 B상이고, 사립 여중에 다니고 있으며, 같이 사는 가족은 세 명으로 남편분과 어머니, 따님이죠. 남편의 나이는 45세이며, 직업은 인터넷관련 업이죠?

A : 그래요.

Q :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인가요?

A : 그런 것 같아요. 결산, 인터넷 은행 같은 느낌...

Q : 인터넷 은행요?

A : 인터넷 은행은 아닌 것 같아요. 결산이니까, 뭘까요, 소위 전자머니 결제예요. 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편의점에서 지불할 때 결산이나.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관계죠?

Q : 최종학력은 어머니도 아버님도 4년제 대학교라고 들었는데 이것으로 틀림없으신가요

A : 네, 그래요.

Q : 자제분의 교우관계는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시는 범위에서 이 종이에 따님의 교우관계를 써 주시겠습니까? 따님의 학교관계에서의 친구나 써클 친구,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참고로 아시는 범위내에 써 주시겠습니까?

A : 네. 네, 이건 소꿉친구,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소꿉친구라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이게 중1때 반이고, 지금이 중3으로, 이게 써클의 E 클럽으로 영어학원 친구예요.

Q : 영어학원이군요?

A : 네, 영어학원인데, 학교는 다른 곳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4명정도 있는데 학교 이름 밖에 모르겠어요. D학교

Q : 각각의 씨클에서 씨클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아시는 범위에서 지금은 누구와 사이가 좋아라던지, 이런 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가르쳐주세요.

A : 이것의 설명요?

Q : 네

A : 이것은 E씨클이고, 중1부터 들어갔는데, 중2때 “미치코”michiko상이랑 “시호미”shihomi짱이랑 우리 애가 좀 단역이지만 무대에 서게 된 적이 있어요. 다음으로 중3으로, 사실은 씨클이 힘들어서 고1은 전원 관두고 중고일관이 돼서 고2가 지금은 지도를 하고 있죠. 선생님은 고문역이지만 노터치로 전체를 보시기만 할 뿐, 거의 아이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아이들이 선배가 대본에서, 연출, 조명 전부를 하고 대도구 소도구도 준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중3이 제일 위라서 그 중에서 배역을 결정하지만 이번 선배는 엄청 엄격해서 중3에서도 못하면 무대에 세우지 않고 중2에서 배역을 고르거나 해서, 그래서 이번 레미제라블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오디션이 있어서 오디션 전에 “노리코”noriko짱이나 “나오미” naomi짱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둘이 세트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B는 자기가 희망하는 역을 오디션에서 결정하는데 몇개 정도 도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주역 장발장, 그 파트너가 자베르로 미치코상이었어요. 그것도 연습해서 자베르가 제2희망이었기 때문에 자베르 때는 나오미짱이 장발장을 하고 집에서 연습하거나 했었는데, 그 외에 고제트라는 장발장의 양녀 역과, 마리우스라는 고제트의 애인역, 그 4명이 캐스트로 메인이에요. 그 외에 엑스트라라는 것이 있어서, 엑스트라는 응모했지만, 그것은 최종심사라는 2차 심사가 없었어요. 그4역할은 최종심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 미치코상의 자베르와 나오미짱과 연습했지만 결국 운 좋게 주역인 장발장으로 뽑혔고 그 때의 상대역이었던 자베르인 미치코상이 자베르가 되고 “리호.riho짱”이라는 아이가 마리우스가 되고 대발탁으로 코제트는 중2에서 뽑혔고, 뒤(교우도) 중2 칸도 만들었다더라면 좋았겠지만, 중2 칸에 후배인데 반 친구들 보다, 친구관계라고 할까 후배를 잘 보살피고 있는 아이가, 코제트가 된 “안나 anna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또 예포

닌이라고 하는 마리우스에게 짝사랑하는 역으로 시호미짱이 되었는데. 그리고 양졸다스란 전투 기사같은 멋있는 남자애 역이 있는데 그건 중2의 “다치바나”tachibana상이라는 매우 예쁜 여자아이가 발탁됐고, 또 가브로슌이라는 남자아이 역할이 있는데 그건 나오미짱이라는 아이로 결정됐어요. 그 외에 테날디에라는 여인숙의 악착스러운 부부가 있는데 그건 누가 했더라? 중2가 또 뽑혔어요. 올해 중2는 모두 훌륭하고 귀국자녀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생활환경도 좋기 때문인지, 너글너글한 중3에 비해 척척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B짱이나 “마키코”makiko짱, “아야”aya짱 등은 이번에 뽑히지 못했어요. “하마지마 hamazima”상은 테날디에로 뽑혔어요. “가렌”karen짱과 “미유”miyu짱 “하루카” haruka짱은 엑스트라보다 더 낮다고 하면 좀 나쁘지만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앙상블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뽑혔어요.

Q :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그건 따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A : 우리 B는 어느 쪽인가 하면, 어머니들하고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일관 교육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는 학년 당 80명이라는 소인수였기 때문에 2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년에 1번 반을 바꾼다고 해도 모두 이름도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알게 될 정도로 모두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 사이도 꽤 사이가 좋고, 저도 “교토”Kyoto 출신으로 여기 와서 친구가 생긴 식인데 부모자식으로 굉장히 긴밀한 친구관계기 때문에 어머니 사이의 정보망이 밀접해요. 그 중에서 물어보면 지금은 2가지로 나뉘는데 전혀 학교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학교 이야기는 친구끼리 상담하거나 하고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이냐 하면 제가 맘대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외동이라는 점도 있어서 언니나 이야기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저에게 말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려는 것과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말하기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치바나상이 말이야’라고 이야기 하면 제가 ‘양졸나스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대답이에요. ‘다치바나상이 누구였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선 아이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고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이가 자고

난 후 메모장에 적어요. 자베르도 완전히 그 역할에 빠져버려서 ‘노리짱’이라고 말하면 안돼요. 자베르라고 해야 되고 ‘시호미짱’이라면 에포닌이라고 해야돼요.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학교는 매일 클럽만 하고 여름방학도 연습이 있어요.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정말 폭 빠지지 않으면 그 역할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프로라도 그 때는 주역끼리 가짜로 연애를 하는 느낌으로 폭 빠져있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역할에 빠져 완전히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우선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하루카짱은 이 역할 이었다고 쓰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중학교는 매년 반을 바꾸지만 초등학교는 2년에 1번이었어요. 어머님들 소개하실 때 선생님과 저 둘만 그걸 전부 써요. 그 어머니가 예를 들면 리호짱의 엄마라면 지금은 같은 반이 아닌데 ‘B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자버리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하고 아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적어 두면 곧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보면 아,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와 이야기 했을 때 ‘그 아이 천문학부지?’ 라고 하면 아이도 ‘어떻게 알아?’하고 말하기 때문에 ‘웬지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어머님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천문학부였죠?’라고 말하면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단 적어두고 있기 때문에 꽤 다른 어머니들과 비하면 많이. 요즘 뭔가 상담이 있었을 때에도 ‘미유짱’이라고 말만 해도 ‘클럽도 반도 지금은 같은 애?’라고 바로 말을 받아주니까, 친구와 같은 감각으로,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감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아마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는 나에게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그것과 그 때에 적절한 어드바이스라든지 맞장구를 쳐 주면 좋아요. 상담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대답이 돌아오면 괜히 화가 난다고 할까 이 정도 나이의 아이는. ‘왜 나를 이해 해 주지 않아?’로까지 발전한다고 다른 어머니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다른 어머니에게 말 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고, 그걸 설명하기에는 지금까지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없을 때 메모하지

않으면 완전 무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계약이 있는거죠.

Q : 지금 학교 이외, 씨클 이외에서 따님이 놀러 가는 것은 어떤 친구와 어떤 곳에 가나요?

A : 정말 씨클이 지금 B생활의 95%를 차지할 정도예요. 하지만 반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해 줬을 때도 1학년 때는 그래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는 분위기예요. 단지 영어학원의 S학원 친구는 집도 가깝고, 8월24일이 생일이었는데 그녀가 뭔가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4일이 어찌고 저찌고라고 이야기 해서, 이 날에 생일 선물을 집으로 갑자기 띄워주고 가지고 가서

Q : 계획을 세우고 있었네요?

A : 아마,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학예 대학교” 근처의 “오코노미야키[일본음식의 한 종류]”집에 가고 싶다고 말해서 제가 추천한 K라는 집의 지도를 그려줬는데, 좀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비행기였는데 귀가 아파져서 갈 수 없게 되어서. 이걸 아직 날짜를 정해지 않겠는데 다음엔 반의 “아오이”aoi짱하고도 한번, 대체로 “시부야”sibuya에서 109II[대형 쇼핑몰]의 7층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제가 우선 시부야의 지도를 줘서 센터가 등 가서는 안되는 곳은 X를 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돼’라는 식으로. 스티커사진도109II에는 엔젤블루라던지 그런, 어머님들과 같이 아이들이 쇼핑하러 오는 가게라서 어른도 많고, 거기와 같은 층이라 괜찮지만, 센터가의 게임방이나 그 근처의 스티커사진은 절대 가면 안된다고 정해두고, 시부야에 갈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자기만 그렇다고 말하지만, 1시간이나 2시간에 1번 메일로 ‘지금 어디에 있어’라고.

Q : 그건 확실히 따님만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A : 안돼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품이 안 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라도 하라고 말하지만요.

Q : 부지런히 보내는군요?

A : 네, 보내 와요. 그래서 조금 과보호적인가? 라고 생각해서 최근 조금 반성하고 있지만요.

Q : 남편분도 외출하면 문자를 보내 오나요?

A : 전혀, 뭐 행방불명이예요. 남편은 나가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Q : 이 중에서 초등학교 때의 소꿉친구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A : “사치코”sachiko짱은 씨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만나는 일이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사치코짱이랑 일심동체의 쌍둥이 같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어머니 끼리도 초등학교부터 친구가 됐는데 가장 사이가 좋고, 엄마가 사이좋은 친구는 “아야메”ayame짱, 제 친구인데요. 사치코짱은 탁구부로 “미나토 (minato)구에서 1등이었는데 아야메짱도 농구부라서 그렇게 씨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계열, 우리도 바쁘지만, 거기는 운동계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사이 좋은 애들이 함께 수족관에 가거나 한 적이 있어서, 그제 하루카짱이라 “레미”remi짱 정도.

Q : 초등학교 시절의 B상이 사이 좋았던 친구에는 어떤 타입이 많았나요?

A : 어느 쪽이냐고 하면 밖에서 논다고 하기 보다, 사치코짱도 그런데 굉장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4컷 만화를 그리거나 그런 식의 만화를 창작해서 둘이서 교환하거나 B도 예쁜 여자아이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휴일마다 그림을 그려서 사치코짱과 교환하고. B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사치코짱의 엄마에게 본인이 교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크면 돌려줘라고 얘기 했어요. 그때의 추억으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니까요.

Q : 학교에서는 B짱은 어떤 아이였나요?

A : 중학교에서 그녀는 스스로 노력해서 변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친구로서는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면 좀 과격하지만 오타쿠같다고. 어느 쪽이냐 하면 조용하고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르간 당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신교 학교라서 기도 시간이 매번 있고 그 때에 희망자는 오르간을 치면 되는데 B는 4살 때 부터 배웠기 때문에 꽤 잘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을 들고 치지 않아요. 그건 사치코짱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데요. 부모 참관일에도 절대 손을 들지않아요. 그게 ‘네’ 하고 손을 드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손을 안들어요. 모처럼 참관일에 갔으니까 뭔가를 보여 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서 초조하고 화나고 해요. 정답

을 알고 있을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을 할 땐 꽤 꼼꼼하고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은 괜찮지만 빨리빨리하고 드라이 한 선생님은 그런 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에서 그걸 계기로 자신을 바꾸자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는 손도 들게 됐고. 가장 큰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디션을 해서 연극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캐스트 정도의 메인 역으로 뽑혔어요

Q : 그건 학교에서의 오디션 인가요?

A : 네, 그게 전원 참가하는 학예회인데요, 그것도 오디션이에요. 거기서 발탁돼 모두가 보는 눈도 변했고 스스로도 하면 된다는 것과 연극에 눈을 떠 중학교에서도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Q : 중학교 친구는 어머니가 보시기에 어떤 타입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A : 저,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중1때 사이 좋았던 “가호”kaho짱은 굉장히 성적이 좋고 스피치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1등 할 정도로 대단해요. 학원에 가지 않고도 공부를 잘해요. 하지만 개그맨 집단 “요시모토”yoshimoto를 좋아해서, 저랑 3명에서 “신주쿠”shinzuku의 “루미네”rumine[쇼핑몰, 무대 극장이 있음]에 가거나 하고, 지금도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둘이서 오리엔탈라디오[지금 인기있는 개그맨]에 관련된 행사를 보러거나. 그리고 가호짱은 중학교 수험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는 안했으니까 공부에서의 목표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너무 물으면 가호짱이 싫어하니까, 하지만 묻고 싶으니까 잘 물어 볼 수 있으면...했어요. 가호짱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존경해요.

Q : 가호짱은 중학교 수험공부를 하고 입학했군요?

A : 네, B는 중학교 수험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공부법 일까 알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Q : 그건 서로 중학생이 돼서 예를 들면 기말이나 그런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A :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호짱이 1학년 때는 아직 B도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

지 않았지만, 지금은 씨클에 몰두 하고 있어서 꽤 떨어졌지만, 가호짱 이랑은 서로 점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중1,2는 함께였어요. 정말 씨클 자체가 아침 연습, 그리고 20분 휴식 연습, 점심 연습 그리고 방과 후 연습도 있어서 짧은 휴식 시간마저 씨클이 있기 때문에 반 친구와 접할 시간이 적어요. 도시락도 E클럽의 친구랑 먹으니까. 그래서 반에서 만들고 싶어도 좀처럼 안되는 딜레마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5분만에 음악실에서 체육실로 간다던지, 여러번 친구가 없었거나 하는 외로운 마음이 중2때에는 있었던것 같지만 중3 때 운 좋게 E클럽의 친구 미유짱이 같은 반이 돼서 지금은 미유짱과 그런 교실이동을 해요, 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Q : 중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A : 중1때는, 지금 중2,3선생님은 같은 선생님이지만, 중1 선생님은 “구로사키”kurosaki선생님이에요. 어쨌든 모두가 뒤에서는 T[구로사키선생님의 이름]라고 “선생님”이란 호칭없이 부르는데, T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로 정말 어느 쪽이나 하면 ‘여왕의 교실[독재적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는 여선생님 드라마 이름]’에 나오는 선생님 같아요. ‘여왕의 교실’ 알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어느 쪽이나 하면 여성스럽다기 보다는 매정한 남성적인 선생님이에요. 중2때는 전혀 정반대의 “오오미나토” ohminato 선생님이로 상냥한 느낌의 가정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B에게는 이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해요.

Q : 여자 선생님이예요?

A : 네, 그건 B는 초등학교 때 부터 시간은 걸려도 정성스럽게 야무지게 하는 타입이라 그 남성적인, 남자 선생님이라도 뭐랄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선생님은 착!착!착!하는 느낌으로 B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음...’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에게 들이는 시간이 아까워, 빨리 대답해 줄래?’같이 매정한 느낌의 선생님이로 그렇게 말하시지만 생각하고 있잖아 하는, 그런 말투가 저도 선생님을 비판하면 안되지만 역시 알겠다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다음 학생 대답해” 라고 하는 것기 지금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오미나토선생님은 천천히

기다려주시는 것 같지만, 역시 B에게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하. 그래서 자신을 인정 받고 싶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합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경험이니까 모두가 모두를 기다려 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연극에서 스스로 고조되는, 연극이라는 게 일종의 독특한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걸 선생님은 싫어해요. 그것도 또 부모에게도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종교적이라 싫어해요’라고 확실히 말씀 하셔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너무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선생님이란 어딘지, 좀 분명히 말해서 좋고 싫음을 확실히 이야기 하면 안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두 정보교환 할 때 인기는 반으로 나뉘어요. 확실하고 빨리빨리 대답하고 척척척 해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무대계열의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천천히 유연하게 자란 사람에게는 따라 갈 수 없는 느낌이라 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비판은 좋지 않지만 우리 애에게는 좀 힘들죠.

Q : 지금 성적은 어떻나요?

A : 1학년 때는 반에서 1등이었지만 확 떨어져서, 10점 만점에 9는 전교에서 대체로 8,9명 이에요. 1학년 때는 그게 9였는데 반에서 9는 B 한 명이라서 1등인가 했더니 2학년 때는 씨클활동으로 굉장히 바빠서 확 떨어져 아마 40명 중 10등 정도 돼, 3학년 때에는 선생님이 순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우선 B가 표로 그려요. 그래서 수량이나 도형이나 전부 써서 저에게 알기 쉽게 평균점을 쓰고 자신의 점수를 써서 그것을 보면 평균점 보다 아래는 하나도 없었지만 뭐 2학년 때랑 같은... 하지만 씨클이 굉장히 바쁜 것 치고는 노력했네라고 생각되지만 뭐 떨어졌죠.

Q : 자제분은 친구와 친우[親友 best friend]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어렵군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지금 딱

그 과도기라고 생각해도. 시시각각 변해가서 예를 들면, 100%인 친구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역시 자베르는, 이 사람은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요. 미치코상이죠. 인기가 많기 때문에, B는 외동이라는 점도 있고 해서 혼자 독점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치코짱을 독점해 일대일의 밀접한 사귀이었던 지금은 역시 미치코상이나 조금 존경 하는 마음을 담아 시오미짱은 정말 여기는 모두 중학교 수험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공부 요령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은 식으로 바쁜데 B는 지금 좀 깊게 공부를 파고 있지 않은 탓인지, 요령이 나빠서, 하지만 시호미짱은 바빠도 성적도 좋아요. 그래서 척척 잘하고 위로 언니도 있기 때문에 요령도 좋고 시간에 늦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출물도 늦지 않고 해서 존경하고 있어요.

Q : 이 둘이 가장 친한가요?

A : 그리고 같은 반의 미유짱.

Q : 자제분은 친우와 친구를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 있으세요?

A :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음...저는 무엇을 말해도 절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감이 있는,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신용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우로, 지금까지 B는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좀처럼 깊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조금 고민 했던 적이 있어서, '미움받지도 모르지만 마음먹고 역시 마음을 열고 말해보면 어때?'라고 해서 한 번 노리짱에게 말했더니 노리짱도 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에 노리짱과 씨클의 고민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Q : 어머니께서 스스로 자제분과 관계없이 친우란 이런 사람이고 그냥 친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제분에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 글썽요. 제 친우는 이 나이가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친한친구는 교토 출신 이기 때문에 그 쪽이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일은 없지만 역시 고향에 갔을 때 그때 까지

못만났던 시간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무엇을 말해도, 자신이, 이것을 이야기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라던지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안심하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서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 할 수 있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손득계산이 없다고 할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Q :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친우와 친구의 차이라는 것이죠?

A : 네

Q : 자제분은 친구관계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음, 지금까지는 이 중의 1명이었지만, 지금은 우연도 아니지만. 주역으로 뽑혔기 때문에 발탁되어 리더로서의 존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초등학교 때에는 리더의 자질이 있지도 않았고 리더의 역할을 맡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역으로 뽑혀서 리더를 하고 있지만, 꽤 혼자서 열심히 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느낌으로, 뭐 금세 능력을 갖추지도 모르지만, 우선 리더예요.

Q : 어머니로서 B상이 어떤 역할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사이에서의 역할, 역시 리더였으면 하십니까?

A : 본인은 계속 리더가 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단지, 자신이 리더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배역에서 뽑혀서 된 것이지만 뭐, 결과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배역이 끝나도 모두가 의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서도요.

Q : 따님이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나요?

A : 중1때요, 초등학교 때는 사치코짱과 계속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사이도 없었지만, 중1때에 자신을 어떻게 바꿀까 하고 생각한 시기가 있어서, 그 때 튀어서는 안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내가, 내가 라던지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도 안하고, 꽤 겸허한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신감이 없는 듯이 보였는지, 놀림받는 느낌으로, 친구들이 필통을 좀 숨긴다던지, 도시락으로 가지고 갔던 젤리가 없어져, 그 젤리가 미지근해진 채 책상 뒤에 놓여있다

던지 그런 일이 조금 있어서 바로 대처해 구로사키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 때는 정말 좋아서 구로사키선생님은 확실하게 척척 일을 처리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바로 대처해 주셔서 1주일 이내에 그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Q : 지금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A : 네

Q : 거꾸로 따님이 친구들을 따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가나 그런 일은 없나요?

A : 그건 전혀 없어요.

Q : 친구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 공부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A : 가호짱.

Q :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 물어보고 싶어한다고 했는데 취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멋쟁이 따님이라 그런 멋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A : 그래요, 멋쟁이는 미유짱이나 시호미짱, 시호미짱은 언니가 대학생이고 멋쟁이라서 어떤 것을 입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아야카”ayaka짱이 메이크업을 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대해 배운다거나, 또 “아리사”arisa 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리사짱도 정보통인 것 같아요.

Q : 패션 쪽으로요?

A : 네, 그래요, 어쨌든 아야카짱과 아리사짱은 모두의 소문도 잘 알고 있고, 메이크도 잘 하고, 여러가지 정보, 책도 여러가지 읽고 있는 모양인데, 뭐라는 책이더라, 그 정도의 아이가 읽는 책을 읽는 것 같고, 패션은 시호미짱이고. 또 영어학원 친구가 전부 훗칠하고 귀엽고 멋쟁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영어학원 갈 때는 굉장히 멋을 내고 가요.

Q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나요? 중학교는 비교적 멋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장신구도 안되고, 그럼 학원 갈 때는 조금 변할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A : 티에 청바지는 싫은 모양이에요. 반드시 옷은 두개 씩 겹쳐 입고,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중단}

Q : 진로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그대로 갈 수 있어서 주변에서도 별말 없는 것 같은데요

A : 그래요.

Q : 대학 진학은요?

A : 아직 전혀요.

Q : 누군가랑 이야기 하고 있다거나는요?

A :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Q : 졸업 후의 장래 희망이나 되고 싶은 직업은 어때요? 누군가랑 이야기 해보고 나서 '이런거 할까?' 같은 건 없나요?

A : 여러가지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범하게 취직하거나 하지 않고, 단 한번의 인생이니까 무대여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여러가지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본심일까? 하는 건 있지만, 정말 아직 막연해서, 어느 쪽이나 하면, 눈 앞의 장발장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고 있지만 진심인지는…

Q : 자제 분에게 이런 친구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나 하십니까?

A : 아, 뭐, 지금 같은 정도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E클럽에서 그다지 발목을 잡거나 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나이 때는 자기는 못하는데 상대가 잘하면 굉장히 부러워 지거나 뭔가 질투심이 생기거나 해서 좀 잘라 낼 수 없는 때가 있어서. 이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포기하는 경지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하고 납득하는 부분이 있어도, 뭔가 너무 떨어져있는 사람이라면 부럽지도 않은데 가까운 사람이 뭔가 하면 굉장히 부러워져서 발목을 잡거나 웬지 그게 따돌림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E클럽은 꽤 그게 없어서 B가 주역으로 뽑혔을 때,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마키코”makiko짱이 B가 뽑혀 별실에 갔다 돌아왔더니 메모가 있어서 B, 뽑혀서 축하해, 힘내, 뽑힐거라고 생각했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역시 본심은 분하고 슬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맛키[마키코짱]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E클럽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한명이 태도가 나쁘다고 할까, 모두의 발목을 붙잡는 식으로 된다면, 게으른 마음이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함께 이야기 하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일지도 모르고 울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무엇도 숨기는 일없이 이야기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E클럽의 지금까지의 전통이기 때문에, 바쁘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소중히 해야한다고는 생각해요.

Q : 따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같은 건 자주 하고 있나요?

A : 하고 있어요.

Q : 누구랑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A : 뭐, 대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Q : 써클 사람들과 대부분 하고 있다고요?

A : 네, 미유짱이나 미치코짱인 시호미짱, 리호짱과도 하고, 나오미짱과는 조금, 많지 않아요. 사이는 좋지만, 방해 하는게 아닐까?하고 조금 피하거나 해요.

Q : 내용은 아십니까?

A : 전혀 안봐요, 그건. 뭔가 잠귀났어요. 한번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서 볼 수 없어서

Q : 어머님께서서는 비밀이 없는데 말이죠?

A : 하지만 누군가가 보거나 하면 싫겠죠, 절대 싫겠죠, 하지만 중요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Q :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는 친구와 문자 교환을 하고 있다는 건데 따님에게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A : 외롭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전화는 그다지 안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문자예요.

Q : 집 전화로 걸려오거나 하는 일은 있습니까?

A : 있어요.

Q : 그건 학교 써클 친구예요?

A : 네

Q : 그럼 이야기 내용을 조금 알 수 있겠군요?

A : 하지만요,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그 친구와 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Q : 정말입니까? 꽤 간접하고 계시네요.

A : 네, 그건, 나오미짱도 집에 오거나 한 적이 있고, 노리짱도 있고, 나오미짱 집에는 제가 일로 늦거나 할 때, 우리 아이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하고, 노리짱도 긴 이야기를 한 것은 해외에서 돌아와 귀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저도 조금 걱정이 되어, 어느 쪽인가 귀가 안들렸기 때문에, 하지만 B는 고2 선배에게 귀가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 하면 절대 무대에 설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해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열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해서 신용할 수 있는 친구에게 미치코상과 3명에게 우선 이런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Q : 컴퓨터 속에 가상 공간의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친구를 만들어 노는 모바게타운 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A : 몰라요. 컴퓨터 속에서요?

Q : 네,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몇살이라도 고등학생도 될 수 있는 식인데요

A : 컴퓨터는 90% 사용하지 않아요. 10%는 배역을 알아 보는데, 프랑스 혁명이나 19세기 시대를 알아보는 일은 있어도 컴퓨터는 거의 안 만져요.

Q : 자제분은 학교 선생님에게 친구 일로 뭔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A : 전혀 없어요.

Q : 반 선생님은 없네요?

A : 없어요, 없어요

Q : 씨클 선생님은 어떤가요?

A : 없어요. 전혀 없어요.

Q : 어머님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 되는데, 사이 좋았던 친구는 어떤 타입의 친구였습니까?

A : 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쪽이나 하면, 굉장히 야무지지만, 어른스러워

서 나서지 않고, 내성적이며 굉장히 사려 깊어요. 그리고 피아노와 손 공예를 잘하고, 곰곰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Q : 초등학교 때 친구분인가요?

A : 네, 멋진 사람이에요.

Q : 인격자군요?

A : 그래요, 쪽 인격자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때 우리들은 교토에 살았기 때문에 “후타미가우라”hutamigaura에 있는 이세ise 신궁으로 갔는데, 모두 용돈을 1000엔 정도 가지고 있었죠. 모두 아카후쿠 모치[이세의 “아카후쿠”란 가게가 만든 유명한 떡]를 가족을 위해서 샀는데, 그 “아카후쿠 모치”의 라이벌인 “오후쿠 모치”라는, “아카후쿠”보다는 작은 가게 분이, 우리 수학여행 숙사에 시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시식 해보세요’라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쿠 모치는 아카후쿠 모치 보다 싸요’라고, ‘같은 맛인데 싼 것이라도 괜찮다면 사주세요’라고 말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아카후쿠”를 사오라고 했기 때문에 “오후쿠”도 괜찮지만 역시 “아카후쿠”로 사자고 생각해서 샀는데, 저 의 굉장한 친구이고 지금도 굉장한 친구인데, “유미” yumi짱은 “오후 쿠”를 샀어요. 그때 저희반에서 “오후쿠”를 산 사람은 “유미”짱 뿐이 었어요. 혼자서 사는 것도 훌륭하고, 진짜를 고르는 것도 대단하고, 그 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한심해졌어요, 왜 나는 “아카후쿠”로 했을까 하 고

Q : 굉장히 강렬했나보죠, 그 인상이

A : 네,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오후쿠”를 고를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 도 남편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에 속지 않고,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을 길러야지 하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면이 있 어서, 뭔가 이름 알려진 메이커 상품이라면 괜찮겠지하고 생각해버리 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부터 그런 야무진 “유미” 짱을 싫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나쁜 부분도 전혀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훌륭한 친구예요. 그건 초등학교 부터 계속해서 친구지만, 중학 교 때에는 어느 쪽이나 하면, 한명 굉장히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느낌으로, 운 좋게 계속 친구 복은 많았어요.

언제나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도 그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에 “유미”짱은 “유미”짱대로 친구고, 반 친구에서 또 친구가 생기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유미”짱과 둘의 공통인 점은, 저는 꽤 럭키한 부분이 있어, 운 좋게 살았는데, 제가 럭키한 상황이 되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Q : 시샘이나 질투가 없군요?

A :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믿을 수 있어요.

Q : 인격자군요?

A : 그래요, 두명의 인격자에 둘러싸여

Q : 고등학교 때의 친구는요?

A : 중학교도 “유미”짱이고 고등학교가 그 “웃치”yuchi라는 친구 였어요.

Q :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나요?

A : 네, 그, 두명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운동을 정말 못 해서 Q : 그러셨어요?

A : 그래요, 그때는 운동의 요령이라는 것을 몰라서 체육이 5단계 중 2였던 때가 있었어요. 이걸 안된다고 생각해서, 좀 도전 정신도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2고, 달리는 것도 느려서 반에서 뒤에서 2번째 였는데,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Q : 대단하군요, B짱의 중학교 그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A : 그래요, 담임선생님이 우연히 축구로 교토kyoto시에서도 뭔가 클럽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굉장히 운동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고문인 육상부에 들어가서 “유미”짱과 함께 가모가와 kamogawa란 강가의 모래밭에서 매일 달리는 연습은 했어요.

Q : 초등학교 때요?

A : 네, B도 꽤 그렇지만, 굉장히 묵묵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도쿄tokyo까지 달리자는 기획을 해서

Q : 거리로요?

A : 네, 운동장을 한번 돌면 200미터고, 5주 하면 1키로미터, 10주 하면... 이렇게, 그것을 반을 그룹으로 나뉘 6명 정도 했어요. “유미”짱과 저

는 묵묵히 노력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었고, 끈기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둘이서 묵묵히 달려, 그 6명 중 남자가 3명 있는데, 전혀 해 주지 않고, 한명 더 여자 아이는 그럭저럭 해 줘서, 어쨌든 “유미”짱과 제가 채우고, 하지만 제가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모두가 병문안에 와 줬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을 때는, 아직 붕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하는 동안에 “유미”짱과 강가의 모래밭에서 순발력 준비, ‘시작!’하는 연습도 했더니 중학교 때는 체육이 5단계의 5가 되어, 그래서 릴레이 선수로도 뽑혔다는 건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 웬지 님은 아이가 릴레이에서 바톤을 받아 달리네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자기 아이였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깜짝 놀랐다고, ‘분명 반에서 뒤에서 2번째 였는데’라고. 그 “와타나베”watanabe 선생님이 가장 좋았고, 나중에는 교감선생님이 되셔서 “와타나베”선생님을 저와 “유미”짱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모양으로 도쿄까지 달리자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가거나 하면 이야기에 나온다고 말해요. 또, “혼마”honma 라는 선생님은 4학년 때 배운 선생님인데, “와타나베”선생님은 5,6학년 이고, “혼마”선생님을 굉장히 연모해서 선생님이 그만두실 때 우리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선생님 덕에, 갑자기 주소를 알아봐서 4,5명 여자 아이가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셔서, 모두에게 말에 마차가 있고, 마차 부분에 꽃이 장식 되어 있는 장식물을 주셔서, 초등학생이 그런 비싼 물건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장식해 뒤서, 지금도 친정의 유리 장식장에 들어있어요.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A : 싫어하는 선생님은,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의 추억이지만, 중학교 선생님은 가정과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츠지타”tsujita라는 영어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도 지금 학교 교육의 방식이 싫다고 하셔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되신 후에 그만 두셨을 정도로 열성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반창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와 주시고, 그래서 정말 “츠지타”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도 꽤 저희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계속 공립이었지만, 좋았어요. B도 사립에 갈 필요는 없었지
만 어찌다 보니 사립으로 보냈어요..

Q : B상을 사립에 넣으려고 하신 것은 왜 입니까?

A : 전혀 사립에 보낼 마음은 없었었요. 남편도 계속 공립이었고, 저도 공
립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우연히 집을 사서 이사
온 것이 메구로meguro구이고,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
치원에 갔더니 S유치원 이고, 보통으로 했더니, 유치원 중급반이 되어,
갑자기 모두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 어?하고 생각해 '뭘 하는 거지' 하
고 생각했는데 수험공부 한다고 해서, 시골에서 자란 우리들은 수험공
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됐어요. 그래서 아이도 친구들과 놀 수 없으
니까 학원에 가고 싶다고. 어? 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는 학원에 갈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때 이미 늦어서 유치원의 상급반이 됐어요. 보통 수험공부는 유치원
중급반의 11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2월에 들어갈 수 없어, 우연히
무료체험이 있는 곳에 갔더니 '아직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하셨기 때
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하지만 국립만 시험을 보자는 것으로, 그리고
시작했더니 선생님이 국립은 추천이 있으니, 결국 국립은 추천으로
안됐지만, 추천이 있으니 '어머님, 사립을 보는 편이 좋아요'라고 하
셔서, '사립 학교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지'라고 했더니 책을
보고 몇개 학교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것을 시험 봐서, 그래서 "에
이와"eiwa란 학교에 인연이 생긴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별로 하
지 않았는데 합격했나 하고 생각되지만, 저는 꽤 집중형으로 2월에 들
어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 6월에는 곰돌이 반에 들어있지
도 않았는데 곰돌이 반의 여름 방학 예정을 넣어 특히 여름방학은 B
도 의욕이 많은 아이라, 옛날 부터 의욕이 많았어요, 6시반에 일어나
유치원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공부를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여름 방학은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하면, 집에서만 하
면 질리니까, 아침에 집에서 했다면 9시반 부터 10시 정도 부터는 "쥬
우크센터"라는 시설이 있어, 여름방학 개방공간이라는 것이 있어, 초

등학생 밖에 들어 갈 수 없지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어머니도 같이 라면 괜찮다고 해서, 가서 공부하고, 오후 부터는 학원에 가고, 방도 바꿔 2층 방에서 공부하거나 1층 방에서 공부하거나 해서 기분전환도 시키고, 시험 내용 중에 “지시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같은것도 있기 때문에 쇼핑 갔을 땐 작은 소리로 수박, 양배추라고 5개 정도 말해 그것을 바구니에 넣으라고 해서 ‘맞어맞어’ 등등, 여름방학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정도였던 것이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성적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사립을 굉장히 추천하셨어요. 그게 계기예요. 빠져버렸죠.

Q : 지금은 어떠세요? 사립에 가서

A : 도쿄의 공립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학교 수험공부 해서 들은 어머님들께 물어보면 역시 사립으로 보내서 잘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역시 대부분의 학교가 학급붕괴 같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역시 초등학교 때의 친구라는 것은 가정환경도 비슷하거나 뭔가를 이야기 했을 때, 맞장구를 쳐주거나 하는 일도 많고, 그것을 다른 중학교에서 오신 어머님께 이야기 하면, 모두가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었고, 안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에 꽤 평범하게 했던 어머님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럽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식으로 받아 들이셨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Q : C씨를 부러워 해서 질투했나요?

A : 네네, 그래요

Q : 그것이 사립이라면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한가요?

A : 네, 비슷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너무 신경 안써도 되고.

Q : 어머님의 친구분 이야기인데요,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음...

Q :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로 괜찮아요.

A : 초등학교 때도 여러가지 있지만, 와, 이어져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것

은 아이가 유치원 때, 제가 제일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도 단독 주택에 살고 계시고, 같다고 생각 했어요. 단지 우리는 유치원 수험공부를 했는데 그 맥만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도 안했을지도 모르고, 우연히 아이가 가고싶다고해서 간 것이고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게 하거나 무엇에 눈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전부 하게 하자는 식이어서, 교육비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또 유치원에서 그 맥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들러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거나, 그 맥 자체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매일 데리러 가 주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 좋다고 생각했더니, 그 어머니는 굉장히 질투하시고 있었어요. 그쪽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 우리집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던지,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은 후에, 제가 해준 거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오히려, ‘미안하니까 설겜이 할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접 받았으니까 설겜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녀인가 하는 식으로

Q : 다른 어머니께 이야기 했군요.

A : 네, 그래서 어이없게 생각 했는데,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비가 오는 날도 자전거로 가셨기 때문에, 마침 우리집은 남편 것과 제 것으로 차가 두대 있어서, 남편이 타고 가도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때도 모두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잠깐 일을 했을 때도 전혀 그런 트러블 없어, 이게 친구 사이에서의 처음 있는 트러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사 하기 전에도 “도요수”toyosu[도쿄 지명]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때도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 전부 그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셨다는 것이, 그게 재밌게도 교토kyoto의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웃기죠? 왜냐하면, 그 같은 유치원의 그 친구가 저 이외의 사람에게 많이 이야기 했던 모양인데, 그 중의 한 사람이 교토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토에 이사하면 친구가 없다는 것을 듣고, 저의 친구 “유미”짱을 소개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 친구가 “C씨는

정말 불쌍하다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런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지만 T씨는 그 사람을 믿고 있으니 그걸 내가 말 할 수 없고, 그러
니까 이 사람을 조심하는 편이 좋다,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말해 줬
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서

Q : 그것을 초등학교 때 부터 친한 친구가 이야기 했어요?

A :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리고나서 남편에게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친해진 사람 욕을 막 해대서

Q : 그런 타입의 사람이군요?

A : 네, 하지만 처음 체험이여서 놀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너무
세상을 모르는 심한 낙천가라서 더 주의 해야한다고. 예를 들면 주스
를 한병, 두병 사면 되는데, 상자 채로 사면 ‘상자 채로 사네’라고 생각
하니까 한두병 꺼내 두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고 신경쓰라고 해서,
그게 유치원 때 였으니까, 초등학교 가서 정말 편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상자 채로 두거나. 이제 시부야shibuya에서 전철을 타지 않고, 택
시로 돌아가도 ‘저 사람은 택시로 돌아갔어’ 그런 말 아무 것도 듣지
않고, 얼마나 편해졌는지 절실히 생각해요.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이시
면 안되지만 죄송해요, 혹시 기분 나쁘시게 했다면 죄송해요.

Q : 생활환경이 서로 닮은 데가 있으면 공감 할 수 있는 것도 같죠?

A : 그렇죠.

Q :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A : 남편의 생활 모습은 뭐, 그렇게 다이나믹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느낌
이에요. 보통의 샐러리맨에서 회사를 그만 두고 독립해서 아이가 초등
학교 1학년 때, 어쨌든 사업을 막 시작한 즈음이고. 사업은 합격 못하
니까 라고 말해서 큰 회사의 샐러리맨이고, 위 쪽이 붙기 쉬우니까, 어
쨌든 붙고 나서 독립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자금으로 했
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인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대범하고,
나쁘게 말하면 루즈하고 시간은 지키지 않고, 집에 온다고 말한게 8시

인데 집에 돌아 온것은 10시, 11시, 다음 날 아침이라던지. 그 대신에 제가 가끔 피곤해서 빨래를 그대로 뒀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방이 좀 더러워도 죽지는 않는다는 식이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깝다고, 집안 일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이 집안 일이 만약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 되는 일이라면, 절대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식사 준비나, 어머니의 손맛 같은 식사는 만들어야 하지만, 화장실 청소나 욕실 청소는 누가 해도 같다면, 가능하면 그것을, 아, 죄송해요, B에게서 전화가... {휴대폰을 받기 위해 중단}

A : 죄송합니다, 통화가 길어져서. 그래서 이야기가,

Q : 네, 남편분은 아이 기르는 데 있어 어떤 타입입니까?

A : 좀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건 안된다는 것은 좀 그거 해도, 허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Q :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나요?

A : 특히, 쇼핑에 있어서는 외동딸이고, 지금 키도 꽤 커서 아가씨 티도 나오고, 데리고 가고 싶은 모양으로, 내가 가면 시즌 별로 옷은 3벌, 구두는 1켤레라고 엄격하기 때문에, 사지 않지만, 특히 B가 엄마는 안와도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친구는 혼자서라도 쇼핑하러 가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3000엔 이상 가지고 외출은 금지라 옷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토요일 같은 날, 마침 제가 헬스가 취미라 '엄마, 아침부터 헬스장 가도 돼'라고 해줘서 저도 기분 좋아져서, 헬스도 많이 하고 사우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면, 둘이서 109[시부야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남편은 가방드는 사람 처럼 6개 정도 들고, 게다가 남편에게 운전기사가 있는데, 운전기사도 이만큼 들고, 마침 제가 돌아 왔을 때에는 B가 작은 백을 들고, 두명이 이렇게나 들고 돌아와서. 응석 받아 주는 것도 정도껏 했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돼, 안돼'라고 하는 식인데, 남편은 뭐든지 오케이예요. 이번 9월에 남편과 저는 남편의 일로 따라 가는데, 10일 정도 집을 비워요.

Q : 해외입니까?

A : 이번에는 국내예요. 얼마 전에 해외였을 때는 친정엄마가 와 있었는데, 열이 나서, 혼란 모양인데, 이번에는 국내고 교토라서 저는 왔다갔다

하는데, 그 때, 혼자 생활하게 하는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할 정도예요.

Q : 따님을요?

A : 네, 밤이라던지

Q : 걱정이시겠네요?

A : 네, 나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해도, '그런거 괜찮아' 식의 사람이예요.

Q : 의외로 너그러우시네요.

A : 너그러워요.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요.

Q : 부인에게도 너그러워요?

A : 저에게도 너그러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분 좋게 지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Q : B양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A : 조금 슬픈데, 유치원 때는 우리 아이가 신동인가 하고 생각 할 정도였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천재인가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되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말자고 생각할 정도예요. 단지, 지금은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공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실제의 공부는 정제되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씨클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퇴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열심히 대학 수험을 위해 공부 해 줄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환이 안되고 있어서, 씨클에서 돌아오면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고 나면 전환해서 학교 숙제를 한다던지, 그러한 마음을 정리하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마음 전이를 하자는 거예요. 친구 일에서도, 친구 일로 고민해도 계속 그것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해 가면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가 굉장히 편해지고,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쁜 일인데, B가 자주 엄마같은 성격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다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마음 정리가 빨라요. 싫은 일이 있어도 금방 기분을 바

꿀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기분을 바꿔라고 이야기 하지만, 좀처럼 그 정리가 안되고, 계속 끄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3시간 정도 밤에 여러가지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야기가 끝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는데 B는 계속 거실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일의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친구관계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리듬이라고 할까 기분을 바꿔서, 명확한 자신의 목표는 지금은 가까이에 있는 레미제라블에서 주역을 소화해내는 일이지만 그것이 끝난 후, 최선을 다한 후의 공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도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때 그때, 작아도 좋고 큰 속에서 작은 스텝을 밟아 그 목표를 향해 점점 스스로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서 마음 정리도 하면서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는 희망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B는 굉장한 사람이 될까 하고 생각했어요.

Q : 어떤 사람요? 탈렌트같은?

A : 암을 없애는 약을 발명하는 정도. 이름을 남길 정도라고 생각 했어요. 유치원 때는 노력해서 하면 뭐든 가능해서

Q : 그 1년 간 변했던 것이 굉장했었군요?

A : 굉장히 공부해서... 그래도 중학교에서 보통이구나 하고, 하지만 남편이 꽤 재미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허술해 전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매우 스케일이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닳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세세한 일은 아니고, 저도 작은 일에는 신경쓰지 않았지만, 요소요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은 남편과 쇼핑 가는 것은 관두게 하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제가 따라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검소해요. 검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겨울에도 매일 같은 옷을 일주일 간 입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청바지와 티셔츠라도 괜찮고, 돈을 쓰지 않아요. 명품도 싫어하지는 않지만 안가져요. 그래서 남편이 사 주겠다고 해도 안사요. 악세사리나 보석도 전혀 안해요. 안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안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남편은 사주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필요없다고. 옷도 다이에[마트]에

서 사거나 해요. 의외죠? 하지만 손톱만은 예쁘게 해요.

Q : B양에게 예를 들면 장래의 진로로 어떤 식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생각합니까? 직업이나 대학이나 구체적인 희망은요?

A : 글썄요,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역시 부모는 욕심이 있어서 역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응? 어디?’라고 하는 곳은 싫다거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하지만 최근 지금의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곳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씨클을 열심히 하고 그 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던지 거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케이오”keiou대학교[연세대학교 같은 유명 사립 대학교]에 갈수 있으면 좋겠다던지, 그건 물론 생각하지만. 또 음...지금은 추천틀이 꽤 넓자나요.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추천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친정이 교토인데 “도시샤”toshisya대학교[교토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 대학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샤”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토에 아는 사람이 없는 한, 그래서 거기는 노려볼 만 한가? 하고 생각하지만. 지망자가 없으면 어느 정도 성적이 안좋아도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혹시 예술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할 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딸은, 남편의 회사를 여성이지만 이어받고 싶다는 희망도 있는 모양으로, 남편의 회사가 존속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아직 정말 자세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역시 어떻게 할까? 어머니들 끼리는 역시 대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세련된 말투가 있어요. 앞글자를 따서, 잊어버렸어요.

Q : J대나 K대 같은요?

A : 맞아맞어,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만 제가 교토 출신이라서 오히려 도쿄의 대학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 있는 실력보다 아주 조금 위라면 좋겠다 정도예요. 하지만 “케이오”라면 남편이 들어있는 사장 그룹에서도 “케이오” 출신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사 하기에는 같은 대학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B가 회사를 잇는다고 하면 그걸 생각해서 케이오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지만요.

Q : 최근 니트[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구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존하는 사람]나 프리터[정규직을 갖지 않고 이 일 저 일 하며 되는대로 사는 35세 미만 젊은층을 일컬음]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부모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B양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 니트라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듣기에만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우연히 아는 사람 중에 니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취미가 있어 계속 여러 외국을 돈 없이도 히치하이킹이나 해서 사진을 찍고 결국 상업사진 일을 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결국 캐나다가 풍요롭고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사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친구가 아니라서 저도 캐나다의 집에는 안가봐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목표라고 할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까, 평생의 일을 찾으신건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모에게 걱정은 끼치지만 뭔가 목표가 있는 니트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목표 없이 그냥그냥 흘러 계속 편하고만 싶다고만 해서 그걸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어느 쪽이나하면 죽을듯 살듯 노력하는 편으로 뭔가 해야할 때는 자지 않고라도 하는 타입이라, 아마 B는 그걸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레포트인 “캐스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 갈 때에는 보통 10장이면 되는 것을 20장 써가는 식이라 일을 대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좀 대충해도 되지않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의 희망으로는 니트가 안되지 않을까? 된다면 자신의 목표를 찾기 위해 어중간 하게 뭔가를 하는것 보다 조금 더 충전기간을 두는 타입이 아닐까? 라는 것은 부모의 기대와 신뢰가 과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니트를 일괄적으로 안된다고는 하지 않지만 편하기 위해서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B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돼요.

Q :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금 사회적인 모랄이 소동이 되고 있는데,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양이 그런 일을 하면 주의를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A : 마침 우연히 B가 그저께 꿈에서 그걸 꿰대요. 자기가 학교에서 사탕 종이를 버렸대요. 그게 1개가 아니라, 1개 밖에 안 먹었는데 대량으로 버렸더니, 자베르인 “미치코”상과 B가 경찰에 잡혀가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으로 11년 형이 내려졌다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한다고 일단 집에 돌아와서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라고 묻길래 몰라서 과자라고 대답했더니, ‘엄마 사진을 가지러 갔어라고. ‘감동시키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11년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꿈에 나올 정도니까 아마 그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항상 담배는 휴대 재떨이를 꼭 가지고 있어서 담배는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선 초등학교 시험도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곧 나오니까 어렸을 때 그걸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버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 하지만, 단지 어리광을 부리기 때문에 차 안에서 코푼 휴지는 반드시 제 가방에 넣어요. 그 주변에는 안 버리지만 어리광을 부리려고 내 가방에 넣어 버리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안 버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요, 버리셨군요’하고 주의를 줄 정도로 아줌마가 아니라, 그건 그걸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했구나 하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주울 정도는 아니고 좀 그러면 발로 차서 길 가장자리로 보내는 정도는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자들이 획 하고 버린 담배에 불이 붙어 있으면 밟아서 끄기는 하지만, 제일 싫은 건 집 앞의 개똥 같은 건 화가 나요. 정말은 버려진 것을 확 주우면 되겠지만 그걸 할 용기는 그다지 없어요. 집 앞에 버려진 것은 할 수 없어서 하지만 보통 길에서는 조금 무관심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철 속에서 빈 캔이 데굴 데굴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앞에서 주우러 갈 용기가 없어요. 보고도 못 본척 해요.

일본사례 #3

대상자 : (고2, 남)의 모친, 거주지(카나가와시)

Q : 몇가지 E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은 고교2학년16세이고, 지금 “카와사키”kawasaki에 거주 중이시구요. 동거 가족은 아버님과 어머니님, 고교3학년 18세의 따님이 계시고요. 아버님은 에너지 관계 회사에 근무 중이시고, E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 : 저는 무직입니다.

Q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드님의 교우관계를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여기 견본이 있습니다. 아드님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친구나 씨클 친구, 아르바이트처에서의 친구는 누가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아이와 친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써 주시겠습니까?

A : 쓰는 방식은 적당히 쓰면 되나요? 초등학교 때는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잊어버려서... 이거,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의 고교죠? 또 학원에도 몇 명인가 있긴 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명이에요.

Q : 그 밖에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A : 아르바이트 친구 이름은 전혀 없어요.

Q : 중학교의 교우 관계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A : 알아요.

Q : 비어 있는 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A : 잘 어울려 다녔고, 지금도 집에 오는 친구들은 있지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3명 정도 되려나?

Q : “노가미”nogami군이라는 친구는 어떤 타입의 아이이고, 어떻게 어울리는 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 “노가미”군은 시원스럽고 밝은 아이로,

Q : 만난 적이 있습니까?

A : 네,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성격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H고교에 입학해서 제일 처음 사귄 친구이고,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서 귀교길에 잘... 아, 한 명 더 있어요. “유아사”yuasa군. 그 애들 들어서 잘 놀러 왔는데, 그 중에 “노가미”군이 자주 왔어요. 그 애가 저희집에 묵기도 하고, 우리 애가 그 집에 묵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도 별로 이야기는 많이 안 해봤지만 밝고 활발한 아이예요. 평소 노는 애들이 꼭 시험 때만 되면 교과서 들고 와서 집에서 스터디랍시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류의 친구들 같아요. 별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주로 게임같은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아사”군은, “노가미”군이 있을 때는 대개 함께 있고요, “노가미”군이 혼자서 올 때는 있어도, 아마 “유아사”군은 혼자서 온 적은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 앤 글썄 전 잘 모르겠어요.

Q : 인상은 어때요?

A : 인상은 암전한 타입인데, 말투가 좀 거칠어요.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방 문밖을 지나갈 때, 게임할 때 내뱉는 말이 제가 별로 안 썼으면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자주 ‘유아사군은 어떤 아이니?’라고 묻곤 했는데, 아들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그냥 좋은 애야’라고 밖에 대답을 안 해요...

Q :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을 씁니까?

A : 게임 중에 하는 말이지만, 아마도 다른 아이가 빨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빨리 해, 이 병신아!’라든지, ‘죽어 버려!’라든지. 그런 말 요즘 애들 잘 쓴다고는 생각하지만 부모가 들으면 ‘어라?’하니까요. 하지만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듣기 싫어서 아들에게 농담이라도 ‘죽어 버려’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느낌의, 친구란게 정말로 닮았구나 라고 자주 생각하는데, 그런 비슷한 타입의 애가 아닐까 생각해요.

Q : “니시카와”nishikawa군은요?

A : 이 애랑 친해진 거는 좀 신기해요. H고교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반도 아주 많은데, 그 둘이가 같은 반이었지만, 이 “니시카와”군은 같은 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서 정말 자주 집에 놀러 와요. 이

애랑은 테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테니스친구이기도 하고 학교의 스테디 모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저도 학교에 몇 번쯤 가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정말 남자애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남자애들 중에 어떻게 “니시카와”군이랑 친구가 되었을까 저로서는 꽤 관심거리여서 아들에게 ‘어떻게 니시카와군과 친구가 됐니?’라고 몇 번인가 물었죠. 그래도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아마도 1학년 초에 합숙스테디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은 조였거나 그랬겠지라고 저 혼자 미루어 짐작하고 있죠. 이 애도 아주 얌전해 보이는 애예요.

Q : 다 같이 어울려서 “신주쿠”shinzuku나 “시부야”shibuya[번화가 이름에는 놀러 가지 않나요?

A : 가지 않아요.

Q : 중학교 때 친구 “가미오”kamio군은요?

A : “가미오”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이 애랑 아마 D가 제일 친하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 때 월구[타학군지원입학]로 중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 때, 가까운 중학교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인접 학교에 다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가미오”군이 몇 번이나 ‘마군[D군의 애칭],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야마”yama중으로 갈 거야?’라고 묻는 데 D는 확실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때 D에게 ‘확실히 대답해. “가미오”군이 너하고 같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니가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얘길 하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둘이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Q : 월구했어요?

A : 둘이 같이요. 가까운 중학교가 학생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타학군 지원이 되는 인접학교가 몇 있어서 지원하게 된거죠. D는 그 때 “야마”중학교 말고도 한 군데 더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미오”군 집에서 좀 먼 거리였죠. 그래도 “가미오”군이 자꾸 권하니 까 본인도 ‘가미오가 정 그렇게 원하면 같이 갈까’라는 식으로 같이 입학하고, 같은 씨클에도 들었죠. 좌절도 같이 해서 같이 그만두게 되었

지만.

Q : 무슨 부였어요?

A : 처음에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Q : 금방 그만두었어요? 반 년 정도만에?

A : 1년 정도지요. “가미오”군은 씨클활동 이외에 가라테[일본 특유의 격투기]를 어렸을 때 부터 해 왔고, 우리 D는 1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입시때문에요. D는 사실 중학교 입시를 보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군은 남자아이이고, 특별히 입시준비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이제부터 고입준비 열심히하겠다고 의욕이 넘쳐서 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원이어서, 씨클활동시간이 학원 시간하고 겹치게 되면 씨클활동을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 팀이 우선 굉장히 강한 팀이었거든요, 농구부가. 그래서 본인도 있기 불편해 저서 그만둔 건데, 그런 것도 들어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가미오”군하고 지금도 여름방학 때도 자주 만나고 있으니까 제일 마음 통하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Q : “가미오”군도 사립고교에 들어간 거예요?

A : 네. 사립이에요.

Q : 다른 학교?

A : 네.

Q : “미카모”mikamo군은 어때요?

A : 앤 유치원 때부터의 친구인데, 유치원 때는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애였어요. 가만 둘 수 없는 타입의 애로, D를 많이 따르던 애였는데, 아들도 별로 눈에도 띄지 않는, 별로 친구도 없고 자기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서는 애가 아니었구요. 그래서, 집이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고, 같은 유치원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친해진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애 1명 더 포함해서 3명이 친해졌어요. 3명하고 또 한 애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개는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애도 중학교에 월구로 들어온 애로, 등교하는데 2,30분 걸려서 오는 애였어

요. 아무튼 이 4명이 항상 등하교를 같이 하거나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Q : 초등학교 때의 친구는 어떨까요? “가미오”군은 함께였지요?

A : 네, “미카모”군도요.

Q : “요시즈구”yoshitsugu는?

A : 이 애는 중학교 올라갈 때 아버지 전근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1년에 1번 “도쿄”tokyo에 놀러올 때는 꼭 만나자라고 하고 만나고 있어요.

Q : 먼 곳으로 갔나요?

A : “시즈우카”shizuoka요 . 하지만 대학교는 절대 도쿄로 올 거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문자 주고받고 있어요.

Q : 아드님이 “요시즈구”군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가요?

A : 네.

Q : 학원 친구들은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A : 학원이요? 이름은 자주 들었는데 만난 적은 없어요.

Q : 중학교 다닐 때는 진학학원이었고, 여기는 영어학원?

A : 영어학원은 지금 다니는 학원이구, 이건 중학교 때 진학학원이예요.

Q : 2명 정도 친구가 있었다?

A : 네.

Q : 지금은 연락 안 해요?

A : 지금은 가끔 문자 보내고 그러는 거 같아요.

Q : 아드님이 자주 놀러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A : “가미오”군 집일 거예요.

Q : 그 밖에는요?

A : “니시카와”군네 집.

Q : 비교적 친구집이 많군요?

A : 응... 그리고, 집에 놀러 오는 것도 가는 것 이상으로 많지요.

Q : 거기서 보통 뭐 하고 놀아요?

A : 게임이겠죠. “가미오”군 집에 가면 야구를 많이 하구요. 캐치볼 야구.

Q :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아드님이 좋아한다고 말하던 선생님 있어요?

- A : 아마 “다나카”tanaka선생님을 D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 Q : 어떤 느낌의 선생님이셨어요?
- A : 뭐랄까 이렇게, 애들을 인정해 준다고 할까, 지켜 준다고 할까, 어린이들을 아주 좋아하는 타입의 선생님이었어요.
- Q : 남자 선생님입니까?
- A : 남자 선생님이에요.
- Q : 싫어하는 선생님 얘기는 했어요?
- A : 했어요. 역시 젊은 여자 선생님, 여자는, 저도 집에서 확 화가 치밀 때가 있어서… 여자는 교사가 맞지 않는 건가?라고 정말, D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절실히 생각한 적이 있어요. D는 말하자면, 활발한 타입으로, 눈에 띄고 싫어하고, 옛날엔 제가 보기엔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주위사람들을 웃기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덩달아 저까지 혼나구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D한테,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만난 남자 선생님이 굉장히 그걸 인정해 주셔서, 좋은 점을,
- Q : 그게 “다나카” 선생님이셨군요?
- A :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구제된 거죠. 여선생님이라도 D를 알아 주는 선생님은 있었지만, 좀체로… 3학년인가 4학년 때 너무 히스테릭한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지우개나 샤프펜슬을 막 던진다던가, 애들을 무릎 꿇고 엎드려 빌게 한다던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좀, 한 때는 저도 많이 혼나서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얘기 좀 하자고 했지요. 평소 그런 건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 Q : 담임이 말입니까?
- A : 네, 담임이요. 그래도 제가 막 뭐라고 해서 그나마 좀 나아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이 놀래서 좀 거리를 둔 모양이었어요. 지금도 그 때 일을 기억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선생이 있었지?’라고. 그러면 ‘그걸 너무 무서웠어’ 라고 지금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자기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아직까지도 그게 가슴에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6학년 때 선생님이 “다나카” 선생

님이었는데, 굉장히 잘 대해 주셔서 좋은 기억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Q :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은 어땠나요?

A : 성적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어요.

Q : 중학교 시절에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A : 중학교 때도 3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애 안에서는. “가모이”kamoi선생님이, 그 선생님만큼은 저를 믿어주신다고, 저를 알아 주신 건 “가모이”선생님 뿐이었다고, 그런 말을 했던 걸 봤으니까, 그래, 잘 됐구나, 라고 했었지요. 아무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중에 너 말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라는 말을 듣거나,

Q : 벌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A : 맞아요, 벌인 취급 같은 거, 그럴 때도 진짜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담임선생님만은 ‘괜찮아, 니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라고. 그 말이 무엇보다 구세주였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은 모두 ‘니가 나쁜 놈이다’ 라고 했고. 중학교 때는 아마 자기의 특색을 발휘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학교에 보낸 게 잘못이었나 싶은,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서, 별로 저는 중학교 때 좋은 기억이 없어요. 3학년 때 그 “가모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만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Q : 중학교 당시에 아드님은 그런 고민을 어머니께 많이 얘기하는 편이었습니까?

A : 고민이요? 그 당시는 얘기 안 했어요. 뭐, 말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아들이 선생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걸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바로 학교 측에 얘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니까요. 제가 참지 못 하거든요, 지금의 교육 현장이란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내 금쪽 같은 아들한테, 선생이란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가, 하고. 물론 선생한테도 이유가 있을테지 라든가, D가 굉장히 잘못된 건 아닐까, 잘못을 했으면 확실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이랑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일이 왜 그렇게 된 건

지를. D는 아마도 그런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일이 번거로워 질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요. 하지만, 중3 끝날 쯤에는 꽤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럼 전 또 화가 치밀지만, D가 저한테, '절대로 학교에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나 학교 안 갈 거니까'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참을 수 밖에요... 그래, 이제 반 년밖에 안 남았다, 몇 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참았어요.

Q :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A : 전체적인 분위기는 활기가 넘쳐서 좋았지만, 아무튼 선생이 문제예요, 관계되는 선생에 따라서 아주 다르지요.

Q : 중학교 시절의 성적은 어땠어요?

A : 중학교 때는 시험 성적은 좋았어요. 하지만 수업 중에 태도가 아주 나빴다고 생각해요.

Q : 어떻게요?

A : 잡담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 어떻게 아세요?

A :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표를 보면 심한 걸요.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은 데도, 이 3은 뭐야? 라든지, 음악 같은 건 더 심해요. 2라든지.

Q : 왜 2인지 안 물어보세요?

A : 물어보면, '나는 음악시간에 교실에 오지 말래'라구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애는 추천 같은 건 생각도 못 하니까 일반 수험으로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니가 들어갈 만한 학교는 없다'는 등의 얘길 많이 들었나 봐요.

Q : 3자면담 때요?

A : 아니요,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아들한테.

Q : 2자면담 때 그런 식으로 얘길 하나 보군요?

A : 그렇다고 생각해요.

Q : 그걸 아드님은 어머니에게 얘기하고요?

A : 네. 영어 과목의 여선생이 여하튼 굉장히 심한데, D를 엄청 미워했나

봐요. D가 볼 때 쓸데없는 숙제가 많다거나, 그냥 베껴 쓰는 거라고 해도 너무 간단하다거나. 개도 그걸 꼭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거나, 아마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그래 가지구. 시험 문제 내용이, 예를 들면 여성의 노래 가사 일부분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노래한 여성은 왜 이런식의 대사를 골랐을까? 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시험문제가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시험성적도 좋지 않죠. 그러면, 정말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넌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야’라든가. Q : 선생님이에요?

A : 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랬대요. 전 그말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심하잖아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도 진짜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 말을 학교에 해서 애가 학교에 안 가게 되면 어쩌잖나 싶어서, 꼭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학원 영어선생님하고 D는 아주 잘 맞아서, 재밌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영어선생님한테 학교 기말고사의 문제집을 보여 주거나 하면, 아주 질려가지고는, ‘뭐야? 너희 학교 영어는 이런 게 기말고사로 나와?’라고, 깜짝 놀랐대요. 저하고 면담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대구. 아들한테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그 선생님하고 잘 못 지내죠?’라고. ‘정말로요’라고 하니깐 ‘좀 심하네요, 그 선생님’이라고. ‘D군에게는 말하지 않지만요’라고 한 적도 있구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때 학교에서 실력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D가 학년에서 100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은 D 혼자였던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니가? 라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Q : 학교 선생님이?

A : 네, 영어선생님. 분명히, ‘이건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맞았네? 흥’ 이런 심한 말을 해서, D가 ‘거봐라’이랬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생은 최악이었어요.

Q : 그런 말들을 그 선생님이 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A : 그건 D가 얘기해서 알았죠. 학교에 절대 얘기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제가 학교에 얘기하면 D도 저한테 얘기 안 했겠지만, 정말 D가 학교에 안 가게 되면 큰일이니까. 중학교 쫓 되는 남자애들이란 게 얼

마나 어려운데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게 되면 어쩍하나 싫어서.

Q : 지금,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싫어하는 선생님 얘기는 합니까? 지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학교란 데는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세삼스럽게 실감한 모양이에요. 중학교 때는 정말 바보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 실험도 그렇고 화학 실험도 그렇고 중학교 때는 정말 대충대충 했었다고. 지금은 모두가 필사적으로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다 굉장히 필사적이니까, 자기도 필사적으로까진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나 할까, 시험점수만이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선생님한테 굉장히 거리가 느껴진다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가까운 존재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담임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인데.

Q : 왜죠?

A : 1회 보호자회에 갔을 때 선생님이 말도 진짜 잘하고 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군, 정말 좋은 선생님이잖아?'라고 했더니, '아~ 속았다, 속았어~ 엄마들은 다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Q : 왜요?

A : 아들 말로는, 학생들의 자발성 같은 것을 존중하지 않고, 뭔가 위원을 뽑을 때도 애들이 손을 안 들면 아주 깔보는 듯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나오나?', '아, 곤란한 애들이다' 이런 말. '맨날 그런 말만 한 다니까', '엄마들한테는 말을 디게 잘 하니까 다 모르는 거야'라고 하는 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에 대한 건.

Q : 성적은 어때요?

A : 성적은 1학년 때는 그럭저럭이었을까?

Q : 아드님은 친구와 친구[best friend]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아드님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요?

A :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노가미"군하고 "가미오"군. "노가미"군일 까? "가미오"군도 그렇다고 생각하구요.

Q : 그럼 D군은 이 2명을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A : 이 둘한테는 자기의 별로 말하기 어려운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D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고민 같은 걸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아마 틀림없이 “노가미”군이냐 “가미오”군한테는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다’ 라든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상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Q : 내면적인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친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A : 네.

Q : 어머님 자신께서는 돌이켜 볼 때, 친우와 친구의 다른 점이란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 친구라는 건 흔히 있다고 할까, 넓고 얇게. 친우라는 건 깊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가, 나도 물론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Q : 아드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A : 제 아들이요? 이 애들에게 있어서 D가 말이지요?

Q : 그룹 전체에서 친구들의 역할이란 게 있지요? 예를 들면, 리더쉽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든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역할.

A : 잘은 모르겠지만, “노가미”군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D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럴 때 D가 전화로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거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D는, “가미오”군 등의 그룹 안에서는, 분명 “가미오”군과 들어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자라던가, 한테 모으는 타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쪽은 글썽 전 잘은 모르겠어요.

Q : 고교의 친구들 중에서의 역할은 잘 모르세요?

A : 네.

Q : 초등학교의 “가미오”군들의 그룹에 있을 때는, “가미오”군과 들어서 모두를 단합시키는 타입이었다, 그런 면이 어머님께서서는 만족스러우

셨어요? 아니면, 좀 더 이런 애가 되어주길 바란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A : 음... 글썄요.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집요하게 묻거나 하지 않으면, 얘기해 주지 않거나 숨기는 부분이 무척 많아요. 지금도 나간다고 할 때, 어디에 간다고도 알리지 않고 나갈 때가 있으니까,

Q : 걱정되시겠어요?

A : 그래서 어디 가는지만이라도 말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애도 왜 어디 가는지를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여러가지로 반박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내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엄마가 불안하니까라고, 누구랑 같이 가는지까지는 됐으니까 어디에 가는지만이라도 말하라고 집요해지면, 그때서야 “가미오”군 집이라든가, 도요코선 [도쿄에서 가와사키 전철 노선]의 어딘가의 역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전 약속시간에 D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Q : 그건 왜요?

A : 서두르고 있거나, ‘큰일났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 그 날은 절대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저번에 친구들을 1시간이나 기다리게 했거든’이라고 해서, ‘기다려 줬어?’라고 물으니까 ‘기다려 줬지’라고. 그리고 다음에 가서 ‘다들 내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30분 늦게 왔어’라고. ‘마군, 기다려 줬지?’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려 줘야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지? 라고. 그런 얘길 종종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에 오는데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5분 전에 도착하도록 써 있으니까 5분 전에 가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도, ‘알고 있어’ 라고 하고는 또 세월아~네월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 굉장히 느슨한 애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도 자꾸 그러면 싫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예요.

Q : 그러니까 시간에 관해서 해이한 점만 고쳐 주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D의 존재에 어머니가 만족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A : 그렇죠.

Q : 따돌림을 당한 적이나, 반대로 친구를 괴롭힌 경험은 있을까요?

A : 따돌림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따돌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범위 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애들은 깜짝 놀랄 만 한 말을 서슴없이 하잖 아요, 그런 것도 다 따돌림에 속한다면 모두가 꽤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D는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 아요.

Q : 친구들 중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얘 기해주셨음 하는데요, 공부라든가, 취미라든가, 진로라든가, 중학교 때 “가미오”군과 곧잘 상담을 하거나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미래 상이라든가, 뭔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공부 쪽으로는 어떻습니 까?

A : “가미오”군이란 애가 꽤 장래의 꿈이 확실한 애라서, 아마도 그런 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D는 이게 되고 싶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글썄,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D에게 그런게 없 었을 때, “가미오”군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는 뭐가 되고 싶 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무슨 학교에 가야 그 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선택해 놓고 있었어요.

Q : 말하자면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겁니까?

A : 파일럿이요. 그런 얘길 하니까, D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학교도 정 하는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도 장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Q : 똑부러지는 친구네요?

A : 그렇죠.

Q : 취미로 영향을 받는 것은 있을까요? 먼저, 취미는 뭐니까?

A : 게임이요? 전 싫지만. 테니스? 아, 지금 빠져 있는 건 마작이에요. 그건 “노가미”군의 영향이구요.

Q : 어머님께선 불만이지 않겠군요?

A : 응, 그렇죠.

Q : 마작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A :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죠, 도박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만으

로 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별로. 지금은 상대를 이틀만에 공략하는 책을 사와서 진짜로 열심히 보면서 인터넷에서 하고 있어요.

Q : 인터넷으로도, “노가미”군들과도 하고 있어요?

A : 얼마 전에 “노가미”군 집에서 자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마작을 아침까지 했다고. “노가미”군 엄마도 굉장히 잘 하셔서, ‘왜 엄마는 못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마작은 “노가미”군의 영향으로.

Q :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A : 아들은 엄마도 했으면 하는데요.

Q :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D군이 안 했으면 하시구요?

A : 그렇죠.

Q : 그 밖에 취미로 영향을 받는 사람 또 있어요?

A :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Q : 패션같은 건 어때요?

A : 패션같은 건 “가미오”군한테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애라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사다 달라고 하는 타입이라 마음에 안 들지만,

Q : 좋잖아요, 편하고.

A : 하지만 “다이에”daiei[마트 이름]나 “이토요카도”itoyokado[마트 이름] 같은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싫어진 모양이에요. 애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좀 멋낼 줄 아는 애거든요. 마군, 이게 너한테 어울린다고든가 얘기해도 자기가... “가미오”군이 좀 멋쟁이예요. 우리집에 올 때 마다 ‘가미오군은 멋쟁이구나’ 라고 저도 얘기하는데요,

Q : 어떤 멋을 부려요?

A : 머리도 살짝 웨이브에, 옷도 몇 겹 예쁘게 껴입고, 샌달같은 것도 가족으로 망사처럼 된 걸 신고 왔어요. 처음엔 ‘누구거야?’라고 D한테 물으니까 ‘가미군거지, 누구거겠어’라고 하더라구요. “가미오”군을 “가미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가미군”이 놀러 왔다가면, D는 ‘옷 좀 사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Q : 알기 쉽군요?

A : 네.

Q : 관심은 있지만,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A : 자기는 잘 모르니까, 리바이스라든지 이름만 좀 있는 거면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들어 거울 앞에서 가끔 이거랑 이게 어울릴까, 어떤 게 어울릴까 입어 본다든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건 “가미군”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하는 거 같아요.

Q : 장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친구는 있어요?

A : 없는 거 같아요.

Q : 아버지처럼 되고 싶더라든가

A : 그런 말도 안 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H고교의 보호자회에서 들은 얘긴데, 애들 학년이라고 할까, 최근의 경향이, 안정된 직업을 희망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Q :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요?

A : 네. D도 한 때 ‘안정된 직장에 취업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꿈이 없구만’이라고 아빠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지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정말로 이 클래스는 꿈이 없는 애들이 많다고, 클래스 반 이상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썼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예민한 시기에, 정리해고다 뭐다 하는 여러가지 뉴스를 보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란 것이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무모한 꿈을 좇기 보다, 확실히 안정된 직장이 낫다,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요, 애늬은이 같다고 할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쉬어야 한더라든지, 잔업은 싫더라든지,

Q : 그래도 그런 구체적인 꿈은 있네요? 직종에 대한 꿈은 아니지만요?

A : 응, 그전까지는 법률 관계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Q :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A : 지금은 아마 여러가지 책들을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든가,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다든가, 현실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타입이거든요.

Q : 불만이신가 봐요?

A : 그게 어찌면 좋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웬지 그런 게 좀...

Q : 학교에서 학력을 비교하거나, 누군가의 성적을 의식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A : 아, 중학교 때 머리가 아주 좋은 애가 있었는데, 개량 들어서 수학 시험에서 누가 높은 점수를 딸지, 5과목 중에 총점이 누가 높은지 서로 경쟁하면서, 지면 100엔 주기, 아이스크림 사주기, 그런 내걸 하곤 하더니,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니시카와” 군이 수학을 아주 잘 한다고, ‘니시카와한테는 수학은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자주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점수가 몇 점이었던다는 건 서로 얘기하고 그러나봐요.

Q :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A :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Q : 이겼다, 졌다, 깨끗하게 인정하는군요?

A : 네.

Q : 진학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A : 진학에 대해서는, 부속교니까 성적만 좋으면 좋은 학과에도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매년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부 중에 인원수가 많으면, ‘성적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격이 나오죠.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느 학부로 가면 어떤 곳에 취업이 되는지, 어떤 학부에 가면 무슨 공부를 하는지라든가. 학교에도 자주 대학에서 안내를 나와서, 이 학부는 이리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고 2 되어서부터 자주 있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였냐?’고 물어도 저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자기 스스로가 확실히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갔을 당시에는 절대로 법학부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 법학부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했더니, 또 지금은 특별히 법학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 있죠. 그런걸 보면, 자기도 여러가지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Q : 친구의 영향일까요?

A : 친구 영향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잡지나, H대학의 학부 관련 서적이 나 자료를 보거나, 서점에 가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Q : 어머니께서 아드님에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격이라도 좋고 외모라도 좋으니까, 이런 타입의 아이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A : 서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목표를 정하고 함께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이라든지. 그런 좋은 관계로, 뭐라고 해야 할까, 사귀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기받기 하는, 우리 아들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역시, 애들이란 게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친구와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충실히 해나가는 애랄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애, 그런 애한테 자극을 받아서, 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라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Q : 아드님이 친구의 영향을 받기 쉬운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A :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썬요, 잘 모르겠어요.

Q :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드님이 마작에 빠져 버린 원인이, 솔직히 “노가미”군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A : 마작에 대해선 우선 좋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가미”군은 엄청 착실한 타입이에요. D는 시험 쳐서 으로 들어왔지만, “노가미”군은 학교 추천으로 들어왔거든요. D의 말로는 “노가미”군은 굉장한 노력가고, 꾸준히 해 나가는 타입이라, 자기처럼 일발승부가 아니라고. D는 별로 노력도 안 하는 타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노가미군은 시험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외우는 걸 잘 하고, 특히 암기 과목은 D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밀고 나오니까, D도 이렇게 명칭히 있다가는 “노가미”군에게 지고 말겠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런 착실한 애니까, 그런 면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Q : “노가미”군에게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마작 하나 정도라는 거네요?

A : 그렇죠.

Q : 그런 건 말씀 안 하세요?

A : 안 하지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못 해, 라고 밖에 말 안 해요.

Q : 왜요?

A :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할 만큼 하다가 질릴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Q : 핸드폰으로 아드님이 자주 문자메일을 하는 친구는 알고 계세요?

A : 몰라요, 핸드폰은 전혀. 아마 지금은 “니시카와”군 정도지 않을까요?

Q :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A : 아마 뭐, 내일 테니스 할래? 응, 하자,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찌다가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를 치니까 안 보지만요, 가끔 슬쩍 보이거나 하면 ‘알았어’라든지, 한 마디 뿐일 때가 많으니까 대충 그런 단문이겠지, 라고 생각해요.

Q : 여자친구는 없어요?

A :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Q : 여자애들한테 문자메일을 보내는 눈치는 없어요?

A : 지금은 없어요.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어서 여자애들하고도 했었지만요.

Q : 반 친구하고요?

A : 반 친구도 있고, 다른 반 애도 있고.

Q : 내용은 아세요?

A : 아마, 지금 TV 보고 있는데, ‘지금 누구누구가 노래하고 있다, 보고 있어?’ 이런 식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Q : 집에서 TV 앞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해요?

A : 그랬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 학교 보호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 엄마가 ‘우리애는 매일 문자만 보내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딸애의 핸드폰을 몰래 볼 수도 없고’ 라는 얘길 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D한테 ‘마군, 너 아니지? 누구누구 엄마가 굉장히 걱정하더라’

라고 일부러 오버해서 얘기했지요. ‘여자애들하고 문자 같은 거 주고 받지 마라, 수험도 있는데’ 라고 한 번 강하게 얘기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만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때 한 번은 다른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준비를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랑 꽤 문자를 주고 받고 했던 모양이에요. 개도 수험준비를 계속 해 왔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였어요. 문자 내용은 거의 공부에 대해서나, 서로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거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은 D는 고교수험 실패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못 들어가서 시무룩해 있었지요. 저는 ‘괜찮아, 마군이 합격한 데 가면 되지’ 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공립 학교들 중 진학교에 못 들어가면 대학수험은 무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D는 H고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시험 떨어져서 우울해 할 때에 많이 위로해준 게 그 다른 학원 다니던 여자애였던 모양이에요. 그 애 굉장히 좋은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 애랑 아마 사귀었거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애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언젠가 학교에 제출할 프린트가 뭔가가 없어서, D한테, 학교에 연락해서 프린트 좀 다시 팩스로 보내 달라 하라고 부탁했더니, ‘됐어, 친구한테 부탁하면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팩스가 와서 보니까, “가미오”군도 아니고, “미카모”군 전화번호도 아니었어요. 누구야?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여자애더라고요.

Q :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A : 학교 연락망으로.

Q : 방대한 양이잖아요?

A : 연락망은 35명 정도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었는데, 보호자회에서 개네 어머니가 ‘둘이 항상 연락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머, 미안해요. 제 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라고 했죠. 학원은 달랐는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속상해 하던 딸한테 ‘괜찮아, 힘내’라고 D군한테 격려의 문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쪽 학원 노트를 빌려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 주면서 ‘누구누구 노트인데, 대단하지?’ 라고. 여자애들은 노트

도 깨끗하게 정리하더군요. 그래서 '니네 아주 친하구나?'라고 얘기하려다 '대단하네~ 열심히 하는구나? 마군도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식의 얘길 했었죠. 그 애하고는 문자메일 교환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Q : 가공의 세계의 인물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A :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Q : 컴퓨터상에서, 온라인게임인데요, 전혀 모르는 상대와 자기소개 같은 걸 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상대는 우선 몇 살이라든가 써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하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세요?

A :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Q : 가공의 세계에 도시가 있고,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그 도시에 산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알고 계세요?

A : 그건 게임 속 얘긴가요?

Q : 인터넷상의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만

A : 아, 그래요?

Q : 요즘 애들이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걸 하고 있다거나 그런 눈치는 없어요?

A : 없는 것 같은데요.

Q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A : 요즘 애들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요.

Q : 특별히 주의는 주지 않으시고요?

A : 안 그래요. 그게 아주 위험하다거나 그럼 또 몰라도.

Q : 컴퓨터는 아이들 방에 1 대씩 있어요?

A : 아니요, 모두 같이 쓰는 거라서. D가 뭐 하는지는 저도 체크할 수 있구요.

Q : 핸드폰 요금은 D군이 자신의 용돈으로 냅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A : 지금은 내 주고 있어요. 다른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내냐? 대학생이 되면 쓰고 싶으면 자기가 조금은 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내 주고 있어요.

Q : 한 달에 얼마 정도예요?

A : 7천엔 정도일 거예요.

Q :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A : 그렇죠. 근데, 애는 도쿄모[일본 이동통신사의 하나]의 패킷정액제[인터넷정보이용료정액제]에 가입했거든요, 자기는 그게 아니면 무리라고 하도 그래서. 보통 몇십만 패킷이나 쓴다네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뭘 그렇게 많이 쓸까 했는데, 인터넷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그런 걸 엄청 많이 사용한다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도쿄모”가 아니면 무리라고, 그런 얘길 얼마전에 막 했던 참이에요.

Q : 자녀분의 교우관계로, 학교에 상담하러 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A : 없어요.

Q : 학교 선생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A : 고등학생이 되면 멀어지죠.

Q : 아드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A : 네.

Q : 중학교 시절에는요?

A : 중학교 때는 얘기하기 편한 선생님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 상담하는 일은 좀 어려웠어요.

Q : 초등학교 때는요?

A : 친구관계로는 없었어요.

Q :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우관계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A :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선생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선생님도 아주 많지요.

Q :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사이가 좋았던 친구분은 어떤 타입이셨어요?

A : 이름은 “다카미”takami짱이라는 앤데, 정말 귀여운 애였어요. 키가 아주 작았는데, 저는 키가 큰 편이어서, 쪼그만 게 너무 귀여웠어요.

Q : 같이 잘 놀았어요?

A : 매일 함께였어요.

Q : 좋아하는 선생님은 있었어요?

A : 별로 없었어요.

Q : 싫어하는 선생님은요?

A : 그렇게 싫은 선생님은 없었어요.

Q : 선생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A : 그랬죠.

Q :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A : 학교 분위기는 좋은 느낌이었지만, 초등학교 4,5,6학년 계속 같은 선생님이 담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도 싫은지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척 예뻐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Q :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A : 그게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육상대회에서 기록을 내거나 했었는데, 빠르니까 선생님이 많이 힘을 넣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있으니까,

Q : 그 선생님과?

A :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면 어찌면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Q : 아직도 연락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텐데요.

A : 그렇죠.

Q : 성적은 어땠어요?

A :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저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그러저럭 보통 정도였던 거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위었다고 생각해요.

Q : 중학교 시절에 친했던 친구분은?

A :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예요.

Q : 친구분은 중학생이 되서 변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같은 분위기였어요?

A : 같은 분위기였어요.

Q : 성격 면에서는 어떤 타입의 친구였어요?

A : 같이 있으면 정말 즐겁고, 주위 분위기를 잘 띄우는 애였어요.

Q : 중학교 때 좋아하던 선생님은요?

A : 있어요. 제가 배구를 했었는데, 그분이 배구부 고문선생님이자 영어선생님이셨어요. 전 영어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영향이 컸죠. 그래서 배구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영어수업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Q : 남자선생님이예요?

A : 네.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었지만.

Q : 엄격해도 뭔가를 느꼈으니까 좋아하게 된 거겠죠?

A : 엄하지만, 엄하게 하신 뒤에 잘 다독겨려 준다고 할까, 따뜻한 분이었어요. 엄하게 혼내시지만, 그 뒤에 따뜻함이 있어서, 선생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Q : E씨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A : 배구부원들은 전원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 싫어하던 선생님은요?

A : 싫어한 선생님은 특별히 없었어요.

Q : 학교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A : 분위기는, 스포츠면에서도 열심히 해서 대회에 꼭 나가서 우승하자, 이런 파워풀한 학교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어요.

Q : 그 중에서 성적은 어땠어요?

A : 그럭저럭이었다고 생각해요.

Q : 고교시절은 어떠셨어요? 친했던 친구는요?

A : 친했던 친구는 3명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4명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유난히 더 친했어요.

Q : 어떤 타입의 친구였어요?

A : 다정한 타입.

Q : 뭔가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A : 둘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같은 배구부였고, 그 애랑 같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 때 부르마[일본 여학생들이 입던 하계 체육복이나 여자배구선수들의 유니폼]를 입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라는 게, 굉장히 체형에 신경이 쓰일 때잖아요. 둘이서 탈의실 거울 앞에 서서는, 누구 다리가 더 굵냐,

가느냐, 허벅지는 나고, 장딴지는 너다, 매일같이 그러고 있었어요. 매일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지금은 너무 그립지만요.

Q : 3년간 쪽 함께였어요?

A : 네.

Q : 다른 2명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A : 개들이랑도 친했지만, 다른 부였어요. 씨글활동 하면서 친구가 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Q : 고교시절에 좋아하던 선생님은 있었어요?

A : 전혀 없었어요. 점점 멀어지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별로...

Q : 싫어하던 선생님도 없었어요?

A : 응, 가정과 여선생님이 굉장히 시끄러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떠오르는 정도네요.

Q :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A : 분위기는, 이런저런 곳에 힘을 쓰는 학교로, 문화축제나 체육대회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었어요.

Q : 반발 같은 건 못 느꼈어요?

A : 학교예요? 반발은 안 했어요.

Q :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느낀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해 주세요.

A : 뭘까, 응... 유대관계라고 할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일관계로 해외에 쪽 나가 있거든요. 좀처럼 돌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결혼식에는 못 와도 니가 결혼할 사람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봐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OK 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면서, 정말로 한 번 들어왔었어요.

Q : 어디에서요?

A : 미국에서.

Q : 그 이유만으로?

A : 응, 그건 정말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친구가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해서, 결혼식에는 참석 못 했지만 한 번 만났어요.

Q : 결혼식 전예요?

A :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아마 언제언제 쫓 될 것 같은데 올 수 있겠냐, 그런 얘길 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넌 정말 남자 보는 눈 없는데’라고. ‘뭔가 속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정말 감격했어요.

Q : 그래서, 결국 친구분의 마음에 들어서 지금의 남편분과?

A : 네, 그 때,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했지요.

Q : 친구에게 정말 화가 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화를 낸 적이요? 응... 기억에 남을 정도로 화를 낸 적은 없는 거 같네요.

Q : 남편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 :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고 토,일요일이 휴일인데,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하기도 해요. 평범한 샐러리맨이에요.

Q : 어떤 분이세요?

A : 대범한 사람이에요.

Q : 어떤 면에서요?

A : 여러가지로. 전 D밖에 몰라서 이것저것 걱정하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남편은, 허둥대지도 않고, 될 일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으니까란 식이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할까...

Q : 자녀교육에는 적극적인 편이십니까?

A : 글썄요, 애들 키우는 건,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의 저 혼자였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물론 남편이 나서지만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말 안 들었던 것도, 남편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 애들이 잘 듣거든요. 남편은 D가 어렸을 때 아빠가 다른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바빴어요. 한 번은 토요일에 같이 차 타고 나갔을 때, D가 남편한테 ‘아빠, 다음에 아빠 집에 데려가 줘’라고 했다니까요. 애 아빠는 그래서 시무룩해 지고.

Q : 그 때가 몇 살 정도였어요?

A : 유치원 졸업반 땐가,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굉장히 바빴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는 꼭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 됐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거의 애들 키우는 건 제가... 물

론 걱정거리 같은 건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Q : 물리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군요?

A : 하지만 남편의 존재는 큰 것 같아요. D가 중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랑 졸업파티가 뭐냐 한다고 그랬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무척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때까지 애가 학원에서 빼고는 그렇게 늦은 적이 없어서 안절부절이었죠. 선생님한테도, 졸업식 날에는 애들이, 학교도 정해졌겠다, 어디서 저녁 밥도 먹고 늦게까지 노는 수도 있다고 조심하시라는 말을 몇 번 들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저 혼자 걱정걱정을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Q : 핸드폰으로요?

A : 네.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전화해서 D가 돌아오질 않는다고, 아빠가 전화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빠가 전화했더니 바로 받았다는 거예요.

Q : 번호 보고 아버지인 줄 안 거예요?

A : 네, 그리고 10분 있다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Q : 굉장히 무서워 하나 봐요?

A : 무서운가 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서.

Q : 요즘엔 아버지가 권위를 잃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좋은 거잖아요?

A : 그걸 보고 역시 아버지의 힘이란 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평소에는 엄마가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해대고 화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때다 싶을 땐 아빠한테 말기자고, 그 때 확신했어요.

Q : 그럴 때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아버지시군요?

A : 네.

Q : 아드님께 기대하시는 건 있으세요?

A : 기대하는 거요? 기대한다고 할까,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혼자서 똑똑히 살아 갈 수 있는, 자립된 어른이 되어 주길 전 항상 바라고 있죠. 지금은 물론, 저는 계속 그 애의 엄마지만, 아직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키는 훌쩍 커가지고, 자기는 혼자서 다 잘 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받쳐 주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받쳐 주겠

지만, 정말로 확실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어른이 되길 바란다는 게 기대라면 기대지요.

Q : 어렸을 때 더 큰 기대를 했던 건 없으세요?

A : 조그맣을 때는,

Q :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A : 글썄, 그... 개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뒷전에서 도는 타입이거든요. 들러리 역할이라고 할까, 저보다는 친구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타입. 축구도 했었는데, 저는 좀 더 애답게 자기가 나서서 냅다 달렸으면 좋겠는데, 패스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Q : 숯은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된다?

A : 네, 그런 점이 저는 좀... 왜 니가 가지고 가지 않냐, 좀 더 그 쪽,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생각으로, 그건 완전히 그 쪽으로 돌리지 않아도 니가 가지고 갈 수 있었잖냐, 이런 게 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돌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그냥 성격인가부다, 하는 거죠, 뭐.

Q : 지금도 어머니께서 관찰하시기에 그런 면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A : 응, 지금도 아마 자기는 좀 물려서서 친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그걸로 D의 좋은 점이고, 자기가 그게 좋다면, 저도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두자고 생각하는 거죠.

Q :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친구관계로 간섭을 받은 적은 있으세요?

A : 친구관계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셔서, 학교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애들이랑 접촉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요. 거기에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엄청 반발했었어요. 부모가 싫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Q : 지금 어머니께선 D군에게 그런 말 안 하세요?

A : 안 해요.

Q : 누나한테도요?

A : 누나한테는, 보기에 좀 화려하다거나 하면, '좀 화려하지 않니?', '뭐야,

재 너무 튼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애들이 자기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 것 같죠? 저는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뛰야, 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싫었으니까,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도, 반 정도만 얘기할래나? 어지간히 부모가 봐서, 절대로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 애가 나타나면, 아마 저도 부모님처럼 얘기할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Q :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A : 네.

Q : 남편분과 D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세요?

A : 음... D의 친구관계 말이에요?

Q : 친구관계도 그렇고 공부 면에서도

A : D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학기 기말고사의 성적표를 받아 왔을 때의 얘기라든가, 학교 보호자회에 가서 학교 애들이 요즘 어떻다든가, 애네 반애들이 어떻다든가 하는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고, 남편은 '지각은 안 해?'라든가, '지금은 누구랑 어울려 다니나?'라든가, 그런 얘길 해요.

Q :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는 D의 친구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나요?

A :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명인가 집에 놀러 오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애가 언제나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Q : "가미오"군과 "노가미"군이 친우같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A : "가미오"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노가미"군은 마침 얼마 전 여름에 D가 그 집에서 묵고 왔을 때, "노가미"군네 집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2명 이름은 알 거예요. 그래도 "노가미"군 얼굴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사례 #4

대상자(G군) : 중3, 남, 거주지(도쿄 세타가야구)

Q : 가족구성을 말 해 주세요.

A :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요.

Q : 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A : 43살.

Q : 어머니는 몇 살입니까?

A : 같아요.

Q : 여동생은 몇 학년입니까?

A :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Q : 아버지 직업은?

A : 인테리어 디자이너.

Q : 어머니는?

A : 전업주부예요.

Q : 파트타임 같은 건?

A : 가끔 구청 일을 하는 거 같아요.

Q : 씨클 활동은 뭔가 하고 있어요?

A : 일단 멀티 미디어부랑 자연과학부요.

Q : 멀티 미디어부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A : 예전엔 컴퓨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장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Q : 무슨 말이에요?

A : 멀티 미디어라 는 건 그냥 이름뿐이고 내용은 거의 장기부가 되어버렸어요.

Q : 컴퓨터를 사용해서 장기를?

A : 아뇨, 일주일에 한 번 컴퓨터도 하지만, 거의 일본식방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고 있어요.

Q : 모두 멀티 미디어부라고 들어가서, 장기라도 괜찮아요?

A : 처음 소개할 때 요즘은 장기가 중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Q : 납득하는구나?

A : 네.

Q : 몇 명 정도 있어요?

A : 3학년이 5명 정도하고 2학년 조금이고 1학년은 꽤 있어요.

Q : 10명 정도?

A : 10명 쯤이요.

Q : 학원은 다니고 있어요?

A : 네, 일주일에 2번, 영어하고 수학이요.

Q : 학원 다닌지는 오래 됐어요?

A : 시작한지 1년 정도 됐어요.

Q :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어요?

A : 아뇨, 전혀요.

Q : 한 달 용돈은 얼마 정도예요?

A : 그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구, 음... 매번 서로 잊어버려요.

Q : 어머니하고 G군?

A : 네, 받을 때는 2, 3천엔 정도 받는데, 그게 1년에 4번 정도 되나? 실제로는 그런 분위기예요. 원래는 1달에 1번이어야 되지만, 뭐 별로 쓸 데도 없고, 시골 할머니한테 세뱃돈 같은 걸 많이 받아서 저금하고 있어서 그렇게 궁하지 않아요.

Q : 어디에 써요?

A : 책같은 거.

Q : 만화책?

A : 아니에요, 소설이요.

Q : 최근에 산 소설은?

A : '브레이브 스토리'.

Q : 영화로 나왔던 거?

A : 네.

Q :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걸 보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써 줄 수 있어요?

A : 그냥 나열해도 돼요?

Q : 지금 다니는 학교의 친구, 씨클 활동의 친구, 그 외의 반 친구, 초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고, 학원에서 사귀 친구, 이런 소속은 없어도 그 외에 이런저런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줄래요?

A : 초등학교 때라는 건...

Q : 지금까지도 사귀고 있는 친구면 돼요.

A : 가까운 애들, 뭐 이런 건 아니죠?

Q : 특별히 친한 친구에는 밑줄을 그어 주세요.

A : 어? 잠깐만요, 이름 까먹었어요. 완전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부르고 있는 이름이 달라서... 중복되는 경우는 양쪽 다 그어요?

Q : 네. 이건 학원?

A : 네, 학원이요. 이름이... 1달 정도 연락 안 해서 까먹었다.

Q : 지역에서 야구를 했다든가 축구를 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A : 아노, 옛날 얘기라서.

Q : 몇 살 때?

A :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Q : 그건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안 들어가요?

A : 네, 학교가 다르니까요.

Q : 그렇게 친한 건 아니구요?

A : 네.

Q : 친우[best friend]에는 두 줄 선을 그어 주세요.)

A : 초등학교 때요? 쌍둥이는 둘 다요?

Q : “하나이”hanai A, B군이 있네요?

A : 네.

Q : 학교 내에서 여러 명의 반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저마다 친해진 계기와, 어떤 느낌의 친구인지 말해 주세요.

A : 죄송한데요, 이건 한 명만이에요.

Q : “이마이”imai군은?

A : 1학년 때 같은 반이어서, 그래서 그냥요, 잘 모르겠지만 얘기가 잘 통하는 느낌이어서 점점 얘기할 때가 많아져서.

Q : 어떤 내용의 얘기?

A : 게임 얘기나 음...

Q :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마이”군하고 친해진 건 왜?

A : 왜지? 음... 아무튼, 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Q : 모두 반친구?

A : 학년은 같지만, 아, 생각났다. 음... 같은 반인 건,

Q : 지금 같은 반인 건 “오가와”ogawa군하고 이 두명?

A : 네, 음... 그래도 듣고 보니까 같은 반 친구도 있었네.

Q : “이마이”군은 어떤 느낌의 아이?

A : 어... 운동부는 아닌데,

Q : 활발하다든가, 밝다든가, 비교적 소심하다든가

A : 어...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하고 그... 교류를 잘 해요.

Q : 친구가 많고 여러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는 타입이구나?

A : 네.

Q : “오가와”군하고 친해진 계기는 뭐예요?

A : 처음엔 친구의 친구라고 할까, 이전 친구의 친구들 중에 “오가와”군이 있어서, 그 때부터예요.

Q : 이전 친구는 이 그룹 중에 있어요?

A : 음... “하나이” 형제하고 “하세가와”hasegawa, “히지카타” hizikata 예요.

Q : 그래서, 언제 사귀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A : 음... 처음에 그냥 사귀기 시작한 거는 1학년 때고, 3학년 올라와서 옆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점점 친해진 거예요.

Q : 어떤 얘기를 해요?

A : 음... 장르는 하나로 정리할 수 없지만, 역시 게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랑 또 선생님 얘기나 씨클이 다르니까 서로의 씨클활동 얘기같은 것도 하고.

- Q : “오가와”군은 무슨 부?
- A : 농구부예요.
- Q : 운동 계통의 친구?
- A : 네, 어… 드라마 얘기 같은 것도 하구요.
- Q : 뭐 보고 있어요?
- A : 뭐더라, ‘마이보스 마이히로’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죠.
- Q : “하나이”군하고 친해진 계기는?
- A : 뭐지, 음… 처음 한 명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 Q : 둘 중 누구?
- A : 누구더라?
- Q : 둘이 그렇게 닮았어요?
- A : 네. 음… “도모야”tomoya였나? 같은 반이어서 그냥 사귀게 됐는데, 2학년 때는 다른 반이 돼서 좀 떨어지고, 3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되어서 다시 붙어 다니게 된 분위기예요.
- Q : “후미야”fumiya군하고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요?
- A : 네. 하지만 언제나 같이 다니니까,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둘 다 같이 사귄 거나 같아요.
- Q : 성격은 달라요?
- A : 조금 달라요.
- Q : 어떤 식으로?
- A : “도모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짜 조금이지만, 좀 소심하다고 할까, 암튼 “후미야”는, 음…
- Q : 적극적이에요? 나서기 좋아한다던가?
- A : 아뇨, 장난을 좋아한다고 할까, “도모야”가 좀 억제시키는 편 같은.
- Q : 어떤 장난을 쳐요?
- A : 아니, 그냥 보통, 뭐였더라… “후미야”가 친한 친구한테… 뭐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 Q : “후미야”군이 아니고 “도모야”군이 친우라고 생각되는, 둘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A : 음… 거리일까요.

Q : 거리?

A : 단순히 같은 반이라는 이유지만요.

Q : 만일 같은 반이었던 게 “도모야”군이 아니고 “후미야”군이었다면, G군의 친우는 “후미야”군이었을까?

A : 뭐 비슷한 거겠죠. 실은 “후미야”한테도 두 줄을 긋고 싶을 정도로 거의 같아요.

Q : 학교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만나기로 하고 놀러 다니는 일은 있어요?

A : 네.

Q : 어디에 가요?

A : 아동관 [아이들의 지역문화센터로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스포츠나 창작 활동을 통해, 건전 교육을 도모하는 시설.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같은 데요.

Q : 뭐 하고 놀아요?

A : 탁구를 치거나, 아동관 체육관에서 농구에 끼거나.

Q : 거기에 같이 가는 친구는 누구하고 누구? “오가와”군, “하나이 도모야” “후미야” 형제하고 “하세가와”군

A : 이젠 가끔 가는

Q : “묘우친”myouchin군

A : 네. 그리고 “히지가타”hijikata군이요.

Q : 꽤 아동관에 같이 가네요?

A : 네.

Q : “이마이”군은 안 가고?

A : 어... 집이 멀어요. 여러 가지 있어서.

Q : 여러 가지라니?

A : 집사정으로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Q : 그래서 이사한 거예요?

A : 네, “시부야”shibuya[tokyo 지명]쪽으로요.

Q : 그래도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고?

A : 네.

Q : 아동관은 학교가 파하고 가요?

A : 네.

Q : 오늘 놀러가자~라고 다 같이?

A : 네.

Q : 약속 거리를 만드는 친구는 누구?

A : “하나이” 형제나 “하세가와”요.

Q : G군은 ‘나도’ 하면서 얹혀 가는 분위기?

A : 네.

Q :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아동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으면 얘기해 줘요.

A :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아동관에서 휴대용 게임기로 게임도 하거든요.

Q : DS[nintendo, 휴대용 게임기]같은 거?

A : PSP[sony 게임기]요. 그 통신이나 그런 얘길 많이 해요.

Q : 무슨 게임을 해요?

A : 몬스터헌터라는.

Q : 대전 할 수 있어요?

A : 네.

Q : 무선으로?

A : 네, 같이요.

Q : 모두 동시에 같이 통신하는 거예요?

A : 네.

Q : 씨클의 “미야자키”miyazaki군과 친해진 계기는?

A : 2학년 때 자주 가까운 자리가 되거나 해서요.

Q :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구나?

A : 네. 그래서 서로 장난질 치거나 그러면서.

Q : 어떤 식으로?

A : 뒤에서 무릎공격이나 뭐 그런 정도예요. 그건 그 녀석 쪽에서 걸어 오는데, 여러가지로 연구해서,

Q : 무릎 공격을?

A : 네. 뒤에서 몰래 뛰어와서 힘주어 세계 찍으면 꼭 넘어진다고.

Q : 많이 당했어요?

A : 네,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Q : 그런 캐릭터?

A : 네.

Q : 다른 애들한테도 해요?

A : 네.

Q : 학교 이외에 만나는 곳 있어요?

A : 돌아갈 때 같이 가는 일은 있어도, 그 밖에는... 가끔 “미야자키”군 집에 놀러가기도 해요.

Q : 거기선 뭐 해요?

A : 게임도 가끔 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트럼프라든가 그 정도예요.

Q : 그냥 얘기만 한다거나 그럴 땐 없어요?

A : 얘기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뭐가 하고 있어요.

Q : 반친구들하고 “미야자키”군하고는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A : 아뇨, 같아요.

Q : 어떤 내용?

A : 서로 하고 있는 게임을 소개하거나, 장기 프린트가 가끔 씨클에서 나오는데, 그걸 논의는 아니지만 같이.

Q : 집에서 둘이 장기 둘 때도 있어요?

A : 아뇨, 집에선. 없으니까.

Q : 장기판이 없어서?

A : 네.

Q : 학원의 “스즈키”suzuki 군과 “요시자와” yoshizawa군은 어떤 느낌의 친구예요?

A : “스즈키”군은 학원에서 언제부턴가 그냥 친해졌어요.

Q : 학원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A : 1대 2예요.

Q :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건 “스즈키”군하고 “요시자와”군 뿐이구나?

A : 많이 있는데, 글썄...거리가 가까운 건 “스즈키”군이에요.

Q : 학교 근처에 있어요?

A : 네.

Q : 소인수에 선생님이 많은 학원이네?
A : 뭐 그런 분위기로, 1번의 시간대에 조라고 할까, 세트가 6세트 정도고.
Q : 그 중에서 “스즈키”군하고 친해졌다?
A : 네.
Q : 학생은 많이 있는데, 한 수업에서 만나는 것은 선생님 1명하고 학생 2명이라는 얘기?
A : 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같이 있다는 건 아니구, 수업이 끝났을 때 인 사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Q : 어떤 느낌의 친구?
A : 음... 뭐지, 그냥 보통이에요. 특별히 머리가 좋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편이지만, 보통 애예요. 차분한 애요. 그리고 쫌 멋있어요.
Q : 초등학교 때의 친구면서 지금도 사귀고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A : 있다고 하면 “가노우”kanou 군이에요.
Q : “가노우”군하고 알게 된 계기는?
A : 5,6학년 때 같은 반이었구, “스즈키”군 친구란 것도 있었구.
Q : “스즈키”군을 먼저 알았어요?
A : 네. 거기에서 시작되서, 말이 잘 통했어요.
Q : 어떤 화제?
A :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지만, 화학 얘기나 생물, 뭐 과학 얘기네요.
Q : 특히 어떤 분야를 좋아했어요?
A : “가노우”군이 특히 좋아하는 건 화학이요. 전 생물. 그래도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해서 정보 교환이라고 할까,
Q : 초등학교 내에서만 얘기했어요? 과학관에 같이 간다는가?
A : 그래도 강에는 갔어요. 근처에 작은 강에.
Q : 뭐 했어요?
A : 그물로 물고기 같은 거 잡고.
Q : 어떤 물고기가 잡혀요?
A : 물고기라고 해봤자, 누군가가 풀어줘서 번식한 구피 같은 거예요.
Q : 구피가 있어요?
A : 네.

Q : 보면 구피인 줄 알아?

A : 네.

Q : 그 밖에 또 뭐가 있었어요?

A : 밀어라는 망둥이 같은.

Q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 가?

A : 네. 가져 가서 키워요. 학교에 가지고 가서 수족관에 넣거나 하고.

Q : 선생님, 좋아하셨겠어요?

A : 네. 그 반 자체가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돌봐줄 사람은 얼마
든지 있었어요.

Q : 반에 있는 동안 계속 살아있었어요?

A :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졸업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Q : “햏토리”hattori군과 알게 된 건?

A : “가노우”군 친구인데 아직도 연락하는 것 같아요.

Q : 과학 좋아하는 모임이구나?

A : 과학 매니어는 “가노우”군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보통 언제나
시시한 이야기고.

Q : 어떤 얘기?

A : 음... 그냥 반의 레크레이션 때, 여럿이서 자유롭게 조를 짜서, 여러가
지 공연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4명이랑 조를
짜서 뭐 그냥 콩트 같은 거, 콩트라고 할까 반은 연극같은 거였는데,
그걸 생각하거나 이런 거요. “가노우”군이나 “스즈키”군은 머리가 좋
아서, 각본 같은 거 써 주거나 그랬어요.

Q : 친우와 친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A : 미묘한 라인인데요, 음... 군이 말하자면 스스로 없이 장난칠 수 있는,

Q : 어떤 내용의 장난?

A : 마주 지나쳐 가다가 다시 쫓아와서 뭔가 한다든가,

Q : 좀 친다든가?

A : 네.

Q : 그렇게 해도 이중선을 그은 애들은 화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A : 음... 보복은 하지만 그 걸로 웃기도 하고.

- Q : 친구는 어떻게 돼요?
- A : 그 이전에, 장난을 친다고 할까, 그렇다고 해도 모두 장난은 치지만, 타이밍이라기 보다, 양인가요,
- Q : 양?
- A : 장난질 거는 횟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주 거는 애라든지.
- Q : G군에게 있어서 장난칠 수 있는 상대란 건 뭘까요?
- A :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란 느낌이랄까?
- Q : 여자 친구는 있어요?
- A : 아뇨, 없어요.
- Q : 정말?
- A : 없어요.
- Q :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는?
- A : 없어요.
- Q : 쯔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애는 있었겠지?
- A : 네.
- Q : 이름 써 줄래요? …….”도우라이”tourai상?
- A : 네.
- Q : 어떤 느낌의 아이?
- A : 얇전한 느낌의 애예요. 아, 그리고 보니까 애도.
- Q : “요시자와”yoshizawa상은 여자애구나?
- A : 네.
- Q : “요시자와”상은 어떤 느낌?
- A : 얇전한가? 기본적으로 얇전하지만, 가끔 얇전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활발하다고 할까, 밝은 느낌이에요.
- Q : 중학교에서 쯔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는?
- A : 없어요. 여자애들 수 자체가 지금 3학년에서만 해도 3분의 1정도예요. 더 적을라나? 남자 20명에 대해 8명이에요.
- Q :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 A : 아뇨,
- Q : 어찌다 이 반만?

A : 네.

Q : 이과계열 입시 반이든가?

A : 아니에요. 하지만 초등학교가 이 근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보통이었던 거 같아요.

Q : 원래 여자가 적은 동네?

A :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학년만 딱 적고 전후로는 보통이에요.

Q : 8명 중에서라도 예쁜 애가 있지 않아요?

A : 아뇨, 별로.

Q : 학교에 여자 친구들은 있어요?

A : 여기에는 안 썼어요.

Q : 친구라고 생각하는 애는 있어요?

A : 뭐, 있긴 있어요. 그 정도까진 안 친해도.

Q : 남자 친구하고 여자 친구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A : 음... 우선 장난을 걸긴 좀 어렵죠.

Q : 장난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은 안 통해요?

A : 네.

Q : “가네가에”kanegae상하고는 어떤 얘길 해요?

A : 전에 같은 반, 같은 조였을 때, 급식 시간에, 뭐더라? 음... 되게 기가 세서,

Q : “가네가에”상이?

A : 네. 독설을 내뱉거나.

Q : 뭐라고?

A : 아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상처 받을 말은 아니었지만.

Q : 독설이라고 해도 싫은 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할 수는 있죠?

A : 뭐, 재밌게 넘어갔어요. 되게 밝은 애라.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이었죠. 1명 더 있어요.

Q : “시라사와”shirasawa상?

A : 네.

Q : 어떤 친구?

A : 애도 비슷한 애예요.

Q : 어떤 점이?

A : 명랑하다는 것도 그렇고, 가끔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하거나, 그런 분위기로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Q : 비아냥거린다는 건 예를 들면?

A : 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이 통한다고 할까, 재밌게 그냥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Q : 여자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같이 놀러 가거나 그런 적은?

A : 아뇨, 없어요.

Q : 수업 중에 얘기한다든가?

A : 급식 시간이나 쉬는 시간 그 정도예요.

Q : 반에 친한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있는 애는 없어요?

A : 음... 아니, 들은 적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Q : 그런 애긴 안 해요?

A : 딱 한 번 있었어요.

Q :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

A : 하지만 금방 끊겼어요.

Q : 얘기 자체가 끊겨 버렸어요?

A : 원래 모두 없었으니까. 별로 오래가지 않았어요.

Q : 공부 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있어요?

A : 가끔 기말 때 경쟁하거나 하는데요.

Q : 누구랑?

A : 그렇게 심하게 경쟁하는 건 아니고, 내기 같은, 누가 제일인가 이런. 그 정도라서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Q : 그건 이 중에 있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A : 아니에요.

Q : 어떤 식으로? 자기보다 조금 위나 조금 아래 정도의 친구와 내기해요?

A : 음... 뭐 그런 식이죠.

Q : 이 중에 없군요?

A : 그러고 보니까 딱 한 번 “이마이”군하고.

Q : 이번 중간고사 누가 원가 내기하자라고?

A : 네. 그리고 “구사마”kusama 군.

Q : 이겨서 기뻐요?

A : 아뇨, 그 때는 좀 좋았는데, 잠깐이었어요.

Q : 취미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A : 음… 책 같은 거, 좋은 책을 잘 권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Q : 누구?

A : 음…

Q : 여기에 써 있지 않은 사람?

A : 네.

Q : 그 친구하고 얘기한 책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요?

A : 네, 거의 도서관의 책이지만.

Q : 그건 친구가 얘기할 때도 있고, G군이 얘기할 때도 있고?

A : 네, 하지만 개가 더 많이 읽고 있어요.

Q : 남자? 여자?

A : 남자요.

Q : 진로, 진학에 대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A 음… 학교 책꽂이에 고교입시의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친구랑 같이 읽거나.

Q : 그건 누구?

A : “오사다”osada. 그리고 보니 이친구도 {이중선을 그음}

Q : 그 친구하고는 진학 얘기를 하기 편해요?

A : 편하다고 할까…

Q : 다른 친구하고 어떻게 달라요?

A : 뭐지, 다른 사람보다 진지하다고 할까, 뭐 진지한 거네요.

Q : 장래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A : 그런 느낌의 친구로, 잘 알아보면서 여기는 좋다, 저기는 나쁘다라든가, 그런 식의 얘길 해요.

Q : “오사다”군의 평가에 따르면 어떤 곳이 좋다고 해요? 편차치가 높다든가?

A : 그런 거나 설비가 새롭다거나.

Q :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알아요?

A : 네.

Q : G군은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A : 우선은 있어요. 음...

Q : 어떤 곳? 공립이라든가 사립이라든가.

A :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

Q : 상당한 진학률[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많은, 수험체제를 갖춘 고교를 말함]라는 느낌?

A :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학률이 높고, 그렇게 편차치가 높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 그런 데랑 에어컨이 있는 곳.

Q : 친구들끼리 서로 어디를 볼까란 얘기를 하기도 해요?

A : 응... 별로 안해요.

Q : 지금 G군이 생각하고 있는 곳과 같은 곳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친구는? 아니면, 그 친구랑 같은 곳에 가겠다고거나, 그런 거 생각해요?

A : 아뇨, 1학기 땀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친구도 적고, 현실 도피랄까, 그런 얘기 자체를 잘 안 해요.

Q :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A : 응... 맨날 하는 얘기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진지한 얘기.

Q : 그 다음, 대학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A : 아뇨, 아직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일단 비오톱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따보고 싶어요.

Q : 어떤 일을 해요?

A : 생태계의. 음... 그 2급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Q : 그런 일이 하고 싶어요?

A : 네, 그런 직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Q :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츠코미[만담에서 중심이 되어 지껄이는 역할. 보케의 멍청한 농담을 일일이 지적하며 더 웃기게 하는 역]역할이랄까요?

Q : 중학교 들어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A : 중학교 들어와서부터요. 초등학교 때도 꽤나 츠코미였으니까 양쪽 다요. 초등학교 때는 츠코미도 보케[만담에서 츠코미에 대하여 멍청한

말을 하여 웃기는 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츠코미예요.

Q : 시츄에이션은?

A : 적으로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전에 수학여행 중 우리 어디로 갈까 정할 때,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느긋하게 설까라고 친구가 말했을 때, '야, 너 맞을래?!' 라든가.

Q : 츠코미 역할은 G군한테 잘 맞는 역이라고 생각해요?

A : 네.

Q : 만족해?

A : 뭐, 그냥.

Q : 츠코미가 있다는 건 보케도 있다는 얘기네?

A : 뭐, 그렇죠.

Q : 친구들 안에 있어요?

A : 이 쪽에 애네들이 쯤 보케라고 할까.

Q : 많네, “하세가와”군, “이마이”군...

A : “구사마”도 낄 걸요? 보케라고 할까, 당치도 않은 엉뚱한 얘길 갑자기 한다거나 그런. 그런 말에 일부러 면박을 주거나 그러면서.

Q :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A : 역시 수학여행이죠.

Q : 어떤 일이 있었어요?

A : 조별 행동으로 모두 따로 따로 “교토”Kyoto 시내를 돌아다닐 때 한번 트러블이 있어서,

Q : 어떤 트러블?

A : 돌아가는 길에 반대편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누군가 알아차리고 얘기해 줘서, 여럿이서 나눠서 대응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제일 마지막 버스여서 다들 안달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께 연락을 하는 애도 있었고, 반대편 버스의 시간표를 알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 때지, 아마?

Q : G군은 그 때 뭐 했어요?

A : 시간표를 알아봤어요.

Q : 몇 명이었어요, 조원이?

A : 5명이었나?

Q : 이 중에 있어요?

A : 어... 좋은 사람들끼리 맘대로 짠 조가 아니었지만, 그 때 “도모야”하고 “오가와”가 있었어요.

Q : “도모야”군은 뭐 하고 있었어요?

A : 조장이어서 선생님께 연락을 했어요.

Q : “오가와”군은?

A : 시간표가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거기랑 공중전화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연락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Q : 시간 잘 맞춰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A : 네.

Q : 무슨 생각했어요? 그 때

A : 그 때는 너무 안달했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그냥 좀 안심한 것 뿐이지만, 뭐 달성감 같은 건 있었어요. 단합이 잘 됐으니까. 말로 잘 표현할 순 없지만, 단합이 잘된다, 라는 걸 막 실감했어요. 깊은 유대라고 할까...

Q : 친구에게 화가 난 적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A : 가끔 맥도날드에서 모이거나 하는데, 그 때요, 전 핸드폰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안 와서 계속 기다린 적이 있어요.

Q : 어디에서 기다렸어요?

A : 맥도날드 안에서.

Q : 혼자서?

A : 네.

Q : 아무도 안 왔어?

A : 네.

Q : 핸드폰 없는 G군만?

A : 네.

Q : 다른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취소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

로 가버렸다거나?

A : 아니, 각자 볼 일이 생겼던 거 같은데, 몇 명 있었으니까, 다른 애들은 갔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두 멋대로 안 와서 결국 저 혼자 계속 기다렸어요.

Q : 몇 시간 정도 있었어요?

A : 2시간 정도였나? 그래도 책을 가져가서.

Q : 그래도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A : 그 때는 그냥 내일 가서 물어 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Q : 다음 날 누구한테 먼저 물었어요?

A : 응... 아침에 선생님 오기 전에 모여 있을 때, '어이~'라고 했어요.

Q : 불끈해서?

A : 네.

Q : 모두에게?

A : 네.

Q : 그랬더니?

A : 생각 안 나요.

Q : 모두 미안하단 말은?

A : 각자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사과 받았어요.

Q : 친구들하고 싸운 적은 있어요? 치고받고라든지.

A : 가볍게요. 별로, 손까지는 안 올라가요.

Q : 말 싸움?

A : 네.

Q : 친한 친구들하고는 말 싸움도 안 해요?

A : "이마이" 하고는 몇 번인가 있었죠, 말로.

Q : 어떤 일로 싸우게 돼요?

A : 꽤 오래 전 일인데,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이마이"군한테 샤프펜슬을 빌려 줬었어요. 학교에 안갖고 왔다 해서. 그런데 집에 갈 때 깜박해서, 다음 날 학교 가서 받아야지 했는데, "이마이"군은 방과 후에 내 책상 위에 올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샤프펜슬이 없었어요. 그

래서 화를 냈어요. “이마이”군도 분명히 돌려 줬다고 하고. 그래서 한 동안 얘기도 안 했어요.

Q : 지금은 사이 좋구?

A : 네.

Q : 한 동안이라 함은?

A : 하루. 꽤 고집스러워서, 둘 다 말 안 걸고. 사실은 샤프펜슬 같은 건 상관없어졌지만, 그냥 오기로 그랬죠.

Q : 이지메[왕따나 집단 괴롭힘] 당한 적은 있어요?

A : 없어요.

Q : 초등학생 때도 포함해서?

A : 네.

Q : 이지메 시킨 적은?

A : 아뇨, 없어요.

Q : 반에서 이지메는 없어요?

A : 없어요, 다 유치해요.

Q : 핸드폰이 없는 것에 불만이 있어요?

A : 옛날엔 전혀 필요 없었는데, 요즘엔 여러가지로 불편하니까.

Q : 옛날이면 언제 쯤?

A : 1년 전 쯤요.

Q :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껴요?

A : 네.

Q : 뭐 하는 데 필요해요?

A :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집 전화는 애들도 걸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뭐랄까, 심심할 때 같이 놀거나 그랬었는데, 전화 걸기가 좀 그래서, 라는 이유로 그렇게 잘 안 되서, 그 때부터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Q : G군은 보통 집 전화로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A : 네, 그리고 인터넷메일로 가끔 얘기하고 있어요.

Q :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A : 네.

Q : 언제든지 맘대로 쓸 수 있어요?

A : 맘대로는 아니고, 항상 부모님이 점령하고 있어서,

Q : 어머니?

A : 네. 맨날 옥션 같은 거 하고 있어서, 별로 만질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안 할 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어서 친구도 메일은 좀 그렇구...

Q : 메일은 자기 패스워드로?

A : 네.

Q : 어머니가 맘대로 보거나 하시진 않고?

A : 안 봐요.

Q : 모바일 게임[핸드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나 “믹시”mixi[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건 알아요?

A : 네.

Q : 안 해요?

A : 우리 집은 윈도우가 아니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Q :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A : 네. 많이 하고 있어서, 재밌다고 해보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Q :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은 있었어요?

A :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Q : 몇 학년 때?

A : 답임이 아니고, “스도우”sudou 비슷한 이름이었죠, 아마? 씨클이 있었는데, 5학년 때 “가노우”군이랑 들어서 새로 씨클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자연과학이란 씨클이었거든요. 그 씨클 고문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Q : 왜 좋았어요?

A : 과학을 둘다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Q : 싫었던 선생님은?

A : 없었어요.

Q :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A : 되게 넓고 편한. 우리 학년은 그랬어요.

Q : 성적은?

A : 중간 쯤이었을걸요, 아마.

Q : 중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은?

A : 지금은 없지만, 한 명, “노나미”nonami라는 선생님이요.

Q : 어떤 선생님?

A : 수학 담당 선생님인데, 재밌는 잠답이라고 할까, 여담을 얘기해 주시거나 했어요. 자상한 선생님이라고 하나, 말투도 차분하고 대하기 쉬운 선생님이었어요.

Q : 몇 살 정도?

A : 젊어요. 20대, 25살 정도?

Q : 남자 선생님?

A : 네.

Q : 싫어하는 선생님은?

A : 여러 명.

Q : 특별히

A : 음... 전근 갔는데, 체육선생님이요, 진짜 화 낼 때는 막 야단치고, 방과 후에 남아서 30분 정도 계속 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Q : 선 채로?

A : 네.

Q : 1 대 1로?

A : 1대 5 정도요.

Q : 왜 혼났어요?

A : 그 때 비 오는 날, 학교 건물 전체를 친구들이랑 막 뛰어 다니고 있었어요.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큰 일 날 것 같아서...

Q : 하자고 한 건?

A : 2학년 때였는데, “구사마”군이었나?

Q : 그냥 뛰어다닌 것 뿐이었어요?

A : 네, 있는 힘껏. 별로 마음이 안 내렸지만.

Q : 점심 시간?

A : 네.

Q :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A : 네. 점심 시간이어서 그대로 불러 가서.

Q : 어디로?

A : 복도.

Q : 그래서?

A : 불러 가서 계속 설교 들었어요.

Q : 뭐라고?

A : 여러가지요. 비 오는 날이어서, 한 발 잘못 디더서 상관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든가, 중학생 씩이나 되서 그래도 되나라든가.

Q : G군은 평소에도 선생님께 혼나거나 그런 일 있어요?

A : 평소엔 그다지 혼나는 일은 없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혼나는 것도 싫구요. 그래서 별로 잘 안 끼는 편이에요, 나쁜 일에는.

Q :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A : 아까 얘기한대로 유치해요.

Q : 성적은?

A : 중간... 우리 학년은 다들 좋을 때랑 나쁠 때랑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음... 중간의 중간 째?

Q : 선생님께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경우는 있어요?

A : 그런 건 없어요.

Q :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A :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Q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A : 3자면담 때나 그럴 때, 친한 친구들 얘기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물어보시거나 하니까.

Q : G군 자신은 선생님이 친구 관계를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A : 음... 뭐 그런대로.

Q :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A : 네.

Q : 어머니께 친구들 얘기 같은 거 해요?

A : 가끔 해요. 놀러 간 얘거나, 뭐 그런 거. 같이 논 친구가 누군지 물어봐요.

Q : 어머니가?

A : 네, 나쁜 뜻이 아니고 ‘어떤 애야?’ 라든가, 그런 거.

Q : 어머니께서는 친구들 모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A : 얼굴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이” 형제하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Q : G군이 오늘 누구랑 놀고 있는지, 어머니께서 알고 계세요?

A : 맨날 같은 멤버니깐 거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별로... 그래도 아동관에 간다, 라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으니까 뭐 알고 있겠죠.

Q : 어머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모군은 좋지 않다든가, 모군은 친하게 지내라든가, 간섭하시는 일 없어요?

A : 전혀 없어요.

Q : 아버지하고는 사이 좋아요?

A : 음... 뭐 그냥 보통이에요.

Q : 아버지가 G군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A : 글썽요... 말은 잘 안 하지만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하고 지금은 다소 생각이 다른데,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 일 같은 거, 가끔 얘기해요.

Q : 옛날이라면?

A : 초등학교 때의 취미 같은 거,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 때 얘기랑 관계 있는 거나 그런 걸 아직도 얘기하거나 그래요.

Q : 초등학교 때 G군이 좋아했던 걸 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그런 얘길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

A : 가끔이지만.

Q : 아버지께 지금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요?

A : 거의 없지만요, 여동생의 초등학교에 아버지회란 게 있잖아요, 아빠가 거기 회장인데, 그 초등학교 애의 형이 저랑 같은 학년으로 있어서, 그 애 얘길 가끔 해요.

Q : 아버지가 아버지회의 회장이라는 게 G군한테는 어떤 느낌이에요?

A : 특별히 싫다거나, 좋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저도 봉사 활동에 자주 끌어내서.

Q : 장래의 꿈은?

A : 틀에 박힌 거라고 할까요? 평범한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이랄까, 생물이랄까, 자연환경에 접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Q : 니트란 말 알아요?

A : 네.

Q : 그런 사람들이 어른으로서 사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A : 음... 아깝다, 라고 생각해요.

Q : 뭐가?

A : 대부분 젊잖아요,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Q : 자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A :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우선, 집에 제 방이... 집 자체가 좁아서 방이 없어요. 그걸로 봐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Q : 쓰레기를 슬쩍 버린다거나, 껌을 도로에 뱉는다거나, 그런 사회적 모럴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A :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까, 전 절대 안 그래요. 모럴이나 환경을 언제나 생각하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Q : 친구가 연못 같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주의를 줘요?

A : 본 적 없는데,

Q : 버렸다고 치고

A : 음... 언제나처럼 츄코미 식으로 주의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는 말 안 하구요.

일본사례 #5

대상자 (I상) : 고1, 여, 거주지(도쿄 메구로구)

Q : 이름이 I상 맞아요?

A : 네.

Q :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A : 네

Q : 나이는요?

A : 16살.

Q : 집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A : 네, 걸어서 5분정도예요.

Q : 학교까지는 어떻게 다녀요?

A : 버스 한번 타고 가요

Q : 얼마나 걸려요?

A : 2,30분 걸려요

Q : 아침에 많이 붐비죠?

A : 아뇨, 널널해요

Q : 가족구성은요?

A :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1명 있어요.

Q : 동생은 몇 학년이에요?

A : 초등학교 4학년 이에요.

Q : 동생은 공립 초등학교[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있으며 사립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음]예요?

A : 네

Q : 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A : 시스템 엔지니어

Q : 아버지는 바쁘세요?

A : 네, 그래서 밤 늦게 얼굴만 잠깐 볼 수 있어요.

Q : 학원이나 여름특강은요?

A : 안다녀요. 통신교육 시스템으로 혼자 학습지 받아 보면서, 공부해요.

Q : 중학교 때는 학원 다녔었요?

A : 학원은 안다녔는데, 여름부터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입시 준비했어요.

Q : 지금은 과외 선생님 없어요?

A : 네, 자유 예요.

Q : 무슨 씨클이예요?

A : 농구 하고 있어요.

Q : 그럼 여름 방학에도 연습하겠군요?

A : 네, 지금 연습 갔다 오는 길이에요.

Q : 평소에 연습은 매일 해요?

A : 여름방학 아닐 때는 일주일에 4번정도 하고, 여름 방학에는 거의 매일 이예요.

Q : 힘들죠?

A : 여름 휴가가 필요해요.

Q : 여름에 어딘가 갔다 왔어요?

A : 네, 가족이랑 “니가타 나에바” Nigata Naeba[지방 이름]에 가고, 바다도 가고, “후쿠시마”Fukushima[지방 이름]에 있는 삼촌 집에도 갔어요.

Q : 조금은 쉬었겠네요?

A : 1주일 정도예요.

Q : 농구는 언제부터 했어요?

A : 중학 교 때 부터 시작했어요.

Q : 꽤 잘하겠네요?

A : 아니요, 전혀 못해요

Q : 1학년이면 많이 힘들겠네요?

A : 네, 힘들어요

Q : 선후배 관계 도 엄격해요?

A : 그렇지는 않아요.

Q : 뭔가 배우는거 있어요?

A : 지금은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만 뒀어요.

Q : 뭐 했었는데요?

A : 처음에는 피아노 하다가 관두고, 발레 하다가 관두고, 뮤지컬 하다가 관됐어요.

Q : 중학교 때 까지요?

A : 네, 씨클 때문에 바빠서 못하게 됐어요.

Q : 지금은 농구만 하고 있어요?

A : 네

Q : 취미나 좋아하는 거 있어요?

A : 좋아한다기 보다, 시간 있을 때 자고 싶어요. 그리고 방 청소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꽤 좋아한 고 할 수 있죠. 또, 친구랑 놀러가거나 문자 주고 받거나 또 음...취미 물으셨죠? 취미는 역시 농구예요.

Q : 농구 시합을 보러 가거나 해요?

A : 네, 가요. 실업팀 농구도 보러 가요. 친구가 작년에 “케이오”keio 대학 이랑 “도카이”tokai 대학의 “조지”랑 “고스케”[선수이름]를 좋아해서 같이 갔어요.

Q :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어요?

A :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어요.

Q : 일주일에 몇번 해요?

A : 3번 정도요. 근데 여름 방학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가요.

Q : 몇 시 부터 몇시까지 예요?

A : 대체로 4시~9시나 아니면 5시~9 시예요.

Q : 보통은 씨클이 끝나고 나서 가요?

A : 네, 씨클 끝나고 바로 알바예요.

Q : 그럼 피곤하겠네요?

A : 네, 그래서 자고 싶어요.

Q : 왜 아르바이트 하고있어요?

A : 돈 모아서 직접 뭔가를 사고 싶어요. 옷이나, 그리고 용돈도 안 받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으니까.

Q : 용돈 안받아요?

A : 네

Q : 그럼 어떻게 생활 했어요?

A : 받았었는데, 핸드폰 요금이 얼마 이상이면 안주겠다고 그래서 못받게 됐어요.

Q : 뭔가 갖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 하면 사주세요?

A : 아니요, 그래서 새뱃돈 받거나 하면 그걸 계속 모아서 1년동안 생활하고 해요.

Q : 아르바이트로 1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A : 3만엔 정도요.

Q : 그 돈은 어디에 써요?

A : 옷 사거나 지금은 방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서 가구나 장식품을 모으고 있어요. 얼마전에는 테이블을 샀어요.

Q : 고1인데 주변 친구들도 가구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어요?

A : 보통은 없죠.

Q : 그럼 그건 어머니 닮은 거예요?

A : 글썄요. 잘 모르겠네요.

Q : 친구 관계도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친구나 아르바이트 친구, 학원 친구,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있겠죠, 이름은 알파벳으로 쓰시고 어떤 식의 친구 관계 인지 알고 싶으니까 알기 쉽게 써주겠어요?) 남자친구는 없는데, 친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A : 다 못쓰겠으면 그외 몇명 이런식으로 써도 되요.)

Q : I상은 태어나서 줄곧 여기서 살았어요?

A : 네, 근데 태어나서 한번 “히요시” hiyoshi[지방 이름]에 이사 갔다가 다시 여기로 이사 왔어요.

Q : 다시 이사 온 건 언제 쯤이에요?

A : 유치원 들어가기 전 이예요.

Q : 유치원 들어가기 전 기억 있어요?

A : 아니요, 전혀 기억 안나요.

Q : 그럼 친구들은 모두 여기 친구겠네요?

A : 네

Q : 대체로 어떻게 알게 됐다던가, 어떤 친구 인가를 설명해주세요.

A : 씨클 들어가면서 알게된 친군데, “우”U짱이랑 “에리나” Erina라는 애는 중학교 때 다른 중학교 농구부랑 만나거나 하자나요, 그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는 같은 반 애들이 많아요. 같은 유치원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된 친구도 있어요.

Q : 누구예요?

A : “준” Jun 이라는 남자앤데, 같은 유치원이었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달랐지만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됐어요.

Q : 지금도 이야기 하거나 해요?

A : 네, 해요.

Q : 같은 반 아닌 친구는 누구예요?

A : 같은 반 아닌 친구는 음... 모두 성 [폴네임을 성+이름으로, 구분하여 성으로만 부르거나 이름으로만 부르거나함]으로 불러서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Q :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A : 네,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마이”Mai 나 “에리” Eri같은 이름이 많아요.

Q : 같은 반 아닌 친구도 친구라는 느낌있어요?

A : 네, 꽤 친한 애도 있어요.

Q :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A : 수준 별 수업 이동 할 때, 옆자리에 앉거나 씨클 친구의 친구거나, 아, 이름 생각났어요. 씨클 그만 둔 친구예요. 알바 친구인 “마이”Mai, “리코” Riko, “아야” Aya 는 중학교 때 부터 친구였고, “모모카” Momoka상은 알바하면서 친해졌어요.

Q : “마이”짱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에요?

A : 네

Q : “리코”짱이랑 “아야”짱은요?

A : 중학교 때 반은 달랐지만 같은 학교였어요.

Q : 고등학교는요?

A : 같은 고등학교예요

Q : “모모카”짱은요?

A : 알바에서 알게됐어요.

Q : 같은 나이예요?

A : 네.

Q : 아르바이트에서도 같은 나이 애들이랑 친해지거나 해요?

A : 네

Q : 연령대 다양하죠?

A : 네,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모두 30대 이하예요.

Q : 대학생이거나요?

A : 네, 하지만 고등학생이 많아요.

Q : 중학교 친구는요?

A : 친해져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Q : 모두 같은 반 이었던 친구예요?

A : 아뇨, 같은 반 아닌 친구도 있어요.

Q : 친구들 이야기 좀 해줘 요

A : “게이스케” Keisuke라는 애는 유치원이랑 중학교가 같아서 친해졌어요. “마리”Mari라는 애도 제가 발레 할 때 친구로 중학교가 우연히 같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가 세개 합쳐졌어요. 그 때 우연히 만난...

Q : 발레 친구는요?

A : 같은 나이로, 같이 시작해서 계속 같이 했어요.

Q : 발레 친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전혀 달라요?

A : 네, 달라요.

Q : 사는 동네도 달라요?

A : 네

Q : 멀어요?

A :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모두 사립 학교예요.

Q : 나이는 같아요?

A : 네

Q : 지금도 만나거나 해요?

A : 네, 가끔 만나요.

Q : 그럼 중학교 친구랑은 집이 가깝고 발레 친구랑은 집이 멀다는 거예요?

A : 네, 집이 멀기 때문에 문자를 자주 주고 받아요.

Q : 이 중에서 친우[best friend]를 들자면요?

A : “마리”랑 “야요이”, 남자는 “게이스케”랑 “케이타” Keita라는 애랑 많이 친해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가 많아요.

Q : “하나”Hana짱, “에리” Eri짱, “마이”Mai짱도 친해요?

A : 네, 거의 매일 같이 지내는 느낌이에요.

Q : 친우랑 그냥 친구랑 어떻게 달라요?

A : 말 뿐만 아니라, 뭐랄까, “마리”랑은 공통점이 많고, 친구는 아마 모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식이겠지만, 한명 한명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할까.

Q :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A : 발레 한적도 있고 “마리”는 운동을 조금 못하는데 같이 이야기 하면서 어드바이스 하거나 공부도 같이 하고 좋아하는 개그도 같아요.

Q : 같은 개그맨의 웃기는 말이나?

A : 네, 드라마도 비슷한 장르를 좋아해서 다음 날 같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해요.

Q : 공통 화제가 있으면 1시간 썩 이야기 하거나 하죠?

A : 네

Q : 여기보면, 중학교 때 친우, 고등학교 때 친우, 씨클에서 친우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친구랑은 이렇게 지낸다던가

A : 중학교 때 친구는 문자 주고받거나, 쉬는 날에 조금 만나서 놀거나, 같은 고등학교 정보를 교환하거나 해요.

Q : 비교적 자주 해요?

A : 매일은 아니예요.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꽤 가까이 있으니까, 씨클 친구라면 비는 날이 언제인줄 알자나요. 그

러니까 그 날 어디 가자고 약속 하거나 해요.

Q : 어떤 곳에 가요?

A : “시부야”Shibuya나 “하라주쿠”Harazuku[도쿄, 번화가] 같은 곳에 가요. 며칠 전에는 친구랑 “기치조지”Kitizyouzi[도쿄 번화가]에 갔어요.

Q : 쇼핑하러 갔어요?

A : 아뇨,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많다 고 해서 보러 갔어요.

Q : 뭐 봤어요?

A : “로프트” loft [잡화 체인점]에 가기도 하고, 팔빙수도 먹었어요.

Q : 그건 고등학교 친구랑요?

A : 네, 같이 바다에 가자는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좀처럼 시간이 맞질 않아서요. 씨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잘 못가요.

Q : 바다는 어디요?

A : “쇼난”[shonan] 이나 “에노시마” Enoshima[도쿄 주변 유명한 해수욕장]요.

Q : 평소에는 학교에서 보다 학교 끝나고 노는 게 더 많죠?

A : 네, 하지만 학교에서도 꽤 같이 움직이죠.

Q : 어떤 식으로요?

A : 이동식 수업 할 때, 같이 가거나, 교실에서 같이 도시락 먹거나 해요.

Q : 이 친구들이랑은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A : 한 명 장난감 같은 친구가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장난 치거나, 드라마 이야기 하거나, 연예인 이야기 하거나, 좀 좋은 알바 어디 있지 않아? 든가 그런 이야기 해요.

Q : 장난감 같은 친구라뇨?

A : 뭐랄까, 너 뭐야~ 하면서 괴롭히기 쉬운 캐릭터 있 잖아요.

Q : 이 중에도 있어요?

A : 네, 있어요.

Q : 누구예요?

A : “하나”가 그런 캐릭터예요.

Q : 모두가 하나를 가지고 놀아요?

A : 네, 머리카락을 지금 좀 3대7로 나눠보자나 그런 식으로요.

Q : 중학교 때 친구랑은 가끔씩 만나요?
A : 네, 가끔씩 밖에...
Q : 그럼 함께 놀러 가는 건 고등학교 친구 쪽이 많겠네요?
A : 네, 고등학교 친구가 많아요.
Q : 초등학교 친구 량은 어디 멀리 가거나 하지 않아요?
A :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거나 맥도날드 가거나 해요.
Q : 동네 친구들과도 놀아요?
A : 네, 하지만 잘 만날 수 없어요. 저희 학교는 토요일에 쉬지만 다른 학교는 토요일에도 가기 때문에 잘 못만나요.
Q : 만나는 건 주말이랑 평일 어느 쪽이 많아요?
A : 음, 역시 주말이죠.
Q : 집에는 잘 안 있어요?
A : 그렇지 않아요. 집이 제일 편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기도 해요.
Q : 매일 써클 연습 있으니까, 놀 시간 별로 없죠?
A : 그렇죠, 토요일도 오전에는 써클 연습이고, 오후에는 알바있고, 일요일도 아침부터 알바라서 피곤해요.
Q : 발레 친구 들이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A : 지금은 정말 문자로만 연락하고 있어요. 발레 콩쿨이 있어서 못만나요.
Q : 이 친구 들은 지금도 발레 하고 있어요?
A : 네, 콩쿨이 꽤 자주 있기 때문에 매일 연습으로 바빠요.
Q : 전화는 해요?
A : 전화는 안해요
Q : 문자만 해요?
A : 네, 전화는 긴장돼요.
Q : 이 중에서 친우가 누구예요?
A : 제일 친한 친우가 “마리”예요.
Q : 왜요?
A : “마리”랑 저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까,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조금 따돌림 당한 적 있는데, “마리”도 그런 적이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풀 죽어 있을 때도 알아차리고 위로해주 거나, 따돌림은 정말 싫으니까, 그런건 피하자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친근감도 있고 게다가 발레도 같이 했고, 조금 전에도 만났어요.

Q : 근데 고등학교는 다르죠?)

A : 네

Q : 지금도 “마리”짱이랑 자주 만나거나 해요?

A : 네, 얼마 전에도 놀자고 했는데 씨클이랑 겹쳐서 못만났어요. 그리고 “마리”는 씨클에 발레도 하고 있 어서 더 못만나요.

Q : “마리”짱의 씨클은 뭐예요?

A : 육상이예요. 저도 사실은 육상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Q : 왜 육상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A :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요. 중학교 때도 여자 중에서 제일 빨랐어요. 그럼 농구 보다 육상이 낫지 않을까하고 고민 했어요.

Q : 씨클은 “마리”짱의 영향도 있어요?

A : 그렇지는 않아요.

Q : 둘다 운동 신경 도 좋고 공통점이 많네요?

A : 네, 그래서 이야기 하기 편해요.

Q : 남자친구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 사귀적 있어요?

A : 네

Q : 이 중에는 없어요?

A : 네, 뻗 어요.

Q : 지금도 그 사람이랑 이야기 하거 나 해요?

A : 안해요. 헤어질 때 좀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Q : 친구 중에 남자인, “케이 스के”군이랑 “케이타”군은 친우예요?

A : 네

Q : 남자 친우랑 여자 친우는 느낌이 달라요?

A : 네, 조금 달라요. 여자애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남자애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마리”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서 좋지만, 좀 여러가지 말하면 섬세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애들에게 그

런 상담하는게 더 편해요,

Q : 어떤 상담이에요?

A : 친구 관계 라든지, 써클 고민도 들어주고, 고등학교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줘요.

Q : “마리” 짱의 경우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상처받거나 해요?

A : 네, 좀 그런 편이에요.

Q : 왜 남자애한테는 말하기 편할까요?

A : “마리”도 저도 그렇지만 남자애가 이야기 하기 편해요. 제가 중학교 때 여자애들은 금방 그룹이 돼서 ‘재, 남자랑 이야기 해’라고 말해요. 그런 거 귀찮으니깐, 그룹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보다 남자애들처럼 쿨한 편이 이야기 하기 쉬워요.

Q : “게이스케”군이랑 “케이타”군은 어떤 성격이에요?

A : 쿨하고 자기 주장이 꽤 강해요. 게다가 정말 이야기하기 쉽고 같이 놀러도 갈 수 있어요.

Q : 어떤 곳에 놀러가요?

A : 얼마 전에 볼링장에 갔어요. 오락실도 가요.

Q : 3명이서요?

A : 전에는 남자 애 3명에 여자는 저 혼자 놀러 갔어요.

Q : 그럼 남자애들도 I상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A : 물어봤더니 제가 부담이 없대요.

Q : “게이스케”군이랑 “케이타”군도 I양과 이야기 하기 편하다고 생각할까요?

A : 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Q : “마리”짱은 어떤 느낌의 친구예요?) 조금 소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에서는 꽤 대답해요. 밝고 항상 웃고 있어요.

Q : “야요이”짱은요?

A : “야요이”는 초등학교 때 부터 계속 같았고 써클도 같이 했고 농구에 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Q : “마리”짱이랑은 조금 다른 타입인가요?

A : 네, 조금 달라요. “야요이”가 좀 강한 편이에요.

Q : 고등학교 씨클 친우인 “도모미” Tomomi짱은요?

A : “도모미”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농구도 정말 잘해서 씨클 이야기도 같이 하고, 옆 반이라 자주 이야기 해요.

Q : 씨클에서 제 일 친해요?

A : 네, 항상 같이 다녀요.

Q : 반에 서 친한 친구는 어떤 느낌이에요?

A : 모두 밝고 화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없 을때 금방 알아채고 웃겨 주거나 해요.

Q :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있어요?

A : 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제 의견도 조금 강하게 되었죠.

Q : 친구들 중에 자기 의견이 강한 친구가 많아서 그걸 보고 그렇게 됐어요?

A : 아마 그런것 같아요.

Q : 특히 누구의 영향인 것 같아요?

A : “마리”나 “도모미”, “도모미”의 영향이 제일 강해요.

Q : 모두는 저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같은 느낌이에요?

A : 네, 예를 들면 별거 아니지만, 주스라도 ‘난 이거 마실래’라고 하면 ‘그럼 나도 이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난 저거’ 같이, 제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할까.

Q : 공부에서도 영향 받고 있어요?

A : 네, 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해요. 여기 같은 반 5명 중 제일 못한 사람이 모두에게 푸딩 사주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라이벌 의식을 높여서 열심히 공부해요. 푸딩은 절대 사고 싶지 않으니까.

Q : 뭐가 좋아하는 것도 영향을 받아요? 음악이나 취미 같은거 말이에요.

A : 모두가 좋아하는 장르가 조금 다르지만,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보여주고 하면서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Q : 예를 들면요?

- A : “에리”가 ‘RADWIN’나 ‘다킴프[일본 음악 그룹] 그런 노래를 듣고 있어서 좋은 노래라고 생각 했어요.
- Q : 거꾸로 자신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건요?
- A : 그런 건 없어요. 음...없네요.
- Q :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 A : 역할요?
- Q : 예를 들면 분위기를 띄운다던지 리더 역이라던지
- A : 글썄요. 중학교 써클 때 캡틴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리더같이 됐던 적은 있어요.
- Q : 캡틴이었어요?
- A : 네
- Q : 힘들었죠?
- A : 정말, 관두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했는데 선생님께서 야단 맞아야 되는지,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야단 맞아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꽤 많이 부딪혔어요.
- Q :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A : 캡틴은 너무 싫었지만 말은 이상 끝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는 열심히 했어요.
- Q :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 때의 역할은요?
- A : 글썄요. 따라가는 타입? 역할은 애들을 챙기는 거나 조금 놀리거나 하는 정도일까요.
- Q : 챙기는 것도 있어요?
- A : 도시락을 먹고 싶을 때, 먼저 말하거나, 이동식 수업할 때 같은 반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 말하거나요.
- Q : 먼저 말을 걸어요?
- A : 네
- Q : 그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인가요?
- A :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 Q : 전부터 그랬어요?
- A : 네

Q : 누군가 혼자 있으면 말 걸거나 해요?

A : 그건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자주

Q : 명랑한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A : 항상 웃는 얼굴이죠.

Q : 중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뭉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A : 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편해요. 모두 쿨해서 그런 일은 안해요.

Q : 하지만 아직 1학기 밖에 안 지났자나요, 아직 적응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가요?

A : 그렇지 않아요. 시끄러울 정도로 친해졌어요.

Q : 금방 친구가 생기는 편인가요?

A : 겉모습으로는 낮가림 없을 것 같이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낮가림이 심해서 하지만 모두가 먼저 말 걸어 줬으니까 친해졌어요. 금새 친해졌어요.

Q : 친구구나 하고 절실히 느낀 적 있어요?

A : 글썄요,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리”는 힘들 때 같이 있어 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니까 함께 있어서 다행이다, 친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체육대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그 때, 모두 응원해주고 제가 1등 했을 때, 모두 달려와 줬을 때, 기뻐요.

Q : 누가 달려와 줬어요?

A : 여기 밑줄 그어 놓은 친구들요. ‘대단해’라고 말해줘서 그게 너무 기뻐요.

Q : 반대로 화가 날 때 있어요?

A : 친구에게요? 글썄요. 눈치 없는 애라던지, 말하자면 KY[눈치없는 사람을 말하는 유행어] 같은... 남은 심각한 이야기 하는 중인데 눈치없이...

Q : 이 중에는 그런 친구 있어요?

A : 없어요.

Q : 사이 좋은 친구랑 싸움 할 때 있어요?

A : 있어요. 저는 “마리”랑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등교했는데, 너무 시

간 개념이 없어서 약속시간 10분 지나도 안오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잠깐 만났을 때 '미안'이라고 해서 '장난치냐?'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 기다린다고!'라고 화냈어요. 그리고 늦지 않게 됐어요.

Q : 꽤 확실히 말하는군요?

A : 네

Q :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A : 꽤 해요.

Q : 예를 들면요?

A : 저는 후배에게는 상하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타입인데, “야요이”가 씨클에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 몇명이 후배로서 들어와서 꽤 친하게 대해줘서 뭐, 그렇게 친해지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후배가 선배를 우습게 볼 수도 있으니까 상하관계는 확실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 했어요. 하지만 친구한테는 화 잘 못내는 편이에요. 친구가 약속시간에 심하게 늦게 오지 않는 이상은요.

Q : 시간 개념 없는 것을 싫어하는군요?

A : 네, 씨클 시험 때도 늦게 와서 모두가 기다린다고요. 저랑 “야요이”가 있었는데 늦게 오는 애들 기다린다고, 아무리 연습시험이지만 상대방에게 실례 라고 제가 이야기 해요. 시간은 용서 못해요.

Q : 친구들 성적은 신경쓰여요?

A : 쓰이죠.

Q : 친한 친구라서요?

A : 그런 것도 있고, 저 애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고 싶지 않다 거나, 항상 같이 있는 멤버 중에도 좀 지고 싶지 않은 애도 있어요.

Q : 누구예요?

A : “하나”에게는 지고 싶지 않아요.

Q : 왜요?

A : “하나”는 수업 중에도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지면 분하니까 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 “에리”라는 애도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Q :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 : 네, 결국 아직 푸딩은 못얻어 먹었지만요.

Q : 고등학교는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나요?

A : 위, 아래가 꽤 확실한 편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쁘고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고요.

Q : I상은 어때요?

A : 중간이에요.

Q : 올해는 어느 쪽이었어요?

A : 결과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결과로 판단해요. 반에서 몇 등, 그런거 있자나요. 그런 거를 보면 저는 반에서 5등이었어요. 이걸 좋은 편인가요?

Q : 좋은 편이네요

A : 그럼 상위권으로 해주세요.

Q : “하나”짱은 상위권이에요?

A : 중간정도예요. 단 한과목도 지고 싶지 않아요.

Q : 성적 겨루기 같은거 해요?

A : 네

Q : 보여주거나 해요?

A : 네, 그래서 ‘몇 등이네,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해요. ‘너 낙제 몇 개 있네’ 이렇게요.

Q :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A : 이 중에서는 “아스카”Asuka 라는 애가 머리가 좋아요. 대단해요. “아스카”는 반에서 1,2등 정도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 물어보기도 해요.

Q : 가르쳐줘요?

A : 네,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Q : 친우가 아니라도요?

A : 비교적 사이 좋은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가르쳐줘요.

Q : 라이벌 의식이 꽤 강하네요?

A : 네, 대학 수시입학 추천을 받고 싶어서요. 편하잖아요.

- Q : 실제로 관련 되는 건 고2 말이랑, 고1초죠?
- A :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가능한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 Q : 처음에 처지면 따라가기 힘들죠
- A : 네, 그래서
- Q : 그럼 1학년 때 부터 그런 분위기예요?
- A : 아니요. 아마 제가 너무 의 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수시전형 추천을 받고 싶어요.
- Q : 왜요?
- A :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죠?
- Q : 그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A :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추천서 받고 싶어서 대학도 한 단계 낮췄어요.
- Q : 들어갈 때요?
- A :네
- Q : 그럼 중학교 때부터 대학은 수시 전형으로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 A : 네, 사춘 언니가 수시전형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보였어요. 빨리 결정되니까 그 뒤는 편하 겠죠? 그래서 수시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 Q : 11월 쯤 결정 되니까 편할거라 생각해요?
- A : 네, 게다가 돈도 안들고요.
- Q : 돈 문제도 생각하고 있어요?
- A : 네
- Q : 중학교 때도 라이벌 의식은 있었어요?
- A : 네
- Q :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친구는요?
- A : “마리”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고, “야요이”도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경쟁상대라 지고 싶지 않고, 어쨌든 남자 애들한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 Q : 이겼어요?
- A : 네, 이겼어요.
- Q : 컴퓨터로 인터넷 해요?

A : 네, 우리집은 1명당 컴퓨터가1대 있어요.

Q : 아버지, 어머니도 가지고 계세요?

A : 네, 남동생도 가지고 있어요.

Q : 굉장한데요?

A : 아버지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사서 조립하고 있어요.

Q : 언제 부터요?

A : 저도 초등학교 때 부터 제 컴퓨터가 있었어요.

Q : 컴퓨터로 어떤 걸 해요?

A : 정보를 모으거나,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보거나, 또는 농구를 좋아하니 까 실업팀 홈페이지를 보고 언제 팬을 위한 특별 경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Q :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컴퓨터를 해요?

A : 잘 안해요.

Q :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친구 에게 가르켜주거나 해요?

A : 네

Q : “믹시”mixi는 하고 있어요?

A : 안해요. 하지만 지금 모두 “전략 프로필”[자기 소개 위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있어요.

Q : 그걸로 서로 방문하기도 해요?

A : 네, 그래서 고등 학교에 들어가기 전 봄 방학 때, S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 모두 찾아서 방명록에 ‘저도 S고등학교 입학해요,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썼어요. 그래서 같은 반이 되면 방명록에서 본 적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해요.

Q : 이 중에도 있어요?

A : 꽤 많아요. 거의 방명록 다 썼다고 할 수 있어요.

Q : 인터넷으로만 알고 지내는 친구 도 있어요?

A : 네, 있어요.

Q : 그 사람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A : 조금 다르죠. 뭔가 부족한 느낌...

- Q : 직접 만나기도 해요?
- A : 아뇨, 지방 애들이 꽤 많거든요.
- Q :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건가요?
- A : 그렇죠, 전 자니즈[유명한 아이돌 기획사 이름. 거기에 소속한 아이돌 팀들을 다 “자니즈”라고 부를 때가 있음]를 좋아하 는데, 그걸로 친해 지기도 해요.
- Q : 화제는 물론 자니즈예요?
- A : 네, 자니즈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요.
- Q : 컴퓨터로요?
- A :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에 “메루마가”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메 일 매거진] 있잖아요, 그 정보를 흘려 보내주는 열성 팬들이 메루마가 에서 팬가족을 모집하고 있어서 응모했더니 당첨됐어요.
- Q : 그런 아이들과 친구와는 감각적으로 달라요?
- A : 하지만 한번 굉장히 사이 좋아진 아이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 Q : 지금 그 아이와는 어때요?
- A :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 Q : 얼굴은 몰라도 본심은 말할 수 있어요?
- A : 편지도 주고 받거나 연하장을 보내거나 해요.
- Q : 어느 쪽에 살고 있어요?
- A : 지방이나, 도쿄에서도 먼 곳이나. 하지만 막상 만난다면 좀 무서우니 까, 하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복잡해요. 만나고 싶지만 좀 무서운 것 같은.
- Q : 정기적으로 문자를 하거나요?
- A : 아뇨, 뭘까, 그 아이들이 드라마에 나온 후에 끝나면 곧 메일하거나. 뉴스에 좀 나올 때에도 ‘뉴스에 나와’라고 조금씩 문자 해요.
- Q : 문자의 빈도는요?
- A : 많을 때는 하루에 100건 정도예요.
- Q : 컴퓨터요?
- A : 컴퓨터는 이제 사용 안 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안 가지고 있으

- 면 안되요. 많을 때가 100건이고 적을 때는 문자 안해요. 기분이죠.
- Q : 가장 자주 문자 하는 건 누구예요?
- A : “하나”나, “도모미”나, “자니즈”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 Q : 자니즈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 A : 네
- Q : 누구예요?
- A : “아야”짱
- Q : 이 안에 안 들어 가요?
- A : 음, 아직 친구가 된지 얼마 안돼서
- Q : 하지만 자니즈 이야기를 하는군요
- A : 네
- Q : 이 속의 “아야”짱이 아니예요?
- A : 네, 모두 이름이 겹쳐 버려서, “에리”라는 애가 반에 3명이나 있고
- Q : 어떻게 구별해요?
- A : 성으로 부른거나 “에리”라고 부르거나 별명을 붙이거나
- Q : 비교적 이름으로 부르는군요?
- A : 네, 모두 이름이에요.
- Q : 성으로 안부르는군요?
- A : 웃기려고 성으로 부르거나 해요.
- Q : 남자아이도요?
- A : 중학교 때는 거의 이름이에요. 고등학교는 아직 남자애랑 이야기를 안 해서
- Q : “준”군은요?
- A : 유치원 때 부터 같아서 그냥 “준”이라고
- Q : 문자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많아요?
- A : 가벼운 내용이에요. ‘놀 수 있어?’나, 숙제 내용도 많아요. ‘이거 맞아?’ 같은, 가벼운 이야기가 많네요.
- Q :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내기도 해요?
- A : 길에서 연예인을 보면 사진 찍어서 ‘봤어’ 하고 보내는 일은 있어요.
- Q : 친구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나

요?

A : 전혀 구별 안해요.

Q : 이모티콘은 자주 써요?

A : 네, 써요. 이모티콘이랑 그림이랑 섞어요.

Q : 옛날에는 변체문자라고 해서 가타카나랑 한자를 섞거나 했는데 그런 것도 해요?

A : 했었어요. 나를 작은 가타카나 ㄱ로 하고 작은 ㅛ를 붙여 나로 하거나 작은 글자 ㄱ에 점을 찍어 ㄱ로 하거나

Q : 지금은 안해요?

A : 안해요, 단, かな리는 가타카나로 하기도 해요. [일본어 문자에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가 같은 음이라도 그 모양이 다르지만, か, り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가 비슷하게 생겼음]

Q : 왜요?

A : 귀여우니까

Q : 상대에 따라 바꾸거나 해요?

A : 안해요.

Q : 이 아이는 사이가 좋으니까 이 모양 같은...

A : 그런건 없어요. 평균적이에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Q : 왜요?

A :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싫잖아요. 어렸을 때 부터 어머니께 자기가 당해서 싫은 일은 상대에게 해서는 안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해요. 나에게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문자면서, 왜 너는 귀엽니? 이런건...

Q : 아버지나 어머니는 I상의 친구 관계에 대해 뭐가 말하세요?

A : 상담 하면 말해 주지만 그렇게 까지는 말 안해요.

Q : '어떤 아이랑 사귀고 있나'같은?

A : 절대 말 안해요. 아, 하지만 조금 해요. 남자애 이름이 조금 나오면 '뭐? 사귀고 있어?' 라고, '사귀지 않아'라고 말해요.

Q : '이런 친구랑은 사귀지 않는게 좋아, 이런 친구랑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있어요?

A : 없어요.

Q : 이런 친구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A :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꽤 어머니 아버지께 말하기 때문에

Q : “마리”짱이나 “야요이”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A : 네, 하지만 얼굴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름만

Q : 비교적 말하는 편인가요?

A : 저는 꽤 말하는 편이에요. 부모님과 꽤 이야기해요.

Q : 아버지께도요?

A : 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해요. ‘오늘 씨클이 있었어’ 같은

Q : 왜 이야기해요?

A : 왜 일까요, 저에 관해 알아 줬으면 하고, 이야기 안하면 흥분하지 않
다고 할까, 부모자식이니까, 이야기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해서도 묻고, 내 이야기도 물었으면 좋겠고

Q : 그럼 어머니도 어머니 친구 이야기들요?

A : 네, ‘지금 잠깐 마시러 갔다 올테니까’ 라고, ‘좀 피곤하지만 갔다올께’
라던지

Q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는 사
람이 많은데도요?

A : 그렇게는 안되요. 가족끼리 이야기해요. 사이 좋아요.

Q : 아버지도요?

A : 이야기해요

Q : 어머니가 잘 알고 있어요?

A : 어머니가 이야기 하기 쉬워요, 아버지는 잘 만날수 없어서, 토,일이나
밤 정도라서 별로 이야기 할 수 없어요.

Q : I상이 적극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이야기 하는군요?

A : 네

Q : 어머니, 아버지도 물으시나요?

A : 네, 듣고 맞장구를 쳐 줘요.

Q : “게이타”군이나 “게이스케”군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A : 네, 알고 있어요

- Q : 중학교 친구 중에서 부모님끼리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 A : 있어요. “마리”의 어머니는 발레 때 만났고, “야요이”의 어머니도 씨클 때 꽤 만나거나 해서 “미나요”는 집이 굉장히 가까워서
- Q : 이웃 사람과 만남이 밀접한 지역인가요?
- A : 음, 어떨까요, 하지만 인사는 꽤 해요, ‘다녀와’라던지
- Q : 옛날부터 있던 동네인가요?
- A : 글썬요, 공사현장의 사람도 사이 좋아지고
- Q : 무슨 말이에요?
- A : 옆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집에 갈 때, 걷고 있으면 말 걸거나 해서 말하다 보면 사이 좋아지고 그런 식
- Q : 어머니나 아버지는 I상에게 어떤 친구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 A : 아마, 뭘까, 역시 깊고 좋게 아닐까요? 너무 넓어지면 이름뿐인 식이 되어 버리니까
- Q : 사이 좋은 친구와 깊게 친구가 되고 싶어요?
- A : 네
- Q :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 A : 아뇨, 어머니의 친구관계가 깊고 좁기 때문에 아마,
- Q : 아버지는요?
- A :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도 사이 좋은 친구가 몇명인가 하는 느낌이라 저에게도 아마 그렇게 친구를 많이 안 만들어도 되는 식의...
- Q : 학교 선생님은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요?
- A : 안해요. 친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지 않아요.
- Q : 저 아이와 이 아이는 사이가 좋았던가, 반에서 친구 관계는 파악하고 있어요?
- A : 그건 파악하고 있어요. 왠지 그룹은 꽤 있네 하는 이야기는 해요.
- Q : 선생님도 신경 쓰고 있을까요?
- A : 아마 신경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 Q : 고등학교에서요?
- A : 네, 보기 드물죠

- Q : 중학교 선생님은 많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각 교과에서 반이 나뉘니까
그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은 만날 기회가 잘 없죠?
- A : 네, 하지만 선생님은 제대로 보고 있어요.
- Q : 담임 선생님이 과목을 가르쳐요?
- A : 네, 영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줘요.
- Q : 그러면 이야기는 안해도 수업하는 도중에 저 아이와 이 아이는 사이가
좋구나 하고 꽤 알 수 있을까요?
- A : 그렇죠, 또 흐름 시간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덩어리가 생겨 있으
니까
- Q : 선생님은 뭉치지 말라고 이야기 하나요?
- A : 안해요. 그런 것은 말 안해요. 사이 좋으면 그걸로 괜찮다는 식의
- Q : 간섭하는 일은요?
- A : 별로, 가벼운 느낌이에요.
- Q : 중학교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 A : 중학교 때는 어느 쪽이나 하면, 반 여자 아이가 한 덩어리 같은 느낌
이어서 하지만 그렇게 선생님은 관여하거나 안했어요. 오히려 고등학
교 선생님이 제대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 Q :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 A :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제대로 지켜봐 주고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 Q : 지켜봐 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을 신경 써 주고 있다는 건가요?
- A : 네
- Q : 안심이라는 것은요?
- A : 지켜봐 주고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안심 된다고 할까... 모두 잘 지
켜봐주고 있구나 하는
- Q : 따돌림이 생기기 어렵다는?
- A : 그런건 바로 알 수 있자나요, 보고 있으면
- Q : 고등학교에서 이지메 [왕따나 집단 괴롭힘]는요?
- A : 없어요.
- Q : 씨클에서는요?
- A : 씨클에서는 조금 있어서 지금도 좀 서먹서먹하고 있지만 아마 괜찮다

고 생각해요.

Q : 이지메까지는 발전 안해요?

A : 이지메라고 하기 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따로따로 되어 버리니까...

Q : 중학교 때 따돌림 당했던 것이 지금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A :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잘 이야기를 못하거나, 곧 잘 입을 다물어요, 저.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말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줄까 라고 걱정되거나 해요

Q : 지금 고등학교 친구와도 가끔 걱정 되요?

A : 괜찮아요, 지금은 전혀

Q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A : 저는 전문학교에 가고 싶어요. 케익을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문학교에 가고 싶어요.

Q : 언제 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A : 중학교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때는 진로가 불분명 했지만,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음식 공부를 하고 싶다고

Q :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A : 아직 지금은 없어요.

Q : 누구랑 함께하자 그런건 아니군요?

A : 네, 그래서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두고 케익 집에서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Q : 계기는요?

A : 어머니가 케익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도 만들고 싶어졌어요.

Q : 파티세 전문학교요?

A : 네

Q : 구체적인 학교도 결정했어요?

A : 아직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전문 학교에는 가고싶어요.

Q : 케익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가장 큰 영향은 뭐예요?

A : 역시, 맛있는 케익을 먹을 때일까요, 근처에 맛있는 케익 집이 있어서 거기 케익을 먹었을 때 어쩔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Q : 수시전형이라고 했는데 전문학교 수시 인가요?

A : 네

Q : 전문학교는 2년요?

A : 네

Q : 뭔가 자격 있어요?

A : 네

Q : 그걸 따고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A : 제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 하고 싶어요.

Q : 전문학교 후에는요?

A : 경영을 공부하고 싶어요.

Q : 그런 이야기는 주변에 상담하고 있어요?

A :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야기 안했어요.

Q : 어머니 아버지께도요?

A : 말 안했어요.

Q : 선생님께도요?

A : 말 안했어요.

Q : 친구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A : 있어요.

Q : 누구예요?

A : “도모미”에게도 말했고, 알바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Q : 뭐라고 해요?

A :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만 두는 것은 좀 그렇다고

Q : 장래 이야기는 주변에서 해요?

A : 안해요

Q : 벌써 생각하는 것은 빠른 편이에요?

A : 네, 빨라요

Q : 그 이야기를 “도모미”짱에게 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될거야’라는 이야기는 안해요?

A : “도모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시지정 추천은 받고 싶다고, 하지만 수시지정추천 받기 힘들죠?

Q : 힘들죠, 학점이4.1[5점 중]이나 전문학교라도 3.7은 필요할걸요

A : 결석도 너무 하면 안되죠?

Q : 그래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개근이면 더 좋고

A : 안 될지도 몰라

Q : 초,중,고의 학교 분위기는 꽤 달라요?

A : 달라요

Q : 어떤 느낌이에요?

A : 초등학교는 좀 어둡다고 할까, 엉망이라고 할까, 중학교는 좀 밝지만 속과 겉이 굉장히 다른 식의, 고등학교는 밝고 즐거워요.

Q : 초등학교의 엉망이란 무슨 의미예요?

A : 초등학교 때는 굉장했어요. 선생님께 반항도 대단했고,

Q : 학급붕괴가 있었어요?

A : 그건 없었지만 선생님을 울리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울어버린 것 뿐이지만요.

Q : 친구사이 보다 선생님과 문제가 있었어요?

A : 선생님과 학생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친구끼리 때리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코피 내서 교장실에 불러 가기도. 초등학교 때가 가장 난폭했다고 생각해요.

Q : 전체적으로요?

A : 전체적으로 모두 반항적이었죠.

Q : 공립 초등학교는 사립 중학교 시험을 치고 싶어서 쉬는 경우가 있어, 공립 중학교에 가는 아이와 사립 중학교에 가는 아이 사이에 그룹이 생기는건요?

A : 그건 없었어요

Q : 선생님과 관계도 초,중,고 달라요?

A : 달라요. 초등학교 때가 가벼웠던 기분이 들어요. 중학교는 역시 조금

이야기 하거나는 했으니, 중학교 때는 선생님과 관계가 꽤 친했다고
생각해요.

Q : 왜요?

A : 재미있는 선생님 뿐이었으니까

Q :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A : 네, 선생님을 좀 놀리기도 하고

Q :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A : 네, 선생님이 좀 장난친다고 애들 엉덩이를 찾을 때 뭐야—하고

Q : 지금은요?

A : 고등학교요? 고등학교도 재미있는 선생님 보면 꽤 이야기 하거나 해
요.

Q : 중,고등학교는 선생님과 친해요?

A : 네. 고등학교는 만나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자나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선생님과 하지 않는 선생님의 차가 심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캐릭터
가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그런 선생님 한테는 저요. 캐릭터패배... 재
미있는 선생님이 많아 선생님과 함께 사진찍거나 하고.

Q : 그럼 선생님은 지금이 제일 좋아요?

A : 중학교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Q : 친구는 초,중,고 다른 느낌이 들어요?

A : 위로 올라갈 수록 관계가 깊어져요. 중 3 때가 가장 친구 관계가 깊었
어요. 마지막이니까, 뽀뽀히 흠뻑이니까. 고등학교도 친해요.

Q : 친하다는 의미는요?

A : 깊다. 한사람 한사람이 굉장히 깊은 느낌이 들어요.

Q : 어떤 느낌일까요?

A : 이야기 하거나, 놀거나 학교에서 있을 때 지내는 시간이 길어요. 반이
달라도 사이 좋은 친구가 있는 곳에 쉬는 시간에 놀러 가거나

Q :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은 없었군요?

A : 초등학교 때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초등학
교 때 가장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시시하지만, “퍼니본”[funny bone,
때리면 짜릿한 뼈]이라는 것이 유행 했어요.

Q : 뭐예요?

A : 여기를 부딪히면 징— 하죠? 거기를 일부러 꿀밤을 때려서 우유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스킵으로 달려가서 모두 퍼니본이라고 말하면서

Q : 그건 어떤 추억인가요?

A : 제가 당했으니까.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다른 사람 얼굴 볼 때 마다 웃어버려서

Q : 그건 따돌림이 아니고 재미있는 놀이군요?

A : 네. 초등학교 때는 밖에서 노는 일이 많았어요.

Q : 이 중에서 초등학교 친구도 있어요?

A : “야요이”랑 “아이”가 같아요.

Q : 둘은 초,중 친구네요?

A : 네

Q : 학교 성적은 초,중,고 어떤 느낌이에요?

A : 음, 하지만 역시 아래는 아니야. 위인가?

Q : 비교적 좋은 편인가요?

A : 네,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학교 때는 머리 좋은 애가 많아서 중간으로 해 두죠.

Q : 후리터나, 니트[졸업한 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A : 보고 있으면 싫어요. ‘일해!’이려고 싶은 느낌...

Q : 한심해요?

A : 한심해요, 역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편이 스스로도 스킵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만약 니트나 후리터가 된다면 싫어요. ‘억지로라도 일하게 해 주겠어’ 하는 마음이에요.

Q : 말해요?

A : 말해요

Q : 어느 친구에게도 말해요?

A : 말해요. 절대 니트는 하지말라고. 하지만 모두가 말하고 있어요. 장래에 니트가 되면 어찌냐고, 그럼 도와줘 라고.

Q : 편하겠다는 느낌은 안들어요?

A : 싫어요. 계속 집에 있는 것은 싫어요. 역시 일하면서 자신의 스킬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해요. 니트따위 싫어요.

IV. 미국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미국사례 #1

대상자 : 13세, 남, 모직업(몬테소리 학교 운영)

Q : 당신은 13세의 백인이며 라크로스과 풋볼을 좋아하고, 또 영화와 사진도 하죠. 맞나요?

A : 네.

Q :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과 잘 지내며, 부모님들이 당신에게 아주 지지적이에요. 또 당신의 어머니는 몬테소리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이기에 아주 엄격하시지만 사실 아버지가 더욱 엄격하시죠.

A : 네, 아버지는 정말 엄격하세요. 만약 엄마와 내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아버지는 당연히 엄마 편을 들죠. 제 생각엔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Q : 그리고 당신은 형제자매가 없고 사진과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삼촌과 친하며 한 달에 한 번은 그를 만난다고 했죠...자 그럼 당신의 친구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A : 네, 음, 제 생각에 아마도...사실 누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결정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학년 남자애들과는 거의 다 친해요, 음...

Q : 당신의 학년에는 모두 몇 명이 있죠?

A : 60명이요.

Q : 그렇군요, 꽤 많네요.

A : 음, 아마도 제가 제일 자주 어울리는 두 친구는 에릭과 제이일거예요. 또 체스와 세인, 마이클과 찰리와의 친해요.

Q : 친구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없나요?

A : 네...제 말은, 우린 자주 여자아이들과도 어울려요...음. 데본, 테일러, 커트니, 포터, 캐롤린 등이요.

Q : 서로 다들 친구가 된지는 얼마가 됐죠?

A : 음, 꽤요. 왜냐하면 전 여기서 1학년 때부터 살았거든요.

Q : 그러니까 당신은 태어나서 거의 이 곳에서...

A : 네, 우린 거의 태어나서부터 계속 친구인 거죠. 보통 시간이 지나고 하면 우정도 달라지지만, 최소한 저희들은 거의 평생 동안 알고 지내는 거예요.

Q :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친하죠?

A : 음, 그건 아마 우리가, 음...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죠. 내 동네 친구들 중 몇몇은 한 학년에 1000명 정도예요.

Q : 와, 엄청 많네요.

A : ...예, 우리랑 아주 달라요, 음, 우린 우리 학년에 60명 뿐이고 1학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개네들은 나에 대해 거의 모든걸 알아요. 내 옛날일 같은 거요.

Q : 그거 좋네요 - 제 생각엔 당신이 그런 친구들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좋겠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들을 하죠?

A : 음, 스포츠나, 으음,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다른 건, 사회 일들이나, 영화 같은 거요.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A : 네, 아마 제 생각엔, 만약 우리가 여자애들 좋아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남자애들끼리만 이야기하고요, 아마 여자애들에겐 좀 더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Q : 실제로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재미있네요.

A : 제가 느끼기엔, 남자애들을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전 여자애들과도 정말 좋은 친구이고 그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그저...우린 언제나 남자애들이 어떤지 알고요...우리 남자애들은 서로 말다툼하고 그래도 다시 2초 안에 친한 친구가 돼요. 근데 여자애들은, 제 말은, 개네들은 그게 한 동안은 가고 어떨 때는 제가 개네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애들을 보면 개네들은 남자애들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훨씬 못됐어요. 남자애들은 서로 욱도 하고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끔 때린다던가 그러기도 하는데요, 다음날엔 그냥 다 괜찮아져요. 여자애들은 계속 그러고

또...

Q : 제가 학교에 있을 때와 같군요 (웃음) -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당신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그룹이 있나요?

A : 네 - 제 생각에 아마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에릭, 채스, 그리고 제 이에요.

Q : 당신의 부모님들이 당신의 친구들을 아나요?

A : 네...음, 사실, 제 부모님들은 제 친구 거의 모두를 알아요. 제 말은, 자주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러 가거나, 여자애들과도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여자애들과 남자애들 사이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부모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5학년 때는요, 우리가 더 어렸을 땐 만약 우리가 어디서 서로 만나기로 하면 부모님 중 한 명이 꼭 보호자로 같이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주 했어요. 보호자 역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거의 다 좋아해요.

Q : 당신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아직 이야기 안 했네요.

A : 아버지는, 음, Strategic Diagnostics 사 인사부장이예요.

Q : 아...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A : 뭐 그냥 과학 회사예요.

Q : 부모님들이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A : 네, 부모님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부모님은 특히 제 친구 들을 좋아하시는데, 또 둘 정도는 부모님이 싫어하세요.

Q : 왜 싫어하죠?

A : 제 생각에,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하나는요, 옛날에 우리끼리 좀 문제가 있었는데 걔 계속, 좀 가끔, 뭐랄까 약간 바보처럼 굴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됐고요. 걔는 심지어 평소에도 좀 그렇게 행동한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Q : 당신은 친구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A : 음, 조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혼자 있거나 그럴 땐 친구들과 있을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더...친구들과 있을 때 좀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전 좀 더...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혼자 있을 때 좀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마치...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전 마치...전 제 친구들보다 훨씬 어리지만 - 이제 13살이 되었는데, 친구들은 곧 14살이고요. 제 말은...좀 이상하긴 한데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친구들보다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에 있을 땐...뭐랄까 아직 좀 어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Q : 재미있네요. 당신은 당신이 친구들을 만난 이후로 변했다고 생각하나요?

A : 음, 네, 아주 많아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랬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제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요. 제 말은, 전 평생 동안 축구를 했었는데...그러니까, 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제 말은 전 줄곧 수퍼 히어로나 만화 같았는데 최근엔, 지난 2년 동안, 전 그냥, 친구들 때문도 아닌 것 같고...제 생각에 내 친구들과는 그냥 친해졌다 마는 것 같고...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 말은, 전 지금 축구보다 미식 축구를 훨씬 더 좋아해요. 지금처럼 뭐 그런 일들에 쫓겨있고 이건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Q : 기술에 관해 좀 이야기해보죠. 컴퓨터를 처음 사용했을 때가 몇 살이었죠? 어렸었나요?

A : 음, 아마 6살쯤이요?

Q : 꽤 어렸을 때이군요.

A : 전 아직도 제가 첫 컴퓨터를 가졌을 때를 기억해요...마치 뭐랄까, 음...익숙하니까 기억하는데...'세가 제네시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Q : 그게 뭐죠?

A : 세가 제네시스가 이름인데요, 그걸 언제 갖게 되었냐면...

Q : 그게 게임인가요?

A : 예, 비디오 게임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갖고 놀던 건데 제 생각에 부모

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그런 것들에서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플레이 스테이션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걸 갖고 놀았지만 뭐 괜찮았어요. 좋아했죠, 음, 그리고 6살 때쯤인가, 그건 인터넷이나 어디에 연결되는 건 아니었고 그냥...제가 타이핑 게임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나고 전략 게임 몇 개랑 부모님이 플레이하던 것도 있었어요.

Q : 지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나요?

A : 네.

Q : 어떤 데에 쓰죠?

A : 음, 말한 것처럼, 모든 곳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인간관계 자리에 가듯이요. 전 영화나 사진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요...근데 제 메신저는, 사실 전 제 방이 없어 밖에 자주 돌아다니니까 생일에 부모님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전 제 방에 있는 컴퓨터가 익숙하고 언제나 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줄곧 메신저를 열어두는 게 익숙한데, 하지만 사실 전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음, 뭐 어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같은 게 두어 개 있어요. 이걸 뭐랄까, 그러니까...

Q : 온라인 채팅방이나 FaceBook 또는 MySpace같은 것을 사용하나요?

A : MySpace가 있었는데요, 음, MySpace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싫어해서 닫았어요. 음, 괜찮아요, 그 땐 조금 화가 났었지만.....

Q : 부모님들이 왜 닫게 했죠?

A : 제 생각에...Dateline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거기에 온라인 범죄자 같은 게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MySpace에서...모르겠어요...내가 본 것 중에, 몇 가지는...제 생각에 부모님이 제가 그걸 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킨토시 노트북이 있는데, Mac 사이트가 있고 URL이라는 특정한 것만 있으면 웹에서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더...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 웹사이트를 보기를 원치 않아요.

Q : 인터넷으로 친구를 만든 적이 있나요?

A : 아뇨, 왜냐면 제가 MySpace를 갖고 있을 때에도 별로...제가 다른 사람들을 찾았던 유일한 때가 기억나는데, 음, 축구나 뭐 그런 데서 만난 사람들 중, 원래 알고 있진 않았는데 어디서 본 사람들을 그냥 "친구 목록"에 추가시켜요. 그것 말고는, 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Q :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든 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A : 네.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보기에 꽤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

A : 예, 예, 사실 전 좀...글쎄요, 그런 여러 친구들을 봤는데, 좀 이상하긴 한데, 남자애들이 그런 것 하는 건 못 봤어요. 남자애들은 거의...내 친구들 중 남자애들은 거의 MySpace를 하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해요. 하지만, 음, 여자애들은 되고 많이 하고 어떤 애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Q : 왜 그럴까요...그것 아주 재미있네요.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A : 제 생각에 남자애들은...몇몇 애들을 아는데...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더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사실, 글쎄요, 사실...그건...어쩌면 그냥 우리 학교의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만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경우는 반대 같아요. 제 말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좋아하는 것보다 우린 더 여자애들은 좋아하고요...제 말은 우리들 중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우리 남자애들 중 누구도 학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대신 놀러 다니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여자애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애들 만큼은 아니에요.

Q :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정말 재미있네요. 인터넷의 메신저거나 MySpace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A : 별로요. 5학년 때...실은 6학년 때, 작년에,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애였거든요...근데 그 애가 이메일로 정말 지저분한 내용을 써서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열었죠.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메일이랑 메신저에 대한 연 회의에 대해 알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모든 부모님들이 통지를 받았어요...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누구였는지 몰랐지만요. 그게 우리가 겪은 일의 다예요. 그것 말고는 없고요.

Q : 다른 일은 없었다고요...매일 얼마나 많이 컴퓨터를 쓰죠?

A : 음, 아마도...아마 전 다른 애들보다...아마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짧을 것 같은데, 아마 매일 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걸 뭐랄까 제가 iTunes 같은 걸로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아, 부모님들이 제가 되게 많은 (인터넷) 쇼들을 보게 해주셔서, 거의 제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24개 정도인가 있는데 그리고 메신저를 갖게 되었는데 별로 체크는 안 했고요.

Q : 부모님이 컴퓨터를 못 쓰게 하신 적도 있나요?

A : 예, 자주요.

Q : 컴퓨터를 못 쓰게 한 이유가 뭐였죠?

A : 학교 일 때문이에요.

Q :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건가요? 언제죠?

A : 글썄요, 별로 점수가 안 좋아서인 것 같지는 않아요 - 이걸 뭐랄까, 음, 집에 통신문이 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 - 숙제가 늦은 게 3개가 되면 부모님들은 바로 컴퓨터를 가져가버려요. 점수가 아니라...

Q : 그런 것에 화가 나나요?

A : 예, 이걸 마치...물론 화가 나죠, 하지만, 결국엔 이해해요.

Q : 착하군요! 핸드폰은 갖고 있나요?

A : 네.

Q : 사용하나요?

A : 음, 네 하지만 많이 안 써요...전 좀...전 다른 친구들과 달리...전 할 말이 있을 때만 핸드폰을 쓰는데...숙제가 있거나 "주말에 뭐 할꺼니?" 같은 대화를 더 많아하고요, 사실 전...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제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볼 때나요.

Q : 문자를 보내봤나요?

A : 아, 가끔 보내요 - 꼭 보내야 할 때에만요, 음...부모님이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데, 그래도 숙제나 어디서 만날 것인지 확인한다거나 뭐 그런 일에 쓰죠.

Q : 문자나 메신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A : 음, 문자 보내는 것에 비해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자와 메신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안녕? 별 일 없니?”, “별로, 그냥 놀아”, “넌?” 그리고 계속되고요 (웃음), 이게 보통 메신저의 대화고요, 가끔 더 가까우면 이런 식은 아니지만 음,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좀 더 불편해요 - 만약 제가 메신저로 여자애들에게 이야기하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대화 같죠. 제 생각에 - 잘 모르겠지만 - 좀 다른 것 같아요.

Q : 네 - 만약 좋아하는 여자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나 문자 또는...

A : 아마 그냥 메신저에서 말할 것 같아요. 그 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죠...음, 네, 왜냐하면 전화는...(조사 대상에게 전화가 음) 죄송해요, 할아버지예요...

Q : 벨소리 한 번 특이하네요!

A : 네 - 할아버지가 절 곧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음, 네 이건, 음, 이건, 아, 전화로는 달라요. 제 생각에 제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음, 제 생각에 진짜로 좋아하거나 또는 “사귀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전화를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구라거나 그 여자애를 저 혼자 좋아하거나 하면 그냥 메신저 같은데서 계속 기다릴거예요.

Q : 만약 당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신저로 그걸 알아챌 수 있나요?

A : 음, 사실 이건 좀 달라요 - 좀 이상하죠 - 메신저 같은 건 남자애들도 많이 쓰는데,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서 둘이 메신저

에서 만난다면, 걀 그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애가 낮 동안에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반대로 오후에는 종일 메신저 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죠 -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Q : 그것 정말 이상하네요 - 당신은 알아챌 수 있나요?

A : 저도 잘 모를걸요.

Q : 당신은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A : 잘 모르겠어요 -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만약 제가 좋아하면...모르겠어요...전 항상 누가 절 좋아하고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보통 메신저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Q : 그것 재미있네요. 음, 제 마지막 질문은...당신은 누구와 가장 가깝나요? -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구들?

A : (잠시 멈춤) 글썽요...음, 다 다른 것 같은데, 음,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마도 친구들이지만요, 만약 제가 뭐를 갖고 싶다거나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아마도 부모님일 거예요.

Q :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모든 주제를 커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A : 거의 다 하셨네요.

Q : 그래요? 예? 아주 고마워요, 팻.

미국사례 #2

대상자 : 13세, 여, 7학년

Q : 어떤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에 속해 있나요?

A : 아뇨, 거의, 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인종끼리 놀아요...다른 사람들처럼 백인이고요, 제 주위의 사람들처럼요.

Q : 당신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무얼 좋아하세요?

A : 음, 운동을 좋아하고요 - 제일 좋아하는 건 농구예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우리 가족은 자마이카 인인데 음, 보통 집에 가면, 제 행동이나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고요, 가족들을 위해 자마이카 말을 쓰고요.

Q : 흥미롭군요!

A : 그리고 학교에 가면, 모두 다시 바뀌어요. 음...

Q : 그게 어렵나요?

A : 어렵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엄마랑 살아왔고, 엄만 아주 많은 자마이카 단어들을 가르쳐 줬거든요, 음,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전화 통화나 MySpace 하는 걸 좋아하고, 또 IM도 해요.

Q : 그런 것에 대해 좀 있다가 더 이야기하죠. 음,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A : 엄마는, 아, 정말 좋은 분이세요. 가끔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용기를 주시죠. 아빠는, 아주 좋으세요 - 제가 어떤 것들을 겪는지 잘 이해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아빠는 3년 동안 선생님이었던데요, 아, 아빠 내게 계속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냐면 자신감을 갖는 게 아빨 매일 밀어나가는 힘이거든요.

Q : 그것 정말 괜찮은데요. 음, 부모님들은 서로 결혼하셨나요?

A : 그 분들은...지금은 별거 중이세요, 왜냐면, 음, 아주 오래 전에 싸운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그건 아주...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주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게...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는 함께 지내시다가 제가 태어난 직후 헤어지셨어요. 오빠는부모님이 함께 지낼 때 같이 살았었죠.

Q : 어머니와 함께 지내나요?

A : 네.

Q :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보나요?

A : 매 수요일과 매 주말이에요; 뭐 괜찮죠...엄마와 아빠를 보는 건...

Q : 무슨 말이죠?

A : 계속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게 되는 것ियो. 나쁘지 않아요.

Q :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나요?

A : 별로요. 뭐랄까, 아빤...날 어디로 데려가거나 “좋아, 이제 엄마 집으로 갈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크게 상관 안 해요. 괜찮아요.

Q : 어느 쪽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A : 제 생각에 아버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담도 서로 많이 하고 가끔은, 아, 심지어 아빤 60대이지만 내가 마치 아버지를 20대로 되돌려 놓는 것 같대요 - 얼마나 재밌어 지는데요, 그리고 우린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 그냥 웃고 음, 농구도 도와줘요 - 기술 같은 것들이요 - 숙제도 도와주시고, 그것도 참 좋고요, 그냥 아빠와 난 서로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Q : 그것 좋군요. 혹시 아빠나 엄마와는 말 하는데 다른 한 분과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A : 엄마에게 좀 더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많ियो. 음, 엄만 좀 더 잘 이해해주시는데, 왜냐면 여자들이 겪는 것들이 있고, 또 전 그게 좋아요. 하지만 음, 아빠에겐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대신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에게 개인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Q : 부모님이 당신에게 지지적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아, 예 - 아주 많ियो, 왜냐하면, 음, 두 분이 같이 지내지 않으신다고

해도, 두 분은 제가 필요한 자신감을 주시고…언제나 제가 하려는 것들에 100퍼센트 좋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Q : 형제자매가 있나요?

A : 네,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어요 - 조나단이에요, 그리고, 음, 우린 아마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남매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매들이 잘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어디나 같이 다녀요.

Q : 오빠가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나요, 적나요?

A : 많아요 - 오빠 15살이고 7월에 16살이 돼요…그리고, 음, 우린 그냥 이야기하고 웃어요. 그리고 가끔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는 데도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면 엄만 좀 자라고 하죠. 그래도 바로 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린 그냥 앉아서 그 날 일어난 일들이나 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거든요 - 우리의 바보 같은 꿈 이야기나 뭐 그런 거요, 꽤 괜찮아요.

Q : 아주 좋네요. 음, 오빠와 함께 하는 것들이 있나요?

A : 음, 오빠와 같이 운동도 해요. 가끔, 아, 내가 농구할 때 오빠가 나를 놀려요. 그리고 같이 크게 웃죠. 그리고, 아, 오빠는 숙제도 도와주는 데, 왜냐하면 오빠는 이 학교를 다녔었고 제 선생님들에게 배웠거든요 - 담임 선생님이요 - 그래서…

Q : 오빠도 이 학교를 다니나요?

A : 네. 그래서 오빠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지 알고, 음, 어떤 숙제가 있을지도 알아요. 오빠는 “그래, 이게 네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네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이고, 그래서 순서를 매겨서…”하며, 그런 것들에 도움을 줘요.

Q : 당신이 친한 다른 가족들이 있나요?

A : 할머니와 사촌이랑 친해요. 할머니는…자마이카 말을 하면, 그냥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100퍼센트 자마이카 사람이고 그냥 듣기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마이카 농담 같은 것들을 해요. 제 사촌 에이킨은 정말 웃긴데 언제나 절 웃게 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은 거의 울 정도로 웃기죠. 음, 떨어져 지낼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갑자기 변할 거예요 - 제 모든 행동들이요 - 제가 사는 방식, 제가 일하는 방식 모두요...

Q : 모두 당신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지내나요?

A : 네.

Q : 얼마나 자주 그들을 보나요?

A : 사실 거의 매일 봐요.

Q : 와우, 정말 좋군요 - 그것 정말 괜찮네요 -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군요...

A : 전 아주 사촌들이 많아요 - 미들타운에 많이 살고, 일부는 플로리다에 있고, 여럿은 또 런던과 쿠바에 있어요.

Q : 이곳 어디에 살죠?

A : 전 윌밍턴의...39가에 살아요.

Q : 아, 좋아요, 이제 당신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제 친구들도, 제게 아주 지지적이에요. 만약 제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끔 엄마나 아빠 또는 오빠에게 갈 수 없으면, 그들에게 말해요, 자주요. 5명에서 함께 화장실에 가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하고, 우리 느낌을 말하고, 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나 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지지적이고...

Q : 실례지만, 친한 친구 그룹이 있나요?

A : 기본적으로 친한 친구 그룹이에요. 마치 가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친구들은 누구나 그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래,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앉아서 "그래, 이게 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네가 상황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야"라고 하죠. 내 생일 땐 친구들이 제 락커를 장식해줬어요. 벽지로 만들었는데 정말...진짜 웃겼는데, 음, 정말 천국 같은 기분이었죠...

Q : 몇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나요?

A : 잘 모르겠어요 7학년에 아주 많고, 8학년과 9학년에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친구들이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Q :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나요?

A :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도 테일러와 니, 그 둘일 거예요. 나는 흑인이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서 가끔 웃긴 농담도 해요. 테일러도 좋은 친구예요. 그녀는 마치, 절대 누구에게도 화를 내 본 적이 없고 그녀가 제 친구일 수 있는 게 좋아요.

Q : 그것 정말 멋지군요. 남자인 친구들도 있나요?

A : 예, 아, 개 이름이, 아, 세인과 브렛이요 - 둘 다 정말 재밌어요. 브렛은 “오, 헤이, 베스트 프렌드”하면서 제 뒤에서 저를 놀래키는데 정말 웃겨요. 세인은 그냥 제가 무얼 하든지 웃어요 - 가끔 유머러스 해지는데 걀 저에 대해 웃고 전 개 농담들에 웃고 그래요.

Q : 친구가 된지는 얼마나 됐죠?

A : 글썄요, 세인과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고요, 니와는 5학년 때부터요. 테일러는 올 해부터, 브렛은 아마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요.

Q : 오, 꽤 오래네요 - 그것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음, 무엇 때문에 서로 친해진 것 같죠?

A : 음, 아마 우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요, 음, 서로의 농담에 웃어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식들이요. 제 생각에 그게 우릴 많이 친하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을 땐, 그 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 두 베스트 프렌드요. 아니면, 음, 다른 두 친구들, 남자애들, 개네들은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요. 개네들은 말도 잘하고, “내 생각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네가 하려는 그것 대신 이렇게 해야 해”라며 뭐가 옳고 그른지 이야기해줘요.

Q : 음, 당신과 친구들은 어떤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A : 음, 가끔 우린 우리가 본 것, 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좋아하고서부터 개네들은 “MySpace의 이 여자애가 좋아”라거나 “저 여자애와 이야기했었어” 같은 것, 아니면 댄스파티의 여자애들에 관해서요. 그리고 전 “너 그 여자애 번호를 물어봐야겠는걸”하고 말하고요...우린 그냥...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음, 뭐 그런, 글썄요, 여자애들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꼬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 거의...그리고 우린 그냥 농담하

거나 “오, 그 여자애가 정말로…”, “저 남자 누구처럼 옷을 입었네”하면서, 웃고 그러죠.

Q : 음, 다른 친구들도 있나요?

A : 네, 하지만…8학년과 7학년에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들 중 대부분은 8학년이고요, 개비처럼요 - 그 앤 키가 크고 정말 재미있고, 음, 항상 절 웃게 해요. 제가 그 앨 볼 때마다 웃는데요, 왜냐하면 개가 절 가끔 웃기려는 것을 알거든요. 7학년에는, 친구들이 있는데, 마치 우린 하나의 그룹인데, 다들 서로 친해요 - 포터, 커트니, 캐롤린, 데본 - 모두요 - 그리고, 음, 전 제 친구 중 하나인 포터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해주거든요…그 애가 무슨 말을 하든 제 진짜 엄마도 그렇게 말해서 전 개를 엄마라고 부르고 그럼 그 앤 웃어요.

Q : 그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얻죠?

A : 어떤 남자애가 절 좋아하지 않거나 제가 해야 할 것들이나 제가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그 애가 절 좋아하지 않거나, 음, 집에 문제가 있거나 집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거나 하면 그 애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분명히, 올바른 결정으로 도와줘요.

Q : 그것 정말 멋지군요. 음, 학교 밖의 친구들도 있나요?

A : 학교 외에는 그리 많은 친구들이 없어요. 음, 대부분은…왜냐하면 대부분은 저보다 높은 학년이고요 전 아니고…전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의 수준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Q : 부모님들은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A : 네. 아빤 제 친구 데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애는 체육을 잘하고 협조적이며 언제나 저와 교류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빤 그 애에게 농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Q : 음,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A : 아뇨, 별로요…개네들은…가끔, “오, 음, 아마 넌 이 음악이 백인들만을 위한 거라 좋아하지 않을거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그렇지 않

거든요...음악 같은 건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고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 (피부색은) 별로 상관안돼요. 사실 그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하지만 친구들도
자주는 안 그래요.

Q : 당신은 친구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나요?

A : 아,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친구들과 지내지 않으려 했는데, 소외된
것 같고, 하지만 올 해엔 거의 날개를 펼친 나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
고 누구하고나 교류를 하고 어떤 문제라도 이야기를 해요.

Q :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 :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에 외로운 오리처럼 앉아있는 것에 지친 후부
터 더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그냥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절 이해
해주고 제가 겪는 것들을 알아주길 바라지는 않거든요.

Q : 음, 처음 컴퓨터를 썼을 때를 이야기해 줄래요?

A : 음, 글썄요, 처음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을 때, 매킨토시나 하드 드라이
브 같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음, 익숙해지고 연습을 더 하게 되면서, 이 모
든 것들이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그냥 빨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컴퓨터를 고치거나 엄마가 프린트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젠 꽤 쉬워요.

Q : 컴퓨터를 하는 게 좋나요?

A : 네, 자주 컴퓨터를 써요.

Q : 컴퓨터를 하는 것이 왜 좋죠?

A : 기본적으로, 음, 이걸 저만의 공간이에요. 만약 밤이 깊었는데 제가 친
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컴퓨터를 켜고는 MySpace나 IM에 들어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
터는 저만의 세상이라 해요. 그냥 작은 모니터이지만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Q : 학교 일을 하는 것 이외에, 컴퓨터로 무엇을 하나요? MySpace나 IM을
사용한다고 했죠? 아무도 이메일을 사용하지는 않나요?

A : 예, 안 써요.

Q : 전 아주 고대 사람이군요! (웃음)

A : 전 MySpace나 IM에 들어가길 좋아하고, 음, 다른 건 거의 안 해요.
iTunes 같은 것으로 iPod을 쓰고요, 그것 외에는 IM과 MySpace만을
해요.

Q : 그러니까 다른 채팅 서비스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A : 예, 안 해요.

Q : 그런데, 왜 아무도 이메일을 쓰지 않죠?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나요?

A : 아뇨...제가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질문이나 어떻게
이 점수를 고치는지, 어떻게 성적을 더 좋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볼
때인데요, 그럼 선생님들은 회신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알
려줘요. 전 이메일을 선생님들에게 보낼 때만 써요. 그 외에는 보내지
않고요.

Q : 전 정말 왜인지 궁금하네요.

A : 글썄요, 아마 이메일은 회답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IM은
바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이메일보다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어
요.

Q : 그것 참 재미있네요. 인터넷으로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나요?

A : 전, 음, MySpace하는 동안에, 39명 정도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100명 정도가 더 생겼어요.

Q : 백 명이요?

A : ...예 - 그리고, 아,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그들을 지
우고 싶지만, 또 다른 때에는, 그들이 제 사촌 같고 친구 같고 사촌의
친구들 같고 친구의 친구들 같아서, 그래서 이유는, 음, 제 친구나 사
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마 반에서 1/3 정도는 제가 모르
는 사람일 거예요.

Q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 목록에 있죠?

A : 음, 23명 정도요.

Q : 그렇군요.

A : IM에는, 23명 정도고요, MySpace에는 139명 정도요.

Q : 23명이 IM에, 139명이 MySpace에...그럼 이 관계들이 당신의 실제 친구들의 관계와 다른가요?

A :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학교에 있으면, 가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IM이나 MySpace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느껴야 하거나 어떻게 지낸다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게 그저 컴퓨터 한 대 앞에서 하는 거고 때문에 아무도 진짜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Q :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할 때, 당신 말의 의미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A : 아무도요, 누군가 내 컴퓨터를 보지 않는 한이요. 마치 당신만의 종이 가 있고 MySpace 할 때, 마치 당신만의 개인적인 MySpace처럼, 누군가 당신의 컴퓨터를 직접 보고 볼 수 있지만, 그들 없이는,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 중 어느 것도 보지 못해요. 당신의 것들 어느 것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코멘트는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페이지에 있기 때문이죠.

Q :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컴퓨터에게 적나요?

A : 별로요...학교에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해온 것들을 말하고 MySpace에는 사람들이 한 것들, 그래서 어떨 땐 다르긴 한데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마치, 음, 몇 주 전에, 어떤 내 친구가 어떤 남자애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개가 그 애를 좋아했어요. 음, 저도 그 애 좋아했구요. 전 좀 화가 나서 제가 그 여자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실제로 말할 수 없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음, 정말로 그 여자애가 들었다면 아마 그 애 기분을 나쁘게 할 거고 전 누구도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Q : 당신은 당신 컴퓨터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걱정하지는 않나요?

A : 아뇨, 왜냐하면 전 제 친구들을 정말 믿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 그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왜냐하면 제가 말해준 비밀들이 많고 그 애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

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전 그 애들을 믿을 수 있어요. 만약 그 애들이 제 깊은 비밀을 말한다면, 우리의 신뢰는 끝날 거고 전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Q :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는 사람들인가요?

A : 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예요.

Q :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고요.

A : 그리고, 음, 네, 그들은 비밀을 보장할거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Q : 개인적인 일들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컴퓨터에 더 많이 쓰나요?

A : 제 생각에 전 개인적인 일들을 컴퓨터에 더 많이 적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가끔 전 컴퓨터에 적는 것보다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긴장되거나 무섭거든요. 마치, 음, 다른 인종에 관해서나 인종적인 것들을 말하려면 보통 컴퓨터에 적는데, 왜냐하면 직접 “오, 이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낫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사람 앞에서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럼 정말 문제가 생길 거고 누군가는 진짜 화가 날 거예요.

Q : 당신이 민감한 주제들을 컴퓨터에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네요. 네, 정말 흥미로워요. 음, 당신은 마치 온라인에서 남자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온라인 이성 관계가 있나요?

A : 전 남자아이들과는 말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진 않아요...키스 한다거나 하는 것들어요. 이름이 뭐냐고 묻겠지만 전 어떤 개인 정보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지 물어보고 개네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 당신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린 서로 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전 당신을 지울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얼 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전 그들이 어디로 가나 그리고 저에게 무얼 하려는지 알려고 과시하거나 하진 않아요.

Q :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아는 남자애들과만 교류한다는 것이죠 -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인가요?

A : 네.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온라인에서 말하는 게 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A : 제 생각에 온라인으로 말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을 직접 대하면...만약 그냥 가버리려고 하면 그들은 아마 잡을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돌아와”라고 말하거나 소리를 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저 쉽게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에게 버튼 하나만 누르던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말하는 것이 더 쉬워요.

Q : 만약 온라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나요?

A : 네...왜냐하면, 음, 그들이 내게 더 많이 말을 걸 것이고, 만약 접속하면 바로 그들이 내게 말을 걸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메시지와 코멘트를 보낼 것이고 스마일 모양 얼굴 같은 걸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건...“아, 이 남자애는 나를 좋아하는구나”하는데 만약 남자애가 정말로 괜찮으면 그 사람과 더욱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끔 그 남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당신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저 성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Q : 그것 흥미롭네요. 음, 그러면 당신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직접 대면했을 때 도움이 되나요?

A : 실제로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음, 내 사춘 친구 중 하나는,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샘인데, 그 앤 내 친구가 되었고, “내 이름은 샘이야”라고 말했었고 전 “안녕?”이라고 말했거든요. 걀 “알지? 난 네 사춘의 친구야”라고 말했고 전 “그래”라고 했어요. 그 앤 “넌 정말 예쁜 것 같다”라고 했고 전 “고마워”라고 했죠. 그 앤 “심심하면 뭐 하니?”라고 했고 전 제가 심심하면 하는 것들을 말했고 우린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국 그 애를 만났을 땐 그 앤 정말 괜찮은 애였어요. 스케이트보드를 저와 같이 탔고, 음, 제게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 줬고, 또 농담도 하고요, 뭐 그냥 노는 것들요. 그러니까 그 애가 괜찮은 애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알았어요.

Q : 그러니까 당신은 관계를 온라인에서 맺고 이후에 실제로 알게 된 건가요?

A : 네.

Q : 아주 좋네요. 음, 당신은 인터넷에서 만났던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나요?

A : 음, 잘 모르겠어요...여름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음, 그 남자애는 내 모든 정보를 알기를 원했고 전 “이건 말해 줄게” 그랬는데, 그 앤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날 공원에서 진짜로 그 애를 봤고 그 앤 제게 다가오려 했어요. 그리고 그 앤 “나 너 알아”라고 했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전 싫다고 했어요. 그 앤 왜 싫냐고 물었고 전 왜냐하면 넌 무례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 앤 알았다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Q : 인터넷에서 친구들이 누구를 놀리거나 괴롭힌 일들이 있었나요?

A : 아뇨, 왜냐하면, 아, 걔네들은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실제로 절 협박하거나 제게 무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 제가 말하기 싫다면 걔네들은 알았다고 하고 잘 가라고 하죠. 그럼 전 그저 가버려요.

Q : 그런 일이 다른 여자 아이들과도 일어난 적이 있나요?

A : 전...사실, 여자아이들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두어 번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자기들과 이야기 하자거나 제가 주소를 주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서, 전 무서워서 그 사람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다른 여자 아이들에게 일어나면, 제 말은 제게 단지 한 번만 일어난 거라...

Q : 아뇨, 제 말은, 여자 아이들 사이에 그런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이 있었나요?

A : 없는 것 같아요...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 그런 일 하지 않고, 때문에 다른 여자애들이 그러는지 잘 몰라요.

Q :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인터넷을 하시나요?

A : 음, 제가 집에 도착하면, 숙제를 빨리 하면 오후 5시쯤이고 그 때 인터넷을 해요. 약 4시간 반이요. (웃음) 대부분 IM과 MySpace를 해요. 그

리고 다른 때에는, 보통 10퍼센트 정도는 iTunes 같은 것을 하는데 때문에 제 주말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예요. 하지만 온종일 컴퓨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밖에 나가 놀기도 하지만, 주말 중 최소한 14시간은 컴퓨터를 하는 것 같아요.

Q : 14 시간이에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요?

A : 모두가 아니라...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이렇게요.

Q : 그게 다른 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나요?

A : 아뇨.

Q : 눈이 피곤하진 않나요? 앉은 채로 7시간이에요?

A : 네...가끔은 일어나서 다리 스트레칭도 하지만 실제로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누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회신을 해야 하죠.

Q : 그럼 당신의 친구들도 그렇게 오래 하나요?

A : 가끔이요. 내 사촌 같은 애들은 자주 접속해 있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그렇고요.

Q : 부모님들이 불만스러워 하시지는 않나요?

A : 아뇨. 우리 엄마는 MySpace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뒀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오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싫어서 “최소한은요?”하고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그래, 3시간만 해라”라고 해요. 그럼 3시간 후에 10분 쉬고 4시간을 더 하죠...

Q : 어머니는 모르나요? 제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하죠?

A : 가끔 밤이 늦어지면 어머니는 먼저 주무시는데 그럼 전 컴퓨터를 하는 거죠.

Q : 컴퓨터가 당신의 방에 있나요?

A : 네.

Q : 그렇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컴퓨터를 못 쓰게 할 때도 있나요?

A : 없어요...엄마 TV를 못 보게 한다거나 휴대 전화를 못 쓰게 하거나, 음, 또는 누구네 집에 놀러 가지 못하게 하거나 주말에 어디 못 가게 하기는 해도 인터넷을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Q :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나요?

A : 핸드폰은요...아마 한 20분 정도 될 거예요. 제 핸드폰은 선불제라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아빤 급할 때만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친구랑 전화하는 도중에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게 몇 분 동안이나 제가 전화를 썼는지 알려줘요. 그럼 전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집 전화로 전화를 하고는 더 오래 이야기하죠. 문자는요, 전 문자를 별로 많이 안 써요. 예전에는 하루에 50개(fifty) 정도 보냈었는데...

Q : 15(fifteen)개요?

A : 50(fifty)개요.

Q : 아, 50개요.

A :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할 때라든지 할 때 엄마가 돈 낭비니까 문자 그만 보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안 썼었는데 다시 쓰기 시작했고요. 가끔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돈 낭비이기도 하고...

Q :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문자 보내는 것과 다른 것 같나요?

A : 음, 문자 보내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문자 보낼 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어서 말을 좀 정리 해야 하고 가끔은 손가락이 꼬이기도 해요. 통화로는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더 빠르죠. 그래서 통화가 문자보다 쉬운 것 같아요.

Q : 하지만 당신은 좀 문자 보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A : 가끔은 문자 보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에 엄마는 좀... 엄마가 잠들려고 할 때 엄마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문자를 보내요.

Q : 그것 참 흥미롭군요. 그럼 어떤 방식이 제일 좋죠? IM인가요 문자인가요 MySpace인가요?

A : MySpace를 제일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친구들 사진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개네들의 페이지 전체를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 특히 멋진 페이지 있잖아요 -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IM인데 더 빠르게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인데 왜냐하면 고지서 받는 게 싫는데 너무 비싸고 그만큼 돈을 쓰기도 싫어요. 그래

서 MySpace를 제일 좋아해요.

Q : 재미있네요. 전 아직도 왜 당신이 MySpace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당신이 MySpace 이야기를 할 때엔 얼굴이 환해지는 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A : 글썄요, 아마 그건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재미있고, 또 제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주는 것 같고...저도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Q : 언제 처음 MySpace사이트를 갖게 되었죠?

A : 작년 4월 2일이요..

Q : 그러니까 1년이 넘었네요?

A : 네...근데 정말 자주 접속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우 1년이라니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네요.

Q : 잠깐 든 생각인데요, 좀 전에 자신이 좀 더 활발해졌다고 이야기했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MySpace와 이 모든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A :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나 MySpace나 학교에서 개네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ySpace는 뭔가 저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Q : 그게 당신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든 거군요.

A : 네.

Q : 흥미롭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당신이 느끼기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또는 친척이나 형제자매 또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누구와 가장 친하다고 느끼나요?

A : 음, 아마도 전 제 사촌 라이언과 가장 친한 것 같아요. - 남자 아이죠. 그 애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 같은데, 제가 가게에 갈 때나 개의 친구네 갈 때나 언제나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뭐든 개랑 같이 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개랑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있다가 그 애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개랑 밤에 놀 거고요. 여름엔 그 애와 함께 바다로 낚시를 갈 거예요.

뭐든지 개랑 같이 할 거예요.

Q :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나이인가요?

A : 네. 10월에 14일이 돼요. 개가 나보다 조금 더 키가 커요.

Q : 그것 참 좋군요. 이외에 당신이 말하고 싶은데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나요?

A : 아뇨.

Q : 고맙습니다!

미국사례 #3

대상자 : 12세, 남, 7학년, 부직업(부동산업), 모직업(주부)

Q :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에 속해있나요?

A : 글썄요...

Q : 백인인가요, 흑인인가요?

A : 백인이에요

Q : 그럼 당신에 대해 조금 말해주시겠어요? 무얼 좋아하죠?

A : 축구를 많이 하고요, 수영도 하고, 학교에서는 라크로스 와 농구도 해요. 골프도 조금 치고...

Q :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군요! 운동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있나요?

A :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말고는...

Q : 그런데 당신의 학교는 아주 좋죠?

A : “중신형”인가...

Q : 이 학교에 다닌 지 얼마나 됐죠?

A : 유치원 이후로요.

Q : 전 펜 차터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계속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중신형”이라 부르곤 했죠...가족들에 대해 좀 말해줄래요?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A : 음, 엄마는 가정 주부고요, 아빠는 보통 사람들처럼 출근하고 퇴근할걸요.

Q : 뭐하시는데요?

A : 부동산 일이에요.

Q :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A : 네.

Q : 당신도 두 분과 같이 살고요?

A : 네.

Q : 당신은 두 분 중 누구와 더 가까운 것 같나요?

A : ...음, 아마 엄마일걸요.

Q : 왜죠?

A : 왜냐하면 엄마와 더 오래 지내거든요. 엄마는 집에 있고 아빠는 일하러 나가시니까.

Q : 당신이 두 분에게 말하는 것들 중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 것들은 엄마와만 이야기하고, 아버지와의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요.

A : 글썄요, 아빠랑은 운동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엄마와는 별로 운동 이야기를 안해요. 그것 말고는, 두 분에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Q : 엄마와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A : 뭐, 그 때 주제가 되는 아무 거나요.

Q : 엄마에게 친구들에 관한 것들도 이야기하나요?

A : 네.

Q : 부모님이 당신에게 지지적인가요?

A : 네.

Q : 두 분이 당신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요?

A : 네.

Q : 형제자매가 있나요?

A : 남자 아이 하나요.

Q : 나이가 더 많나요, 적나요?

A : 적어요.

Q : 동생과 잘 어울리나요?

A : 네.

Q :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A : 네.

Q : 동생과 어떤 종류의 것들을 같이 하죠?

A : 음, 운동이요. 우린 둘 다 운동을 좋아해요.

Q : 그에게 개인적인 것들도 이야기하나요?

A :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Q : 얼마나 어리죠?

A : 갓 9살이고, 4학년이에요.

Q : 당신보다 아직 꽤 어리군요..

A : 네.

Q : 친척식구 중에 당신과 친한 다른 사람이 있나요? 조부모님들이나 이
모, 삼촌 또는 사촌들이요.

A : 몇몇 사촌들이 있는데요, 많이 친한 건 아니고요.

Q : 얼마나 자주 그들을 보죠?

A : 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면 여기서 가까운 발티모어에 살기도
하지만 벨기에에 사는 사촌들도 있어서요.

Q : 부모님이 벨기에 출신이신가요?

A : 네, 삼촌의 일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쪽으로 이사했어요.

Q : 그분들을 찾아 뵈는 적이 있나요?

A : 네.

Q : 좋았나요?

A : 네, 정말 좋았어요.

Q : 제일 좋았던 게 뭐죠?

A : 눈에 보이는 모든 장소들이요...

Q : 프렌치 프라이에 마요네스를 뿌려 먹기도 했나요?

A : 네.

Q :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요?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A : 네.

Q : 이 학교예요?

A : 네.

Q :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죠?

A : 친한 친구요?

Q : 네.

A : 진짜 친한 친구들은...다섯에서 여섯이요.

Q :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된 것 같죠?

A : 우리 중 여럿은 유치원 때부터 죽 알아와서 서로 아주 잘 알아요.

Q :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A : 학교나, 운동, 여자 아이들...뭐든지요.

Q : 여자인 친구들도 있나요?

A : 네.

Q : 그들과 친한가요?

A : 네.

Q : 남자 친구들과 여자 친구들 사이에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나요?

A : 아니요.

Q : 친구 중 여자 아이들에겐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A : 뭐든지요. 뭐든 얘기 거리가 있으면요.

Q : 얘기, 뭐요?

A : 애깃거리요.

Q : 얘기 거리요...

A : ...학교나, 하지만 운동 이야기는 안 해요...개네들은 하지 않으니까
요...

Q : 여자 아이들은 운동 이야기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A : 네.

Q : 그럼 그들과는 개인적인 주제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나요?

A : 별로요. 전 개인적인 것들을 진짜 친한 다섯 여섯 친구들과만 이야기
해요.

Q : 남자 친구들과요?

A : 네.

Q : 그럼 여자 아이들과는...그냥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요? 선생님
이나...

A : 네, 뭐 그런거요.

Q : 만약, 당신이 어떤 여자 아이를 좋아하거나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도
여자 아이들과 하나요?

A : 네, 만약 친구라면요.

Q : 친한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도 있나요?

A : 네. 있어요...글쎄요, 한 스무 명 정도의 남자애들이 함께 어울리는데,
전 그 중 다섯 여섯 명과 친해요.

- Q : 좋네요. 꽤 큰 그룹이군요. 모두 같은 학교 친구들인가요?
- A : 글썄요, 전 축구를 많이 하니까 제 축구팀 사람들은 모두 서로 친해요. 그들 중 일부는 우리 고장 구단 아이들이고요, 또는 여름에 수영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음, 그 외에는, 거의 동네 친구들이고.
- Q : 그럼 동네에서 놀 때는 당신의 친구들과 놀겠네요?
- A : 네.
- Q : 어디에 살죠?
- A : 아, 탯넬Tatnall 너머예요.
- Q : 부모님들이 당신의 친구들을 아나요?
- A : 네.
- Q : 친구들을 좋아하고요?
- A : 네.
- Q : 거의...모두 다요?
- A : 예, 거의 다요.
- Q : 여자인 친구들도요?
- A : 네.
- Q :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친구들의 영향이 있다고 느끼나요?
- A : 네.
- Q : 어떤 식으로요?
- A : 잘 모르겠어요...그들은 그냥, 뭐 그런 것 있죠, 저를 만든달까, 왜냐하면 우린 모두 같이 어울리니까요. 같이 지내려면 아마도 비슷해져야 하잖아요.
- Q :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나요?
- A : 음, 뭐, 잘 모르겠어요...걍네들은 그냥...그들과 함께일 때엔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것들을 해요.
- Q : 예를 들면요?
- A : 뭐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해본다거나...음, 잘 모르겠어요...
- Q : 새로운 장소에 간다거나?
- A : 네, 하나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 Q : 남자 친구들과는 어디를 가나요? 예를 들면?
- A : 영화도 보러 가고, 볼링도 치러가고, 운동 경기나...댄스 파티도요.
- Q : 음, 당신은 친구들을 알게 된 이후로 변한 것 같나요?
- A : 네.
- Q : 어떤 식으로요?
- A : 음, 아마도, 제 성격이요. 그런 것 있죠, 누군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변하게 되는 거요.
-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 때문에 당신이 더 활발해졌나요 아니면 조용해 졌나요?
- A : 아마 그들 때문에 전 더 활발해 졌을 거예요.
- Q : 그러면 지난 한 두 해 동안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나요?
- A : 네. 제 말은, 제가 겪었던 이전의 학년의 과제들보다 이번이 훨씬 많아요.
- Q :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 A : 어떤 것들에는...예를 들어...
- Q : 알아요, 별로 그걸 물어보기에 좋은 때는 아니죠. 이런 연말에는요!
- A : 네, 학기 전 연말에는, 뭐 인턴 일 같은 것들이, 봄이나 겨울 방학 바로 전에는, 아주 답답하게 해요.
- Q : 학교를 좋아하나요?
- A : 네.
- Q :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 A : 공부는 아니에요...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선 저희를 재밌게 하려고는 하는데, 거의 모든 과목들은, 아니 몇몇 과목을 전 정말 싫어해요.
- Q : 언제나 그렇죠. 이제 기술들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죠. 컴퓨터를 처음 사용한 게 언제부터죠?
- A : 음, 아마 8살 쯤예요.
- Q : 컴퓨터를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 A : 예, 재미있어요.
- Q : 학교 공부 외에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A : IM이라고, 이메일 같은 건데요, 또는 온라인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요.

Q :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나요?

A : 뭐 그래요.

Q : 정말요? 그것 참 인상적이네요!

A : 아네요, 그냥 중요한 스포츠 경기나 어떻게 끝났는지 보려고요.

Q : 재밌군요. 음, 어떤 인터넷 대화방이나 MySpace에 가입했나요?

A : MySpace는 쓰지 않아요…그냥 IM만요.

Q : 왜 MySpace를 쓰지 않죠? 다른 아이들은 많이들 쓰는 것 같던데요.

A : 네, 많은 아이들이 써요…하지만 제 부모님들은 제가 하길 원하지 않
으세요.

Q : 부모님들이 당신이 그걸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A : …그리고…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단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Q : MySpace를 친구의 컴퓨터로 본 적은 없나요?

A : 아니요, 왜냐면 그걸 보려면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Q : 당신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 쓰이나요?

A : 아뇨.

Q : 아니라고요…그게 상관 없나요? 음, 인터넷으로 친구들을 사귀어 적어
있나요?

A : (사이) 아뇨, 그냥 원래 알던 친구들을 인터넷으로 봐요.

Q : 그러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IM을 하는 데에 사용하고, 원래
알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죠?

A : 네.

Q : 친구 목록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죠?

A : 아마, 마흔에서 쉰 명이요.

Q : 매일 그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교류를 하나요?

A : 음, 매일은 아니고요, 그런 것 있죠, 언제든지 내가 접속하면 이미 접
속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럼 “안녕”하고 인사하고는 대화를 하는
거죠.

Q : IM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나요?

- A : 음, 뭐 학교 숙제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요. 글썄요, 매일 볼 수 없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등등요.
- Q : 하지만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 A : 네.
- Q : 그럼 인터넷으로 교류를 하는 사람 중에 원래 모르던 사람은 없는 거네요.
- A : 없어요.
- Q : 혹시요, IM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 A : 음...아마 직접 만났을 때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 모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말한 건 카피할 수도 있고요.
- Q : 당신은 IM으로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군요.
- A : 네, 별로 아네요.
- Q :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A : 네.
- Q : 당신은 전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네요. 음, IM처럼, 인터넷으로 교류 하는 것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 A : 음, 아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 Q : 알아요, 저도 언제나 그게 궁금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다들 IM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제 생각엔 모두들 직접 보고 싶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 A : 네, 그러니까, 스마일이나 그런 것들을 보내거나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만 그게 진지한지 어떤지 알 수 없죠. 그냥 농담들이예요.
- Q : IM으로 여자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나요?
- A : 네.
- Q :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가요?
- A : 음, 뭐 아마 같은 것 같아요.
- Q : 하지만 알 수 있나요? 제 말은, 전 언제나 궁금했는데,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좋아할 때 IM 으로 알 수 있나요?

A : 만약 그 애가 말하진 않았는데 알 수 있다면, 제 말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면...

Q : 그러니까 IM으로는 진짜로 알 수 없다는 건가요?

A : 네...별로요. 그 애가 꼬시려들거나 그러지 않으면요.

Q : IM으로 어떻게 꼬시는거죠?

A : 잘 모르겠어요...그냥 그런 것들을 말하는거겠죠.

Q : 예를 들면요?

A : 음, 뭐든지요. 뭐 하트 모양을 보낸다거나...그런거요...

Q : 흥미롭군요. 음, 인터넷을 통한 친구들에 관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A : 아뇨.

Q :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A : 글썄요, 퇴학 당한 애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Q : 아, 정말로요?

A :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요...개네들이 계속,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퇴학 당했는데...

Q : 그들이 인터넷에서 한 것 때문이에요?

A : 네, MySpace에서요.

Q : 괴롭힘이나...그런 거요?

A : 네.

Q : 그것 흥미롭네요. 그럼 당신은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하죠?

A : 전 일단 숙제를 먼저 해 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밤에 하고 싶거나 할 땐 한 시간이나 그것보다 좀 안되게 하고, 하지만 가끔 게임도 하고요.

Q : 당신이 컴퓨터를 하는 것을 부모님이 싫어하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

A : 아뇨.

Q : ...게임하는 것도요?

A : 음, 제가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가끔 저 보고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계속하면 화 내세요.

Q : 보통 부모님 말을 듣나요?

A : 보통은요.

Q : 몰래 하기도 하나요?

A : 정말 몰래는 아닌데, 컴퓨터로 숙제를 하거나 할 때 켜두죠.

Q : 부모님이 인터넷을 못하게 한 적도 있나요?

A : 인터넷은 아니고요, 게임을 못하게 하긴 하세요.

Q : 그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인가요? 전 한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어요.

A : 아뇨, 온라인은 아니고 그냥 혼자 하는 게임들이요.

Q : 아, 당신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지는 않는군요?

A : 네.

Q :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못하게 한 건가요?

A :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본 경우도 없지만 만약 찾게 된다면 할 거예요.

Q : 휴대 전화가 있나요?

A : 네.

Q : 사용하나요?

A : 네.

Q :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나요?

A : 둘 다요.

Q : 얼마나 많이 문자를 보내나요?

A : 많이는 아녜요. 전 문자보다 전화하는 걸 더 좋아하지만, 가끔 문자를 보내요.

Q : 하루에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나요?

A : 하루에요? 조금요...열이나 스무 개요...

Q :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보내나요?

A : 그럼요, 어떤 애들은 하루에 몇 백 개도 보내요.

Q : 몇 백 개요? 정말로요?

A : 네.

Q : 문자 보내는 게 전화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A : 전화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요, IM이나 문자는 안 그래요. 그리고 문자는 IM보다 더 제한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IM은 더 빨리 타이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그냥 아주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자가 가능한 정도만요.

Q : 그럼 만약 당신이 어떤 여자 아이를 좋아한다면, IM과 문자, 전화 중 무엇을 이용할건가요?

A : 글썄요, 잘 모르던 아이라면 전화를 하지 않겠지만 만약 아는 아이라면 전화를 하겠어요.

Q : 전화를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군요?

A : 네.

Q : 왜 전화를 더 좋아하죠?

A : 글썄요, 아마도 돈 문제 같은데, 문자 보내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저는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Q : 저도 그래요. 이해해요. 전 언제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제나 문자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듣거나 보면 그들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익명의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재밌네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동성 친구들과 비교할 때 꽤 일반적인 편인 것 같나요?

A : 네. 근데 제 생각엔 여자 애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Q : 저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여자 아이들이 그런 사회적인 것들에 더 민감하지만, 확신할 순 없고요. 남자들 중 저만 별로 그렇게 사교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다들 그런지 알 수 없어요.

A : 예, 잘 알 수 없죠...

Q :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나요?

A : 네. 전 우리 학년에서 가장 어려요.

Q : 그들 모두 당신과 비슷하나요?

A : 네.

Q : 그들도 직접 만나는 것을 좋아하나요?.

A :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보통 같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Q : 컴퓨터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나요? 영화를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 등이요.

A : 컴퓨터로 영화를 보기는 하지만 만들지는 않아요. 파워포인트는, 학교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요.

Q : 부모님들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 중 누구와 가장 친한 것 같나요?

A : 음, 제 동생은 아니고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둘 다요. 그러니까...전 부모님과 더 친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제 친구들과 더 친하고요.

Q : 좀 더 설명하자면요?

A : 뭐랄까, 부모님들과는요, 무언가 더 진지해요. 친구들과는 그냥 농담하고 재밌지만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요.

Q :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요? 뭐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거요.

A : 아뇨, 별로요. 전 부모님들에게 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Q : 흥미롭군요. 혹시 제가 질문한 것들 중에 당신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뭐 다한 것 같네요.

Q : 아, 다한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미국사례 #4

대상자 : 13세, 남, 7학년, 부직업(화학자), 모직업(회사경영)

Q : 어떤 민족이나 인종에 속해있나요?

A : 음, 특별히 없고요, 그냥 코케시언이예요.

Q : 그럼 당신에 대해 좀 말 해주시겠어요? 무얼 하길 좋아하죠?

A : 음, 독서를 좋아하고, 전 제게 집중하길 좋아하는 게, 그렇게 사교적이
지 못해요. 개인 과제들을 좋아하고, 그룹 과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영어 수업에 잘 하지만 과학과 사회 과목들은 싫어해요.

Q : 취미가 있나요?

A : 독서를 좋아하는데 그게 거의 다예요. 그냥 읽는 거요.

Q : 그럼 가족들에 대해 말해 줄래요? 부모님들은 어떠시죠?

A : 음, 부모님들은 뭐랄까, 아주 도움을 많이 주세요. 아빠는 집 수리 같
은 일들을 거의 다 하고, 엄마는 요리나, 그런 일들을 하시죠...실은 엄
마는 쉽게 화를 내고, 형과 나는 거의 매일 싸워요...

Q : 부모님은 결혼 하셨나요?

A : 아, 네, 결혼하셨어요.

Q : 함께 사시나요?

A : 네.

Q : 어떤 일을 하시죠?

A : 두 분 모두 DuPont 사에서 일하세요. 아빠는 화학자시고 엄마는 매니
저세요.

Q : 당신은 부모님과 친하나요?

A : 네, 친한 편이예요.

Q : 어떤 한 분과 친한가요?

A : 아뇨, 별로 그렇진 않고요.

Q : 부모님 중 어느 쪽과도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나요?

A : 거의요. 특별히 한 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보통 엄마가 내 숙

제를 검사하는 게 전 싫는데 엄마는 꽤나 혹독한 비평을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 비슷하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Q : “비슷하게 나뉘어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A : 두 분 중 어느 한 분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Q :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비슷하게 나누는군요. 마치 부모들이 “우린 우리 자식들을 똑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네요. 그럼, 부모님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죠?

A : 음, 보통 정치나 그런 거요. 사실 부모님들은, 좀 이상한데, 어떻게 이 나라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 대단한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다른 건,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나쁘단 건 아닌데, 우리 학교의 수학 분야가 꽤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작년까진 공립 학교에 다녔어요. 사실 걔 작년에 이 곳에 있었는데, 그 때 이미 대수를 끝냈고 작년 중순에 우린 기초 대수를 끝냈는데, 아주 뒤쳐졌었죠. 음, 부모님들은 우리 형의 선생님인 Hourback 씨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그 사람을 정말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Q : 왜죠?

A : 부모님들이 그러시길 그 선생님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세요.

Q : 그것 참 안 됐군요. 당신은 전반적으로 학교를 좋아하나요?

A : 사실 꽤 좋아요.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건 아니고...적당한 분량을 하게 돼요. 음, 올 해에 과학이 꽤 흥미로운데 천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중이죠.

Q :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언제나 천문학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지요. 음, 당신은 부모님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A : 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사실 거의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매일은 아니지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그 분들을 믿을 수 있고 두 분 모두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이지요.

Q : 정말 잘 됐군요...부모님들이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하길 바라요. 그럼 당신은 부모님들이 당신에게 지지적이며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네.

Q : 그럼 당신의 남자 형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죠. 형 인가요, 동생인가요?

A : 저보다 두 살 아래 동생요. 5학년이죠.

Q : 이 곳 월밍턴에 다니나요?

A : 네, 사실 갠 하급 학교(공립 학교의 5학년 이하)에 다니는데 오늘은 반 일만 수업하고 현장 학습을 갔죠. 우린 많이 싸우는데,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라면 한 달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데, 다른 한 달은 계속해서 싸우죠. 그런 게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꽤 부모님들 신경을 거슬리게 해요.

Q : 동생과 얼마나 오래 시간을 보내죠?

A : 음, 보통...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보통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밖에 나가 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Q : 그것 좋네요. 어디에 사시죠?

A : 음, 우린, Littlerock Drive에 살아요. Rockwood 바로 아래요.

Q : 그러니까 강변을 걸을 수 있는 거군요...

A : 우리 집 뒤 쪽으로 나가면 강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리가 있어서 이웃들은 차를 타고 넘어갈 수 있었죠.

Q : 정말 좋네요. 동생과 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나요? 동생이 어리다는 것은 알지만...

A : 음, 별로요. 실은 동생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긴 한데...우리 반에 케이티 배렛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마 개도 인터뷰 해보셔야 할 거예요. 개가 저를 좀 스토킹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짜증나요.

Q : 당신을 스토킹 한다고요?

A : 그 애는 별로 친구가 없지만 전 개 친구이긴 해요. 하지만 갠 언제나 한 곳에 있는데 그게 절 짜증나게 해요. 그걸 동생에게 말했었죠. 가끔은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때린 적은 없어요.

Q : 당신이 친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A : 특별히 없고요, 월밍턴에선 우리 가족이 다예요. 외가 쪽은 거의 보스턴에 살고요, 보통 일 년에 세 번쯤 만나는 것 같아요. 친가 쪽은 네브

라스카에 사는데 최근에 증조 할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갔던 적이 있죠. 슬펐지만, 다른 친척들을 볼 수 있었어요.

Q : 그것 흥미롭네요. 그럼 친구들에 대해 말해줄래요?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A : 아마 리차드요...이미 그 앨 인터뷰 했었나요? 리차드 메나드요.

Q : 이름이 익숙하네요...

A : 왜냐하면 개가 어제 인터뷰에 대해 뭐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Q : 네, 인터뷰 했었네요. 눈이 큰 아이죠!

A : 제가 개랑 친해요...

Q : 착한 아이더군요.

A : 우린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 자주 의견이 다른데...그 앤 아주 윤리적인 데다가 정직하죠. 개랑 세인은...우린 자주 의견의 불일치를 겪지만 보통 몇 일 안에 풀어요. 닉, 벤 그리고 세인, 우린 뭐랄까...6학년 이후부터 계속 함께였어요. 브라이언이 있었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그래도 계속 개를 보긴 하니 괜찮아요. 몇 일 넘어서까지 가는 문제들은 별로 없었어요...

Q : 당신과 친구들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 외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도덕에 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A : 음, 리차드는 가끔...

Q :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A : 예를 들어 리차드는 케이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인은 그 애를 멀리 해야 그만둘 거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갔다하죠. 다른 것들은...정치적인 것들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하죠. "과학 과제가 어려웠니?" 또는 "시험이 어땠었니?" 등어요. 그냥 이것저것이요.

Q :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나요?

A : 별로요...우리 중 누구도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아, 세인은 댄스 파티에서 누군가와 춤을 추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를 버렸죠. 세인이 그 애를 초대했는데, 여자애를 30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세인을 피하고...

Q : 아, 그것 정말 안 됐군요!

A : 네, 하지만 그 일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애가 다시 세인을 믿기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Q : 그 그룹 이외에 다른 친구들이 있나요?

A : 음, 브라이언 이야기를 했었는데...그 애 말고는 생각나는 애가 없네요.

Q : 그럼, 이 네 남자 아이들의 그룹이 당신이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인가요?

A : 네, 거의 그렇죠.

Q : 당신은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나요?

A : 음, 보통 주말에 함께 지내는데, 주말엔 언제나 누군가의 집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어서 같이 놀죠. 세인은 트램폴린이 있어서 언제나 개네 집에 가면 트램폴린을 뛰고 레슬링도 해요. 언제나 재밌죠.

Q : 부모님들이 당신의 친구들을 아나요?

A : 네.

Q :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시나요?

A : 네, 제 친구들을 좋아하세요. 지금 터커 씨가 문에 와 있네요.

Q : 아...

A : 아마 누군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Q :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A : 음, 제 생각에 말했듯이 리차드가 절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걀 좀 점점 더...필요할 때엔 좀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Q : 예를 들면요?

A :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뭐랄까 개가 점점 더 못돼지고 있는 같은데, 테일러가 연필 두 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똑 같은 일이 다른 애에게 일어났었는데, 그 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연필을 빌려준 거였죠. 올 해에, 세인은 테일러에게 연필 같은 것을 절대 빌려주지 않아요. 이제 정말 아무도 믿지 않게 됐죠...그리고 세인이 보통 같이 운동하자고 권하는데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그래요.

별로 운동은 되지 않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Q : 친구들을 알고 나서 당신이 변한 것 같나요?

A :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인을 1학년 때부터 알아왔고, 콜버도 그렇고요. 닉 콜버요. 3학년 때부터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간다.)

Q : 제 말은, 당신이 당신의 친구들을 알게 된 이후로 변한 것 같은지...

A : 네, 그래요. 자라면서...좀 더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원래 전 교실 한 구석에서 책만 읽는 아이였거든요. 지금은 다른 애들 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제 친구들에게만 말을 하지 만요.

Q : 이야기도 많이 하고 활발한 것 같은데요.

A : 음...하지만 3학년 때에는, 다른 애들은 서로의 책상에 앉아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전 제 자리에 앉아 책만 읽어서 애들이 별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말 변한 것 같아요.

Q : 그것 흥미롭군요. 그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처음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A : 잘 기억이 안 나네요...아마 3살 때부터인 것 같은데, ComputerTots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작은 게임이었거든요. 아마 그게 처음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해요. 랩탑에서 그 게임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 하면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Q : 컴퓨터 하기를 좋아하나요?

A : 제 생각에 컴퓨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전 정말 악필이라 선생님이 알아보실 수 없어서 가능한 타이핑을 하죠.

Q : 학교 일 말고 다른 용도로도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A : 게임을 하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메일은 그리 자주 보내지 않아요. 학교 일과 관련해서만 이메일을 사용하죠. 우린 리서치 과제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서 리처드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럼 개도 내게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Q : IM을 하지는 않나요?

A : 아뇨, 하지 않아요. 전 별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Q : FaceBook 이나 MySpace 같은 것도요?

A : 네, 제가 알기론요. 제 동생이 재미 삼아 가짜 계정을 만들긴 했어요.
87살의...이라크 사람인가...로요. 그게 진짜 웃겼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웃의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진짜 웃겼어요...

Q : 그리고 가짜 MySpace 사이트를 만들었나요?

A : 네, 재미있었죠.

Q :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나요?

A : 별로요. 그냥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미쳐했죠.

Q : 왜 그랬죠?

A : 개는 자기가 87살이라 말해 놓고 다시 85살이라고 하고 계속 그런 말
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난 달걀을 좋아해”, “넌 달걀을 좋아하니?”,
“왜냐하면 난 달걀이 싫거든. 햄이 훨씬 나아.”라고 했고, 그걸 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진짜 웃겼어요. (한 번은 내 친구였고요.) 그럼 사람
들이 “뭐?” 그러죠.

Q : 그럼 당신은 인터넷으로 친구를 만들어 보거나 한 적이 없네요?

A :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게 제 동생처럼 자
기가 87살이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제가 6살 초등학교생이라
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Q : 네 저도 언제나 그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의 정보가 가짜인지 아닌지요.

A : 아마 실제보다 그걸 알아내기가 힘들 것 같은 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
거든요. 어떤 사이트들은 어디에 사는지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짜
정보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인터넷이나 IM 같은 걸 믿지 않
아요.

Q : 왜 IM을 믿지 못하죠?

A : 뭐 비슷한 이야긴데, 전...전 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 친
구는 한 번은 비디오 시스템을 가진 남자와 대화를 했었는데 그 남자
가 화면에서 나체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을 알지 못
해서 참 억척졌어요. 그래서 전 IM 같은 걸 믿지 못하고, 아예 인터넷
자체를 못 믿겠어요.

Q : 그래도, 아주 많은 아이들이 IM을 하죠.

A : 알아요.

Q :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A : 음, 전 별로 개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별로요... 그래도 개네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긴 싫은데 왜냐하면 개네들이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건 개네들 선택이지 제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IM이나 MySpace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나요, 아니면 당신처럼 회의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나요?

A : 제 생각에 더 많은 애들이 IM이랑 MySpace 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에게 조금 새로운 거라 그것에 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그냥 몇 년 유행하다가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면 아마 관두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그게 나쁘다는 걸 알 때까지 계속 하다가 관둘 거구요. 어떤 사이클이예요.

Q :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인터넷을 좋아한다는 걸요. 그들은 당신 같지 않아요. 최소한 제가 이야기해 본 아이들은요.

A : 제 생각에 그건 그저...

Q :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사려 깊군요...

A : 이젠 마치 아이들이 보드 게임을 하다가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거죠. 그리고 게임에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숙제에 필요한 자료도 찾을 수 있고, 그건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술을 감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며 이게 전화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터넷은 그냥 유행인 것 같은 게 전화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마 IM 하는 것도 유행인 것 같고 때문에 점점 사라질 거예요.

Q : 그렇게 생각해요? IM이 사라질 거라고요?

A : 제 생각에 더 나은 무언가가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할 거고, 그럼 또 더 나은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IM이 50년 전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될 거고...

Q : 흥미롭군요. 음, 당신은 친구 간의 압력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

나요?

A : 특별한 건 없어요. 다들 “이리 와서 같이 놀래?”라고 하지 “이 바보야, 저리 가버려, 하하하!”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이 학교가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아이들은 다들 터프한 척 하지만 그저 농담이고 다들 친절하고 개방적이에요. 호주머니를 조심해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죠.

Q : 좋아요! 인터넷을 통한 친구 간 압력 같은 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친구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친구가 있나요?

A : 음, 제가 알기론 없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고 하지만 전 그냥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별로 확인도 안 해요. 부모님이 보시는데, 제 친구들의 메일이 있으면 부모님들도 알게 되죠. 음...제 생각에...리처드는 IM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는데, 걔 별로 IM을 하진 않고요, 이메일을 써요. 아마 걔 이메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즉각적인 주고 받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사이에 컴퓨터를 쓰거나 FaceBook 등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이 보통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남자애들이 하는 것을 많이 하진 않아요. 아마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만큼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은 컴퓨터실에서, 남자애들이 전부 게임을 하고, 여자애들은 전부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또 비슷해요. 어제는 남자애들은 모두 대화를 하고 여자애들 대부분은 게임을 했었어요...

Q :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하는 게임이 같은 것이었나요, 다른 것이었나요?

A : 음,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하는 “The Impossible Quiz”란 게임이 있는데, 모두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죠. 좀 비논리적인 게, 얼마나 많은 구멍이 ‘a polo’에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네 개죠. P와 o와 a에 하나씩이요. 생각해보면 정말 웃겨요.

Q : 웃기네요...그 ‘polo’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A : 그리고 또 손 하나가 글자들을 쥐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질문이 “그의

손(his hand)에는 몇 개의 글자들이 있는가”인데, 답은 일곱 개죠. 5개의 글자가 그 손에 있지만 “그의 손(his hand)”는 일곱 개의 글자예요. 답을 알아내려면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Q : 네, 네...여자애들도 그 게임을 하나요?

A : 네, 여자애들도 하는데 다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지?”, “이 질문에는?”하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정말 웃겨요.

Q :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A : 있어요. Impossible Quiz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개의 질문은 못 맞추겠더라고요. 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Q : 음,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오래 하죠?

A : 아마 보통 네 시간이에요. 30분은 타이핑을 하고 30분은 인터넷의 여러 가지를 뒤지고 나머지 세 시간은 게임을 하죠.

Q : 그 게임이 온라인 게임인가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하는 게임인가요?

A : 거의 혼자서 하는 게임이에요...시디롬에 있는 게임들이요. Mula.com에 계정이 있긴 해요. 돈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도박 같은 건 아니고요, 가상의 돈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재미있어요.

Q : 흥미롭군요. 부모님이 컴퓨터를 못 쓰게 하신 적이 있나요?

A : 음, 만약 성적이 나쁘면 게임을 못하게 하시는데 다른 숙제들도 안 하면 성적이 더 나빠질테니 타이핑은 해야 해요. 과학의 두 번째 독립 과제에서 100점 만점에 78점을 받았는데 그 때 부모님이 컴퓨터를 일주일 동안 못 하게 하셨어요. 꽤 지루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해요.

Q : 합리적이군요.

A : 전 나쁜 성적을 받아온 아이를 가진 그 분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것 도와줄게, 저것 도와줄게” 했는데도 78점을 받았죠. 그게 좀 재미있어요...

Q : 저도 이해해요. 휴대 전화가 있나요?

A : 아뇨.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 동생은 아이폰을 갖길 원하는데, 그건 아이팟과 전화기를 합친 것 같은

거예요...

Q : 저도 그거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A : 갠 벌써 아이팟을 갖고 있어요. 갠 좀 그런 기계들을 좋아하는데 뭐 “난 지금 최신형을 갖고 있어”라 말하는 아이라고 할까요. 아마 전 휴대 전화가 있어도 “나 여기 있으니 이리로 와” 정도만 쓸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만약 차 사고 같은 응급 상황이 생겨도 부모님의 휴대 전화가 있으니...

Q : 그럼 문자도 보내지 않나요?

A : 네, 쓰지 않아요. 음, 전 심지어 부모님의 전화로도 문자를 보내지 않죠.

Q : 당신의 친구들은 문자를 많이 사용하나요?

A : 음, 아뇨. 제 생각에 친구들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자는 말하는 것 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만약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냥 가서 말하는 게 여든 번 정도씩이나 버튼을 눌러가며 하고 싶은 말과 번호를 쓰는 게 더 느리잖아요.

Q : 저도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자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A : 제 생각에 아마 새로운 것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Q :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이로군요.

A : 네. 휴대 전화는 5년 전의 전화 대화 대신에 그저 갖고 다니는 또 다른 전화예요. 문자는 이메일 같은데, 그냥 조용히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방해하죠. 그 외엔 더 생각하는 게 없네요.

Q : 그럼 당신은 누군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나요?

A : 그런 것 같은 게, 휴대 전화 같은 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몇몇 경우에만 유용한 것 같아요. 만약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요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직접 말하는 게 더 쉬운 이유가, 한 번은 바로 옆에 앉아서 전화를 하는 두 여자애들을 본 적이 있는데 서로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어디니?”, “컴퓨터실이지.”, “어? 나도 컴퓨터실인데?” 이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또 휴대 전화의 특징 중 하나

인 것 같은데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Q : 당신 학급의 인간 관계는 어떤 것 같나요? 다들 잘 지내나요?

A :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음, 뭐랄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일들을 그리 잘 해내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건 제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개네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전 어떤 것을 잘 하지 못하면 “도움은 필요 없고, 나 혼자 해결할거야”하다가 결국 다 잘못해 버리고 말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Q : 당신은 굉장히 사려 깊은 학생인 것 같네요. 당신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중 누구와 가장 가까운 것 같죠?

A : 음, 흠...아마 부모님들이인 것 같은데, 비단 제게 잘 곳과 먹을 것을 주셔서 뿐만이 아니라 두 분 모두 좋은 분이고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은 부모님처럼 매일 보지 않고...가끔은 침대에서 화를 내며 30시간만 달라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 최고의 우정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예요.

Q : 멋지네요! 정말 좋아요. 그 이야길 부모님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사례 #5

대상자 : 13세, 여, 8학년, 부직업(컴퓨터 시스템 관리)

Q : 그리고, 음, 당신은 어떤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에 속해있나요?

A : 아, 네. 전 받은 중국인이고 4분의 1은 포르투갈인이고 나머지는 이탈리아 인이에요.

Q : 와, 멋진 조합이네요! 당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무얼 하길 좋아하죠?

A : 음,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필드 하키와 라크로스요.

Q : 그럼 가족에 대해 좀 말해 줄래요. 부모님들은 어떠시죠?

A : 음, 엄마는 아빠보다 더 활달하세요. 음, 아빠는 TV 보는걸 많이 좋아하고 병원에서 일해요. A. I. DuPont 병원에서요. 엄마는 하급학교 (5학년 이하 과정)의 선생님이고요.

Q : 아버지가 의사인가요?

A : 아, 아뇨. 아빠는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해요.

Q : 두 분이 결혼하셨나요?

A : 네.

Q : 그리고, 음, 부모님 중 어느 한 분과 더 친한가요?

A : 음, 아마 엄마와 더 친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엄마는 질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Q : 부모님과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A : 아, 네, 거의요.

Q : 어머니에게는 말하는데 아버지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거나, 혹은 반대인 경우가 있나요?

A : 음, 보통은, 엄마는 학교에서 일을 해서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빠와는 노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Q : 스포츠나 그런 것들요?

A : 네.

Q :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러면요?

- A : 아마 엄마에게 말할 거예요.
- Q :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시나요?
- A : 네!
- Q : 좋군요! 그럼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도 있나요?
- A : 음, 없는 것 같네요...아마 친구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친구들과 더 자주 지내니까요.
- Q : 부모님이 당신에게 지지적이라고 느끼나요?
- A : 네, 우리 부모님은 꽤 그런 것 같아요.
- Q :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시나요?
- A : 음, 엄마는 정말로 그렇고요, 아빠는, 뭐랄까 별로...학교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 Q : 학교에 관련해서 아버지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 A : 음, 엄마는 시험이 다가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아빠는 별로
잘 알지 못하세요. 아빠는 그냥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봐요...
- Q : 부모님들이 성적 같은 것들에 엄격하시나요?
- A : 네.
- Q : 잘 하고 있나요?
- A : 네!
- Q : 형제 자매가 있나요?
- A : 아뇨.
- Q : 외동으로 지내는 게 어떤가요?
- A : 음, 가끔은 좋지만 어떤 때는, 음, 잘 모르겠어요. 뭐랄까, 그냥 같이
어울릴 형제자매가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 Q : 이모나 삼촌 또는 조부모님 같은 다른 친한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 A : 네. 음, 전 친가의 사촌들과 친한데, 음, 이모들과도 친하고요. 우린 자주
함께 휴가를 가요.
- Q : 오, 그것 좋네요. 얼마나 자주 그들을 보죠?
- A : 최소한 일 년에 한 두 번요.
- Q : 좋군요. 사적인 일들도 그들과 이야기하시나요?

A : 음, 가끔 제 사촌과요. 우린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모하고도요.

Q :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A : 네, 네...내 친구들에 대해 어떤 것들요?

Q : 가령 친구들과 어떻게...그냥 여기서 멈추죠!

A : 음, 글썄요, 아마 전 열 명 정도의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Q : 와, 정말 많네요!

A : 네...이 학교의 7학년과 8학년들은 다들 친한데 그래서 우린 다들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스무 명 정도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Q : 정말 많군요! 정말 좋아요...당신의 친구들과 친해진 지는 얼마나 되었죠?

A : 음, 글썄요, 제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은 5년 동안 친구였고요, 다른 한 명은 6학년 때 전학 와서 2년 동안 친구였고요. 하지만 전 이 곳에 3학년 때 전학 와서 거의 모든 친구들은 5년간 알아왔어요.

Q : 무엇 때문에 친해진 것 같죠?

A : 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약 제가 도움 같은 게 필요하면 찾을 수 있고 같이 자주 어울려서 관심이 비슷해요, 네...

Q :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를...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A : 글썄요...학교와 숙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주말에 자주 함께 어울리는데 영화 같은 걸 보러 가고요.

Q :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남자 아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A : 네, 우린...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분명 다른 여자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른 남자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Q : 많은 일들이라고요?

A : 네.

Q : 그게 어떤 것들이죠?

A : 글썄요, 그냥...그냥 바보 같은 것들인데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우습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다들 관두고...

Q : 예를 들면요?

A : 글썄요...예를 들어, 두 여자애가 있는데 한 아이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고, 한 아이는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를 꺾는 걸 보고, 그럼 그게 큰 일이 되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얘기해요...네.

Q : 남자 친구들도 있나요?

A : 네.

Q : 그들과 친하나요?

A : 음...네, 그런 것 같아요.

Q : 여자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남자 친구들과도 하나요?

A : 음, 별로요. 우린 그저...스포츠 같은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요, 네...거의 스포츠 같은 것들이요.

Q : 음, 그럼 남자 친구들과는 다른 여자애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나요?

A : 음, 가끔 개네들이 뭘 물어보면요. 하지만 보통은 아니고요.

Q : 음, 당신은 스포츠나 주말 활동 등에서 만난 다른 친구도 있나요?

A : 아, 네. 전 토요일에 중국인 학교에 가거든요...

Q : 아, Hockessin에 있는 학교요?

A : 네...거기 가면 교회 그룹 같은 게 있는데 그 곳에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다른 학생들처럼 피아노를 쳐서, 우린 다들 친구예요.

Q : 당신은 정말 바쁘겠군요 (웃음) !

A : 네!

Q : 당신의 보통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A : 음, 아마, 오전엔 학교에 가고 스포츠 활동이 있고, 목요일엔 피아노 레슨이 있어서 집에 7시쯤 오고요. 그리고 숙제를 하죠.

Q : 그것 참 힘들겠네요!

A : 네, 정말 그래요!

Q :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내는지 궁금하네요! 음, 당신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당신의 친구들을 아나요?

A : 네, 네...아마 부모님들은 제 친구의 대부분을 알 거예요. 아마 제 7학

- 년 친구 중 몇몇은 모를테지만 그래도 거의 모두를 알고 계세요.
- Q : 음,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느끼나요?
- A : 네, 그런 것 같은 게, 우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그들의 특징을 집어내고, 내 특징도 집어내고…네.
- Q : 그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바뀐 것 같나요?
- A : 음, 잘 모르겠지만…글쎄요, 아마 확실히…잘 모르겠어요. 친구 중 하나는 정말 재미있는데 보통 함께 농담을 많이 하고요…글쎄요…아마 보통 친구들은 각자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가끔 동의하지만 또 가끔은 그렇지 않죠…
- Q : 당신의 가치관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바뀐 것 같나요?
- A : 음, 별로 그렇게 대단히는 아니고요…별로요.
- Q : 당신 부모님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 A :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 Q : 그럼 기술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죠.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몇 살인가요?
- A : 음, 유치원 때인데 왜냐하면 엄마가 컴퓨터 선생님이고 아빠는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든요…네.
- Q : 이해되네요. 그럼 학교 일 외에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죠?
- A : 글쎄요, 친구들과 IM을 한다거나,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또 iTunes 계정도 있어서 음악을 사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요.
- Q : MySpace이나 FaceBook 같은 게 있나요?
- A : 아뇨.
- Q :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요?
- A : 음, 우리 부모님은요…아빠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엄마는, 학생들의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하지 못하기를 강하게 권하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 Q : 왜 어머니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계정을 갖게 하지 말라고 말

하시나요?

A : 왜냐하면, 아, 아마 온라인에는 계속 쫓아다니는 많은 온라인 사냥꾼들이 있어서인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제 친구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MySpace에 공개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Q : 다른 친구들의 웹사이트를 본 적이 있나요?

A : 네, 있어요.

Q : 어떤 종류의 개인 정보를 올려 놓았죠?

A : 음, 우리 학교나 나이 또는 고향이요. 또 뭘 좋아한다던가 그런 거요.

Q : 친구들이 또 다른 개인적인 것들...가령 그들의 사진이나 그런 것들도 올리나요?

A : 네.

Q : 그럼 그들을 확인하기 쉽겠네요?

A : 네.

Q : 그래서 당신의 부모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고요?

A : 네, 엄마는 정말 싫어하세요.

Q : 그럼 당신은 그게 없어서 아쉽나요?

A : 음, 별로 그렇진 않은데 전 보통 친구들과 IM을 많이 해서 별로...그러니까 가끔은, 음, 사람들은 MySpace를 통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뭐 보통 전 괜찮아요.

Q : 하루에 얼마나 많이 IM을 하죠?

A : 음, 보통 하루에 두 시간이요.

Q : 와! 당신의 친구 목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A : 70명 정도요.

Q : 친구 목록에 70명이요?

A : 네!

Q : 정말 많네요! 그것 아나요? (웃음)

A : 네 많죠... 하지만 보통 한 번에 스무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Q : 그럼 당신은 서로와 같은 시간에 대화하나요?

A : 네.

Q : 마치 스무 명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A : 네!

Q : 와!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A : 아뇨.

Q : 그럼 그 70명을 모두 아는 거네요?

A : 네.

Q : 음, 그럼 당신은 직접 대화할 때와 같은 이야기를 온라인으로도 이야기하나요?

A : 아, 네. 가끔 친구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면 내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해요. 아마 그게 더 쉽겠지만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

Q : 음,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온라인 중 어떤 방식이 더 솔직해지나요?

A : 아마 직접 이야기할 때인데 왜냐하면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잘 읽을 수 있잖아요.

Q : 음, 당신의 친구 목록에 남자 아이들도 있나요?

A : 네.

Q : 그럼 IM으로 남자 아이들과도 여자 아이들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A : 네, 거의요.

Q : 그럼 차이가 없는 건가요?

A : 네, 맞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Q :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과 인터넷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나요?

A : 음,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인 내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은 MySpace를 가지고 있고 여자애들도 하는데, 서로의 MySpace 모습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마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 또는 여자라서가 아니고요.

Q : 많은 아이들이 그런 계정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A :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네.

- Q : 인터넷을 통한 친구 간의 압력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이메일이나 IM에 붙여서 보내는 사람
들이요.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괴롭히거나 그런 것들이요…
- A : 음, 네, 제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은 아니고요…잘 모르겠어
요, 네.
- Q : 당신의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 A : 음, 우리 학교의 그 여자애는 제 친구를 싫어해서 나쁜 메시지를 보냈
는데요, 내 친구의 MySpace에 “네가 싫어” 같은 걸 남겼죠.
- Q : 아, 그것 정말 나쁘네요!
- A : 네.
- Q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나요?
- A : 음, 네. 하지만 제 친구는 쉽게 잊는 성격이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
요.
- Q : 그럼 아이들이 인터넷을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 A : 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직접 만났을
때죠.
- Q : 재밌네요. 왜냐하면 뉴스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어
요.
- A : 네. 보통 우리 학년에서는…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학교만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보통 우린 직접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
해 싸우진 않아요.
- Q : 흥미롭군요. 여자 아이들 간에 친한 그룹이 있는 것 같나요?
- A : 음, 네. 제 생각에 우린 모두…모두 친한 그룹이 있지만 누구도 서로
적이거나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린 모두 친구죠. 그냥 서
로 다른 친한 친구가 있는 것 뿐이에요.
- Q :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당신은 당신이 지역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느
끼나요?
- A : 네, 네.

- Q : 그것 좋군요. 음, 그럼 보통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인터넷을 하죠?
- A : 음, 학교 일 때문에는, 보통 집에 6시에 오면 10시쯤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 시간 정도요.
- Q : 부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나요?
- A : 네.
- Q : 그럼 그 사이에 IM도 하는 거네요
- A : 맞아요, 네.
- Q : 그럼 약 세 시간이요?
- A : 네.
- Q : 주말에는요?
- A : 음, 주말에는 분명 더 해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숙제를 하지만 제 IM은 켜져 있죠. 하지만 메시지들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는 건 한 다섯 시간 정도일 거예요. 주말에 숙제 등과 함께요.
- Q : 그렇게 나쁘진 않군요. 부모님이 인터넷을 못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 A : 아뇨.
- Q : 부모님이 벌을 줄 때...부모님이 벌을 주시나요?
- A : 네, 그러시지만...댄스 파티를 가지 못하게 한다던데요. 전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이 필요하고 부모님도 그걸 아세요.
- Q : 그럼 인터넷을 못 하게 하시진 않는군요?
- A : 네.
- Q : 휴대 전화가 있나요?
- A : 네.
- Q : 사용하나요?
- A : 네.
- Q :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 A : 사람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는 데예요.
- Q : 아, 얼마나 많이 문자를 보내죠?
- A : 음, 전 엄마랑 휴대 전화를 함께 쓰는데 가끔 엄마가 출장 가거나 하면 필요하셔서...음, 문자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아마 하루에 열

개 정도요.

Q : 휴대 전화로 통화도 많이 하나요?

A : 음, 별로요. 그렇게 휴대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전화보다는 IM을 더 많이 하지요.

Q : 네, 전 언제나 문자 보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쓰기 어려운 키패드로 몇 시간이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A : 네, 네.

Q : 음, 통화와 문자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님 다른 것 같나요?

A : 다른 것 같아요. 문자로는 상대방을 진짜로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읽을 수가 없죠.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를 보내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문자 보내는 것 보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Q : 음,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전화를 할 건가요, 문자를 보낼 건가요 아니면 IM을 사용할 건가요?

A : 음, 아마 문자를 먼저 보내고 IM을 하고 결국엔 전화를 하겠죠.

Q : 왜 그런 순서인가요? 흥미로운 순서네요!

A : 음, 모르겠어요. 문자는 누구나 서로 보내니까 뭐랄까...전화는 더 긴 대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IM이나 문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Q :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A : 음, 아니요...보통 IM이나 문자를 친구들과 하는 건 좋아하는데 전화는 잘 하지 않아요.

Q : 그럼 어떤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면 어떻게 알아보죠?

A : 음, 아마 학교에서 꼬시려고 들 거예요.

Q : 음, IM은요, 만약 IM에서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알아볼 수 있나요?

A : 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게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자 애들이 남자 애들을 온라인으로 읽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볼 수 없으니까요.

Q : 시도는 하나요?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려 하는 시도들이요.

A : 네...제 생각에 남자 애를 좋아하는 여자 애는 정말 시도하는 것 같은

- 데, 하지만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 어렵죠...
- Q : 흥미롭네요. 당신은 하루에 열 개 정도의 문자를 받는다고 했죠...당신의 다른 여자인 친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A : 개네들은 하루에 최소한 60개 (sixty) 정도 받아요.
- Q : 열 여섯(sixteen)이요, 아니면 60(sixty) 개요?
- A : 60개요.
- Q : 와, 60개라...
- A : 개네들은 계속 문자를 주고 받아요...
- Q :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문자를 적게 이용하는 것 같죠?
- A : 글썄요, 전 제 휴대 전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보통 문자를 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그래서 보통 문자를 쓰다가 중간 쯤에 지쳐서 그냥 전화를 해요. 하지만 개네들은 문자 보내는 데에 익숙해서 더 빠르고 쉬운 것 같아요.
- Q : 그것 재미있네요! 음, 부모님과 친구들 중 누구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 A : 음, 제 생각에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건 단지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 Q : 그럼 부모님들보다 친구들과 더 친하다고 느끼는 것이 새로운가요?
- A : 네. 제 생각에 중학교 동안 친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있죠, 어렸을 땐 주말 동안 그렇게 많이 밖에 나가 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제 또래여서 부모님들과 우리의 관계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 Q : 음, 이게 질문의 다이고요. 다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나요?
- A : 음, 잘 모르겠어요...몇 년 동안 제가 이메일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 Q : 계속 듣고 있어요!
- A : 더 이상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전에도 거의 누가 사진을 보내면 썼었죠. 하지만 심지어 그런 것에도 지금은 사람들이 IM을 통해 보내요. 네. 그래서 거의 이메일을 써본 적이 없어요.

Q : 그것 정말 흥미롭네요. 전 이메일을 통해 교류를 하는데 그게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인 것 같네요. 모든 학생들이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나 이메일을 사용하거든요...

A : 엄마도 사용하세요.

Q : 엄마도 항상 사용하나요...그럼 어떤 세대간 차이네요. 혹시 9학년이나 10학년 아이들을 아나요? 이 학교에서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을 알고 있나요?

A : 네.

Q : 당신이 느끼기에 IM이나 FaceBook과 관련해서 당신이 하는 것들이 보통인 것 같나요, 아니면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나요?

A : 음...

Q :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요...

A : 글썽요, 제 생각에는, 음...제가 알기론 나이 어린 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럽 펑귄이란 게 있는데, 이건 인터넷 게임인데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걸 아주 어릴 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급 학교 아이들은 FaceBook이나 MySpace 또는 Zenga를 더 하는 것 같고요...

Q : 마지막 게 뭐였죠?

A : Zenga요.

Q :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A : 제 사촌이 하는데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MySpace 같은 거예요.

Q : 무엇에 사용하나요?

A : 그냥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에 쓸 걸요.

Q : 당신이 생각하기에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 더 교류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만 머물러 있는 것 같나요?

A : 음, 아마 그들은 자기가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거의 다 실제로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죠.

Q : 그리고 상급 학생들 중에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A : 아마 당연히 문자나 IM 같은 걸 더 많이할걸요.

Q : 당신과 당신 친구들보다 더 많아요?

A : 네.

Q : 그럼 당신 그룹은 아직 주로 대화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군요.

A : 네.

Q : 그것 참 흥미롭네요. 줄리아,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재밌었고...당신도 재밌었길 바라요!

V. 독일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독일사례 #1

대상자 : 15세, 여, 거주지(겔젠키르헨), 부모직업(식당 자영업)

Q : 너는 원래 여기 겔젠키르헨 호르스트(Gelsenkirchen Horst)에서 자랐니?

A : 네.

Q :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다는 말이지?

A : 맞아요.

Q : 여기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은 장점이 많은 것 같니?

A : 네.

Q : 어떤 장점을 들 수 있지?

A :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거든요. 학교까지 버스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 교외 지역도 살기에 좋아요. 친구들도 근처에 살아서 대도시의 경우처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죠.

Q : 여기 사는 것에 단점도 있는 것 같니?

A : 별로 없는 것 같아요.

Q : 전혀?

A : 대도시들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제법 있기는 하죠. 야외 영화를 상영하는 공원과도 같은, 말하자면 취미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멀리 가야 하죠.

Q : 너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니?

A : 가족과 친구요.

Q : 그럼 이제 가족,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시켰을 거다. 네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너도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니?

A :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셨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제 편에 서 주셨

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Q : 네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건 뭐니?

A : (...) 없는 것 같아요.

Q : 떠오르는 것이 없구나. 좋다. 저희 집에서 네가 지켜야 할 확립된 규칙 같은 것이 있니?

A : 네,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청소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하죠. 그걸 제외하면 제 친구들과 항상 하고 싶은 대로 지낼 수 있어요.

Q : 만일 네가 규칙을 어긴다면 어떤 일이 생기지?

A : 부모님이 좀 화를 내시겠죠. 그래도 금방 풀리시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Q : 네가 그 규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A : 아뇨.

Q : 전혀?

A : (무답)

Q : 좋다.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셨을 거다.

A : 네.

Q : 그것들 중에서 네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A : 책임이요.

Q : 어떤 측면에서?

A :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Q : 어떤 종류의?

A : 잭 러셀과 테리어의 잡종이에요. 제가 그 개를 원했거든요. 부모님이 저에게 사 주신 거라서 말하자면 제 개예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이 저를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Q : 이제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학교도 우리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학교가 너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 준비를 잘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A : 네,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

니까 제 직업, 그리고 나중에는 제 돈에까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도요.

Q : 좋다.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고,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덕과 같은 것들도 가르치지. 학교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A : 별로요.

Q : 그러니까 지식에 치중한다?

A : 네 맞아요. 지식에 치중하죠.

Q : 좋다. 너희 학교에 규칙은 어떠니?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니?

A : 네,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14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네, 그랬어요.

Q : 그런 일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니? 그러니까, 규칙은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말이다.

A : 별로 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누구나 규칙을 위반하니까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뭘 먹는다던가, 아니면 뭘 마신다던가. 그런 건 사실 누구나 하거든요.

Q : 좋다. 학교에 어떤 학생들은 남들보다 인기가 있고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 인기 있는 학생들의 경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니?

A : 네... 그러니까.

Q : 인기 있는 학생들의 성격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아라.

A : ...그 친구들은, 말하자면, 좀 건방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Q : 인기 있다는 이유로?

A : 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신을 위해 제일 좋은 것만을 선택하려 하죠.

Q :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A : 아마도 자신을 잘 숨기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 좀 흥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Q : 학교에는 또한 인기가 별로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게다. 이들의 성격은 어떠하니?

A : 수줍어하죠. 수줍어하고 또 불안해하고요. 남들과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하는 데에 불안감을 느껴요. 저희 반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34년 전에 독일로 왔어요. 독일에 오기 전에는 독일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잘 하죠. 그래도 저희들과 섞이지를 않아요. 온종일 혼자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를 물어도 항상 대답은 싫다는 걸로 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행동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Q : 이 수줍음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거지?

A : 네, 그거죠. 눈에 별로 띄이지도 않고요.

Q : 좋다. 이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니?

A : 네, 대부분은 학교 친구들이고 주변 친구들이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대화 장소를 변경하다)

Q : 만나면 같이 무엇을 하니?

A : 극장에 가고요, 아니면 좀 멀리 갈 때도 있지요. 휴가처럼 떠나는 것인데... 공원에 가고요 하고, 수영하러 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셈이죠. 시내로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Q : 네 친구들의 성격은 어떠니?

A : 모두 아주 열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같이 하거든요.

Q : 가족도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학교도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친구들은 학교나 가족이 제공하지 않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 같니?

A : 재미... 그리고 안정감이요.

Q : 어떤 의미에서의 안정감?

A : 그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들을 믿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도
요.

Q : 친구들과 만나면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되니?

A : 우리는 원래 항상 생각이 같아요. 대개의 경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
우도 별로 나쁘게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
게 드러내죠.

Q :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압력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 모양이지.

A : 네. 가끔 말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죠.

Q :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는 누구에게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
하니?

A : 네 가족에게요. 제 부모님이요.

Q : 좋다. 만일 네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혹은 어떤 도움의 말이 필
요하다면, 누구와 먼저 이야기하니?

A : 제 친구들에게요.

Q : 그래?

A : 네.

Q : 좋다. 만일 누군가와 다툰다면, 너는 누구와 가장 많이 다투는 것 같
니?

A : 제 엄마와요.

Q : 엄마와 다툰 때 대개의 경우 어떤 문제 때문이니?

A : ... 대개 학교 문제죠. 아니면 제가 가끔 멀리 떠나버릴 때죠. ... 그러나
다음 날이면 바로 다시 화해해요.

Q : 학교 문제라. 그건 네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니?

A : 네.

Q : 이제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요즘에는 매체와 의사소통 도구
가 아주 많아졌다. 예를 들어보면,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플레이스
테이션,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 그리고 음악 등이 있겠지. 너는 어
떤 매체를 사용하고,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니?

A : 매체는... 하루에 많아야 한 시간 정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핸드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 Q : 좋다.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제일 많이 하지?
- A : 친구들과 채팅하고, 또 음악을 듣죠.
- Q :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니?
- A : 하루에 어떨 때는 두 시간, 어떨 때는 한 시간 정도요. 어떨 때는 전혀 쓰지 않기도 해요. 제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셈이죠.
- Q : 네가 채팅을 할 때, 학교 친구들 같이 잘 아는 친구들하고 하니,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하니?
- A : 네. 항상 달라요. 보통 친구들과 약속을 해서 채팅을 하죠. 그런데 지루해지면 가끔 모르는 사람과도 채팅을 해요.
- Q : 좋다. 네가 텔레비전이나, 광고나 음악 밴드를 생각해보면, 네가 그렇게 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 A : 없어요.
- Q :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니?
- A : 네, 없어요.
- Q : 그런 사람도 없다고? 왜 그렇지?
- A :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보는데요. 거기에 배우들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연기나 음악은 좋아할 수 있지만, 실제 연기자나 음악가는 좋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 Q : 좋다. 실제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너에게는 어떤 모범적인 인물이 있니?
- A : ... 제 부모님이요.
- Q : 좋다. 혹시 부정적 의미에서의 모범도 있니? 말하자면,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말이다.
- A : (휴지(休止) 지금으로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 Q : 좋다. 그럴 수 있지. 네가 앞선 세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리 매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게다.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하나 밖에 없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너는 이 다양한 매체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

A :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런 매체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요즈음은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집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사귄 수도 없는 거죠.

Q : 사람들이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도 매체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A : 네, 물론이죠. 비디오 게임 같은 걸 보면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Q : 그리고 요즈음은 그렇게 채팅을 많이들 하는데, 이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니?

A : 둘 다죠 뭐. 장점은 친구와 채팅하니까 좋은 거고, 단점은 채팅이 원래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낯선 사람과 채팅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기도 하거든요. 신문에 보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Q :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A : 네.

Q : 좋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장래의 네 꿈은 뭐니?

A :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가족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가족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지요.

Q : 너의 부모는 네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 같니?

A : 부모님들은 제가 바람직한 미래를 갖는 것, 그러니까 직업 활동을 잘 하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하죠.

Q : 좋다. 네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A : 네 친구, 그리고 제 가족이요.

독일사례 #2

대상자 : 15세, 여, 거주지(겔젠키르헨시), 부직업(회사원), 모직업(주부)

Q : 원래 여기 겔젠키르헨에서 자라났니?

A : 네, 겔젠키르헨 구도시 지역에서 자랐죠. 이곳 마리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Q : 정말 정통 겔젠키르헨 사람이구나!

A : 네, 맞아요.

Q : 너는 여기 겔젠키르헨에서 청소년이 사는 것이 장점이 있는 것 같니?

A : 아뇨.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할 게 별로 없어요.

Q : 그러니까 겔젠키르헨에서 사는 것은 단점이 더 많다는 거지?

A : 네.

Q :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물어면, 즉각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니?

A : ..가족.

Q : 그래.

A : 그래요.

Q : 좋다.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너희 부모님은 너를 어떤 특정한 방식에 따라 교육시키셨을 거다. 네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너도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니?

A : 네,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Q :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은 그리 엄격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A : 네, 아주 가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Q : 방금 그 말은, 그래도 집에 어떤 규칙 같은 것은 있다는 이야기구나.

A : 네, 그러니까 ... 부모님은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정말이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까지는 귀가해

- 야 해요. 이런 것은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 Q : 좋다. 만일 네가 그 규칙을 어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 A : 네, 뭐 특별히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대략 하루 정도 집에서 꼼짝없이 공부해야 하지요.
- Q : 너는 네가 그 규칙을 변경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 A : 네, 물론이지요.
- Q :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규칙을 바꾼다는 말이지?
- A :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시간 정도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미리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 Q : 그래, 좋다. 부모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셨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 A : 존중이요.
- Q : 존중?
- A : 네.
- Q : 어떤 면에서?
- A : 네, 제가 타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거요.
- Q :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는 학교가 나중의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를 시켜준다고 생각하니?
- A :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제 미래는 말하자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학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 Q : 그러니까 직업의 측면에서?
- A : 네, 바로 그거죠.
- Q : 학교에서는 지식이 전달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들도 전달된다. 이 기능을 학교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 A : 네. 조금 바뀌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Q :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A :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문제 같은 거지요. 독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터키 여학생과 별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외국 학생들을 좀 더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든 외국 학생을 한 반에 몰아넣는 식보다는, 좀 섞어서.

Q : 그 말은, 너희 학교에는 완전히 외국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반이 있다는 이야기니?

A : (말을 가로막으며) 아니,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외국 학생 열 다섯 명, 그리고 독일학생 다섯 명,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Q : 그 말은 그러니까 더 섞어야 한다는 뜻이지?

A : 네, 그래요.

Q : 예를 들어 독일 학생과 터키 학생이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A : 제 생각으로는, 일단 문화가 다르고요. 그리고 독일 학생들은 예를 들어 몇 가지 점에서 독일이 터키보다 낫다고 터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정말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Q : 좋다. 너희 학교에도 많은 규칙들이 있니?

A : 네, 규칙들이 있지만 그리 엄하지는 않고요, 뭐 평범한 것들이죠. 지각하지 않아야 한다던가.

Q : 그 규칙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A :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해요.

Q : 좋다. 너 혹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니?

A : 네. (웃음)

Q : 여선생님이니 아니면 남선생님이니?

A : 베케르트(Beckert) 선생님이요.

Q : 글썄, 내가 모르는 분이구나.

A : 지금 수학 선생님이세요.

Q : 그분의 어떤 점이 좋으니?

A : 네, 수업분위기를 자유롭게 하시구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시고... 그리
엄격하게 수업을 하시는 편이 아니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
고, 뭐 그런 거요.

Q : 네가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니?

A :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을 담당하시는 미히만(Michmann) 선생
님,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시는 콘만(Kohnmann) 선생님이요.

Q : 어떤 점이 특별히 싫은 거니?

A :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지요. 무슨 문제
가 생겨도 그 선생님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Q : 그건 정말 좋지 않구나. 아마 학교에 친구가 많을 줄 안다.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아주 인기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겠지.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겠
니?

A : 네.

Q : 어떤 성격이지?

A : 다른 학생들과 아주 잘 지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해요... 솔직히 저도 많은 다른 학생들과 그리 잘 지내는 편
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여학생들과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다 문제없지만요.

Q : 그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A : 아마 다른 사람과 접촉이 더 많기 때문일 거예요. 글썄요, 잘 모르겠어
요. 치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Q : 다른 한편으로, 인기 없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니?

A : 아마 좀 수줍어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
아요. 그런 아이들은 항상 혼자 있죠.

Q : 음, 네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니?

A : 네, 방과 후에요.

Q : 만나서 같이 뭘 하지?

A : 때가 되면 졸업 파티 같은 곳에 가기도 하고요, 가끔 오버하우젠

(Oberhausen)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페 같은 곳에 앉아서...
네, 그래요.

Q : 네 친구들을 한번 묘사해 본다면?

A : 아주 친절하죠. 아주 친한 여자 친구가 둘 있는 데요, 우리는 정말 친해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거든요... 또 제가 아주 믿는 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같이 너무 잘 지내요.

Q : 부모님도 무엇인가를 주고, 학교도 무엇인가를 주지. 너는 학교나 부모님과 달리 친구는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니?

A : 제 친구들은 저에게 말하자면 자신감 같은 것을 주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제 친구들은 그걸 저에게 곧바로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을 고치거나 만회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또 친구들에 의해서 저는 수줍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또 신뢰감도 주는 것 같아요.

Q : 너희들끼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니?

A : 원래 저희들은 항상 취향이 비슷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는 편이에요.

Q :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A : 아,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셋이 모여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항상 쉽게 이야기를 모을 수 있어요.

Q :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더 나아가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경쟁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걸까?

A : 그러니까, 제 경우는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이고 남들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넌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좀 더 노력해야지,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과 경쟁하는 셈이지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나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Q :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니?

A :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저 친구가 90점을 맞았으니 나도 90점을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Q :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는 맨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겠니?

A : 제 친구들에게요.

Q : 좋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건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는 뜻이니, 아니면 모든 걸 우선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뜻이니?

A : 다 친구들에게요.

Q : 좋다. 만일 너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너는 누구와 제일 먼저 의논하겠니?

A : ... 이것도 역시 제 친구들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점에서 서로 신뢰하고 있거든요.

Q : 좋다. 살면서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너는 누구와 가장 자주 다투는 것 같니?

A : ...음... 제 부모님과요.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다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항상 학교 공부를 좀 하라 하시고 그러면 저는 내일 하겠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항상 좀 사소한 다툼이 따르게 되죠.

Q : 좋다. 이제 매체로 화제를 넘겨보자. 요즘은 정말 많은 매체와 의사소통도구가 있는 것 같다. 이를 테면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플레이스테이션,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 같은 것 말이다. 이중 어떤 매체를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며,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

A : 제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친구와 채팅을 하죠.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Q : 정말이니? 하루에 몇 시간이나?

A : 음, 오후에 두 시간, 그리고 저녁에 두 시간 정도요.

Q : 그러면 친구들과 그렇게 약속하는 거니?

A : 네.

Q :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니?

A : 네, 그렇죠.

Q : 너희들은 그러면 때때로 모르는 사람과도 채팅을 하니?

A : 네.

Q : ...그러니까 너희와 채팅만 하는 사람들?

A :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새로 사귀게 되는 거죠.

Q : 그리고 텔레비전은? 얼마나 오래 보니?

A : 네, 제가 항상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Q : 어떤 드라마를 보니?

A : “좋은 시절, 나쁜 시절(Gute Zeiten, Schlechte Zeiten)” 이요.

Q : 좋다.

A : 그 드라마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요, 가끔 좋은 영화가 방영될 때도 텔레비전을 봐요. 그 이외의 경우는 거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Q : 좋다. 그러면 영화, 음악,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떠니?

A : 네, 주말에는 영화관에 자주 가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예전에는 좀 가지고 놀았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가끔 사용하지요.

Q : 좋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그리고 광고나 음악밴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니?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말이다.

A :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리한나(Rihanna)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저에게는 소위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죠.

Q : 좋다. 그러면 실생활에서도 너에게 어떤 모범이라 불릴만한 사람이 있니?

A : ...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일을 너무도 훌륭하게 해내시는 분이니까요. 여섯 명의 자식을 키워내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하여간 존경받으실 만해요. 너무도 훌륭하세요.

Q : 좋다. 그러면 네가 전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에서의 모범이 있니?

A : 네, 여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경우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곤 하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Q :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

A : 네,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 혹은 ... 음.. 그냥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요.

Q : 좋다. 수 세기 전에는 지금처럼 매체가 많지 않았다. 텔레비전에도 방

송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었지.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많은 매체들이 존재한다. 너는 이런 매체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

A : 네 물론이지요. 음...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했지만 지금 대부분은 집에서 컴퓨터 혹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뿐이죠.

Q :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A : 네, 아주 달라졌지요. 액션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되었고, 이건 과거보다 나빠진 결과라 할 수 있죠.

Q :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없을까?

A : 네, 의사소통은 정말 쉬워졌지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있으면 외국에 나가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Q : 그래, 너의 장래 꿈은 뭐니?

A : 네,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큰 가족, 그리고 지금의 친구들을 나중에게까지도 유지하는 거요.

Q : 너희 부모님은 너에게 뭘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A : 음, 나중에 제 인생에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는 것, 불행을 겪지 않는 것, 제가 거리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시죠.

Q : 좋다.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니?

A : ...제 형제, 자매들이요.

Q : 왜 그렇지?

A : 모두 제게 너무 잘 해주고요, 저와 항상 대화를 나누죠. 저도 많은 점에서 그들을 신뢰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곧장 퍼트리지 않거든요.

Q : 너는 6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했지?

A : 모두 6명이구요, 그러니까 저를 빼면 다섯이지요.

Q : 아, 그렇구나. 나이가 다들 어떻게 되지?

A : 네, 제가 제일 어린 막내고요, 24살짜리 오빠가 있고요, 그리고 28살 언니가 있고, 그 위로 34살인 파트릭 오빠, 그 위에 언니 니콜, 그리고 맨 위에 40살의 타냐 언니가 있어요.

Q : 와우. 정말 나이 차가 많이 나는구나.

A : 네.

Q : 그러면 정말 너를 잘 돌봐줄 수 있겠구나.

A : 네. (웃음).

독일사례 #3

대상자 : 15세, 여, 거주지(비스바덴시), 부모동거, 3남매, 부직업(보험사 직원), 모직업(초등학교 보조교사)

Q : 원래 여기 비스바덴에서 자랐니?

A : 네.

Q : 그래?

A : 이 근처에서 몇 번 이사를 하긴 했지만, 줄곧 여기서 살았어요.

Q : 좋다. 너는 이곳이 청소년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니?

A : 네, 그래요. 베를린보다도 낫죠. (웃음)

Q : 그래? 왜?

A : 베를린은 정말 좀 거칠어요. 옛날에 일주일 정도 베를린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웃음)

Q : 뭐가 그리 거칠었지?

A :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사람들끼리 대하는 태도도 그래요. 전 그런 곳에 정말 살기 싫어요.

Q : 좋다. 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A :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음, 저는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서로 소원하지만 내 가족들도 중요하죠.

Q : 좋다, 좋아. 너의 부모님을 너를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시키셨을 거다. 만일 네가 지금 아이가 있다면, 너도 네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니?

A : 물론이죠.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줄 것 같고요, 또 제가 만일 아이가 둘 있다면, 첫째 애가 첫째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제가 첫째거든요.

Q : 알고 있다. 어떤 점에서 네 부모님과과는 다르게 교육하고 싶다는 거니?

대강이라도 말해줄 수 있니?

A : 뭐, 좀 다르게요, 그러니까 자유도 좀 더 많이 주고.

Q : 네 생각에 네 부모님이 너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A : 가장 중요한 것...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게 다 가장 중요하죠, 그 모든 것 전부 다요. 그것들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Q : 좋다. 너희 집에 규칙 같은 것이 있니?

A : 네, 그럼요 (웃음)

Q : 어떤 것들이지?

A :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일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런 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Q : 너는 이런 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A : 네 (웃음).

Q : 그래?

A : 네.

Q : 어떻게?

A : 제가 여동생에게 넌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말하는 거죠. (웃음)

Q : 좋다. 이제는 학교 이야기를 해보자. 학교가 너의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큰 준비를 시켜준다고 생각하니?

A : ... 글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한다든지, 뭐 그런 점을 배우는 점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 : 학교에서는 지식 뿐 아니라 민주주의나 덕이나 가치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학교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A :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웃음)

Q : 아니라고?

A : 네, 잘 안 되고 있죠.

Q : 넌 어느 학교에 다니니?

A : 모스바허 베르크(Mosbacher Berg) 학교요.

Q : 나도 거기에 다녔단다. (웃음)

A : (웃음)

Q :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니?

A : ... 없어요.

Q : 전혀?

A : 전혀요.

Q : 선생님들에게서 네가 싫어하는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니?

A :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헐박만 할 뿐이고요, 학생들은 이런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도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지만,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죠. 그게 우리 학교의 작은 문제예요.(웃음)

Q : 학교의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니?

A : 모든 선생님들은 각자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되는 학생을 정말로 교장선생님에게로 보내는가 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 좋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음번에 똑 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지요.

Q : 좋다. 학교 친구들 중에는 인기가 좋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니?

A : 그 애들은 정말 되게 ... 시건방진 데가 있어요. 만일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싫어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꼭 느낄 수 있게 만들죠. 그렇지만 아주 친절하기도 하죠.

Q : 그들이 왜 인기가 좋을까?

A : 잘 모르겠어요. 우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글썄, 잘 모르겠어요.

Q : 인기가 별로 없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니?

A : 수줍어하고 소극적이죠. 우리 반에도 그런 여학생이 있는데, 좀 왕따를 당해요. 원래 아주 친절할 성격의 아이인데, 글썄요, 그 아이가 하는 말마다 사실 다 헛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학을 갈 거예요.

Q : 왜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지?

A : (웃음) 모르겠어요.

Q : 좋다.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니?

A : 네.

Q : 너희는 만나면 무얼 하니?

A : 보통 메덴바하(Medenbach)에서 만나고,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보고, 개를 데리고 나와 산보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보통 그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죠.

Q : 네 친구들의 성격은 어떠니?

A : 시원시원하고요, 좀 즉흥적(웃음)이지요. 저희는 만나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만나면 항상 너무 재미있지요. 정말 많이 웃어요.

Q :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은 보통 누가 하게 되니?

A :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Q :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각자는 약간씩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는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네 친구들 중에서 남들보다 오래 말을 하거나 남들보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니?

A :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아주 신뢰해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Q : 좋다. 학교에서 혹은 네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에 대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니?

A : 아뇨.

Q :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가?

A : 아뇨,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내가 너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쟁 같은 건 없어요.

Q : 좋다. 그러면, 만일 너에게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하자. 너는 이를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 같니?

A : (휴지) 잘 모르겠어요.

- Q : (동시에) 네 친구, 아니면 네 가족?
- A : 저에게는 제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웃음) 보통은 한 사람이 알게 되면 다른 모두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 Q : 만일 네가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충고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 A : 제 제일 친한 여자친구에게요.
- Q : 그래, 좋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 너는 누구와 제일 많이 다투는 것 같니?
- A : 아빠와요.
- Q : 그래? 어떤 문제로 주로 싸우지?
- A : 제가 우리 엄마와 너무 닮아서요 (웃음)
- Q : 정말?
- A : 네. 엄마와 아빠가 요새 서로 좀 많이 안 좋거든요.
- Q : 그렇구나.
- A : 저는 정말 엄마를 닮았어요.
- Q : 좋다. 대중매체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와 의사소통수단이 있는 것 같다. 목록만 이야기해도,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플레이스테이션,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 등이 있지. 네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매체는 어떤 것이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니?
- A : 텔레비전은 항상 저녁에, 아니면 정말 지루할 시간을 보낸다고 느껴질 때 봐요. 그리고 별달리 할 일이 없을 때도요. 인터넷은 주로 친구와 채팅할 때 쓰고요, 학교 숙제 때문에 할 때도 있죠. 제 핸드폰, 글썬요, 항상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의 쓰지 않거든요. (웃음)
- Q : 채팅은 얼마나 자주 하는 편이니?
- A : 채팅이요? 한동안 정말 거기에 빠져서 했었는데, 지금은 ... 별로 안 그래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이 하는 것 아니죠.
- Q : 채팅은 학교 친구들과만 하니?

A : 아뇨, 학교 친구들 말고도 많아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카셀(Kassel)에, 저는 거기에 살지 않았지만, 친구가 하나 있고요, 쾨니히스빈터(Königswinter)에도 친구가 있고, 뭐, 그래요.

Q : 좋다. 네가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때도 있지?

A : 네, 물론 그 경우 재미로만 하는 거고요(웃음), 심각할 때는 전혀 없어요.

Q : 좋다. 텔레비전, 영화, 광고 그리고 음악 그룹 등을 생각해보면,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래서 너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A : ... 아뇨.

Q : 전혀?

A : 없어요.

Q : 네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니?

A : ... 없어요. 글썄, 잘 모르겠는데... 음악에서는 빌리 텔런트(Billy Talent) 인가 있는데, 잘은 모르고요, 하여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Q : 네가 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니?

A : ...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고요. 저는 그냥 지금의 제가 좋아요. 제 자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Q : 좋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있지?

A : 없어요. (웃음).

Q : 또 없니?

A : 없어요.

Q : 좋다. 그러면 부정적 의미에서의 모범적인 사람, 그러니까 네가 절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인물이 있지? .

A : ... 저희 할아버지요.

Q : 그래? 어떤 분이신데?

A : 까다로우신 분이셨고요, 누가 간섭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Q : 좋다. 몇 세대 전에는 아주 적은 매체만 존재했었지. 아마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었을 거다.

A : (웃음)

Q :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매체들이 있지. 너는 이 매체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

A : 네, 예전에는 그렇게 텔레비전을 오래 보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Q : 이것을 너는 긍정적으로 보니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니?

A : 부정적으로요.

Q : 왜?

A :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뭐 제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Q : 채팅을 하는 것은 장점이 많은 것 같으니, 아니면 단점이 많은 것 같으니?

A : 제 생각에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여동생도 요즘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채팅을 해요.

Q : 좋다. 네 미래의 꿈은 뭐니?

A : 내 미래의 꿈이라... 네, 직업(웃음), 글썬요, 제 집, 독립하고 싶거든요. 부모님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Q : 좋다. 너희 부모님은 너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니?

A : 제 부모님이요? 공부 잘 하는 것 (웃음), 그냥 제가 잘 지내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Q : 좋다. 누가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A : 가장 큰 영향이요? (웃음) 엄마요.

Q : 그래, 그건 왜지?

A : 제가 엄마 친구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음, 그리고 저는 엄마와 진짜 닮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오, 작은 마리온(Marion)”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오케이”라고 말하죠. (웃음)

독일사례 #4

대상자 : 15세, 남, 거주지(비스바덴시), 부모동거, 형제자매(없음), 부직업(잡화상), 모직업(잡화상)

Q : 너는 원래 여기 비스바덴에서 자랐니?

A : 네.

Q : 그래? 너는 여기가 청소년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니?

A : 네, 그렇게 생각해요. 취미활동하기에 좋은 곳들도 많고요.

Q : 예를 들면?

A : 축구요... 할 만한 장소가 아주 많아요, 신나는 일이지.

Q : 좋다. 인생에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A : .. 내 여자친구, 그리고 내 친구들이요.

Q : 좋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족, 그리고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자. 만일 네가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이 너를 키우신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겠니?

A : 아뇨.

Q :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점을 다르게 키우고 싶니?

A : 모두요.

Q : 정말?

A : 네.

Q : 그걸 좀 설명해줄 수 있겠니?

A : 네.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구요,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도와려고 애쓰겠어요. 제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Q : 전혀? 혹시 예를 들어줄 수 있겠니?

A :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숙제할 때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아는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봐라” 하시거든요. 이를 태면 그런 거요.

Q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니?

A : 안돼요.

Q : 안된다고? 집에 혹시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것이 있니?

A : 없어요.

Q : 전혀?

A : 있어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Q : 좋다. 아마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A : (휴지) 부모님이 저에게 준 것... 별로 많지 않아요... 견고 말하고, 그러나 그런 건 모든 아이들도 하는 거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Q :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니?

A : 네... 매일 같이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Q : 좋다. 이제 학교 문제로 넘어가 보자. 너는 학교가 이후 네 삶에 얼마나 큰 준비를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A : .. 아주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좋은 시절이고요... 잘 졸업하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니까요.

Q : 너는 어느 학교에 다니니?

A : 나우로트(Naurod) 학교예요.

Q : 내가 알지 못하는 학교구나. 그런데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가치, 덕과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너희 학교가 이런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A : 네, 그래요.

Q : 그래?

A : 네.

Q : 이에 대한 예를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A : 예를 들어 “정치경제” 시간에는 정치와 경제의 분야에서 현재의 상황을 배우거든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Q : 좋다. 혹시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니?

A : 네.

Q : 그래? 여선생님이니 아니면 남선생님이니?

A : 남선생님이요.

Q : 그 선생님의 어떤 점을 특히 좋아하니?

A : 그 분은 어떤 점에서는 아주 엄격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Q : 너희 학교에는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니?

A : 네.

Q : 어떤 것들이지?

A : 체육시간에 운동 도구를 가져오지 않으면 교실에 앉아서 자습을 해야 하고, 학교에서 담배피우면 안되고, 축구를 할 수 없는 장소가 따로 있고, 복도에서 뛰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Q : 너는 혹시 이 규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A :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물론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Q : 너는 너희 학교가 엄격한 학교라고 생각하니?

A : 아니요.

Q : 아니라고?

A : 엄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Q : 좋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A : 네.

Q : 좋다. 학교친구들 중에는 인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 인기 있는 친구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니?

A : (휴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인기가 있고 누구는 인기가 없고, 그럴 수는 없죠.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좋아해요. 두, 세 학생,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사실 모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Q : 나는 지금 선생님께서부터 인기 있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끼리의 경우를 말하는 거다.

A :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해요.

Q : 그래?

A : 네.

Q : 그래도 좀 인기 없는, 그래서 뭐랄까 아웃사이더 같은 아이들이 있지 않니?

A : 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자신이 뭘 했는지 잘 알아요.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도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요.

Q : 그러니까 그게 왜 그 학생들이.

A : 네. (동시에)

Q : 소외되는가에 대한 이유로구나. 좋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니?

A : 네.

Q : 친구들을 한번 묘사해줄 수 있겠니?

A : .. 네 ...

Q : 성격 말이다.

A : 그 친구들과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을 흥분 수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죠.

Q : 가족도 무엇인가를 주고, 학교도 무엇인가를 주는 법이다. 가족과 학교가 주지 않는 것 중에서 친구가 주는 것은 예를 들어 뭐라고 생각하니?

A : .. 어떤 유대감 같은 거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주는 거죠.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Q : 좋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뭘 하지?

A :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죠. 남자들끼리 만나면 보통 축구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렇게 지내요. 여자들을 만나면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떠는 거죠, 뭐.

Q : 좋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지?

A : 모두 같이요.

Q : 그래?

- A : 어떤 문제를 놓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식이죠.
- Q : 본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것 같다. 네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리더형의 친구들, 말하자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니?
- A : 아뇨, 우리는 원래 동등하죠. 조금 말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도 그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게 마련이죠. 결국 상대적으로 동등한 것 같아요.
- Q : 좋다. 네 생각에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 같니?
- A : ... 네, 뭐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은 대개 그냥 비슷비슷할 뿐이죠.
- Q : 좋다. 너에게 만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걸 이야기하니?
- A : 친구들에게요.
- Q : 좋다. 만일 나쁜 일이 생기면?
- A : 그것도요.
- Q : 살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다투기 마련이란단다. 너는 누구와 가장 자주 다투는 것 같니?
- A : 부모님과요.
- Q : 어떤 이유로?
- A : 사소한 일들이죠.
- Q : 예를 들면?
- A : ... 무슨 일이 생기기만하면, 제 책임도 아닌데 절 보고 항상 뭐라고 하시죠. 항상 내가 문제가 되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 Q : 좋다. 매체 이야기를 해보자. 현재 정말 많은 매체와 의사소통도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플레이스테이션, 인터넷 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 등. 이 중에서 어떤 매체를 너는 사용하고,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니?
- A : 저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인터넷은 거의 쓰지 않아

요.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지만 저녁 시간에만 봐요. 낮에는 밖에 나가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컴퓨터도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Q : 책, 잡지, 음악, 영화 등은?

A : 음악과 영화는 가끔 듣고 보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원래 다 볼 수 있는데요 뭐.

Q : 인터넷게임 같은 건?

A : 안 해요.

Q : 그래, 좋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광고, 음악밴드 등을 생각해보면,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혹은 네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A : ... 아뇨, 없어요. 광고 중에 어떤 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이고, 또 어떤 것은 특별한 의미들이 숨어있기는 하지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Q : 스타들이나 영화배우 중에 모범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없니?

A : 없어요.

Q : 전혀? 왜 모범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A :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고, 완전히 다른 가족에 속해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Q : 그 사람들이 어떤 가족에 속해있다고 말하는 거니?

A : 돈이 많고 잘 알려진 집안 출신이라서 완전히 다르게 컸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저나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Q : 너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니?

A : 아뇨.

Q : 왜 아니지?

A : 그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항상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Q : 좋다. 대중 매체는 잊고, 이제 실제 생활을 생각해보면, 너에게 어떤 모범이 있니?

A : ... 아뇨. 저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르고 또 다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범 같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면 그 경우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제 생각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해야 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Q : 좋다. 너는 혹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모범이 있니?

A : 아빠요.

Q : 그래? 어떤 점이 가장 좋지 않은 점이지?

A : 맨날 소리만 지르죠. 아빠와는 이야기가 안 통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Q : 좋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니. 너는 이 매체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

A : ... 네.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없었으니까 오직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지금은 각자 자기가 흥미롭게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매체가 존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Q : 채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는 채팅이 장점이 많은 것 같니, 아니면 단점이 많은 것 같니?

A :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장점이 있죠. MSN으로 웹캠을 켜고 자주 서로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Q :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니?

A : ..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집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렇죠. 좀 밖으로 나가서 분위기도 전환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Q : 그래. 장래의 네 꿈은 뭐니?

A : (휴지) 가족, 좋은 직업...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요.

Q :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 같니?

A : (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부모님이 저에게 아무런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Q : 이전에 너와 부모님의 관계는 좀 달랐었다고 생각하니?

A :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 이틀, 사흘, 뭐, 글썄요, 이제까지 살면서 부모님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시간은 합쳐봐야 이 주쯤 될까, 나머지는 항상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요.

Q : 왜 이렇게 된 것 같니?

A :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Q : 그래. 너에게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니?

A : (휴지) 모르겠어요.

Q : 떠오르는 사람이 없니?

A : 없어요.

독일사례 #5

대상자 : 17세, 여, 거주지(바이마르시), 부모별거, 무학력/직업(고졸, 금세
공사), 모학력/직업(대졸, 회사원)

Q : 우선 첫번째의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너는 원래 여기 바이마르에서 자
랐니?

A : 여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 바이마르에서 자랐어요.

Q : 여기 바이마르에서 자라는 것은 어머니? 청소년들에 좋은 도시니?

A : 저는 아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설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공원과 광장들이 많아요. 자연도 아주 가깝지만 도시도 아주 발달되어
있죠. 이 도시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Q :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는 게지?

A : 학교에서 이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죠. 이 도시는 아주 중세적인 도시잖아요. 아직도 오래된 것
이 많이 있죠. 많은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도시를 모르는 사람
들에게 바이마르를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Q : 나도 조금 전에 둘러보았는데, 정말 좋더구나. 음, 인생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보아라.

A : 아마도 사회적 교류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친구를 갖고, 가족을 갖는 것.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Q : 그래,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나중에 네가 아이를 갖게 되면 너는 네 부
모님이 너를 키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네 아이를 키우겠니,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키우겠니?

A : 저는 같은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신 제 부모님들의 교육 방

식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많은 결정을 위임하셨고, 그럼에도 항상 제 곁에 계셨고 지금도 제 곁에 계시죠.

Q : 예를 들어 줄 수 있겠나?

A : 저는 개신교 유치원을 다녔고 개신교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랬지만 부모님은 „너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저는 이렇게 선택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봐요.

Q : 그러면 너는 결정을 했니?

A : 아직 아니에요.

Q : 그런데 너는 개신교 고등학교를 다닌 것 아니니?

A :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세례받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이 저를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교육시키신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Q : 혹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과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은 없니?

A : (휴지) 음, 아주 어려운 데요... 저는 그런 게 다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는 데요. 제가 여섯 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이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글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Q : 좋다.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해라.

A : 알겠어요.

Q : 규칙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자. 어느 가정이던지 규칙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이지. 너희도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이번 질문이다.

A : 네, 있어요. 좀 작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밖에 내다버린다는 식기세척기를 청소하는 일 같은 것들은 식구들이 번갈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집안일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와 여동생은 2층에 살고, 부모님들은 아래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2층을 맡고 부모님은 1층을 맡고 있죠. 이건 작은 약속이에요.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죠. 이점은 매우 중요해요. 어디에 특별히 쓰

여 있거나 또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저희 가정에서 이는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누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와 여동생 사이에도 가끔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해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심드렁하게 식탁에 앉아있게 될 뿐이죠.

Q :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그걸 말하렴”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뜻이니?

A : 네.

Q :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A : 네, 우리 문제를 부모님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죠.

Q : 그러면 귀가시간이나 취침시간의 문제는 어떠니? 아니면 숙제를 끝내야 하는 시간 같은 것 말이다.

A : 예전에는 제가 일찍 잤지만, 지금은 엄마보다 늦게 자요. 그러나 저녁 식사는 7시나 7시 30분쯤에 모두 같이 하죠. 아침식사도 특별히 늦지 않는 한, 대개의 경우 같이 하는데, 우리는 한 20분 정도 같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모두 약간씩 일찍 일어나요.

Q : 그것 참 바람직한 일이구나. 만일 네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거기에 영향을 주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희 부모님은 항상 엄격하게 그 규칙을 고수하시는 편이니?

A : 네,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나, 제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는, 저에게 자유가 허용되는 편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는 항상 엄마와 의견이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Q : 부모님은 원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신다.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제공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A : ... 그러니까, 아마 음... 항상 어딘가에 참여하고 창조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는 이전에 항상 그림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어디론가 떠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죠. 이점이 저에게 제공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해요. 제가 예를 들어 관용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야 어느 부모님이 든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창조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이점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죠.

Q : 그 말은, 네 여동생도 창조적이라는 뜻이니?

A : 네,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요.

Q :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지?

A : 네.

Q :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지?

A : 2년 반이요. 그러니까 지금 14살이에요.

Q : 좋다. 이제 가족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너는 학교가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준다고 생각하니?

A : ... 네, 원칙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해야하고, 학교는 거기에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해야 하고, 또 타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법, 그리고 공동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단순히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 교양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더 나아가 학교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를 떼면 같이 소풍을 가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학교는 이후의 인생을 준비시켜주는 것 같아요.

Q : 그래, 인생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이지.

A : 그렇죠.

Q : 학교는 성숙한 시민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전수해야 한다. 너는 이런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느끼니?

A : 특별히 제 학교에서요?

Q : 그래, 그러니까...

A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Q : 아니, 특별히 너의 느낌, 그러니까 너의 느낌을 이야기해주면 된다.

A : 어쨌든 제 생각에, 어떻게 국가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또 내가 투표하러 가면 어떻게 내 의사를 결정하고 내 표가 어떻게 행사될 것인지를 아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 말이지요. 이점은 학교가 가르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걸 저도 학교에서 배우니까요. 이런 건조한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옳다고 생각해요.

Q :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국가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너희들에게 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이지?

A : 네, 저희는 참 많이 토론할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종교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내 생각에도 그렇구나. 학교의 규칙은 어떠한지? 집에서 보아야 당연히 규칙이 많겠지.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것이 있지?

A : 네, 예를 들어서 5학년이나 6학년 이전에 중요한 것으로서 선생님을 존중하라는 학교의 규율이 있지요. 물론 이것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이 학교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권위, 바로 그거죠. 선생님들도 적당한 권위는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학교에는 채플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든가 하는 다른 규칙들도 있기는 해요.

Q : 그런데 네 생각에 혹은 너희 학생들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규칙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영향을 주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A : 네.

Q : 그래?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자. 모든 규칙에 대해서 그러니 아니면 많은 규칙에 대해서 그러니?

A : 올해 금연 교칙이 생겼어요. 그러나 학생이나 교사나, 쉬는 시간에 잠깐 담배 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는 공

적인 규칙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Q : 이점은 너희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A :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겼을 테니까요.

Q : 그럴 수 있겠다. 이제 다른 이야기. 네가 좋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분은 어떤 분이시?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분일까?

A :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춘 분이죠. 저는 어느 선생님에게 가서 그분과 친구 같은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융통성이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권위를 가지고 흥미롭게 이야기하곤 하죠. 저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요.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토론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지요.

Q :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A : 맞아요.

Q : 그러면 네가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시?

A :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선생님들요. 그분들은 똑 같은 교재를 놓고, 모든 학생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보게 하시죠. 내용을 개선한다든가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친절한 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정된 생각 때문에 수업이 그리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Q :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니?

A : 좋은 선생님이 더 많죠. 자연과학 분야에는 여전히 매번 똑 같은 교재를 펼쳐놓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매번 자주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Q :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니?

A : 그렇긴 하죠. 그래도,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더 설명해달라도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독일어

시간에는 가능해요. 어떤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토론하곤 하죠. 그러면 수업이 좀더 흥미롭게 되죠.

Q :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동료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인기있는 친구들이 있고 인기없는 친구들이 있겠지. 인기있는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 네 생각은 어떠니?

A : ...네, 글썄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모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 있어서 튀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에 안 띄지도 않죠.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방향에서요. 그들은 중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을 잘 알고 있죠.

Q :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A : 글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그들은 재미있는 친구들이에요. 유머가 풍부하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인기를 누리죠. 아주 유머러스하죠. 제가 보기에 인기있는 친구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인기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아이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이죠.

Q : 그러면 거꾸로, 인기없는 학생들은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니?

A : 왜냐하면 그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냥 그래요. 이들은 쉬는 시간에 구석에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히죽히죽 웃고, 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만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죠. 또 다른 유형은 수업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버리는 학생들,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기 힘들어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항상 다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Q : 어떤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혹시 생각나는 점이 있니?

A : ... 수업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글썄요, 잘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기가 너무 어렵네요. (휴지)

Q : 예가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다. 예를 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니까.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네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니?

A : 학교 밖에서 만날 시간이 있는 경우에,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요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극장에 가거나 스케이트를 타러가거나 하죠. 그러니까 같이 휴가를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냥 같이 요리하고 같이 영화보고 뭐 그런 거지요.

Q : 너희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니까 저녁에 어디로 가고 혹은 어떤 영화를 보고 따위를 결정해야 할 때,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지?

A :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주 아주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항상 어떤 제안을 하게 되요.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개의 경우, 뭐 휴가를 어디로 갈까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죠.

Q : 다른 사람보다 결정을 자주 내리는 친구들의 경우, 보통 이들이 특별히 좋은 제안을 하게 되니?

A : 네, 그래요. 그 친구들이 대개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나 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동등하고 그래서 같이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 부모님도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친구도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학교도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너의 부모와 비교해 볼 때, 너의 친구는 무엇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니?

A : 제 친구와는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수다를 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혹은 저를 화나게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조금 있다가 귀를 닫아버려요. 제가 10분 이상 떠들게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죠. 물론 제 친구들과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우리는 토론을 많이 하지만, 부모님과 싸우지 않을 문제도, 글썽요, 친구들과하고는 싸우게 되요. 물론 많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친구에게서 얻게 되죠.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Q : 예를 들면?

A : 미래, 혹은 대학입학 자격고사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문제요. 부모님은 항상 „일단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친구들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 혹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죠.

Q : 방금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개 어떤 문제들 때문이지?

A :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을 수 없는 경우, 전체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생일파티를 계획하고 어떤 친구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바로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경우, 갈등이 생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Q :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원하지 않은 경우 말이니?

A : 네, 그때 정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Q :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너희들은 지금 친구이잖니.

A : 아직은요. (웃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개입해서 말하죠. „너희 둘은 이미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봐. 우리가 밖에서 충분히 보았고 이제 우리 생각을 이야기할게“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결정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다시 친해지게 되요.

Q : 그렇게 나중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너의 동갑 친구들이니, 아니면 부모님이니?

A : 아뇨, 친구들이죠. 제 친구들 중의 하나지요. 둘이 싸우면 빨리 보이잖아요.

Q : 물론이지. 그런데 그러면 안 보이는 데에서 남을 욕하는 거는 아니니?

A :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개입할 것이냐일 뿐이죠..

Q : 이제 친구 문제는 이정도로 마무리하자.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

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니?

A : ... 친구에게요. 전화로 빨리 이야기해야죠.

Q : 너에게는 어떤 일이 그런 좋은 일일 수 있지?

A : 글썽요, 아주 여러가지일 수 있겠죠. 친구와 아주 멋진 경험을 했다던가, 뭐 그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여행을 갔는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다던가, 아주 재밌는 사람을 만나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Q : 그러면 전화를 하니?

A : 네, 꼭 전화해야죠. (웃음)

Q :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경우,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이야기하겠니?

A : 그런 경우도 친구에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중에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제 친구들은 다양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친구는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것이다, 혹은 용기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Q : 그러니까,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부모님에게 보다는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지?

A :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Q : 그러면 네 생각에 „아냐, 이 문제는 부모님에게 물어보아야겠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지?

A : 음, 제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요. 사실 부모님이 이를 알아차리시기도 해요. 제가 걱정이 있으면 이를 아시죠. 그러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상의해요. 그러나 다른 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마 학교 문제를 제외하면, 부모님과는 잘 상의하지 않죠.

Q : 누구와 제일 자주 다투니? 생각나는대로 말해봐라.

A : 제 여동생과요.

Q : 좋다. 이제 매체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이제 아주 다양한 매체와 의사소통도구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플레이스테이션, 인터넷게임, 책, 잡지, 영화, 음악. 이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지?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 줄까?

A : 네.

Q : 텔레비전이 첫번째였다.

A : 텔레비전은 시간이 있으면 가끔 봐요. 휴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런 인간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가끔 오후에 두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기운을 차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Q : 인터넷은?

A : 원칙적으로 아주 아주 많이 해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하니까요. 이메일 같은 것으로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위해서 인터넷도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소통도구만은 아닌 거죠.

Q :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나? 받은 정보고, 받은 채팅이고?

A : 네, 하여간 많이 사용하죠.

Q : 하여간 많이? 정보 쪽으로? 아니면 채팅 쪽으로? 아니면 둘 다 합쳐서?

A : 합쳐서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죠.

Q : 하루에 몇 시간 정도?

A : 지금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전용선이 없거든요. 그러나 보통 한 시간, 아니면 한시간반, 그 정도요.

Q : 핸드폰은?

A : 핸드폰은 좀 덜 쓰는 편이고요, 물론 써야할 때는 쓰지만요.

Q : 게임하려고 쓰니, 아니면 전화를 하려고 쓰니?

A : 필요할 때 전화하려고요. 물론 집으로 걸 때는, 유선으로 하고요.

Q :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인터넷게임은?

A : 아뇨, 전혀 안해요.

Q : 책은?

A : 네. 아주 좋아하고 많이 읽죠. 그러나.

Q : (말을 가로막으며) 어떤 책을 읽니?

A :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학교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읽으라고 하는 것과 수업에 관계되어서 흥미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른 책들이죠.

Q : 어떤 책들?

A : 네, 글썬요, 판타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나머지 다요. 그러니까 뭐 소설 같은 거...

Q : 잡지는?

A : 네, 잡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읽어요. 신문도 항목에 있나요?

Q : 아니.

A : 저는 신문을 읽고요, 가끔 매거진 같은 것을 보죠. 물론 많이 보지는 않지만요.

Q : 정치 매거진? 아니면 패션, 아니면 음악 매거진?

A : 정치요.

Q : 좋다. 극장은?

A : 네, 가끔요.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요.

Q : 친구와 가니?

A : 네. 가끔 가족과도요. 그러나 친구와 갈 때가 훨씬 많지요.

Q : 혼자 갈 수도 있지. 나는 혼자 즐겨 영화를 본단다. 그걸 아주 좋아하지. 그리고 음악은?

A : 가끔 다른 일을 하면서요. 숙제 같은 거 할 때죠. 저에게는 물론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앉아서 다른 일 안하고 긴 CD를 두 시간 동안 듣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편이죠.

Q :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니?

A : 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아니고요. 숙제할 때 아니면 청소할 때, 뭐 그런 때죠.

Q : 좋다. 그런데 이 다매체 사회에서 실제적 인물이건 가공적 인물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네가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니?

A : ...글썬요, 저에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

이 없어요.

Q :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마돈나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물론 그때 나는 많이 어렸기는 했지만.

A : 아뇨, 그런 쪽으로는 아니에요. 전혀요.

Q :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니? 어떤 모범적인 인물, 그러니까 네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있니?

A : 있어요. 아주 완전한 모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친구들 중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친절히 도와줘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늘 일등이죠. 엄청난 거라고 봐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Q : 그러면 네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니? 현실적 인물이건 가공적 인물이건 말이다. 그러니까 “아냐,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인물 말이다.

A :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형은,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신을 좀 낮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항상, 아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냐, 나는 대화에서나 갈등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Q :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니?

A :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토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야죠.

Q : 그러니까 불관용, 그런 것 말이니?

A : 네, 그런 방향이요.

Q : 좋다. 이제 사회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매체들이 사회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이지. 예전에는 물론 매체도 아주 적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라디오방송 하나 정도였을 게다. 이제는 매체가 아주 많아졌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엄청

나게 늘어난 데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이를 통해 사람들의 교류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니?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혹은 무엇이 변한 걸일까? 변한 것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는 것 같으니까.

A : 네,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아요. 타인과 접촉하는 기회도 많아졌고 정보도 빨리 접하게 되었죠. 이 정보사회에서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원칙적으로 모두 알 수 있죠. 혹은 적어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매체는 현실을 많은 부분에서 왜곡하기 때문이죠. 이 매체에 의한 현실의 왜곡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매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그리고 사회는 그것에 의해서 변해나가죠. 사회는 그것을 통해 점점 개방적이 되지만, 글썬요, 저는 정보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는 말하기가 힘들네요.

Q : 아니다. 이 질문은 너의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매체가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을 서로 떼어낸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였다.

A : (말을 가로막으며) 그러니까 어쨌든 반반이에요.

Q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있지. 그래서 그 때문에 너희들이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란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미래의 네 꿈은 무엇이니?

A : 미래의 내 꿈이라...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가정을 갖는 일이지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는 친구를 계속 옆에 두는 것이요. 자신을 지지하는 친구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행복한 것,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행복한 것 말이지요.

Q :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거니?

A : 제일 하고 싶은 공부는 정치학인데요, 글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치른 후에 생각해 보아야죠.

Q : 어디서 대학 공부를 하려 하니?

A : 여러 나라에 가려고 지원해 놓은 상태예요.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등이요.

Q : 그것 참 좋은 일이구나. 너는 부모님이 네가 너 자신에게 바라는 것과 뭔가 다른 것을 너에게서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A : 아뇨.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부모님은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제가 스스로 재미 있어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죠.

Q : 그것 참 좋은 일이구나. 너에게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 있으니.

A : 물론 그렇죠.

Q : 일반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사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A : 저의 부모님이요. 물론이죠. 그리고 학교도요.

VI. 스웨덴 청소년 면접조사 자료

스웨덴사례 #1

대상자 : 김나지움 3, 남, 18세, 형제(1남4녀), 부학력(대졸), 모학력(대졸)

Q :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 잘 모르겠지만 월급이 대략 25,000 쿠르네 썬 되는 것 같아요. 엄마와 동거하는 분은 대략 세전 38,000 크루네 정도 될 것 같구요.

Q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A :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요.

Q : 집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A : 잘 모르겠지만 책장 3개에 대략 500권정도 있을 것 같고 여름별장에 비슷한 수량의 책이 있어요.

Q :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A : 자주 읽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책을 잘 읽어요. 그래도 1년에 4권 정도는 읽는 편이지요.

Q :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냅니까?

A : 학교 끝나고 저녁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휴일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집에 있는 일이 많아요. 가끔 (내 동생이 학교에서 연극반에 있는데) 공연이 있을 때는 보러가기도 해요. 그리고 봄방학이나, 가을방학 1주일동안은 꼭 가족전체가 해외여행을 함께 가거든요.

Q :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 노인들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부 얼빠진 사람 같아요. 젊은 층인 20 30대 사람들은 조금 낫지요. 그래도 별로 흥미없어요. 불가리아에 있는 휴양지 씨니비치에 가지는 않잖아요. 전부 들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코멘트: 노인 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노인 공경, 존중 등은 전혀 하지 않음)

Q : 친구관계에 대해서 말해 주시겠습니까? (친한 친구 네명에 대해 물음)

A : 친구 A,B,C는 남자이고 D는 여자입니다. A,C,D는 학교에서 만나 친하게 되었고, B와는 어떻게 친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A와 C는

고등학교, B와 D는 중학교 때 처음만났고, 우리는 주로 집 밖(시내), 학교등에서 만납니다. A와 C와는 공동취미가 있고, B와 D와는 공동취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성적은 A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보다 못합니다. B를 제외하고, A는 취미, 진로를 고민할 때 가끔 영향을 받으며, C는 운동에 관하여 충고를 해줍니다. 또 D는 이따금 지혜로운 충고를 해줍니다. 친구들과의 공통관심사는 A와는 음악, B와는 예전엔 컴퓨터 게임, 지금은 밖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며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C와는 음악, 운동들을 함께하며, D와는 밖에서 함께 즐기는 것, 춤추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 만나고 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점은 A와만 헬스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

A : 공유하는 미디어는 핸드폰, 문자 보내기, MSN인데 B와 D와는 문자보내는 회수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은 Facebook 이나 Myspace 등을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30개 정도 보내고 20개 정도 받는데,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친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는지 등 변수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s이나 internet을 통해 가능한 많은것을 교류합니다. 휴일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친구 집에서나 혹은 Pub 등에서 만납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합니다. 친구들과는 물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학교생활, 음악 취미 등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간에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한 목표 등이 친구 것 보다 못하든 하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전에 저 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마음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함께 성적이 별로 향상된 게 없었어요. 결국 친구와의 경쟁관계가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A : 믿을만 하고, 변하지 않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 외모가 중요하지요. 하하.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걸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그럼요. 여성친구가 있어요.
- Q : 어느 정도 사귀었습니까?
 A : 서로 알고 지낸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한명이 아니 여러 명이 있어요. 코멘트: 중학교부터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5 6년 친구관계인 셈이다.
- Q : 부모님 등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해요?
- Q : 주로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A :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어떤 여자친구이냐에 따라 다르죠. 여자 친구들과는 늘상 하는 것 들을 해요. (코멘트: 이성친구의 경우 데이트, 키스, 성관계 등을 스웨덴 학생들은 일상적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Q :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까?
 A : 여자 친구가 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여자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훨씬 좋거든요. 여자친구가 나에게 힘내라고 해요.
- Q : 방과 후나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A : 밖에 나가서 파티하고, 음악감상 등도 함께 하고 그러죠.
- Q : 토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보내나요?
 A : 친구와 놀거나, 함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외를 다니거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등. (코멘트: 스웨덴에는 이미 5일 수업이 법제화되어 있음)
-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A : 인간관계가 좋고(사교성이 좋은) 외향적인 성격의 학급친구 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입니까?

A :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아무 쓰잘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학우. 또는 자기 생각만 말하고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성격의 학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까?

A : 무엇이든지 싸움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까?

A :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가족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에 최고 성적을 선사하면 가족에도 좋으니까.

Q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중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 누나..... 아니면 엄마가?

Q :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또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A : 음악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듯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이 관심을 보입니까?

A : 예, 엄마가 친구 관계 등에 약간 관심을 보지요. 하지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학교생활을 잘 하는 친구들과 사귀라고 하실 정도예요. 특별할 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는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예, 실력있고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정렬적이기도 하시고.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죠.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A : 싫어하는 선생님. 예, 있어요. 그 선생님은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 선생님은 정말 힘들어요. 약간 비뚤어진것 같아요. 사람들을 믿질 않아요.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 A : 예, 절대적으로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요.
-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 A : 똑똑하고 수업 잘하고 하시는 선생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 Q :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애석하게도 아무도 없지요.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 무엇보다 공부와 성적이지요. 9년 의무교육이 친구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A :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 12년씩 학교에 다녀야해요? 그리고 성적도 안 좋고. 공부할 동기부여를 못받겠어요.
-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 A : 댄스 프로젝트. 우리는 음악시간에 춤을 배우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매우 재미있고 정말이지 뭔가 창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 Q :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참여여부는?
- A : 아니요. 아, 하나 있네요. 음악창작(작곡)은 내가 잘하니까 음악시간에 더 많은 기회를 갖아요.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 모두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Q : 특별활동을 합니까?
- A : 아니요. 특별히 과외 활동은 안해요.
- Q : 학원에 다닙니까?
- A : 아니요. 특별히 학원 등은 안다녀요.
- Q : 학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A : 학원 등에 다니면 성적은 더 오를것죠. 낙제성적은 없고, 대략 미 정도의 성적이고, 우가 3개, 수가 1개 정도 있어요.
- Q : 진학에 대한 관심은?
- A : 음악과 연관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Q :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A : 예.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Q :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까?

A : 예.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Q :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A : 잘 모르겠지만, 음악 관계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지는 않고, 돌아가신 아빠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맘은 있어요. 교장선생님 말이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Q :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A : 예, 방학때, 병원에서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일을 찾고 있지만, 찾기 힘들네요.

Q : 누가 용돈을 주시나요? 아니면 혼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을 버나요?

A : 국가의 학자금지원처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동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Q :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벌었습니까?

A : 청소부로 일했을때 시간 당 76kr을 벌었습니다.

Q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A : 옷사고, 파티하고, 운전교습, 외출, 등등에 사용했습니다.

스웨덴사례 #2

대상자 : 김나지움 3, 18세, 남, 형제(3형제), 모와 동거, 모학력(대졸)

Q :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 엄마 23,800kr(세금 공제 전 금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Q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입니다.

Q : 집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A : 대략 집에 500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Q :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A : 다들 많이 책을 읽는 편인데 나는 아닙니다.

Q : 학생 가족은 한달에 독서를 얼마나 하나요?

A : 2권정도 읽습니다.

Q :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냅니까?

A : 나, 엄마 그리고 남동생과 영화나 연극을 보러 자주 가곤 하고 외식도 합니다.

Q :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 다양하다고 봐야죠.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니까 다 틀리죠.

Q :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A : 친구 A는 남자이고, B는 여자입니다. 둘 모두 시내나 집에서 만납니다. A와는 학교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고, B와는 친구 단체와 어울리다가 가까워졌습니다. A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B는 다른 친구 저녁식사 때 만났습니다. B와는 공동취미가 없고, A와는 음악이 있습니다. A의 성적은 나보다 못하고, B는 나보다 많이 낮습니다. A에게는 진로 등의 선택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때. 그리고 음악 등의 취미 등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B는 학교 내에서 성적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A와의 공동관심사는 음악, B는 음악과 영화입니다. B와 나는 성격 면에서 비슷하고, A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A와 공유하는 미디어는 집전화, 핸드폰이고 B와는 핸드폰입니다.

인터넷은 도움이 별로 안 되지만, 아무튼 Myspace 와 Facebook 등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문자는 20개 정도 보내면 30개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Offline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같은 대화를 실제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친구들과 밖이나, 집, 학교에서 만납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도합니다. 나는 내 역할에 만족합니다. 친구와의 이야기 주제는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통 음악이나 스포츠 이야기 등을 합니다. 나는 점수(성적)로 친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걱정이 됩니다.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A : 변하지 않고, 사려깊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사회성, 성격, 마음이 맞아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여자 친구 있습니다.

Q : 만남지 얼마나 되었고, 주로 무엇을 하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고,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습니까?

A : 우리는 1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적인 만남을 갖고 우리 부모님은 친구에 대해 별로 여념을 두는 같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성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 방과 후나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A : 영화, 음악, 커피 마시고, 파티등을 합니다.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A : 외모, 그리고 학교성적 등 모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누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입니까?

- A :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납니까?
- A : 피곤하고, 귀찮다보면 서로 신경이 예민해 말 다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곤우리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 Q : 부모님은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A :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귀는 친구의 선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엄마는 내가 사귀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은 알고 계시지만,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잘 알지 못하십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 몇 분을 존경합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수업을 재미없게 하는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 A : 선생님이 좋으면 학생들도 성적도 향상됩니다.
-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 A : 무언가를 전수해 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 Q :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 성적입니다.
-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A : 전반적으로 만족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었을거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 A : 잘 모릅니다.
- Q :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A : 아니요.
- Q :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 A : 아니요.
- Q :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습니까?
- A : 아니요.

- Q : 학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적은 어떻 습니까?
- A : 학업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중상정도입니다.
- Q : 진학에 대한 관심은?
- A : 음악관계로 종사하고 싶습니다.
- Q :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 A : 유학가고 싶습니다.
- Q :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까?
- A :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 Q :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A : 잘 모르겠지만, 엄마 직업(유물보존관리)은 싫습니다.
- Q :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 A : 여러 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 Q : 용돈은 주로 누가 주나요?
- A : 주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과 국가학업보조금을 씁니다.
- Q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A : 의류 구입, 외식, 등 그리고 향수 등을 구입했습니다.

스웨덴사례 #3

대상자 : 중3(9학년), 여, 14세, 형제(2남4녀), 양부친모, 부학력(대졸), 모학력(대졸),

Q :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 엄마는 25,000 크루네. 의붓아버지는 40,000 크루네 수입 정도 됩니다.

Q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A : 일반주택소유 하고 있습니다.

Q : 집에 책이 얼마나 있고,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A : 여름별장에 책장3개 등에 1000여권의 책이 있습니다. 집에는 책장 4개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매일 독서를 합니다. 저도 한달에 2~4권 정도는 책을 읽습니다.

Q :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냅니까?

A : 저녁에는 거의 아무 것도 안합니다. 휴일 등에는 외식을 합니다. 집에 잡담하고, 여름별장에서 가끔 갑니다. 봄, 가을방학 등에는 해외여행을 떠나고, 여름휴가에도 외국여행 등을 합니다.

Q :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A : 친구 A,B,C,D는 모두 여자입니다. A와는 학교, B와는 시내나 집, C와는 친구집, D와는 학교에서 주로 만납니다. A와 D는 학급친구이고, B는 여름캠프 친구, C는 연극반 친구입니다. A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B와는 여름캠프 가는 기차역에서 만났습니다. C는 학우를 통해 만났고, D와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A와는 연극에 공동관심이 있고, 미적인 시각이 비슷합니다. B와는 연극, 정치, C와는 연극, 영화, D와는 뜨개질, 컴퓨터 게임에 공동 취미가 있습니다. 성적은 C가 나보다 낮고, A,B,D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A에게는 학업 등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특별히 없습니다.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와는 서로 같은 성향이라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관심 갖도록 합니다. C는 사회적 시각, 미래지향성 등

영향을 줍니다. D에게는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동관심사는 A와 B와는 연극, C와는 비슷한 것이 특별히 없고, D와는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또 A와는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B와는 가족배경이 거의 같습니다(재혼한 엄마와 의붓아버지). C와는 음악취향, 그리고 우리오빠와 나이가 같은 오빠가 있습니다. D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친구도 나처럼 막내입니다.

Q : 친한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요?

A : 공유하는 미디어는 A와는 인터넷, MSN, 핸드폰, 집 전화입니다. B와는 주로 만나지만,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합니다. C와는 만나고, 각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그림일기를 서로 방문 합니다. 인터넷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일주일에 4번정도 발송하고, 이틀에 한개 정도 받습니다. 친구들과는 휴일에 집에서 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관에 갑니다. 의사결정은 친구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결정하는 편입니다. 주로 듣고 도닥여주고, 이끄는 편입니다. 서로 이끌기를 좋아하지만 서로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역할에 만족합니다. 친구들과는 학교관계 및 일상생활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나는 성적 때문에 친구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의 인생목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성적도 걱정이 되지만, 직접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의 학교성적 등에도 내가 불안, 초조해 하지는 않습니다.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A : 정직성. 듣고, 생각해서 자신의 견해를 똑바로 밝히는 친구.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 나에게만 이해를 구하고 자기는 아무 것도 안하는 친구는 싫습니다.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개성입니다.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이성친구 있지만, 주로 동성친구 입니다.

Q : 만난지 얼마나 되었고, 주로 무엇을 하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게, 성

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1년 정도 사귄 남자 친구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다른 친구들과 처럼 음료를 함께 자주 하지는 않고 만나서 주로 이야기 합니다. 같이 집에서 만날 때가 많고, 성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Q : 방과 후나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A : 주로 커피나 티를 마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그냥 함께 잡동사니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연극도 같이 하고, 연극도 보고 합니다. 저녁을 함께 해먹기도 합니다.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A : 신선한 애. 파티 때 주도하고나 담배 같이 피우는 등.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입니까?

A : 개인사생활 침해하는 애. 지저분하고, 건방지고, 성격이 못된애.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는 애를 싫어합니다.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까?

A : 다툰다든지 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정치에 대한 시각 등이 다를 때 다투기도 합니다.

Q :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A : 가족. 그 정확한 뜻의 해석은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중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 엄마 그리고 형제 입니다.

Q :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A : 친구들 입니다.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이 관심을 보입니까?

A : 엄마는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서로 잘 통하는 친구 중에서 차분한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십니다.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실력있고, 잘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성격이 좋으신 분. 그런 분 수업

은 모두 조용히 수업에 임합니다.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실력도 없는 분.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시는 선생.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은 분은 싫어합니다.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 물론. 영향을 줍니다. 내가 안좋아하는 선생님 숙제를 안하기도 합니다.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A : 자기분야에 실력이 있고, 사회어울리는 분, 마음이 통하는 분,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Q :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아니요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성적, 공부, 그리고 친구. 배우고, 공부하러 가지만 친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Q :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A :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A : 학교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과목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Q :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A : 아니요.

Q :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A : 예. 연극, 그리고 카페에서 무료봉사.

Q :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습니까?

A : 아니요.

Q : 학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A : 상위그룹입니다.

Q : 진학에 대한 관심은?

A : 환경분야, 지방정치, 연극,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
Q :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A : 예.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Q :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까?
A : 예.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Q :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A : 연극 혹은 신문방송,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음.
Q :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A : 자원봉사만 했습니다.
Q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A : 의류 구입, 외식, 등. 그리고 향수 등을 구입했습니다.
Q : 용돈은 주로 누가 주나요?
A : 엄마가 용돈을 주십니다.

스웨덴사례 #4

대상자 : 김나지움 2, 17세, 여, 동거가족(모, 두 자매), 부학력/직업(고졸/목공수), 모학력/직업(대졸/간호사)

Q :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 엄마 약23,000kr 아버지약 25,000kr정도 됩니다.

Q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A : 엄마, 아버지 각각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Q : 집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A : 정확히 모르겠지만, 책꽂이 5개안에 약 1,000권 정도있습니다.

Q :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A : 꽤 자주 읽으십니다. 엄마는 한 달에 3권정도, 나와 형제들은 한 달에 최고 1권정도 읽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Q :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냅니까?

A : 별로 없고 가끔 영화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 때,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방학 때는 가끔 아버지와 여행을 갑니다.

Q :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 글썄, 그 중 일부는 보수적 일 것이고 다른 여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Q :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 주시겠어요?

A : 친구 A,B,C,D는 모두 여자입니다. 친구들과는 주로 학교 또는 집에서 만납니다. A와는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B와는 고등학교 첫 학기 때 같은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C와는 교실에서 옆에 앉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D와는 서로 같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관계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A와 B는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C와는 교실에서 서로 가까이 앉고 나서, D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누군가의 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C,D와는 공동취미가 없고 A와는 산책을 한다거나 Tea time 을 갖는 면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에서 있어

서는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B와는 같은 영화를 보며 좋아하고 함께 밖에서 즐기고 파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적은 B와 D는 나보다 못하고, A와 C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A는 모든 면에서 많은 좋은 조언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B는 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헬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C는 정치, 사회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D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친구는 인간성이 좋아서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공동관심사로는 A와 나는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B와는 영화보고 함께 외출하는 것, C와는 잘 모르겠고, D와는 성향이 비슷합니다. 또 A와 나는 둘다 시골출신이고, B와 나는 둘다 예술가 기질이 있습니다. C와는 서로 이웃간에 살고 있습니다.

Q : 친구들과 공유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 친구들과 공유하는 미디어로는 핸드폰, 집전화, MSN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교 친구들을 사귀는 경험은 없습니다. Msn은 3개정도 보내고 5개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직접 교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sn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으로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휴일에는 친구들과 주로 누군가의 집에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만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함께 토론을 통해 결정을 유도합니다. 내가 주로 토론을 주도하며, 나는 내 역할에 만족합니다. 친구들과는 주로 남자들, 학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성적을 가지고 경쟁하진 않지만, 나는 경쟁해서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의 성적이 더 좋으면 내 성적이 나아지도록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워 집니다.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A :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사교성이 좋은 친구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예.

Q : 만난지 얼마나 되었고, 주로 무엇을 하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친구 들을 2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부모님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그냥 친구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대상의 친구인지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로 인해, 내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A : 사교성이 좋고 외모도 좋고 또 반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입니까?

A :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상식속에 있는 친구 아니면 별로 인간성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Q :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까?

A : 내가 얘기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지내는 애가 왕따를 당할 때 입니다.

Q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중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 부모님입니다.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이 관심을 보입니까?

A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친구 선택여부에 있어선 그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친구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잘 하며 지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 부모님들은 관여를 하는 편입니다.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있습니다. 그녀는 실력있고 사려깊게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업능력도 뛰어납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있습니다. 그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싸이코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학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주 사적인 것인데, 학생들과 공유를 할려고 합니다. 어떨 때 명칭한 대답을 할 때도 있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톨이인 것 같습니다.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 A : 미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수업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 A : 실력 있고 수업 능력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Q :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 A : 없습니다, 선생님과 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 공부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꽤 유쾌한 일입니다.
-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A :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 A : 가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 때문에.
- Q :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A : 아니오
- Q :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 A : 아니오
- Q :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습니까?
- A : 아니오
- Q : 학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A : 중상정도입니다.
- Q : 진학에 대한 관심은?

A : 사회과학 분야 어디에선가

Q :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A : 물론, 그럴 것입니다.

Q :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까?

A : 물론, 할 것입니다.

Q :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A : 우리 부모님들처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에, 여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Q :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A : 얼마전에, 의료기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Q : 용돈은 누가 주나요?

A : 국가의 학자금 보조와 일하는 것으로부터

Q : 시간당 얼마를 버나요?

A : 80 kr.

Q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A : 옷, coffeetime, 그리고 파티에 사용했습니다.

스웨덴사례 #5

대상자 : 김나지움 1, 16세, 여, 형제자매(1남2녀), 부학력/직업(초졸/운전),
모학력/직업(고졸/실험실 보조)

Q :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 엄마는 28,000kr , 아버지는 30,000kr정도 됩니다.

Q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A :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Q : 집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A : 책은 책꽂이 2개 분량 정가 있고 엄마는 책을 자주 읽습니다(한 달 평균 2권). 그러나 아버지는 좀 적게 읽습니다(한 달에 1권정도). 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한 달 평균 2권).

Q :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냅니까?

A : 저녁엔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TV를 봅니다. 절기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엔 자주 피크닉을 가거나 친척을 방문합니다. 방학때 스키를 타러갑니다.

Q :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A : 노인들은 자주 젊은이들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 줄래요?

A : 친구 A와 B는 여자입니다. 친구들과는 학교나 집에서 주로 만납니다. A와는 그녀의 보모가 우리집 가까이에 살았었고 그 이후 그녀가 나와 같은 반이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B와는 다른 친구를 통해 친해졌습니다. B와는 처음 만난곳이 기억나지 않고, A와는 같은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공동취미로 A와는 극장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같은 교회의 청소년 그룹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B와는 극장가고 커피타임 갖는 것 등입니다. 성적은 A와 B 둘다 나보다 낮습니다. A에게는 교회에서 청소년그룹속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B에게는 영향을 받

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둘 모두와의 공동 관심사는 극장가는 것과 댄스입니다. 또 A와는 먼 친척, 8촌 관계입니다.

Q : 친한 친구들과 공유하는 미디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공유하는 미디어는 주로 인터넷이고,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귀는데 인터넷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5개 보내고 5개 받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남의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sn의 주제는 만남과 무엇을 했는지 등등이고 가끔 깊이 있는 문제도 다룹니다. 휴일에는 친구와 카페, 집,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납니다.

Q : 친구들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의사결정은 두 사람이 주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 중 나는 주로 듣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역할에 만족합니다. 친구들과는 주로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Q : 성적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나요?

A : 친구들과 나는 성적을 가지고 약간의 경쟁을 합니다. 공부에서 뒤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성적변화에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반에 난독증이라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두 학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Q :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A : 상호간에 서로 사려 깊어야 하고 항상 상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개성입니다.

Q : 이성친구가 있나요?

A : 예,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Q : 만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A : 한 학년동안 만났습니다.

Q :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나에게 건전한 친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이상해하며 걱정할 것입니다.

- Q : 주로 무엇을 합니까?
A :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커피타임도 갖곤 합니다.
- Q :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까?
A : 친구 한 명은 학교 생활에 불성실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가끔 무단 결석하게 됩니다.
- Q : 토요일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A : 무응답.
- Q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A : 자신감이 충분해야 되고 외모 또한 중요합니다.
- Q :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입니까?
A : 사교성이 없고 자신감도 없는 성격입니다.
- Q :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중 누구와 제일 가깝습니까?
A : 형제들
- Q :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A : 모르겠습니다.
- Q :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님이 관심을 보입니까?
A : 부모님들은 내 친구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나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가끔 가족 피크닉 갈 때도 친구들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괜찮은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부모님들은 내 친구들에 대해 관심이 큼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들을 존경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격 하나 하나를 존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을 덜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으로서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 Q : 선생님과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 아닙니다.
- Q :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A : 수업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학생들을 관심 속에 대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모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A : 아니오

Q :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공부와 친구관계

Q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A :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의 잠재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 선생님은 나라는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Q :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습니까?

A : 학교라는 장소가 배움이 있고 사람과 만남이 있는 장소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Q :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Q :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A : 교회에서 청소년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이 있습니까?

A : 아니오

Q : 학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A :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 중간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더 올려야 합니다.

Q : 진학에 대한 관심은?

A : 예술가 또는 저널리스트. 작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Q :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A :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Q :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까?

A : 예.

Q :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A : 예술가 또는 저널리스트. 작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Q :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A : 캠핑장에 사무요원으로 일 했었습니다.

Q : 용돈은 누가 주나요?

A : 국가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Q : 시간당 얼마를 받나요?

A : 70 kr/h.

Q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A : 여름방학때 번 돈으로 Ipod 샀습니다.



VII. 부 록



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조사내용

I. 인적사항 및 가족배경

※ 부모가 아닌 경우, 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 구분

(1) 형제자매수 () 명

	관계/성별	나이(연도)	학교/학년	관계/친밀도(대화, 놀이상대...)
본인				
형제자매1				
형제자매2				
형제자매3				

※1 자기 방을 가지고 있나요? 형제들의 방은?

(2) 가족배경

	동거 여부	학력	직업	관계성, 친밀감 (대화, 고민 상담 등)	교육방법/기대, 공부에 대한 주문, 관심, 공부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말	가사참여, 교육참여
아버지						
어머니						
기타 동거가족1						
기타 동거가족2						
기타 동거가족3						

※ 1 학교 및 기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질문에서 삭제하고, 질문할 경우, 인터뷰의 중간 또는 후미에 가서 함 /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질문지로 대치

- ① 가정의 소득수준(가정형편) - 집소유여부 등 또는 위 ※1로 간접 판단 또는 인터뷰 후미 직업에 대한 관심사 질문시.
- ② 집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또 책을 얼마나 읽는지?
- ③ 부모님과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저녁에 어떻게 함께 보내는지?
- ④ 노인에 대한 인식 :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상(이미지)·인식에 대하여.

II.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

	1	2	3	4	5
성별					
친구의 종류(학교친구, 학원 친구, 교회, 기타 동네 친구 등)					
사귀게 된 동기, 친구의 요건(성적, SES, 취미 등)					
사귀기 시작한 시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취미					
친구들의 성적은? 동일 or 이질 집단					
친구의 영향(공부, 취미, 진로, 장래상 등)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타 친구들과의 유사점					
공유하는 미디어(핸드폰, 인터넷, 문자, 채팅, 미니홈피) 예) - 말 대신에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 미니홈페이지(싸이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이는 학교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교우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는가?					
- 하루 문자발송, 수신 회수 - off line 친구와 on line 친구가 동일한가? 주고 받는 내용					
주로 만나곳(시기별:주중, 주말, 생일파티,					

여행, 방학 중, 시험 후, 평소 등)					
가정배경(가정형편, 부모의 직업·학력)					
친구들 사이의 의사결정관계: - 돌아가면서 정한다/각자 의견을 내놓고 의견을 나눈다/한두명이 의견을 내놓고 남들은 따라한다. - 또는 친구사이에서의 자신의 위치(역할)에 대하여(예: 리더 역/분위기 메이커 역/추종자 역 등등)					
위의 친구 사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 여부(하고 싶은 역할)					
친구들과의 대화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의 화제거리 등					
상급학교 진학(또는 공부)와 친구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공부/진학 의욕, 친구의 공부/진학 의욕) :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친구의 학력(공부수준)에 대하여(마음에 걸리는지, 아닌지, 어떤 친구, 친한 벗의 학력이 마음에 걸리는지) 등.					

- ① 마음에 맞는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위의 친구들의 특징을 말해도 좋음)
- ② (위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친구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모, 말솜씨, 성적, 성격 등)
- ③ 위 표에 **이성친구**가 있는지, 없다면, 위 표 이외에 이성친구가 있는가?
 - (③-1) 있다면 어느 정도 사귀었는지, 부모님 등 주변의 반응, 주로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 (③-2) 없다면 앞으로 사귄 생각은 있는지, 또는 그러지 않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
- ④ **방과후/휴일/놀토**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및 내용(주로 무엇을 하는가?)
 - ※ 놀토에 주로 하는 것 / 매주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 어떨지 (학원을 더간다. / 집에서 공부한다/그냥 논다/부모님들께 함께 시간

을 보낸다.)

- 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 ⑥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인가?
- ⑦ 친구와 싸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 싸움이 일어나는가?
- ⑧ 생활을 공부, 취미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중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사람)
- ⑨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간섭/관심 (부모에 의한 간섭의 유무 / 간섭하는 경우 / 부모가 원하는 친구 /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III. 교사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

-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가?)
- ②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싫은가?)
- ③ 선생님과 관계에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질문변경
요망
- ④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되는가?(훌륭한 교사의 조건은?)
- ⑤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⑤-1)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⑤-2)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나에게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가?)
- ⑥ 기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교장, 교감 선생

님의 경우는)

- ⑦ 학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 및 성적, 친구, 교사와의 관계 및 역할모델 등)
- ⑧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진술요)
- ⑨ 학교생활이 재미있는지, 재미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미있는지?

IV. 기타 활동 및 사교육

- ①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참여여부
- ② 특별활동, 동아리활동여부, 외부동아리 활동 포함
- ③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학원, 과외, 교육방송, 인터넷방송 등)
 -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 이 때 성적에 대해서 물어봄.
- ④ 학원교사에 대한 생각, 학교 선생님과 학원선생님의 차이
- ⑤ 진학에 대한 관심(고등학생의 경우, 유학 및 대학진학,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에 대한 관심, 또는 인문계, 실업계 등)
- ⑥ 직업에 대한 관심 : 하고 싶은 일 (직업모델)
 -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이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
 - 혹시 그 직업이 부모님 직업과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그런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 식으로
- ⑦ 아르바이트 경험/용돈의 출처/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수입액 등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 978-89-7816-705-5 (93330)